

연구보고 2012-33

한국아동패널 2012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고 최적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아동에 대한 장기 종단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연구 성격상 개인이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제공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의 성장 과정을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 등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6년의 ‘한국아동패널’모형 개발, 2007년도의 예비조사 실시에 이어 2008년에는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을 구축하고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해 이루어지는 일반조사에 더해, 2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일부 패널에 대한 심층조사를 수행하였고, 3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당해 출생아 1,000명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횡단적인 자료를 추가로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어 2011년에는 4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올해 2012년에는 5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5차년도 조사는 만 4세가 된 패널 아동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변인을 다양하게 추가하여 언어, 사회성, 문제행동, 창의성 등의 검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심층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2012년 한국아동패널 사업보고로, 5차년도 연구사업의 내용과 방법, 경과를 제시하였고, 제2부에서는 2011년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수록하였다. 기초분석은 패널의 일반 특성, 아동발달, 부모됨, 육아지원 관련 주제로 구분하여 각 하위 변인별로 제시하였고 마지막 절에서는 1~4차년도 조사결과를 일괄 종단 비교할 수 있는 연도별 비교표를 포함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5차년도 패널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2012년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2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의 일반 공개를 실시하였고, 3차년도 자료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패널 연구사업을 홍보하고 자료의 가치를 알리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신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과 해마다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패널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연구가 행복한 아동기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에 활발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1부] 한국아동패널 2012 사업보고	13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II. 5차년도(2012) 연구 사업 경과	26
1. 5차년도 조사의 특징	26
2. 5차년도 조사 절차	28
3. 5차년도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31
4. 1~4차년도 기존 자료의 확산 노력	33
5. 향후 계획	35
[2부] 한국아동패널 2011 기초분석보고	37
III. 4차년도(2011) 기초분석 개요	39
1. 조사의 개요	39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	45
IV. 4차년도(2011) 조사 결과 분석	53
1. 일반적 특성	53
2. 아동발달 특성	106

3. 부모됨 특성	120
4.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140
5. 육아지원기관 이용특성	162
6. 육아지원정책 특성	183
V. 1~4차년도(2008~2011) 결과 간 비교	199
1. 일반적 특성	199
2. 아동발달 특성	208
3. 부모됨의 특성	211
4.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219
5. 육아지원정책 특성	228
참고문헌	231
Abstract	233
부록	235
부록 1. 5차년도(2012) 조사 안내문	236
부록 2. 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일정	238
부록 3. 4차년도(2011) 결과 추가분석 표	240
부록 4. 4차년도(2011) 면접조사용 질문지	247
부록 5. 4차년도(2011) 어머니대상 질문지	278
부록 6. 4차년도(2011) 기관조사용 질문지	294
부록 7. 4차년도(2011) 도구프로파일	305

표 차례

〈표 I-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17
〈표 I-3-1〉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18
〈표 I-3-2〉 권역별 표본 수	19
〈표 I-3-3〉 부모 대상 조사 유형 및 내용	21
〈표 I-3-4〉 아동 대상 조사: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22
〈표 I-3-5〉 교육·보육 기관 교사 대상 조사 내용	24
〈표 II-2-1〉 201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교육 일정	29
〈표 II-2-2〉 201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교육 내용	29
〈표 II-2-3〉 질문지별 조사 일정	30
〈표 II-2-4〉 조사원 간담회 실시 일정	31
〈표 II-3-1〉 1차년도 및 2·3·4·5차년도 패널의 표본 유지율	32
〈표 II-3-2〉 패널 조사 거절 이유	32
〈표 II-3-3〉 교육·보육 기관 조사 참여 현황	33
〈표 II-3-4〉 5차년도 권역별 패널 유실률	33
〈표 II-4-1〉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제 및 발표자	34
〈표 III-1-1〉 한국아동패널 2008~2011년 조사 참여율	39
〈표 III-1-2〉 일반적 특성	40
〈표 III-1-3〉 아동발달 특성	41
〈표 III-1-4〉 부모됨 특성	42
〈표 III-1-5〉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43
〈표 III-1-6〉 육아지원기관 이용특성	44
〈표 III-1-7〉 육아지원정책 특성	45
〈표 III-2-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가구 응답가구 분포	47
〈표 III-2-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48
〈표 III-2-3〉 3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결과	49
〈표 III-2-4〉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50
〈표 III-2-5〉 4차년도 최종 종단면 가중치 부여결과	51
〈표 III-2-6〉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구 수 및 가중치 적용	52

〈표 IV-1-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53
〈표 IV-1-2〉 모의 인구학적 특성	54
〈표 IV-1-3〉 부의 인구학적 특성	55
〈표 IV-1-4〉 가구 구성원 수 및 구성	56
〈표 IV-1-5〉 아동의 예방접종	57
〈표 IV-1-6〉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여부와 횟수, 기간	58
〈표 IV-1-7〉 아동의 입원 이유	58
〈표 IV-1-8〉 모유수유 여부 및 중단 시기	58
〈표 IV-1-9〉 부모의 1, 2급 장애 여부 및 회귀난치성 질환 여부	59
〈표 IV-1-10〉 어머니의 음주 습관: 음주여부 및 횟수	60
〈표 IV-1-11〉 어머니의 음주 습관: 1회 음주량	60
〈표 IV-1-12〉 어머니의 음주 습관: 과음 빈도	61
〈표 IV-1-13〉 아버지의 음주 습관: 음주여부 및 횟수	61
〈표 IV-1-14〉 아버지의 음주 습관: 음주량	62
〈표 IV-1-15〉 아버지의 음주 습관: 과음 빈도	63
〈표 IV-1-16〉 어머니의 흡연 습관: 흡연 여부	63
〈표 IV-1-17〉 어머니의 흡연 습관: 흡연량	64
〈표 IV-1-18〉 아버지의 흡연 습관: 흡연 여부	64
〈표 IV-1-19〉 아버지의 흡연 습관: 흡연량	65
〈표 IV-1-20〉 아버지의 취업유무	66
〈표 IV-1-21〉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와 직업	66
〈표 IV-1-22〉 아버지의 1일 평균 총 근로/학습시간	67
〈표 IV-1-23〉 어머니의 취업유무	68
〈표 IV-1-24〉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와 직업	68
〈표 IV-1-25〉 어머니 1일 평균 근로/학습 시간	69
〈표 IV-1-26〉 어머니 1일 평균 통근/통학 시간	69
〈표 IV-1-27〉 어머니의 휴직/재직 여부 및 휴직사유	70
〈표 IV-1-28〉 휴직 중 어머니의 향후 직장으로서의 복귀 계획 및 시기	70
〈표 IV-1-29〉 재직 중인 어머니의 휴직 경험여부 및 직장/직위 변동여부	70
〈표 IV-1-30〉 어머니의 일하는 이유	71
〈표 IV-1-31〉 어머니의 출산 전/후 소득변화	71

〈표 IV-1-32〉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71
〈표 IV-1-33〉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72
〈표 IV-1-34〉 어머니의 미취업/미학업 전의 취/학업 상태	72
〈표 IV-1-35〉 어머니의 일/학업을 그만 둔 이유	72
〈표 IV-1-36〉 어머니의 향후 취/학업 계획	73
〈표 IV-1-37〉 어머니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	73
〈표 IV-1-38〉 어머니의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74
〈표 IV-1-39〉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망 근로수입	74
〈표 IV-1-40〉 어머니의 구직활동 유무	74
〈표 IV-1-41〉 어머니의 구직활동 이유	75
〈표 IV-1-42〉 월평균 가구 소득	76
〈표 IV-1-43〉 근로 사업 소득	76
〈표 IV-1-44〉 이전 소득	77
〈표 IV-1-45〉 자산 소득	78
〈표 IV-1-46〉 기타 소득	78
〈표 IV-1-47〉 가구 총 지출	79
〈표 IV-1-48〉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	80
〈표 IV-1-49〉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	80
〈표 IV-1-50〉 금융 자산	81
〈표 IV-1-51〉 소유 부동산	82
〈표 IV-1-52〉 총 부채	82
〈표 IV-1-53〉 월 상환금	83
〈표 IV-1-54〉 가족생활사건	84
〈표 IV-1-55〉 사회적 지원: 정서적, 도구적 지원	85
〈표 IV-1-56〉 사회적 지원: 사회적, 정보적 지원	86
〈표 IV-1-57〉 거주 주택 소유 유형	87
〈표 IV-1-58〉 거주 주택유형	88
〈표 IV-1-59〉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89
〈표 IV-1-60〉 사회보장 지원	90
〈표 IV-1-61〉 HOME의 하위척도 및 문항수	91
〈표 IV-1-62〉 HOME: 가정환경 총점	92

〈표 IV-1-63〉 HOME: 학습자료	93
〈표 IV-1-64〉 HOME: 언어자극	94
〈표 IV-1-65〉 HOME: 물리적 환경	95
〈표 IV-1-66〉 HOME: 반응성	96
〈표 IV-1-67〉 HOME: 학습자극	97
〈표 IV-1-68〉 HOME: 다양성	98
〈표 IV-1-69〉 HOME: 수용성	99
〈표 IV-1-70〉 HOME: 모방학습	100
〈표 IV-1-71〉 지역 유형	101
〈표 IV-1-72〉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102
〈표 IV-1-73〉 지역의 시설 이용편리성	103
〈표 IV-1-74〉 지역의 안전도	104
〈표 IV-1-75〉 지역의 전반적인 양육적절성	105
〈표 IV-1-76〉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	105
〈표 IV-2-1〉 아동의 체중	106
〈표 IV-2-2〉 아동의 신장	107
〈표 IV-2-3〉 아동의 기질	108
〈표 IV-2-4〉 기초습관: 수면	110
〈표 IV-2-5〉 기초습관: 식습관	111
〈표 IV-2-6〉 기초습관: 씻기/배변/옷 입기 습관	112
〈표 IV-2-7〉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113
〈표 IV-2-8〉 REVT 생활연령	115
〈표 IV-2-9〉 표현어휘력 정상성 일반적 경향	116
〈표 IV-2-10〉 표현어휘력 정상성 규준별 분포	116
〈표 IV-2-11〉 수용어휘력 정상성 규준별 분포	117
〈표 IV-2-12〉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118
〈표 IV-2-13〉 수용어휘력 등가연령	119
〈표 IV-2-14〉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 평정	120
〈표 IV-3-1〉 후속 출산 의도	121
〈표 IV-3-2〉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122
〈표 IV-3-3〉 후속 출산 계획 시기	122

〈표 IV-3-4〉 후속 출산 비계획 이유	123
〈표 IV-3-5〉 보육교육비 무상지원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영향력	124
〈표 IV-3-6〉 양육비 지원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영향력	124
〈표 IV-3-7〉 어머니가 생각하는 적절한 양육 지원 금액	124
〈표 IV-3-8〉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124
〈표 IV-3-9〉 만 5세 공통과정 시행에 대한 보도 인지 여부	125
〈표 IV-3-10〉 만 5세 공통과정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영향	126
〈표 IV-3-11〉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수	126
〈표 IV-3-12〉 아버지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127
〈표 IV-3-13〉 어머니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127
〈표 IV-3-14〉 기대 자녀수	128
〈표 IV-3-15〉 부모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129
〈표 IV-3-16〉 부모의 자아존중감	130
〈표 IV-3-17〉 부모의 우울	130
〈표 IV-3-18〉 부모의 결혼만족도	131
〈표 IV-3-19〉 부모의 부부갈등	132
〈표 IV-3-2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부모의 인식 정도	133
〈표 IV-3-2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133
〈표 IV-3-22〉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134
〈표 IV-3-23〉 부모의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136
〈표 IV-3-24〉 부모의 자녀가치: 도구적 가치	136
〈표 IV-3-25〉 부모의 자녀기대	137
〈표 IV-3-26〉 양육 실제: 사회적 양육유형	138
〈표 IV-3-27〉 양육 실제: 한계 설정	139
〈표 IV-3-28〉 양육스트레스	140
〈표 IV-4-1〉 지난 조사이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141
〈표 IV-4-2〉 현재 달의 낮 시간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유형	142
〈표 IV-4-3〉 비대가성 양육지원 특성	142
〈표 IV-4-4〉 개인대리양육 특성	143
〈표 IV-4-5〉 육아지원기관 입지 조건	144
〈표 IV-4-6〉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관 유형	145

〈표 IV-4-7〉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145
〈표 IV-4-8〉 육아지원기관 등/하원 이용수단	146
〈표 IV-4-9〉 육아지원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147
〈표 IV-4-10〉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147
〈표 IV-4-11〉 보육·교육비 지원여부	148
〈표 IV-4-12〉 보육·교육비 감면 이유	149
〈표 IV-4-13〉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행 여부	150
〈표 IV-4-14〉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중복응답)	150
〈표 IV-4-15〉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비용 및 평균 이용횟수	151
〈표 IV-4-16〉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이용 수	153
〈표 IV-4-17〉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	153
〈표 IV-4-18〉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방식	154
〈표 IV-4-19〉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장소	155
〈표 IV-4-20〉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학습지 이용 여부 및 학습지 교사 유 무	156
〈표 IV-4-21〉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월별 참여횟수	157
〈표 IV-4-22〉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비용	158
〈표 IV-4-23〉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 형태	159
〈표 IV-4-24〉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	160
〈표 IV-4-25〉 부모참여 행사 안내받은 경험	160
〈표 IV-4-26〉 부모참여 행사 참석 여부	160
〈표 IV-4-27〉 부모참여 행사 연간 참석 횟수	161
〈표 IV-4-28〉 부모참여 행사 만족도	161
〈표 IV-4-2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선호도	161
〈표 IV-5-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종류	163
〈표 IV-5-2〉 아동의 이용 기관별 유형	163
〈표 IV-5-3〉 어린이집 기관 설립유형	164
〈표 IV-5-4〉 기관 설립유형: 반일제이상 학원	164
〈표 IV-5-5〉 기관의 총 학급 수 및 정원	164
〈표 IV-5-6〉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여부	165
〈표 IV-5-7〉 유치원평가 참여여부 및 평가시기	165

〈표 IV-5-8〉 교사 연령	166
〈표 IV-5-9〉 교사 특성	166
〈표 IV-5-10〉 교사의 기관별 재직경험 및 평균 재직기간	167
〈표 IV-5-11〉 교사의 현 기관 근무기간, 근무처 횟수 및 근무시간	167
〈표 IV-5-12〉 교사의 교수 효능감	168
〈표 IV-5-13〉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168
〈표 IV-5-14〉 아동 및 교사 수	169
〈표 IV-5-15〉 교실의 해당연령	169
〈표 IV-5-16〉 교실 내 영역구성 여부	170
〈표 IV-5-17〉 교실환경	170
〈표 IV-5-18〉 휴식 공간 유무	171
〈표 IV-5-19〉 표준보육과정 및 유치원교육과정 인지정도	171
〈표 IV-5-20〉 표준보육과정 및 유치원교육과정 실시정도	171
〈표 IV-5-21〉 프로그램 운영시간	172
〈표 IV-5-22〉 실내자유선택활동 횟수	172
〈표 IV-5-23〉 실내자유선택활동 회당 활동시간	173
〈표 IV-5-24〉 실외놀이 실시여부	173
〈표 IV-5-25〉 실외놀이 실시시간	174
〈표 IV-5-26〉 아동의 등원 시간	174
〈표 IV-5-27〉 아동의 하원 시간	175
〈표 IV-5-28〉 아동의 등원 시 동반하는 사람	175
〈표 IV-5-29〉 아동의 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	176
〈표 IV-5-30〉 아동의 등원 수단	176
〈표 IV-5-31〉 아동의 하원 수단	177
〈표 IV-5-32〉 간식제공 횟수 및 간식 먹는 횟수	177
〈표 IV-5-33〉 간식 가져오는지 여부	178
〈표 IV-5-34〉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	178
〈표 IV-5-35〉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	179
〈표 IV-5-36〉 또래 상호작용: 교사 평정	179
〈표 IV-5-37〉 가장 중요한 부모교육 유형	180
〈표 IV-5-38〉 부모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1, 2순위	181

〈표 IV-5-39〉 기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181
〈표 IV-5-40〉 아동의 부모가 주로 참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182
〈표 IV-5-41〉 기관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아동의 부모참여 횟수	182
〈표 IV-5-42〉 부모와 담당 교사의 의사소통	183
〈표 IV-6-1〉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183
〈표 IV-6-2〉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필요성	186
〈표 IV-6-3〉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필요성	187
〈표 IV-6-4〉 직장 어린이집 및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	188
〈표 IV-6-5〉 수유실 설치 및 유급 수유시간의 필요성	189
〈표 IV-6-6〉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필요성: 아버지 지	190
〈표 IV-6-7〉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필요성: 어머니 니	191
〈표 IV-6-8〉 부모가 생각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192
〈표 IV-6-9〉 대리양육 시 가장 중요한 점	193
〈표 IV-6-10〉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및 이용 여부	194
〈표 IV-6-11〉 육아휴직 이용 및 미이용 이유	195
〈표 IV-6-12〉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이용만족도	195
〈표 IV-6-13〉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양육도움도	196
〈표 IV-6-14〉 정부지원 육아정책: 현금지원	197
〈표 IV-6-15〉 정부지원 육아정책 - 서비스 지원	197
〈표 V-1-1〉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경험 여부	199
〈표 V-1-2〉 사고/중독 건수	200
〈표 V-1-3〉 모유수유 여부	200
〈표 V-1-4〉 부모의 음주 빈도	201
〈표 V-1-5〉 부모의 흡연 여부	201
〈표 V-1-6〉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	202
〈표 V-1-7〉 부모의 종사상 지위	202
〈표 V-1-8〉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202
〈표 V-1-9〉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	203
〈표 V-1-10〉 가구 구성	203

〈표 V-1-11〉 월평균 가구 소득	204
〈표 V-1-12〉 월평균 가구 총지출	204
〈표 V-1-13〉 월평균 자녀관련 지출	204
〈표 V-1-14〉 가족생활사건	205
〈표 V-1-15〉 사회적 지원	205
〈표 V-1-16〉 주택 소유형태	206
〈표 V-1-17〉 거주 중인 주택 유형	207
〈표 V-1-1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207
〈표 V-1-19〉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208
〈표 V-1-20〉 지역사회적 전반적 양육 적절성	208
〈표 V-2-1〉 아동의 체중 및 신장	209
〈표 V-2-2〉 기질의 일반적 경향	210
〈표 V-2-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210
〈표 V-3-1〉 후속 출산 의도	211
〈표 V-3-2〉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212
〈표 V-3-3〉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어머니	212
〈표 V-3-4〉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아버지	213
〈표 V-3-5〉 후속 출산 계획 시기	213
〈표 V-3-6〉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214
〈표 V-3-7〉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214
〈표 V-3-8〉 어머니의 우울 정도	215
〈표 V-3-9〉 부부의 결혼만족도	216
〈표 V-3-10〉 부부 갈등	216
〈표 V-3-11〉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216
〈표 V-3-12〉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217
〈표 V-3-13〉 부모의 자녀가치	217
〈표 V-3-14〉 부모의 자녀기대	218
〈표 V-3-15〉 양육실제 및 양육스트레스	219
〈표 V-4-1〉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220
〈표 V-4-2〉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220
〈표 V-4-3〉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221

〈표 V-4-4〉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221
〈표 V-4-5〉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222
〈표 V-4-6〉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222
〈표 V-4-7〉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223
〈표 V-4-8〉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223
〈표 V-4-9〉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223
〈표 V-4-10〉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224
〈표 V-4-11〉 어린이집 이용 이유	224
〈표 V-4-12〉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여부	225
〈표 V-4-13〉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여부	225
〈표 V-4-14〉 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226
〈표 V-4-15〉 육아지원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226
〈표 V-4-16〉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수	226
〈표 V-4-17〉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	227
〈표 V-4-18〉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비용	227
〈표 V-5-1〉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 우선순위	228
〈표 V-5-2〉 직장 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229
〈표 V-5-3〉 보육료 지원 및 양육비 지원과 자녀 출산 의도	229
〈표 V-5-4〉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230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아동의 하루일과 활동 여부	240
〈부록 표 2〉 기관 내 특기교육 월평균 비용	243
〈부록 표 3〉 기관 내 특기교육 주당 총 횟수	245

요 약

[1부] 한국아동패널 2012 사업보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이후 성장하면서 보이는 발달 특성과 그에 대한 부모의 양육, 육아지원기관에서의 경험,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이들이 만 12세가 될 때까지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조사하며,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근간이 되는 포괄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2012년도에 실시되는 5차년도 조사의 문항을 개발함.
- 2011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만 3세 아동과 그를 둘러싼 부모, 가족, 지역사회, 국가정책의 특성을 밝히고, 상호관계와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 등을 탐색함.
- 3차년도 자료 에디팅 완료 및 일반 공개를 진행함.
- 패널 유지와 자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3. 연구 방법

- 문헌자료를 검토함.
-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설문 조사를 대상에 따라 실시함.

- 부모 대상 조사로, 가구 특성, 양육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보고식 검사 등을 포함함.
 - 아동 대상 조사로 창의성을 수행 검사로 실시하였음.
 -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관 환경, 아동의 행동 특성, 교사 특성 등을 조사함.
- 4차년도 자료 정리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분석 보고를 제시함.
- 패널 관리 업무 및 데이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4. 5차년도(2012) 연구 사업 경과

- 5차년도 조사의 특징
- 해당 연령(만 4세)에 적절한 창의성, 정서행동, 문제행동 등 발달 검사를 강화하였음.
 - 조사의 실제 진행에 대한 중간 점검 과정을 마련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5차년도 조사 절차
- 질문지 수정 및 CAPI 구축, 조사원 교육, 조사원 간담회를 실시함.
 -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면접 조사는 2012년 7월 9일에 시작하여 10월 15일에 완료하였으며, 육아지원기관 조사는 11월 5일에 완료하였음.
- 5차년도 조사 성공률
- 2012년 실시된 5차년도 조사는 최종 1,703명이 참여하여 총 패널 2,150명 기준 82.0% 참여율을 보였으며 4차년도 기준으로는 97.1% 성공임.
- 1~4차년도 기존 자료의 확산 노력
-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2012년 8월 31일 개최함.
 - 별도로 발간된 한국아동패널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에서는 2008-2011년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4편의 연구 논문을 실음.

[2부] 한국아동패널 2011 기초분석보고

1. 4차년도(2011) 기초분석 개요

- 4차년도에 일반조사의 조사 참여율은 1,754명으로 전체 기준 68.5%임.
- 4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유치원·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특성, 육아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6개의 주제별로 이루어짐.

2.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작성
 -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1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함.
-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작성
 -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초기 원 표본 가구로부터 4차년도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설정함.

3. 4차년도(2011) 조사 결과 분석

- 일반적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1,754가구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903명, 여아 851명임.
 - 4차년도 조사 참여가구의 부모 특성은 어머니 연령은 30~39세가 82.6%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연령은 30~39세가 77.1%로 가장 많았음.
 - 가구원 특성을 조사한 결과, 패널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3.05명이었고, 가구 구성은 부부+자녀 구성이 90.2%, 조부모+부부+자녀가 7.4%, 부부+자녀+친척이 0.7%, 조부모+부부+자녀+친척 1.4%임.

○ 아동의 건강 특성

- 아동의 예방접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핵은 91.2%,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73.7%, B형 간염 84.0%, 소아마비 86.3%, 홍역·볼거리·풍진 90.3%, 수두 89.9%, 일본뇌염 50.2%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하였음.
- 아동의 병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고나 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17.1%이었고, 지난 1년 동안 치료 횟수는 평균 1.35회임.

○ 부모의 건강 특성

- 부모에게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33.0%가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월 2~4회'가 38.7%로 가장 많았음.
- 어머니의 98.5%가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아버지는 51.1%가 흡연자라고 응답함.

○ 부모의 근로 특성

- 아버지는 98.3%가 취업 중이었고, 학생은 0.2%, 무직은 1.5%이었고, 주중에는 1일 평균 9.65시간을, 주말에는 4.11시간 동안 일이나 학업을 함.
- 취업 중인 어머니는 39.9%, 학업 중인 어머니는 0.5%이며, 59.6%는 미취업/미학업 상태이며, 주중에는 1일 평균 7.94시간을, 주말에는 5.83시간 동안 근로/학업 시간을 보냈으며,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주중 1일 평균 44.06분, 주말 1일 평균 38.77분이었음.
- 취업 중인 어머니가 일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가 65.0%, '경제적 이유를 위해(생계를 위해)'가 15.4%, '자아실현을 위해'가 13.7% 순이었음.
- 학업모와 미취업모 중 취/학업할 계획이 있는 어머니의 희망 근로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 근로 56.9%, 전일제 근로 43.1%였고, 69.2%가 구직활동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를, '양육/보육비를 벌기 위해서'는 11.5%로 응답함.

○ 가구 특성

- 월평균 가구소득은 533.01만원이었고, 이 중 근로사업소득은 397.37만원, 이전소득은 42.51만원, 자산소득은 80.01만원, 기타 소득은 13.38만원임.

- 가구 전체의 총 지출은 월 평균 313.81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 108.77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 54.01만원임.
-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으로 지난 1년간 평균 3.55건, 비규범적 사건이 평균 0.62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 중 정서적 지원은 평균 3.79점, 도구적 지원은 3.84점, 사교적 지원은 3.85점, 정보적 지원은 평균 3.74점임.
- 가정환경검사(EC-HOME)의 전체 평균은 43.88점이었음. 하위영역별로 학습 자료의 평균은 8.96점, 언어자극은 평균 6.42점, 물리적 환경은 평균 6.66점, 반응성 6.55점, 학습자극 4.56점, 다양성은 7.63점, 수용성 3.44점, 모방학습 4.23점이었음.
-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적절성에 대한 평균은 3.21점이었음.

□ 아동 발달 특성

- 아동의 체중은 평균 14.78kg, 평균 신장은 96.87cm로 나타남.
- 아동의 기질 중 정서성은 평균 2.87점, 활동성은 평균 3.82점, 사회성은 3.00점임.
- 아동의 기초습관은 조사 결과, 수면습관 5개 문항 중 '밤에 10~12시간 정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가 평균 3.79점, 식습관에 대한 5개 문항 중, '배고프면 스스로 먹으며 숟가락과 포크 사용이 가능하다'가 평균 4.14점, 배변 습관에서는 '낮에는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있다'가 평균 4.36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하루일과 중 참여하는 활동으로 TV·비디오 시청이 90.2%로 가장 많았고, 책읽기 86.0%, 교육·보육 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82.8%의 순이었음.

○ 언어발달(REVT)

- REVT 검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현어휘력의 원점수는 평균 29.79점, 수용어휘력의 원점수는 33.13점으로 표현어휘력보다 수용어휘력의 점수가 약 3.3점 가량 높았음.
- 표현어휘력의 경우 전체 패널아동의 70.4%가 정상발달이었으며, 수용어휘력에서 정상발달을 보이는 아동은 전체의 80.2%이었음.

-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 획득점수에 따른 등가연령 기준표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력에서는 2세 6개월 미만인 경우가 62.6%, 3세 0개월~5개월은 8.1%, 4세 0개월~11개월은 9.8%로 나타남.

- 사회성 발달

-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검사(PIPPS)에서 놀이방해 평균 점수는 2.40점,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는 3.45점, 놀이단절의 평균 점수는 1.95점이었음.

□ 부모됨 특성

- 향후 출산계획

- 20.2%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반면, 72.7%는 없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7.2%이었음.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에 대해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3%가 보도를 들었다고 하였음.
- 이상 자녀수의 기대성별에 대해 어머니 57.5%와 아버지 59.5%가 '아들·딸 구분이 없이'라고 응답하였음.
- 기대자녀 수와 관련하여, 자녀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59.8%가 '2명', 30.5%가 '3명'이었음.

-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

-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각각 2.35점과 2.17점임.
-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평균 3.63점과 3.76점임.
- 우울은 어머니와 아버지 평균 점수가 11.89점과 11.26점임.

- 부부관계 특성

- 결혼만족도는 어머니 점수는 평균 3.74점, 아버지는 4.03점으로 나타남.
- 부부갈등은 어머니는 평균 2.10점, 아버지는 평균 2.12점임.

- 양육 특성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정은 평균 3.61점과 3.62점임.
- 아버지는 주중 평균 1.56시간, 주말에는 평균 4.86시간, 어머니는 주중 평

균 5.12시간, 주말에 평균 9.02시간 자녀 양육에 참여함.

- 자녀가치의 하위척도인 정서적 가치는 어머니 평균 4.33점과 아버지 평균 4.49점, 도구적 가치는 아버지는 5점 척도에서 3.20점, 어머니는 2.85점임.
-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 중 가장 높은 점수는 '행복한 가정 유지'에 대한 기대로, 부모 각 평균 3.86점과 3.83점임.
-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평균 2.76점, 아버지는 평균 2.44점임.

□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 서비스 이용 현황

- 낮 시간 이용 주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이용이 90.8%, 개인대리양육 2.0%, 유치원 1.7%, 반일제이상 학원이 1.4%임.
- 인적 양육지원 없이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93.6%임.
- 개인대리양육자의 경우 84.9%가 지난 조사와 동일한 양육자였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 재원 중인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의 68.5%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 중 가장 많은 75.4%가 영어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1.7%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1.4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

○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는 45.1%가 자녀의 생활과 발달 관련이라고 하였고, 28.7%는 아동관련 행사라고 응답하였음.
-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선호도 평균 점수는 3.96점이었고, 교사 선호도는 4.05점이었음.

□ 육아지원기관 이용특성

○ 기관 특성

- 조사된 800명의 육아지원기관 교사 중 어린이집 교사는 767명, 유치원

교사는 8명, 반일제이상 학원 교사는 25명임.

- 기관의 총 학급 수는 전체 평균 5.93개, 총 정원 평균은 64.11명임.

○ 교사 관련 특성

- 교수 효능감을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3.88점으로 나타남.

- 교사가 평정한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총점 평균 42.3점임.

○ 학급특성

- 학급의 아동 수는 평균 10.18명이었으며, 남아 5.26명, 여아 4.92명임.

-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1일 평균 7.89시간임.

○ 아동의 기관 이용 특성

-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영역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쌓기 영역과 역할놀이영역으로 약 8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언어영역, 조작영역, 미술/조형영역 순으로 나타남.

- 교사가 평정한 또래상호작용에서 놀이방해 평균 점수는 2.23점, 놀이상호작용은 평균 3.04점, 놀이단절은 평균 1.61점임.

○ 부모참여 특성

- 아동의 부모가 주로 참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자녀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 38.4%, 아동관련 행사참여 33.5%이었음.

- 부모와 담당 교사의 의사소통을 조사한 결과 평균 4.43점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함.

□ 육아지원정책 특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 어머니의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 여성의 육아휴직 및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27.6%와 23.8%, 21.1%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는 보육비 지원, 남성의 출산휴가 및 남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25.8%, 25.1%, 18.1%로 나타남.

○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에 대해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인력풀을 운영하는 제도에 '매우 만족'이 15.1%, '대체로 만족'이 73.6%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음.

- 직장에서 이용한 육아지원제도의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유급수 유시간과 대체인력풀운영이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 정부 육아지원서비스 지원
 -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는 총 28가구였고, 그 중 양육수당을 받아본 경험은 57.1%, 농어민 가정 육아비는 7.15%, 기타 현금지원은 28.6%이었음.
 - 정부로부터 육아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는 총 199가구였고, 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평균 3.57점, 영유아 건강검진이 3.31점임.

4. 1~4차년도(2008~2011) 간 종단 비교

□ 일반적 특성

- 아동 건강 특성
 -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 경험은 1세 21.8%, 2세에는 15.1% 정도로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입원 경험의 비율이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부모 근로특성
 - 취업 중인 어머니의 비율은 0세 29.2%, 1세 31.3%, 2세 32.9%, 3세 38.5%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규직 및 상용직의 비율은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가구 특성
 - 3세에 이르러 조부모 동거 비율이 감소하면서 핵가족 형태가 91.3%임.
 - 경제적인 특성 중 4년간의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9.55만원으로 나타났고, 0세에서 3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가구의 총 지출은 4년 동안 월 평균 256.02만원이었고, 0세부터 2세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3세에 이르러서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임.
 - 소비성 지출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가 나타나는데, 0세에서 2세까지

는 점점 감소하다가 3세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점수가 감소하고 있음.

○ 지역사회 특성

-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에 대한 평균값은 평균 3.2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아동발달 특성

○ 신체발달

- 출생 시 3.27kg의 체중에서 1세에 평균값이 약 10kg으로 전형적인 발달 유형이며, 신장은 1세에서 2세까지 약 11cm, 3세에는 약 8cm가 증가함.

- 아동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2세에는 교육·보육 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이 383.45분으로 조사되었고, 주양육자와 놀기 194.11분,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147.69분, 친구와 놀기 133.17분, 혼자 집에서 놀기 122.12분, 휴식 및 낮잠 자기 111.86분임.

□ 부모됨의 특성

○ 향후 출산계획

- '출산계획이 없다'는 0세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임.

○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

-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0세에서 2세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세에 이르러서는 감소하는 경향임.

-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임.

- 어머니 우울은 0세에서 2세까지 완만하게 낮아졌지만, 아이가 3세에 이르러서는 더 낮게 나타남.

○ 부부관계 특성

- 4년간의 부모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보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부부갈등의 연령별 추이는 전반적으로 부부 모두에게서 증가하고 있음.

○ 양육 특성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평균 3.73점으로 점차 증가함.
- 2세보다는 3세에 이르러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큰 폭으로 줄어들음.
- 4년 동안의 부모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자녀의 가치가 0세~2세까지는 증가하다가 3세에는 낮아짐.
-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를 4년간의 추이로 살펴보면,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모든 기대의 점수가 높아짐.

□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 부모 이외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아져 4차년도 만 3세의 경우는 82.7%가 부모 외 서비스를 이용함.

○ 개인대리양육

- 연령별로 보면 가장 비율이 높았던 친/외조모가 돌보는 경우는 미미하게 줄어들고 가사/육아 도우미에 의존하는 비율이 2세부터 커지고 있음.

○ 육아지원기관

-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는 경우 2세보다는 3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이용하는 기관 종류가 다양해짐.

□ 육아지원정책 특성

-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우선 선택한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양육비 보조에 대한 의견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 3차년도 조사결과(아동 만 1, 2세)에 비해 4차년도(만 3세) 조사결과가 확연히 낮은 금액을 요청하였음.

[1부]

한국아동패널 2012 사업보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이후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에서의 형식적·비형식적 육아지원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에는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2,078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이들의 양육과 발달, 성장을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해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패널 아동이 만 12세가 되기까지 약 8년 동안 더 진행될 계획에 있다. 이러한 아동패널 연구는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계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육아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는 데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 현황, 아동의 발달 상태, 가정환경, 육아지원서비스 및 정책에 관한 의견 등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하여 진행하여 왔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패널 질문 문항과 발달 검사 등에 조금씩 변화를 두어 왔다. 예를 들면, 2008년에는 아동의 건강특성과 임신, 출산 관련 문항, 영아 발달검사(K-ASQ, 한국형 덴버 II) 등이 주요 변인으로 포함되었으나 4차년도 조사인 2011년에는 임신, 출산 관련 문항이 삭제되고 발달 검사 도구도 언어 발달 측정을 위한 REVT(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검사 및 사회성 검사문항을 도입하고 가정환경검사(EC-HOME)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집을 위주로 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관한 질문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이렇게 종단적 관점에서 볼 때 본 2012년 아동패널 연구 또한 조사 내용을 시간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2012년 아동패널은 그간 조사의 결과를 분석했을 때 수치상 거의 변화가 없어 지속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동 연령 고려 시 더 이상 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항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과, 특히 대상 패널 아동이 만 4세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사회성이나 언어발달, 심리·행동 기능의 발달 등을 고루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아기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5세(2012년) 및 3·4세(2013년)에 대한 교육·보육 공통 과정인 누리과정이 실시되는 등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발달 생태이론(Bronfenbrenner, 1979)에 근거하여 개발된 아동패널 모형(장명림 외, 2006)에 따라 아동, 부모, 가족, 육아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육아지원정책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총괄적 기초 자료 생산 및 이를 활용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아동패널 2012 연구는 지난 4차년도 자료에 대한 패널조사 기초분석 연구는 물론이고, 이와 함께 그간 수집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동패널이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심층 분석 연구 등 두 가지의 하위 연구로 구성하였다.

2. 연구 내용

한국아동패널 2012의 연구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도에 실시된 5차년도 조사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만 4세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기존의 문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5차년도 조사 문항을 확정하고 아동 발달과 환경을 측정하는 심리발달검사를 연령에 맞도록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현 시점에 적절한 문항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삭제를 통한 문항 수정을 진행하였다.

둘째, 2011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만 3세 아동이 가진 아동 및 부모, 가족, 지역사회, 국가정책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 간 상호관계와 아동발달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는 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 3세 한국아동의 특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1~4차년도에 이르기까지 동일 변인의 변화 양상을 기초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

셋째, 3차년도 자료 에디팅 완료 및 일반 공개를 진행하였다. 2010년에 조사가 완료된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와 심층분석 연구 등을 통해 데이터 에디팅을 완료한 후 자료의 일반인 대상 공개를 실시하였다.

넷째, 패널 유지와 자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 가족들에게 양육 및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브로슈어를 전달하고 이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정보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사 패널을 위한 선물 발송 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올해 만 4세가 되는 각 아동에게 생일 카드 및 연말 연하장 등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도록 지원하였다.

〈표 1-2-1〉 연도별 조사 실시 계획

차수	해당년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초1)	9세 (초3)	12세 (초6)	심층조사
1차년도	2008년	■										
2차년도	2009년		■									1차
3차년도	2010년			■								부가조사 ¹⁾
4차년도	2011년				■							
5차년도	2012년					■						
6차년도	2013년						■					2차
7차년도	2014년							■				
8차년도	2015년								■			3차
9차년도	2017년 ¹⁾									■		
10차년도	2020년										■	

주: 8차년도부터 2-3년으로 조사 간격이 벌어지나, 이는 조사의 안정성을 위해 매년 조사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3. 연구 방법

가. 문헌 검토

국내외 관련 문헌과 웹사이트, 선행연구 등의 검토를 통해 조사문항 수정을 위한 근거를 탐색하고 아동 대상 심리발달검사 선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1) 한국아동패널2010 조사 외에 2010년 출생 신생아가구 1,000사례를 대상으로 횡단자료를 구축함.

나. 전문가 회의 실시

5차년도 조사 문항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고 발달 검사 선정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로 3월 9일(금)에 패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위원 2명과 교수 1명에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및 패널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차와 3차 회의에서는 아동 및 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교수 3명과 원내 박사 연구직 5명에게 5차년도 설문지 검토와 아동 발달검사 선택에 대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4차로는 1~4차년도까지의 데이터 에디팅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패널 데이터에 관련된 의견수렴을 하였다.

〈표 1-3-1〉 전문가 회의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참석자	안건
1차	3월 9일(금)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데이터 관리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패널 자료 활용 방안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차	4월 13일(금)	박혜원(울산대학교 교수)	-설문지 검토
		이경옥(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발달검사 자문
		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교수)	
3차	5월 9일(금)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연구원 5인	-설문지 검토 -발달검사 선정
4차	9월 19일(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23인	-데이터 에디팅

다. 설문 조사

5차년도 조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였던 2,087명의 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아동을 담당하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이다. 각 지역별 패널 수는 <표 1-3-2>와 같다.

한국아동패널 2012의 설문조사는 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 대상 조사로, 가구 특성, 양육 특성,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보고식 검사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아동 대상 조사로, 5차년도에는 창의성 검사를 수행 검사로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기관의 환경, 아동의 행동 특성, 교사 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표 1-3-2〉 권역별 표본 수

권역	지역	사례수	단위: 명, %
			비율
서울/경인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996	47.9
충청/강원권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270	13.0
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243	11.7
경남권	부산, 울산, 경상남도	346	16.7
전라권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223	10.7
계		2,078	100.0

1) 부모 대상 조사

부모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부모 대상 조사는 3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조사, 지필식(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 조사, 그리고 아동에 대한 발달 검사이다.

가) CAPI 면접 조사

CAPI 면접 조사는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조사로, 설문지가 장착된 노트북 컴퓨터를 조사원이 직접 가지고 참여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현장에서 입력한다. 이 조사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문항 경로가 달라지는 경우 유익하여 취업모, 휴직자, 육아지원기관 이용/미이용 등에 따라 다른 문항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면접 방식으로 묻는 질문의 내용은 다음 <표 1-3-3>에 제시되고 있다.

나) 지필식 조사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부모됨, 양육 특성 등을 조사하는 설문지로, 우편으로 각 가정에 송부한 후 부모가 자율적으로 완성하게 한다. 이후 조사원이 CAPI 면접을 위해 방문 시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한다. 이때 조사원은 일차적인 설문지 검토를 할 수 있다. 부와 모 각각을 대상으로 한 지필식 조사의 내용은 <표 1-3-3>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 아동 발달 검사 및 가정환경검사

한국아동패널 2012 연구에서는 조사원이 전문 훈련을 받은 인력이 아니라는 자격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아동 수행 평가를 최소로 줄이고 부모가 체크하는

방식의 발달 검사를 채택하고 실시하였다. 아동 발달 검사로는 행동특성검사를 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가정환경검사도 함께 수행하였다.

(1) 유아 행동평가척도(CBCL)

유아행동평가척도 1.5-5(Child Behavior Checklist 1.5-5: CBCL 1.5-5)는 2009년도에 오경자와 김영아가 Achenbach와 Rescorla(2000)가 개발한 유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preschool 1.5-5)를 표준화한 검사이다. CBCL 1.5-5는 총 99문항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니다’ 0점, ‘약간 혹은 때때로’ 1점, ‘매우 혹은 종종’ 2점 등 3점 평정척도로 평가하며, 완성하는데 보통 15분-25분 정도 소요된다. 이 검사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등 7개 하위척도와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의 2개 요인점수, 총 문제행동척도 등 10개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진단 체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DSM 진단방식 척도를 얻을 수 있는데, DSM 정서문제, DSM 불안문제, DSM 전반적 발달문제, DSM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DSM 반항행동문제 등 5개척도이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56~.94의 범위로 전반적인 신뢰도 수준은 모두 양호한 편이다.

(2) 가정환경검사(EC-HOME)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환경 변인으로서 중요한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Caldwell & Bradley(2003)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를 4차년도 이어 5차년도에도 실시하였다. EC-HOME은 가정에서 아동에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떠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자극을 제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도구로, 영아용, 유아용, 학령기용 등 연령별로 척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C-HOME은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및 수용성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55문항이며, 면접 및 관찰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이다.

〈표 1-3-3〉 부모 대상 조사 유형 및 내용

종류	조사영역	주요변인
CAPI 면접조사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 및 기본생활습관 ○일과활동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근로특성 (취업모/비취업모)
	가족 특성	○일반적 특성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 ○물리적 환경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사교육 이용
	지역사회 특성	○가용 육아지원기관 ○양육적질성
	육아지원정책 특성	○사회보장지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돌봄 및 발달 지원
	어머니· 아버지 조사 (PAPI)	어머니 특성
부모됨		○향후 출산계획
부부 특성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양육 특성		○자녀양육참여 ○자녀기대 ○양육신념 ○양육실제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아동 발달검사 (PAPI)	CBCL(100문항)	행동이상발견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수면문제 ○기타문제 ○놀이 방해 - 공격 행동, 자기통제력
	PIPPS(32문항)	또래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 - 친사회적 행동, 대인 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 ○ 놀이단절
가정 환경검사 (CAPI)	EC-HOME(55문항)	양육환경측정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 자극 ○모방 학습 ○다양성 ○수용성

2) 아동 대상 조사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부모 조사와 더불어 아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5차년도에 아동 대상 조사로 포함된 것은 아동의 신장과 몸무게를 조사원이 직접 측정한 것과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를 들 수 있다. 신장은 줄자를 이용하였고 몸무게는 조사원이 휴대한 저울을 이용하여 수치를 측정하고 조사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창의성 검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검사자가 아니어도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유아 대상 수행 검사이므로 조사에 포함할 수 있었다.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는 창의성의 주요 척도인 유창성·독창성·개방성·민감성을 측정하는 도형검사 도구로써, 도형을 이용해 유아의 창의능력과 특성을 파악하여 창의성 발달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전경원, 2001). 각 검사는 2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검사 1인 '옴도형으로 그리기'에서는 갖의 일부분을 선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상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는 총 18개의 같은 도형이 제시 되어 있다. 소검사 2인 '자극도형으로 그리기'에서는 제시된 5개의 도형(갖의 일부분, 之의 변형, 수막새 일부분, 태극무늬의 일부분, 점)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완성하도록 하며 2개 소검사 각각의 제한시간은 5분씩으로 총 10분간의 그림 그리는 시간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표 1-3-4〉 아동 대상 조사: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구분	구성요인	개념
아동 발달검사 (도형 창의성)	유창성 (fluency)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내는 아이디어의 풍부함과 관련된 양적 능력
	독창성 (originality)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희귀하고, 참신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
	개방성 (openness)	인간의 태도·생각·경험 따위가 기존의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시·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교류하게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는 열려 있는 상태나 성향
	민감성 (sensitivity)	창의성의 한 요인으로 지각력과 관계가 있어 주변 환경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탐색·확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자료: 전경원(2001).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 전문가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3) 교사 대상 교육·보육 기관 조사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반일제이상 학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관의 환경, 교사가 인식하는 아동의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아동의 부모와 기관의 원장으로부터 교사의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교사는 설문이 장착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질문에 응답한다. 교사 조사는 교사의 일반적인 사항과 아동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교사 일반 조사

교육·보육 기관의 교사에게 인적사항 및 아동과의 상호관계 등 교사의 특성과 아동의 생활, 그리고 기관의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나) 아동 발달 검사

교사가 자기보고식으로 체크하는 아동 발달 검사로 4차년도에 이어 계속 실시하는 '또래 상호작용 검사(PIPPS)'와 5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를 들 수 있다.

(1) 또래 상호작용 검사(PIPPS)

유아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 상호작용을 평정하는 PIPPS(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를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PIPPS는 세 가지 관찰 범주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하는 평정척도이다. 놀이방해 하위범주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에 관한 내용이고, 놀이상호작용 하위 범위는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 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부정적 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놀이단절 하위범위는 놀이 중 위축되고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 행동으로 구성된다.

(2)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2008년 발표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체계화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이종숙 외, 2008). 본 도구는 영유아의 교실 상황에서 관찰되는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영역의 행동과 언어를 중심으로 교사가 체계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사의 질문에 단순히 반응하는 언어 중심의 평가 도구를 지양하고 놀이 및 활동 중심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의 현재-여기에서 나타나는 발달 수준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동적인 평가 도구이다.

평가도구는 언어발달영역 36개 지표, 인지발달영역 11개 지표, 사회·정서발달영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만 4세의 평가도구는 언어발달영역 지표-11개/문항-11개, 인지발달영역 지표-11개/문항-13개, 사회·정서발달영역 지표-11개/문항-11개로 구성되었으며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평가도구는 관찰형 평가 이외에 단서 제시형 평가와 과제 제시형 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나 5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적인 평가인 관찰형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표 1-3-5〉 교육·보육 기관 교사 대상 조사 내용

종류	조사 영역	주요변인	
교사 일반조사 (Web방식)	교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자격 및 경력 ○교수 효능감 ○아동과의 상호작용 	
	아동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와의 상호작용 ○활동영역 ○기관에서의 일과 	
	기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형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아동 발달검사 (Web방식)	PIPPS (32문항)	또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 행동, 자기통제력 ○놀이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사회적 행동, 대인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 ○놀이단절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시문, 부정표현, 의문사, 질문 반응, 수식어, 위치부사어, 글자인식, 간접표현 등
	언어, 인지, 사회·정서 평가(35문항)	언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각, 기억, 상징적 사고/표상, 논리적 추론, 문제해결, 공간개념, 분류, 서열화 등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관계형성, 사회적 문제해결, 도덕적 행동, 도덕적 판단, 사회적 놀이, 자기 정체성 형성 등
	사회·정서		

라. 4차년도 자료 정리 및 통계 분석

2011년 조사 결과로 산출된 자료에 대해 데이터 코딩, 입력, 데이터 에디팅, 기초분석 등 자료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고, 횡단적, 종단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일일이 검토하며 이상 수치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 정련된 데이터로 4차년도 패널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SPSS를 이용해 성별, 지역별, 모 취업별 집단에 따른 t 검정 또는 F 검정 등 집단비교 방식과 교차분석을 활용한 변인 간 비교를 포함하였다.

마. 학술대회 개최

3차년도 자료에 대한 홍보 효과 제고 및 자료의 실제 사용상 가능한 문제점 발견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2012년 8월 31일(금)에 개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012의 학술대회는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이라는 큰 주제 하에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발표 및 토론은 관련 학계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연구결과는 자료집으로 발행하였다. 발표 주제의 영역은 ① 저소득 가정, ② 취업모 가정, ③ 육아지원기관 이용, ④ 후속출산 네 가지이며, 각 주제별로 2명의 연구 발표가 있고 각각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바. 패널 관리 업무 및 데이터 관리

종단연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패널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연구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을 연중 진행하였다. 양육 정보지의 전달, 이사 및 생일, 연말연시 등에 선물이나 카드를 발송하고 패널 정보의 변경 사항을 계속 수집하고 확인하였다. 3차년도 및 4차년도 자료의 인적사항 등의 이전 응답과 차이,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데이터가 변형,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II. 5차년도(2012) 연구 사업 경과

본 장에서는 먼저 2012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당해 연도 조사의 진행에 대하여 그 특징, 진행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그간의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결과 확산 노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1. 5차년도 조사의 특징

한국아동패널은 패널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의 전체적인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해마다 일정하지만, 연구 대상인 아동이 급격한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는 영유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사 연도별로 조사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5차년도 조사에서도 2012년 4월을 기점으로 만 4세가 되는 패널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조정된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2012년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발달 검사의 강화

해당 연령(만 4세)에 적절한 창의성, 정서행동, 문제행동 등 발달 검사를 강화하였다. 2012년 조사는 기존의 또래상호작용 검사인 PIPPS(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와 가정환경검사(HOME: Caldwell & Bradley, 2003)에 덧붙여 세 가지의 발달 검사를 추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발달 검사로 아동별 개인 수행 검사인 「유아 도형 창의성 검사」(전경원, 2001)가 있으며, 이는 모든 패널 아동이 면접조사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약 10분) 동안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창의성 측정 검사이다. 두 번째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검사인 CBCL(오경자·김영아, 2009)로, 이는 어머니가 아동에 대해 정서적 반응, 신체증상, 주의집중력문제 등을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검사는, 5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 평가도구'(이종숙 외, 2008)로, 아

동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로 하여금 해당 아동의 인지 및 정서 행동에 대해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반면 4차년도에 실시하였던 언어검사인 REVT (김영태 외, 2009)는 진행상의 어려움과 학습효과의 영향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이후 적절한 시기에 재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주양육자와 아동의 활동 시간, 전자기기 이용 현황, 식습관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이 시기에 적절한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조사 시간의 단축 및 효율화

시간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부모의 의식 또는 가치에 대한 조사 문항 수를 줄이고,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중단 로직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CAPI를 구성하여 조사 시간 단축을 추구하였다. 기존의 문항은 그간 아동이 매우 어린 까닭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의식, 혹은 가족 구성 환경에 대한 문항의 수가 많고 이를 질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패널 조사 시간의 길이는 패널의 장기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5차년도부터는 아동의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초점을 맞추고 대신 부모 특성 중 4차년도까지 자료에 근거해 볼 때 값이 안정적이며 향후 조사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예: 부모의 자녀 가치, 자녀 기대 등)은 격년 또는 3년마다 조사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연도 조사 문항을 축소하고 조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CAPI를 이용한 면접 조사에서는 4차년도까지의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자동적으로 제시되는 중단 로직 방법을 최대한 도입하여 응답자는 기존 응답을 확인만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조사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었다.

다. 조사 중간 점검 장치 마련

조사의 실제 진행을 중간 점검하는 과정을 마련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먼저 면접원이 입력한 조사 자료(CAPI)를 조사 실시 초기(약 10% 완료 시점)에 모두 확보하여 연구진이 입력 오류, 문항 이해 오류 및 조사 실시의 오류 등을 점검함으로써 이후 조사에서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기존 데이터의 에디팅 시 발견되는 사항 중에는 조사면접원의 입력 오류가 상당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물리적 점검의 장치 설치를 위해 컴퓨터 기술팀의 협조를 얻어 초기 입력된 일부 자료를 미리 검토하여 오류를 바로 잡고 이후 조사에서는 동일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미리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함으로써 이후 조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조사원과 연구진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이해의 간극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2. 5차년도 조사 절차

가. 질문지 확정 및 CAPI 구축

4차년도 질문지 분석 및 1·2·3·4차년도 데이터 에디팅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와 수정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5차년도 어머니 대상, 아버지 대상, CAPI, 육아지원기관용 질문지를 재구성하였고,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질문지 확정 및 검사 도구 선정을 완료하였다. 한편 문항 간 횡단 및 종단 로직을 설정하여 면접조사를 위한 CAP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두 차례의 디버깅 과정(예비 실행을 통한 CAPI 점검)을 거쳐 전체 문항을 확정지었다. 연이어 기존의 패널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웹 질문지를 수정하고, 이에 관한 문항 간 로직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5차년도 조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육아지원기관용 질문지에 대해 육아지원기관(반일제이상 학원 포함)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나. 조사원 교육

신생아기부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 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은 연구의 특성상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개별검사 수행 및 웹 조사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뢰로운 데이터의 수집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은 매해 조사원 교육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 시작에 앞서 전국 면접 조

사원을 대상으로 질문지 문항 설명 및 CAPI 활용방법과 실습, 줄자와 체중계의 이용방법, 창의성 검사, CBCL 및 EC-HOME 검사 실시에 대한 훈련을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표 II-2-1>, <표 II-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2-1> 201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교육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참석 대상자
제1차	2012. 6. 28(목)	서울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조사원 20명
제2차	2012. 6. 29(금)	부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 조사원 18명
제3차	2012. 6. 29(금)	대전	대전, 광주, 충청, 강원, 전라 지역 조사원 8명

<표 II-2-2> 2012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교육 내용

시간	내용	세부 내용
1:00 - 1:10	<input type="checkbox"/> 연구진 소개 및 인사말	
1:10 - 1:50	<input type="checkbox"/> 5차년도 조사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용/부모용 질문지 교육 - 개괄적인 기관조사 소개 및 부모 동의 - 부모용 질문지 회수 시 주의사항 ○ 패널 가구 방문 조사 진행 방법 교육
1:50 - 2:20	<input type="checkbox"/> 면접용 질문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지 전반에 대한 흐름 및 내용 설명 - 체중계 및 줄자 사용에 대한 지침 설명
2:20 - 2:40	<input type="checkbox"/> 휴식 및 컴퓨터 세팅	○ CAPI 실습용 컴퓨터 세팅
2:40 - 3:10	<input type="checkbox"/> 면접용 노트북 사용설명	○ CAPI 질문지 설명: 취업모 기준
3:10 - 3:40	<input type="checkbox"/> 면접용 CAPI 실습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PI 구동하며 면접용 질문지 설명 - 문항별 기타 응답 예시 설명
3:40 - 3:50	<input type="checkbox"/> CAPI 질의 응답 I	
3:50 - 4:10	<input type="checkbox"/> 휴식	
4:10 - 4:50	<input type="checkbox"/> 발달검사 교육 및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성 검사 설명 - 스톱워치 사용 교육 ○ 조별 실습: 미취업/학업모 기준
4:50 - 5:20	<input type="checkbox"/> 면접용 CAPI 실습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조로 구성 - 조별 CAPI 실습
5:20 - 5:30	<input type="checkbox"/> CAPI 질의응답 II	
5:30 - 5:40	<input type="checkbox"/> 휴식	
5:40 - 6:00	<input type="checkbox"/> 검사 교육 및 실습	○ HOME, CBCL
6:00 - 6:10	<input type="checkbox"/> 조사원 윤리교육	○ 윤리교육 질문지 활용 교육

다. 조사 일정과 진행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는 예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면접 조사 시작 시점 2주 전에 어머니대상, 아버지대상 질문지 및 한국아동패널 조사 안내문 1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 부모교육 리플렛 1부를 동봉하여 패널 거주지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조사용 질문지 발송 1주일 후 질문지 수령 여부 및 방문일정 협의를 위해 조사원이 패널 아동의 주양육자와 개별연락을 취하였다.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면접 조사는 2012년 7월 31일에 시작되어 10월 19일에 완료하였다. 5차년도의 조사는 올해 4월 초에 있었던 총선으로 인한 조사업체의 일정 조정 요청으로 예년보다 한 달 반 정도 시작이 지연되었으며 그럼에도 조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종료 시기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2주 정도 완료일을 늦추었다.

육아지원기관 조사의 경우는 패널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아동의 담임 교사(또는 강사)가 작성해야 하므로, 조사 참여 동의 절차와 조사 진행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면접원이 면접 조사를 위해 각 가정 방문 시 아동 어머니에게 기관 조사를 소개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 한해서, 아동이 다니고 있는 각 기관의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가정 방문 면접 조사 시작 이후인 7월 23일부터 시작되어 11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조사별 일정은 다음의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질문지별 조사 일정

질문지	조사 방법	일정
아버지, 어머니대상	우편 발송 및 수거	6월 25일 ~ 10월 15일
면접조사용(CAPI), 창의성 검사, HOME, CBCL	가정 방문 및 면접 실시	7월 9일 ~ 10월 15일
교육·보육기관용(교사대상)	이메일 안내문 및 웹 주소 발송	7월 23일 ~ 11월 5일

5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창의성 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검사 진행 중에 나타난 어려움으로, 검사자가 예로 제시한 '도형'을 아동이 모방하는 경우, 주어진 시간 5분이 지나기 전에 다 했다고 하면서 검사를 그만 하는 경우, 검사 2에서 그린 그림에 제목 붙이기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등이 보고되었다.

4차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육아지원기관용 질문지의 내용을 어머니에게 소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문항을 궁금해 하였으므로, 올해에는 질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동의를 구하도록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관조사는 작년에 비해 어려움이 적었지만, 올해에는 아동 대부분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학원 등 육아지원기관에 다니고 있으므로 개별 조사인 기관 조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기관조사에 동의하여 조사가 완료된 경우는 각 가정에 감사편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라. 조사원 간담회 실시

5차년도 조사에서는 실사가 약 10%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점검한 후, 조사원 간담회를 8월에 세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원 간담회에서는 조사 진행시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조사원을 격려하고, 데이터 수집상의 오류와 실수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원들 간에 효율적인 조사 방법을 공유했을 뿐 아니라, 추가된 창의성 검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올해 아동 선물로 준비한 색연필은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6차년도 조사를 위한 선물 선택 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표 II-2-4〉 조사원 간담회 실시 일정

차수	일시	장소	참석 대상
제1차	2012. 8. 7(화)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조사원
제2차	2012. 8. 8(수)	대구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충청 지역 조사원
제3차	2012. 8. 10(금)	광주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 조사원

3. 5차년도 조사 성공률 및 표본 유지율

가. 표본 유지율

병원조사 시 구축했던 예비표본 2,562명 중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은 2,078명,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은 1,904명, 3차년도 조사를 완료한 패널 수는 총 1,802명, 4차년도 조사 성공 패널 수는 1,754명이었다. 10월 15일에 완료된 5차년도 조사에는 1,703명이 참여하였다.

〈표 II-3-1〉 1차년도 및 2·3·4·5차년도 패널의 표본 유지율

조사년도	참여패널 수	단위: 명, %	
		전체패널 대비 유지율	전년 대비 유지율
초기 예비표본 구축	2,562	-	-
전체 패널	2,150	-	-
1차년도(원 패널)	2,078	97.7	-
2차년도	1,904	88.6	91.6
3차년도	1,802	83.8	94.6
4차년도	1,754	81.6	97.3
5차년도	1,703	79.2	97.1

주: 1) 예비표본 중 2차년도에 52가구, 3차년도에 20가구가 포함됨.

2) 전체패널은 1차, 2차 또는 3차년도 조사 중 한 번이라도 참여한 패널을 의미함.

조사에 응하지 않은 패널을 대상으로 거절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5차년도에는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가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냥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21.6%로 나왔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매년 이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많으므로, 패널 가정의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II-3-2〉 패널 조사 거절 이유

조사 거절이유	단위: %(명)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그냥 귀찮아서	49.2(217)	37.6(164)	31.0(80)	21.6(59)
조사에 응할 시간이 없어서	17.2(76)	34.6(151)	40.3(104)	29.3(80)
매년 연락 오는 것이 싫어서(지겨워서)	8.8(39)	13.8(60)	9.7(25)	20.1(55)
조사시점 연기 안내 비수신	-	-	-	14.7(40)
조사(또는 조사원)을 믿을 수가 없어서	0.2(1)	0.5(2)	2.3(6)	3.7(10)
남편, 시부모님 등 가족들이 싫어해서	2.0(9)	3.2(14)	3.5(9)	6.6(18)
아동의 컨디션(건강)이 나빠서	0.5(2)	0.7(3)	.6(4)	0.4(1)
부모의 컨디션(건강)이 나빠서	-	-	-	1.1(3)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아서	0.9(4)	2.3(10)	8.1(21)	1.8(5)
기타(작년에 안했기 때문, 외국체류 등)	21.1(93)	7.3(32)	3.5(9)	0.4(1)
계	100.0(441)	100.0(436)	100.0(258)	100.0(272)

육아지원기관 조사의 경우, 11월 5일자 기준으로 기관조사에 동의한 패널은 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가구의 71.8%이며 이중 83.1%인 1,016명의 아동 담임교사 및 강사들이 기관 조사를 완료하였다. 기관별로 웹 조사메일 발송한 현황 및 완료 현황은 <표 II-3-3>과 같다.

〈표 II-3-3〉 교육·보육 기관 조사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조사 완료	634	82.8	346	84.8	38	84.4	1,018	83.5
조사 미완료	132	17.2	62	15.2	7	15.6	201	16.5
계	766	100.0	408	100.0	45	100.0	1,219	100.0

주: 조사 참여 안내 메일을 발송한 1,219 기관 기준임.

나. 표본 유실률

5차년도의 표본 유실률을 권역별로 그 이유를 추적 실패와 거절로 나누어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3-4〉 5차년도 권역별 패널 유실률

단위: 명(%)

권역 구분	서울/경인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강원권	전라권	전체
추적실패	100(9.8)	29(7.8)	9(3.8)	20(7.1)	15(6.3)	173(8.0)
거절	138(13.5)	52(14.0)	24(10.3)	29(10.2)	29(12.1)	272(12.7)
탈락	-	-	2(0.9)	-	-	2(0.1)
계	238(23.3)	81(21.8)	35(15.0)	49(17.3)	44(18.4)	447(20.8)
대상 패널 수	1,022	372	234	283	239	2,150

4. 1~4차년도 기존 자료의 확산 노력

2012년 한국아동패널 연구 5차년도에 실시된 기존 자료의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학술대회의 개최이고, 둘째는 심층 연구보고서의 발간이다.

가. 제3회 학술대회 개최의 경과

1) 일시 및 장소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2012년 8월 31일(금, 오후 13시 30분~17시 40분) 서울시 중구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한국아동

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2) 연구 주제 및 발표 논문

제3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어머니 취업, 저소득 가정, 후속출산, 육아지원기관 이용이라는 연구 영역으로 나누었다. 연구 영역에 따른 발표자와 토론자는 <표 II-4-1>과 같다.

<표 II-4-1>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주제 및 발표자

주제 영역	발표자 및 논문 제목	토론자
주제 1 어머니 취업	이미리(한국체육대), 신유림(가톨릭대) “아동의 기질 및 환경적 지원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역할의 간접효과”	이봉주 (서울대)
	김진경(한국방송통신대) “영아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정환경 탐색”	김혜금 (동남보건대)
주제 2 저소득 가정	박혜원, 강한나(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 “저소득가정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 연구”	조성연 (호서대)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저소득 가정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환경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익중 (이화여대)
주제 3 후속출산	정미라(가천대), 박수경(원광대), 홍소영(춘천교대) “첫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환(전북대) “어머니 결혼만족도와 우울의 중단관계 연구”	정현숙 (상명대)
주제 4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경옥(덕성여대)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따른 어머니의 특성 비교”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안재진(숙명여대)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계획과 실제 이용 간의 관계”	문혁준 (가톨릭대)

나. 심층 분석 연구개요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는 하나의 별도 과제로 진행되었다. 심층 분석 보고서는 2008-2011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 자료를 추가 심층 분석한 결과를 묶은 형태로, 총 4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각 주제별 원고는 독립적 논문형태로 장별로 연구자가 주제를 정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연구 주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영유아 발달과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아보는 연구로, 기본생활 습관, 일과 및 선호 활동 영역, 육아지원기관 및 서비스를 종속 변인으로 두고 여러 발달 측면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부모의 후속출산 행동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이다.

셋째는 가정과 부모의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 양육 특성을 비교하였다.

5. 향후 계획

가. 5차년도 조사 및 데이터 처리

진행되고 있는 5차년도 모든 조사는 2012년 10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조사 데이터 코딩 및 에디팅 가이드에 의한 기본 에디팅을 거친 1차 데이터가 2013년 1월 말까지 정리될 것이고, 이후 지속적 세부 에디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3년 말까지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가 완료될 것이다.

나. 4차년도 자료 에디팅 및 제4차 학술대회 개최

기초분석보고서가 제출된 2011년 조사 4차년도 데이터는 최종 에디팅을 거쳐 제4차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자료로 2013년 2월경 학술대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대회가 2013년 상반기 중 개최될 것이다.

다. 3차년도 자료의 공개

2012년 개최된 제3차 학술대회를 거친 3차년도 자료는 최종 데이터 에디팅을 거쳐 2012년 12월 31일 일반사용자를 위해 공개되었다. 공개 자료에는 3차년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코딩북과 활용안내, 그리고 도구프로파일, 질문지 패키지 등이 모두 포함되며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라. 6차년도 조사의 준비

2012년 5차년도까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만 5세 아동발달과 성장에 관한 광범위한 기존 이론과 문헌 자료 수집을 통하여 2013년 실시될 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 질문지 개발을 2013년 1월 착수할 예정이다. 5차년도 조사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패널이 만 5세가 되는 4월 이후를 기점으로 최적의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6차년도 조사 준비는 5월경 실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부]

한국아동패널 2011 기초분석보고

Ⅲ. 4차년도(2011) 기초분석 개요

1. 조사의 개요

가. 4차년도 조사 참여율

4차년도에 실시한 일반조사의 조사 참여율은 1,754명으로 전체 기준 68.5%이며, 1차년도 조사 참여 패널을 기준으로 84.4%였다. 4차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언어 발달 검사인 REVT는 1,747명이 조사 완료되었고, 아동이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의 교사 대상 조사는 700명이 참여하였다.

〈표 III-1-1〉 한국아동패널 2008~2011년 조사 참여율

단위: 가구, %

패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계
병원구축 기준 가구 수	1,219	437	316	293	297	2,562
2008년 총 패널(기준) 가구수	1,234	438	296	315	277	2,560
2008년 참여 가구수	992	349	240	271	226	2,078
2009년 참여 가구수	879	320	221	271	213	1,904
2010년 참여 가구수	839	307	210	253	193	1,802
2011년 참여 가구수	809	299	210	243	193	1,754
예비표본 기준 성공률	65.6	68.3	70.9	77.1	69.7	68.5
2008년 참여 기준 성공률	81.6	85.7	87.5	89.7	85.4	84.4
2008년 참여 기준 유실율	18.4	14.3	12.5	10.3	14.6	15.6

주: 1) 주소를 기준으로 서울(서울, 경기, 인천), 부산(부산, 울산, 경남), 대구(대구, 경북), 대전(대전, 충청, 강원), 광주(광주, 전라)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함

2) 2009년, 2010년 성공패널의 지역 기준은 2011년 현재 지역이 아닌 2008년 지역으로 기준으로 하였음.

나. 분석주제별 변인 구성

4차년도 조사의 분석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 육아지원기관 이용 특성, 육아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6개의 주제별로 이루어졌으며, 분석주제별 변인의 구성과 해당 변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2)

1) 일반적 특성

4차년도 조사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건강특성, 근로 특성, 학업 특성, 미취업/미학업 특성, 구직활동 특성, 가구 특성, 지역사회 특성, 위탁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일반적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인구학적 특성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위탁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면접조사용
건강 특성	아동의 예방접종 아동의 병력 모유수유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 면접조사용
	부모의 음주 습관 부모의 흡연 습관	- 어머니용 - 아버지용
근로 특성	고용상태 직업분류(후코딩) 근로/통근 시간 휴직 경험 휴직 시기 휴직 기간 휴직 사유 복귀계획 향후 취업계획, 이직사유 근로 장소 규모 일을 하는 이유 직업/직무만족도	- 면접조사용 - 아버지용
학업 특성	학업상태 학업/통학 시간 휴학 경험 휴학 시기 휴학 기간 휴학 사유 복학계획	- 면접조사용
미취업/미학업 특성	취업·학업 중단 시기 중단 시의 상태 중단 사유 복귀계획	- 면접조사용

2) 4차년도 조사 질문지는 부록 4-6에 수록됨.

(표 III-1-2 계속)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구직활동 특성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사유 희망 근로 형태 및 이유 희망 근로 소득	- 면접조사용
가구 특성	가계경제요소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물리적 환경 가정환경(HOME) 사회보장 지원	- 면접조사용 - 어머니용
지역사회 특성	가구 소재지 및 거주 기간(후 코딩) 지역유형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 면접조사 - 어머니용
위탁가구 특성	가구 소재지 및 거주 기간(후 코딩) 지역유형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 면접조사용

2) 아동발달 특성

아동발달 특성은 신체발달, 기질, 일과활동 특성, 언어발달, 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 각 검사도구별 해당하는 변인과 질문지는 다음 <표 III-1-3>과 같다. 신체발달은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고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기초생활습관은 아동의 수면과 식습관, 배변/씻기/옷 습관, 낮잠 등의 하루일과 시간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발달 검사로는 REVT를 사용하였는데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나뉘어 전체 언어 능력을 검사하였다. 또한 사회성 발달은 또래상호작용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III-1-3〉 아동발달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신체발달	체중 및 신장	- 면접조사용(측정)
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 어머니대상
일과활동 특성	기초습관: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옷 입기 낮잠 및 수면 하루일과 시간	- 어머니대상 - 면접조사용
언어발달(REVT)	수용언어, 표현언어	- 수행검사
사회성발달	또래상호작용	- 어머니대상

3) 부모됨 특성

부모됨 특성은 향후 출산계획,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양육 특성으로 구분하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4>와 같다. 3차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내용은 아버지의 개인 내적 특성과 양육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은 1~3차년에는 어머니에게만 물었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에 대한 질문을 4차년도에는 아버지에게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양육특성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해 어머니, 아버지에게 모두 조사하였다.

<표 III-1-4> 부모됨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향후 출산 계획	후속 출산 의도	- 어머니대상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및 계획 시기	
	후속 출산 비계획 사유	
	국가 지원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 유치원/어린이집 무상지원	
	- 양육비용 지원, 적정 양육지원 금액	
부모 개인 내적특성	'5세 누리과정'에 따른 출산 계획	- 어머니대상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이상적인 자녀수, 기대성별, 자녀형태	
	자기효능감	
부부관계 특성	자아존중감	- 아버지대상
	우울	
	결혼만족도	
양육특성	부부갈등	- 어머니대상 - 아버지대상
	아버지의 양육참여	
	자녀가치	
	자녀기대	
	양육스트레스	
	양육실제	
자녀 양육시간	- 면접조사용	

4)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은 서비스 이용현황, 비대가성 양육지원, 개인대리양육, 육아지원기관,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계획, 부모참여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5>와 같다.

〈표 III-1-5〉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서비스 이용현황	출생 후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육아지원서비스 변경 경험/횟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낮 시간 주 양육자 주이용 육아지원서비스 육아지원서비스 미이용 이유	- 면접조사용
비대가성 양육지원	비대가성 양육지원 여부, 지원 인원 비대가성 양육지원자 비대가성 양육지원자 동거여부, 거주거리 비대가성 양육지원 시간	- 면접조사용
개인대리양육	개인대리양육 이용 이유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및 인구학적 특성 개인대리양육자 구인 경로 개인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이용 시작시기, 이용 빈도 및 시간 이용비용, 지불방식, 추가지원 비용 이용비용 부담도, 이용 만족도 육아지원서비스 중복이용 이유	- 면접조사용
육아지원기관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 육아지원기관 입지 조건 이용 시작시기, 이용 빈도 및 시간 이용비용, 지불방식, 추가지원 비용 이용비용 부담도, 이용 만족도 보육비 지원 여부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 면접조사용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용 여부/횟수 프로그램 내용, 진행 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 여부, 교사 유무 월별 참여 횟수, 시간, 이용 기간, 참여 비용	- 면접조사용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계획	향후 이용 계획	- 면접조사용
부모참여	부모참여 형태 우선순위 부모참여 프로그램 전반적 실시 정도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 정도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 행사 아동의 기관 선호도	- 어머니대상

5)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³⁾ 이용특성

교육·보육 기관 이용특성은 기관 특성, 교실 특성, 교사 특성, 아동 특성, 부모 참여 등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표 III-1-6).

〈표 III-1-6〉 육아지원기관 이용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기관 특성	기관 및 설립유형, 평가여부 학급 및 현원 수	- 기관 교사용
교사 특성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및 근무기간, 시간 교수 효능감 교사-아동 상호작용	- 기관 교사용
교실 특성	교실형태 - 성비, 교사 수, 교실환경, 해당 연령 - 휴식/낮잠 공간 및 시간, 영역구성 표준보육/유치원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운영 -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운영, 운영시간	- 기관 교사용
아동 특성	아동의 등/하원 시간, 수단 및 동반하는 사람 아동의 간식 및 낮잠 - 간식 횟수, 낮잠여부 및 시간 아동의 기관 이용 생활 - 선호하는 놀이 영역 - 기관 선호정도, 교사 선호정도	- 기관 교사용
부모참여 특성	부모참여 내용 - 중요한 부모교육형태, 부모교육내용 부모의 기관 참여형태 - 기관 참여프로그램 및 방문 횟수 - 부모-교사 의사소통	- 기관 교사용

6) 육아지원정책 특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은 정책의 방향,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직장의 육아지원 정책,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등의 3개의 주제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해당하는 변인은 <표 III-1-7>과 같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에 대한 문항을 아버지에게도 질문을 하였다.

3) 본 보고서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으로 명칭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육아지원기관과 혼용되고 있음. 두 용어 간 차이는 없으므로 대체 가능함.

〈표 III-1-7〉 육아지원정책 특성

구분	하위변인	해당질문지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 어머니용
일과 가정 양립정책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우선순위	- 어머니용
	대리양육 시 가장 중요한 점	- 아버지용
직장 육아지원정책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시행여부	- 어머니용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이용/미이용 이유	
육아지원서비스 정책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도움정도	- 면접조사용
	보육/교육비용 지원 여부 및 종류	
	보육/교육비용 외 지원 여부 및 종류 보육/교육비용 외 지원 비용 지불	

2. 가중치 작성⁴⁾ 및 추정

가. 가중치 부여방법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의료기관을 집락으로 사용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에 의해 표본이 구축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e design)에서 얻어진 표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과정을 통해 적절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설계된 조사의 가중치는 ① 설계 가중치, ②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③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보정 등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특히 아동패널과 같이 매년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패널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중 2차 조사이후에 무응답이 발생하거나 패널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표본이 마모(sample attrition)됨으로써 표본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연구대상 모집단에도 매년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 자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를 통한 가중치 보정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도 추출확률에 따른 설계가중치를 기초로 무응답 조정

4) 가중치 부여방법은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대해 조사마다 동일하게 적용됨. 각 연도별로 가중치의 보정 시 설계가중치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 가중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1차년도 보고서(조복희 외, 2009)를 참고할 것.

및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한 1차년도 가중치를 산출하여 이미 제공하였으며, 2009년도(2차) 및 2010년도(3차) 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매년 무응답 및 사후층화 조정 과정을 통해 작성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를 제공해 왔다.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가 매년 수행됨에 따라 각 연도별로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타당한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나. 4차년도 가중치 보정

1) 아동패널 응답패턴 분석

패널조사의 가중치 보정을 위해서는 우선 패널가구의 응답패턴을 분석하는 동시에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상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패널 가구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 특성 분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횡단면 및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하고자 한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구체적인 패널가구 응답 패턴 및 여부 및 표본마모 현황은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이정림 외, 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2011년) 조사결과 패널 가구 응답여부에 따른 분포는 <표 III-2-1>과 같다. 우선 1차년도 원패널 2,078가구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차~4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는 1,617가구로 원패널 기준 표본 유지율은 77.8%이다. 한편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396가구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패널 가구 중 1차, 2차 및 3차년도 조사에 계속 참여하였으나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87가구, 3차년도 이후에 계속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14가구, 1차년도에만 참여를 하고 2차년도 이후 조사에는 계속 참여하지 않은 164가구였으며, 그 밖에 단조결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에 해당하지 않는 4차년도 무응답 가구가 31가구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패널(2,150가구)을 기준으로 보면 4차년도 패널 응답률은 81.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참조).

한편,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차년도에 새로 52가구가 한국아동패널에 추가로 참여하였고, 이들 가구 중 32가구는 4차년도 조사까지 계속 참여하였다. 또한,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차년도에 20가구가 새로 참여하였으

〈표 III-2-1〉 연도별 한국아동패널가구 응답가구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2008년 참여여부	2009년 참여여부	2010년 참여여부	2011년 참여여부	가구수	비율
원패널: 조사 성공	○	○	○	○	1,617	75.2
원패널: 4차년도 탈락	○	○	○	X	87	4.0
원패널: 3차년도 이후 탈락	○	○	X	X	114	5.3
원패널: 2차년도 이후 탈락	○	X	X	X	164	7.6
2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32	1.5
3차년도 신규: 조사 성공	-	-	○	○	14	0.7
기타: 4차년도 참여	*	*	*	○	91	4.2
기타: 4차년도 탈락	*	*	*	X	108	1.4
계(4차년도 조사 성공가구)					2,150(1,754)	100.0

주: 단조결측패널이 아닌 경우는 '기타'로 표기됨.

며 이 중 14가구가 4차년도 조사에도 참여하여, 4차년도에는 최종적으로 1,754 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참고로, 2차와 3차년도 조사까지는 패널 구축 당시 예비 표본 중에서 해당 연도의 표본으로 추가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였지만 4차년도 조사부터는 3차년도 조사에서 최종으로 구축된(예비표본 중 최소한 1차, 2차, 3차 조사 중 한번 이상 참여한 가구) 2,150 가구 외에 더 이상 표본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차, 2차, 3차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의 4차년 이후에 대한 자료의 구축만으로는 원래 패널조사의 목적에 따른 종단적 연구의 의미가 없고, 이미 3차년도 조사까지 참여하지 않은 패널의 참여를 유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더불어서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신규패널로 인해 매해 다소 다른 기준의 패널 수(예: 1차년도 2,078, 2차년도 2,130, 3차년도 2,150 가구)로 가중치 작업을 새롭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3차년도 이후부터는 2,150가구가 설계가중치 산출 시 기준 패널 수로 적용된다.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작성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무응답에 따른 편향을 줄이며 또한 가중치 산출 방안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기존의 3차년도까지 적용했던 무응답 조정 계급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무응답을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1년 주민등록인구 자

료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과정을 통해 최종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한 것이다. 참고로 2011년도 4차년도 아동패널 가중치 산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작업은 4차년도에 조사가 완료된 1,754가구가 우리나라 2008년 신생아 가구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최종 가중치는 전체 패널 중 4차년도 무응답 396가구에 따른 무응답 가중치 보정 후, 통계청의 2011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과정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산출한 것이다.

우선 1차년도 패널 가구의 조사누락으로 인한 편향(bias)을 줄이기 위한 무응답 가중치 보정을 위해, 조사 자료에 나타난 가구/어머니 특성을 고려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구성해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구/어머니 특성에 따른 응답률 분석을 위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 변수들 중 거주지, 성별, 어머니 취업여부, 아동출생순위, 어머니 최종학력, 어머니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등과 같은 조사대상자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사용한 로지스틱모형을 기초로 응답률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변수를 통계적인 변수선택방법을 통해 추출했다. 모형 적합을 위해서는 연도별 응답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패널 가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2차와 3차년도에 신규로 참여한 경우는 신규 참여 연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일부 응답가구 중 취업여부 및 지역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음).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III-2-2>와 같이 거주지(6개 권역), 출생순위(2개 범주) 및 어머니 취업여부(2개 범주)의 세 가지 변수가 한국아동패널의 무응답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차년도 무응답 가중치 보정과정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변수들을 무응답 조정 계급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무응답 가중치 보정 과정이 연도별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I-2-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변수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i>p-value</i>)
취업여부	1	4.2950	0.0382
출생순위	1	2.4244	0.1195
지역(권역)	5	10.3060	0.0670

따라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은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대 둘째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무응답에 따른 가중치 조정 후, 최종 가중치는 통계청의 2011년 주민등록인구 자료에서 권역별로 만 3세 남녀 아동수와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범주별 표본가중치의 합이 일치하도록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최종 2011년 횡단면 가중치를 산출했다. 사후층화과정에서는 일부 극단적으로 값이 크게 산출된 가중치는 적정 수준에서 절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단(outlier) 가중치를 포함한 계급 내의 다른 가중치를 절사된 만큼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1년 한국아동패널 횡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표 III-2-3>과 같다. 최종 2011년 횡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262.82, 표준편차는 162.86, 최소값은 30.17, 최대값은 85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3차년도 최종 가중치 부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262.82	162.86	1,754	30.17	851.81

3) 종단면 가중치 작성

2010년도 3차년도 아동패널까지는 3개 년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아동패널 자료 이용자가 본격적인 종단면 자료 분석을 할 정도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단면 가중치는 제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래 패널조사는 시점별 모집단 현황 파악을 위한 횡단면 분석과 함께 동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단면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패널의 경우에도 이번 4차년도 자료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가중치를 작성해 자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을 위해 우선 원 표본 가구로부터 4차년도 까지 무응답 패턴을 분석해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을 설정하였다. 4차 년도에 새로 추가되는 종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은 횡단면 가중치 산출과정과 유사한 무응답 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2008년부터 4개 년 모두 응답한 가구의 자료에만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중치 산출을 하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작성 과정과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응답률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 아동패널의 무응답이 단조결측패턴(monotone missing pattern)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 및 종단면 가중치는 각각 별도로 산출되어야 한다.

종단면 가중치 무응답 조정을 위한 로지스틱 분석결과는 <표 III-2-4>와 같으며, 결과적으로 종단면 가중치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도 횡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출생순위 및 어머니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해 종단면 가중치를 위한 무응답 보정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III-2-4>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무응답 로지스틱 모형 분석결과

변수	자유도	Wald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i>p-value</i>)
취업여부	1	3.0194	0.0823
출생순위	1	2.6280	0.1050
지역(권역)	5	19.2748	0.0017

따라서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단면 가중치 보정을 위한 무응답 조정 계급(non-response adjustment class)도 거주지를 나타내는 6개 권역, 출생순위를 나타내는 2개 범주(첫째 아동 대 둘째 이상 아동), 어머니 취업여부를 나타내는 2개 범주를 기준으로 24개 무응답 조정 계급을 구성하고 각 계급 내에서 가중응답률(weighted response rate)을 산출한 후, 이 값의 역수를 무응답 조정 상수로 사용하여 해당 계급내의 응답 가구 가구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가중치 조정 작업을 수행했다.

종단면 가중치 작성과정에서도 1차년도(2008년) 이후 발생한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는 동시에 패널 마모에 의한 편향(bias)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형식의 벤치마킹 가중치 보정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종단면 가중치도 무응답에 따른 종단면 가중치 조정 후, 통계청의 2011년 주민등록인구자료에서 권역별로 만 3세 남아 아동수

를 벤치마킹하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가중치 보정 과정을 통해 산출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에 대한 사후층화과정에서도 횡단면 가중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 극단(outlier) 가중치를 절사 처리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술한 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2011년 한국아동패널 종단면 가중치의 기술통계는 <표 III-2-5>와 같다. 최종 2011년 횡단면 가중치의 평균은 285.09, 표준편차는 170.48, 최소값은 32.09, 최대값은 807.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4차년도 최종 종단면 가중치 부여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사례별 가중치	285.09	170.48	1,617	32.09	807.62

다. 모수추정

한국아동패널에서 각종 모집단에 대한 평균(또는 비율)은 표본가중평균(標本加重平均)을 이용하여 추정하며, 표본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ar{y}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 \frac{\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Y_{hij}}{W_{\dots}}$$

W_{hij} : 각 표본 신생아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

Y_{hij} : 각 조사대상 가구에서 얻은 각종 조사 변수에 대한 관측치들

$W_{\dots} = \sum_{h=1}^L \sum_{i=1}^{k_h} \sum_{j=1}^{n_{hi}} W_{hij}$: 모든 표본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합

참고로 한국아동패널 분석용 자료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횡단면 가중치만을 조사 자료와 함께 제공하였지만, 2011년 4차년도 자료부터는 횡단면 가중치와 함께 종단면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을 위한 가중치도 제공되게 된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타당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가중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조사가 완료된 2,078가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008년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해야 하고, 2009년, 2009년, 2010년 및 2011년 자료에 대한 횡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년도의 횡단면 가중치 반드시 적용해 분석해야한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계속 조사된 1,617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면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와 함께 제공된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표 III-2-6 참조).

〈표 III-2-6〉 한국아동패널 조사 연도별 가구 수 및 가중치 적용

구분	연도	분석대상 가구 수	적용 대상 가중치
횡단면 분석	2008년 (1차조사)	2,078	2008년 횡단면 가중치
	2009년 (2차조사)	1,904	2009년 횡단면 가중치
	2010년 (3차조사)	1,802	2010년 횡단면 가중치
	2011년 (4차조사)	1,754	2011년 횡단면 가중치
종단면 분석	2011년 (1~4차조사)	1,617	2011년 종단면 가중치

IV. 4차년도(2011) 조사 결과 분석

한국아동패널 2011(4차년도)의 횡단 기초분석에서는 분석주제별 특성의 빈도 및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였고, 각 분석주제별 내용에 따라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 가구소득 및 거주지역 규모별로 차이를 검증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인구학적 특성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1,754가구로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903명, 여아 851명이었으며, 응답자는 어머니가 99.3%로 대다수였고, 아버지는 0.4%, 친조부모 0.2%, 외조부모 0.1%, 친인척 0.1%이었다.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아 46.5%, 둘째아 42.2%, 셋째아가 10.2%이었다. 아동의 연령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38개월이 27.3%로 가장 많았고, 39개월 23.0%, 37개월 18.3%의 순이었다.

〈표 IV-1-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응답자	
남자	51.5(903)	부	0.4(7)
여자	48.5(851)	모	99.3(1,741)
연령		친조부모	0.2(4)
35개월	2.1(36)	외조부모	0.1(1)
36개월	9.9(173)	친인척	0.1(1)
37개월	18.3(321)	출생순위	
38개월	27.3(478)	첫째아	46.5(816)
39개월	23.0(403)	둘째아	42.2(740)
40개월	12.3(216)	셋째아	10.2(179)
41개월	5.9(103)	넷째아	1.0(17)
42개월	1.4(24)	다섯째아 이상	0.1(2)
계		계	100.0

2) 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4차년도 조사 참여가구의 부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 연령은 30~39세가 82.6%로 가장 많았고, 20~29세가 10.8%, 40~49세가 6.7%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머니 99.7% 중 귀화한 경우는 0.2%였다. 결혼 상태는 99.0%가 현재 유배우자 초혼이었으며, 재혼 0.6%, 동거 0.2%, 이혼 0.1%, 별거 0.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5~10년 미만이 51.9%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이 33.3%, 10~15년 미만이 12.5% 순이었다. 아동과 어머니의 동거하는 경우가 99.6%였으며, 동거하지 않는 0.4% 중 71.4%가 타 지역 근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38.4%, 고졸 29.9%, 전문대졸 26.0%, 대학원 석사 졸 4.7% 순이었다. 어머니의 특성은 <표 IV-1-2>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표 IV-1-2〉 모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연령		동거여부	
20~29세	10.8(186)	동거	99.6(1,740)
30~39세	82.6(1,428)	비동거	0.4(7)
40~49세	6.7(115)	비동거 사유	
50세 이상	0.0(0)	타지역(해외 등)에 근무 중	71.4(5)
학력		학업관계	0.0(0)
무학	0.1(1)	군복무	0.0(0)
초등학교 졸	0.1(1)	장기입원/요양	0.0(0)
중학교 졸	0.5(9)	별거	0.0(0)
고등학교 졸	29.9(522)	기타	28.6(2)
전문대 졸(2·3년제)	26.0(455)	종교유무	
대학교 졸(4년제 이상)	38.4(669)	있음	48.6(849)
대학원 석사 졸	4.7(82)	없음	51.4(897)
대학원 박사 졸	0.4(7)	종교 종류	
국적		불교	13.1(228)
대한민국	99.7(1,742)	기독교(개신교)	25.8(451)
외국	0.3(5)	기독교(천주교)	9.3(162)
귀화여부		유교	0.1(1)
귀화함	0.2(4)	원불교	0.2(3)
귀화하지 않음	99.8(1,742)	천도교	0.1(1)
		기타	0.2(3)
계		100.0	

(표 IV-1-2 계속)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결혼 상대		결혼 기간	
유배우-초혼	99.0(1,729)	5년 미만	33.3(574)
유배우-재혼	0.6(11)	5년~10년 미만	51.9(896)
이혼	0.1(2)	10년~15년 미만	12.5(215)
별거	0.1(2)	15년 이상	2.4(41)
동거	0.2(3)		
계		계	100.0

아버지의 연령은 30~39세가 77.1%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18.4%, 20~29세가 4.1%, 50세 이상 0.5% 순이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99.8% 중 귀화한 경우는 0.1%였고, 아들과 동거하는 아버지는 96.5%, 동거하지 않는 3.5% 중 90.0%가 타 지역 근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졸이 42.7%로 가장 많았고, 고졸 26.0%, 전문대 졸 20.2%, 대학원 석사 졸 9.7% 순이었다. 아버지의 특성은 다음 <표 IV-1-3>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IV-1-3> 부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연령		동거여부	
20~29세	4.1(70)	동거	96.5(1,679)
30~39세	77.1(1,323)	비동거	3.5(60)
40~49세	18.4(316)	비동거 사유	
50세 이상	0.5(8)	타지역(해외 등)에 근무 중	90.0(54)
학력		학업관계	1.7(1)
무학	0.0(0)	군복무	0.0(0)
초등학교 졸	0.1(1)	장기입원/요양	0.0(0)
중학교 졸	0.7(13)	별거	0.0(0)
고등학교 졸	26.0(452)	기타	8.3(5)
전문대 졸(2·3년제)	20.2(351)	종교유무	
대학교 졸(4년제 이상)	42.7(742)	있음	39.5(686)
대학원 석사 졸	9.7(168)	없음	60.5(1,052)
대학원 박사 졸	0.7(12)	종교 종류	
국적		불교	10.5(183)
대한민국	99.8(1,735)	기독교(개신교)	21.4(372)
외국	0.2(4)	기독교(천주교)	7.0(122)
귀화여부		유교	0.1(2)
귀화함	0.1(2)	원불교	0.2(4)
귀화하지 않음	99.9(1,733)	천도교	0.1(1)
계		기타	0.1(2)
		계	100.0

3) 가구원 특성

가구 특성을 조사한 결과, 패널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3.05명 이었고, 가구 구성은 부부+자녀 구성이 90.2%, 조부모+부부+자녀가 7.4%, 부부+자녀+친척이 0.7%, 조부모+부부+자녀+친척 1.4%였다.

〈표 IV-1-4〉 가구 구성원 수 및 구성

단위: 명, %(명)

구분	구성원 수	유형	부부+자녀	조부모+부부+자녀	부부+자녀+친척	조부모+부부+자녀+친척	기타 및 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편차)	3.05 (0.86)	비율	90.2	7.4	0.7	1.4	0.4	100.0 (1,754)

나. 건강 특성

1) 아동 특성

가) 아동의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예방접종전문위원회(2011)의 소아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르면, 만 3세를 기준으로 결핵(BCG)과 홍역·불거리·풍진, 수두는 각 1회, B형 간염(HepB)과 소아마비(폴리오), 일본뇌염은 각 3회,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4회를 기준으로 한다. 아동의 예방접종을 조사한 결과, 결핵은 91.2%,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73.7%, B형 간염 84.0%, 소아마비 86.3%, 홍역·불거리·풍진 90.3%, 수두 89.9%, 일본뇌염 50.2%가 권장하는 바와 같이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예방접종은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결핵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IV-1-5〉 아동의 예방접종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 규모			모 취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취업	미취업	
	횟수	(1,754)	(686)	(699)	(369)	(703)	(1,038)
결핵	0	7.2	9.3	7.0	3.8	6.3	7.9
	1	91.2	88.5	92.0	94.9	93.0	90.0
	잘 모름	1.5	2.2	1.0	1.4	0.7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4.64(4)**			7.35(2)*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0	6.7	9.0	6.6	2.7	6.4	6.9
	1	1.5	1.9	1.3	1.4	1.3	1.7
	2	1.9	1.0	2.4	2.4	1.3	2.3
	3	14.5	12.5	15.5	16.3	16.5	13.2
	4	73.7	73.6	72.5	75.9	73.4	73.7
	잘 모름	1.7	1.9	1.7	1.4	1.1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3.52(10)**			8.58(5)	
B형 간염	0	7.6	10.3	7.2	3.3	6.3	8.5
	1	1.2	1.7	0.6	1.4	1.6	1.0
	2	5.4	4.2	6.0	6.5	6.1	4.9
	3	84.0	82.4	83.7	87.8	84.6	83.7
	잘 모름	1.8	1.3	2.6	1.1	1.4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8.60(8)***			5.76(4)
소아마비 (폴리오)	0	7.4	10.1	7.2	3.0	6.4	8.1
	1	1.4	1.7	1.0	1.4	1.6	1.3
	2	2.7	2.8	3.0	1.9	2.8	2.6
	3	86.3	84.1	85.7	91.3	87.1	85.7
	잘 모름	2.3	1.3	3.1	2.4	2.1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25.53(8)***			2.15(4)	
홍역·볼거리·풍 진	0	8.0	10.5	8.0	3.5	6.8	8.9
	1	90.3	87.9	89.8	95.4	91.5	89.4
	잘 모름	1.7	1.6	2.1	1.1	1.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7.69(4)**			2.40(2)	
수두	0	8.6	11.5	8.3	3.8	7.4	9.4
	1	89.9	86.7	90.1	95.1	91.0	89.0
	잘 모름	1.5	1.7	1.6	1.1	1.6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9.34(4)**			2.23(2)	
일본뇌염	0	3.9	5.4	3.3	2.4	3.3	4.4
	1	9.3	9.5	11.0	5.7	9.4	9.2
	2	33.0	33.1	30.9	36.6	33.9	32.6
	3	50.2	48.0	51.4	52.0	50.6	49.6
	잘 모름	3.6	4.1	3.4	3.3	2.8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df)$			18.05(8)*			3.68(4)	

* $p < .05$, ** $p < .01$, *** $p < .001$.

나) 아동의 병력

아동의 병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17.1%, 지난 1년 동안 치료 횟수는 평균 1.35회였다. 또한, 11.0%의 아동이 지난 1년 간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횟수는 평균 1.22회, 입원기간은 평균 7.41일로 조사되었다.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1~2회는 32.3%, 3회 이상은 7.3%였고, 60.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여부와 횟수, 기간

			단위: %(명), 회, 일				
구분	없음	있음	계(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치료여부	82.9	17.1	100.0(1,753)	치료 횟수	1.35(.77)	1	7 (300)
입원여부	89.0	11.0	100.0(1,753)	입원 횟수	1.22(.80)	1	10 (193)
				입원 기간	7.41(11.64)	1	132 (193)
				통원치료 횟수	0.69(1.15)	0	14 (1,753)

아동의 주된 입원이유로는 폐렴이 40.4%로 가장 많았고, 장염이 15.5%였으며, 이외에 감기, 고열, 구내염, 중이염, 기관지염 등 다양한 이유로 입원을 하였다.

〈표 IV-1-7〉 아동의 입원 이유

단위: %(명)						
구분	폐렴	장염	골절	수술	기타	계(수)
입원 이유	40.4	15.5	3.6	9.8	30.6	100.0(300)

다) 모유수유

3차년도 조사 시 '모유 수유 중'이라고 응답했던 3.1%의 가구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여부를 묻고,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 시기 및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4차년도에는 99.3%가 모유수유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기는 평균 9.05개월로 최소 0개월, 최대 38개월이며, 표준편차는 7.16개월로 개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IV-1-8〉 모유수유 여부 및 중단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수유 중	수유안함	계(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유여부	0.7	99.3	100.0(1,754)	중단시기	9.05(7.16)	0	38

라)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 질환은 2명의 아동이 1급 중증도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아동의 5.4%(94명)가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2) 부모 특성

부모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1, 2급 장애 여부 및 희귀난치성 질환과 음주 및 흡연 습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부모의 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부모 중 1, 2급 이상의 중증도 장애가 있는 경우는 어머니는 0.3%, 아버지는 0.6%이며, 희귀난치성 질환은 아버지 중 0.2%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부모의 1, 2급 장애 여부 및 희귀난치성 질환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1, 2급 장애여부		희귀난치성 질환여부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아버지	0.6	99.4	0.2	99.8	100.0(1,739)
어머니	0.3	99.7	0.0	100.0	100.0(1,747)

나) 부모의 음주 습관

부모에게 평상시 음주 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33.0%가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고, 월 1회 이하가 35.7%, 월 2~4회 25.0%, 주 2~3회 5.7% 순이었다. 음주 빈도는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취업모가 음주 횟수가 더 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회 음주 시 음주량에 대해 56.8%가 '1 또는 2잔', '3 또는 4잔'은 25.7%, '10잔 이상'은 2.6%이었다. 1회 음주 시 과음 빈도는 42.3%가 전혀 과음한 적 없었고, '한 달에 1번 미만'은 34.1%, '거의 매일'은 0.6%이었다. 음주 빈도, 음주량, 과음 횟수는 모두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고 월 2~4회, 주 2~3회 음주의 비율도 고졸이하가 가장 높고 대졸이상이 낮았다.

〈표 IV-1-10〉 어머니의 음주 습관: 음주여부 및 횟수

단위: %(명)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마시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35.7	25	5.7	0.6	33	100.0(1,702)	
아동 출생순위							
첫째	32.5	22.5	5.2	0.4	39.4	100.0(790)	34.38(8)***
둘째	38.8	28.4	6.1	0.7	26.0	100.0(719)	
셋째 이상	36.8	22.3	6.2	1.6	33.2	100.0(193)	
모 취업여부							
취업	36.4	29.5	6.0	1.0	27.1	100.0(671)	23.36(4)***
미취업	35.0	22.2	5.5	0.4	36.9	100.0(1,019)	
모 학력							
고졸이하	32.8	27.2	9.3	1.2	29.5	100.0(515)	27.97(8)***
전문대졸	37.9	24.0	4.8	0.2	33.1	100.0(441)	
대졸이상	36.2	24.1	3.7	0.5	35.5	100.0(738)	

*** $p < .001$.

〈표 IV-1-11〉 어머니의 음주 습관: 1회 음주량

단위: %(명)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계(수)	$\chi^2(df)$
전체	56.8	25.7	11.2	3.8	2.6	100.0(1,133)	
모 취업여부							
취업	50.0	29.0	13.6	3.9	3.5	100.0(486)	18.42(4)**
미취업	61.8	23.5	9.5	3.6	1.6	100.0(639)	
모 학력							
고졸이하	45.2	28.9	15.7	6.1	4.1	100.0(363)	50.56(8)***
전문대졸	56.8	24.3	12.7	4.5	1.7	100.0(292)	
대졸이상	65.7	24.4	7.0	1.5	1.5	100.0(47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8.8	21.6	11.9	4.3	3.4	100.0(352)	9.64(12)
301~400만원	57.1	27.3	10.0	4.2	1.4	100.0(289)	
401~530만원	56.9	26.0	11.3	2.5	3.4	100.0(204)	
531만원 이상	53.8	28.8	11.5	3.8	2.1	100.0(288)	

** $p < .01$, *** $p < .001$.

과음빈도를 보면, 음주자 전체의 23.6%가 월 1번 이상 과음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취업모인 경우, 고졸이하 학력인 경우 과음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널아동 출생순위에 따른 분석에 의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해당아동이 둘째일 때 전혀 과음을 하지 않는 빈도가 가장 낮았다.

〈표 IV-1-12〉 어머니의 음주 습관: 과음 빈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월 1번 미만	월 1번 정도	주 1번 정도	거의매일	계(수)	$\chi^2(df)$
전체	42.3	34.1	16.4	6.6	0.6	100.0(1,13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4.6	31.6	16.3	7.4	0.0	100.0(471)	19.25(8)*
둘째	39.4	38.3	15.7	5.9	0.8	100.0(528)	
셋째 이상	46.1	25.8	19.5	6.2	2.3	100.0(128)	
모 취업여부							
취업	35.4	36.6	19.9	6.8	1.2	100.0(486)	22.17(4)***
미취업	47.5	32.2	14.0	6.1	0.2	100.0(639)	
모 학력							
고졸이하	31.7	35.3	19.8	11.8	1.4	100.0(363)	53.71(8)***
전문대졸	44.6	32.2	16.6	6.2	0.3	100.0(289)	
대졸이상	49.0	34.5	13.9	2.3	0.2	100.0(469)	

주: 성인 여성의 과음(적정량 이상의 음주)은 한 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를 뜻함.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음주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월 2~4회'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주 2~3회'가 27.6%, '월 1회 이하'가 16.5%, 9.1%가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음' 순이었다. 아버지의 음주 습관은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패널 대상 아동이 셋째 이상일 때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가 대졸이상일 때 월 2~4회 음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13〉 아버지의 음주 습관: 음주여부 및 횟수

단위: %(명)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마시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16.5	38.7	27.6	8.1	9.1	100.0(1,626)	
아동 출생순위							
첫째	17.8	42.2	25.3	6.6	8.2	100.0(760)	22.22(8)**
둘째	16.1	36.2	29.5	9.6	8.6	100.0(685)	
셋째 이상	12.7	33.1	30.4	8.8	14.9	100.0(181)	
모 학력							
고졸이하	15.8	34.6	27.5	11.9	10.2	100.0(488)	17.13(8)*
전문대졸	17.8	39.0	27.2	7.0	8.9	100.0(426)	
대졸이상	16.2	41.3	27.8	6.2	8.5	100.0(705)	

(표 IV-1-13 계속)

구분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마사지 없음	계(수)	$\chi^2(d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7.2	36.2	26.3	9.1	11.2	100.0(536)	
301~400만원	17.7	37.8	28.0	8.5	8.0	100.0(389)	10.72(12)
401~530만원	14.3	39.8	29.9	6.8	9.2	100.0(294)	
531만원 이상	16.0	42.0	27.3	7.4	7.4	100.0(407)	
지역규모							
대도시	18.8	39.8	26.0	7.6	7.9	100.0(649)	11.59(8)
중소도시	13.9	37.8	28.2	9.6	10.5	100.0(627)	
읍면지역	16.9	38.3	29.4	6.6	8.9	100.0(350)	

* $p < .05$, ** $p < .01$.

아버지의 음주 습관 중 음주량을 보면, 1회 1~2잔을 마시는 비율이 가장 낮고(13.3%) 7~9잔(22.4%)과 10잔 이상(22.4%)이 동물로 가장 많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14〉 아버지의 음주 습관: 음주량

구분	1~2잔	3~4잔	5~6잔	7~9잔	10잔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3.3	20.1	21.8	22.4	22.4	100.0(1,466)	
모 학력							
고졸이하	10.5	20.4	23.3	22.9	22.9	100.0(437)	10.53(8)
전문대졸	11.7	19.7	21.0	22.3	25.2	100.0(385)	
대졸이상	16.2	20.1	21.2	22.1	20.4	100.0(63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3.2	20.8	22.5	23.5	20.0	100.0(476)	7.40(12)
301~400만원	13.3	20.1	22.0	20.1	24.6	100.0(354)	
401~530만원	13.6	17.4	20.0	22.6	26.4	100.0(265)	
531만원 이상	13.2	21.0	21.8	23.2	20.8	100.0(371)	
지역규모							
대도시	14.6	19.0	22.1	23.0	21.3	100.0(596)	8.10(8)
중소도시	13.0	18.8	21.0	23.7	23.5	100.0(553)	
읍면지역	11.4	24.3	22.4	19.2	22.7	100.0(317)	

과음 빈도를 보면, 전혀 과음하지 않는다가 13.0%에 불과하고 주1번이 31.5%로 가장 비율이 높고 월 1번 정도 29.5%였으며 거의 매일도 5.5%나 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집단 비교를 해보면 학력이 높은 집단(대졸이상)에서 전혀

과음하지 않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16.4%) 고졸이하 집단은 거의 매일을 9.4%나 보고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15〉 아버지의 음주 습관: 과음 빈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월 1번 미만	월 1번 정도	주 1번 정도	거의 매일	계(수)	$\chi^2(df)$
전체	13.0	20.5	29.5	31.5	5.5	100.0(1,460)	
모 학력							
고졸이하	8.7	22.5	28.7	30.7	9.4	100.0(436)	33.74(8)***
전문대졸	12.5	18.3	30.8	33.2	5.2	100.0(383)	
대졸이상	16.4	20.3	29.5	30.8	3.0	100.0(63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0	21.9	30.1	30.7	5.3	100.0(475)	13.73(12)
301~400만원	13.3	19.5	31.2	32.0	4.0	100.0(353)	
401~530만원	15.3	17.9	23.3	35.9	7.6	100.0(262)	
531만원 이상	12.4	21.4	31.6	28.9	5.7	100.0(370)	
지역규모							
대도시	14.3	20.5	31.4	29.9	3.9	100.0(595)	9.87(8)
중소도시	11.1	20.6	28.1	33.3	6.9	100.0(549)	
읍면지역	13.9	20.3	28.5	31.3	6.0	100.0(316)	

주: 성인 남성의 과음(적정량 이상의 음주)은 한 번의 술좌석에서 7잔 이상 또는 맥주 5캔 정도를 뜻함.

*** $p < .001$.

다) 부모의 흡연 습관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98.5%가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 여부는 어머니의 학력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낮은 경우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6〉 어머니의 흡연 습관: 흡연 여부

단위: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1.5	98.5	100.0(1,701)	
모 취업여부				
취업	1.6	98.4	100.0(670)	0.39(1)
미취업	1.3	98.7	100.0(1,019)	

(표 IV-1-16 계속)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chi^2(df)$
모 학력				
고졸이하	3.1	96.9	100.0(514)	15.18(2)**
전문대졸	0.7	99.3	100.0(440)	
대졸이상	0.7	99.3	100.0(739)	
지역규모				
대도시	1.5	98.5	100.0(670)	6.40(2)*
중소도시	0.8	99.2	100.0(665)	
읍면지역	2.7	97.3	100.0(366)	

* $p < .05$, ** $p < .01$.

흡연하는 어머니의 하루 흡연량을 조사한 결과, '10개비 미만'과 '11~20개비 미만'이 각각 44%이었다.

〈표 IV-1-17〉 어머니의 흡연 습관: 흡연량

구분	단위: %(명)				계(수)
	10개비 미만	11~20개비	21~30개비	31개비 이상	
전체	44	44	8	4	100.0(25)

아버지의 흡연 습관을 조사한 결과 51.1%가 흡연자라고 응답하였다. 흡연 여부는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의 흡연이 다른 지역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흡연비율이 가장 낮았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흡연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18〉 아버지의 흡연 습관: 흡연 여부

구분	단위: %(명)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51.1	48.9	100.0(1,627)	
모 학력				
고졸이하	63.5	36.5	100.0(488)	44.36(2)***
전문대졸	46.8	53.2	100.0(427)	
대졸이상	44.8	55.2	100.0(70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6.6	43.4	100.0(539)	14.95(3)**
301~400만원	48.3	51.7	100.0(387)	
401~530만원	53.4	46.6	100.0(294)	
531만원 이상	44.7	55.3	100.0(407)	

(표 IV-1-18 계속)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49.8	50.2	100.0(649)	11.63(2) **
중소도시	48.0	52.0	100.0(629)	
읍면지역	59.0	41.0	100.0(349)	

** $p < .01$, *** $p < .001$.

흡연하는 아버지의 하루 흡연량을 조사한 결과 '11~20개비 미만'이 53.9%, '10개비 미만'은 31.7%였다.

〈표 IV-1-19〉 아버지의 흡연 습관: 흡연량

구분	단위: %(명)				계(수)
	10개비 미만	11~20개비	21~30개비	31개비 이상	
전체	31.7	53.9	11.7	2.7	100.0(826)

다. 근로 특성

1) 직업 특성

부모의 근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업 상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하였고, 집안일, 가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에는 무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취업상태인 부모가 응답한 직업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판」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대분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아버지 특성

아버지는 98.3%가 취업 중이었고, 학생은 0.2%, 무직은 1.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종사상의 지위는 '정규직/상용직'이 73.4%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주/자영업자' 20.5%, '비정규직 종사자'는 임시직, 일용직 각각 2.3%, 2.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4.4%, 23.4%로 가장 많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4.0%로 뒤를 이었다.

〈표 IV-1-20〉 아버지의 취업유무

구분	단위: %(명)	
	취/학업 중	미취학/미취업
전체	98.5	1.5
모 취업여부		계(수)
취업	98.1	1.9
미취업	98.7	1.3
지역규모		
대도시	98.8	1.2
중소도시	98.4	1.6
읍면지역	98.1	1.9

〈표 IV-1-21〉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와 직업

구분	단위: %(명)	
	비율	비율 (수)
고용상태		
상용직	73.4	종업원을 둔 고용주 8.7
임시직	2.3	자영업자 11.8
일용직	2.7	무급가족종사자 1.0
직업분류		
관리자	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3.8
사무 종사자	24.4	장치·기계 및 조립종사자 14.0
서비스 종사자	5.4	단순노무 종사자 2.8
판매 종사자	10.6	군인 1.7
계		100.0

취업/학업 중인 아버지에게 1일 평균 총 근로/학업 시간을 조사한 결과 주중에는 1일 평균 9.65시간을, 주말에는 4.11시간동안 일 또는 학업을 하였다.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주중에는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말에는 읍면지역 거주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아버지의 주말 근로시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미취업모의 남편이 취업모의 남편보다 주말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주말 평균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주말 아버지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IV-1-22〉 아버지의 1일 평균 총 근로/학습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9.65	2.24	(1,695)		4.11	4.35	(1,694)	
모 취업여부								
취업	9.72	1.97	(681)	0.93	3.74	4.23	(681)	-2.92**
미취업	9.61	2.41	(1,009)		4.36	4.40	(1,008)	
모 학력								
고졸이하	9.77	2.26	(510)	1.11	5.58	4.35	(509)	57.93***
전문대졸	9.63	2.34	(439)		4.30	4.34	(439)	
대졸이상	9.59	2.17	(739)		2.99	4.02	(73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65	2.34	(558)		5.06	4.45	(558)	
301~400만원	9.92	1.90	(405)	2.93*	4.27	4.48	(404)	18.38***
401~530만원	9.53	2.18	(304)		3.25	4.01	(304)	
531만원 이상	9.50	2.45	(422)		3.32	4.04	(422)	
지역 규모								
대도시	9.85	2.21	(665)	4.48*	4.06	4.37	(665)	4.29*
중소도시	9.56	2.11	(672)		3.86	4.31	(671)	
읍면지역	9.46	2.52	(352)		4.69	4.33	(352)	

* $p < .05$, ** $p < .01$, *** $p < .001$.

취/학업 중인 아버지는 주중에는 1일 평균 57.63분을, 주말에는 1일 평균 49.47분을 출퇴근/등하교에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대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주중과 주말 모두 출퇴근/등하교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어머니 특성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인 어머니는 39.9%, 학업 중인 어머니는 0.5%이며, 59.6%는 미취업/미학업 상태이다. 이를 취/학업 중과 미취학/미취업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소도시 거주자들 중에 취업모가, 읍면지역에는 미취업모가 더 많았다.

〈표 IV-1-23〉 어머니의 취업유무

단위: %(명)

구분	취/학업 중	미취학/미취업	계(수)
전체	40.4	59.6	100.0(1,741)
지역 규모			
대도시	39.6	60.4	100.0(681)
중소도시	44.0	56.0	100.0(693)
읍면지역	34.9	65.1	100.0(367)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 67.1%, '고용주/자영업자' 14.0%, '비정규직 중 임시직' 12.4%의 순으로 조사되고,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는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1.6%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와 직업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수)
고용상태				
상용직	67.1	종업원을 둔 고용주	3.6	(691)
임시직	12.4	자영업자	10.4	
일용직	1.2	무급가족종사자	5.2	
직업분류				
미분류	16.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4	(694)
관리자	2.4	장치·기계 및 조립종사자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1.6	단순노무 종사자	0.7	
사무 종사자	22.3	군인	0.3	
서비스 종사자	3.2	무응답	14.8	
판매 종사자	6.8			
계		100.0		

취/학업 중인 어머니에게 1일 평균 총 근로/학업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주중에는 1일 평균 7.94시간을, 주말에는 5.83시간동안 근로/학업 시간으로 보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주말에 일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업 중인 어머니의 1일 평균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은 주중 1일 평균 44.06분, 주말 1일 평균 38.77분이었다. 주중에는 아동의 출생순위, 모의 학력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통근/통학 시간이 길었다. 주

말에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통근/통학 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IV-1-25〉 어머니 1일 평균 근로/학습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7.94	2.13	(638)		5.83	2.77	(182)	
모 학력								
고졸이하	7.94	2.00	(158)	2.39	6.42	2.79	(65)	6.80**
전문대졸	8.21	2.02	(180)		6.35	2.56	(50)	
대졸이상	7.77	2.24	(299)		4.87	2.67	(67)	
지역 규모								
대도시	8.08	1.98	(246)	1.81	5.24	2.96	(77)	1.93
중소도시	7.90	2.18	(272)		5.58	2.83	(70)	
읍면지역	7.63	2.31	(120)		6.38	3.03	(35)	

** $p < .01$.

〈표 IV-1-26〉 어머니 1일 평균 통근/통학 시간

단위: 분(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F	평균	표준편차	(수)	F
전체	44.07	38.80	(636)		38.77	38.50	(182)	
아동 출생순위								
첫째	50.12	41.67	(249)	7.96***	45.73	44.13	(78)	2.60
둘째	42.64	38.35	(302)		35.17	35.03	(81)	
셋째 이상	31.36	26.56	(85)		27.83	23.88	(23)	
모 학력								
고졸이하	37.21	35.29	(158)	6.98**	34.05	37.78	(65)	4.73*
전문대졸	40.21	34.44	(179)		30.06	30.38	(50)	
대졸이상	50.02	42.19	(298)		49.85	42.32	(6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13	32.07	(102)	6.64***	31.26	35.90	(35)	2.20
301~400만원	39.98	35.06	(145)		34.68	30.24	(41)	
401~530만원	43.31	37.59	(159)		34.02	32.27	(41)	
531만원 이상	52.00	42.96	(230)		48.38	46.20	(65)	
지역 규모								
대도시	51.44	39.80	(246)	9.01***	43.60	39.39	(77)	2.30
중소도시	43.41	39.96	(270)		38.93	40.24	(70)	
읍면지역	33.25	36.39	(120)		27.06	30.87	(35)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취업 중인 어머니 39.9%에서 재직 중은 92.4%, 휴직 중은 7.6%였으며, 휴직 중인 어머니의 22.6%가 대상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었고, 65.1%가 동생에 대한 출산/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었다.

〈표 IV-1-27〉 어머니의 휴직/재직 여부 및 휴직사유

단위: %(명)

구분	휴직 중	재직 중	계(수)	구분	아동에 대한 육아휴직	동생에 대한 출산/육아휴직	기타	계(수)
취업상태	7.6	92.4	100.0 (694)	휴직사유	22.6	65.1	12.3	100.0 (106)

휴직 중인 어머니의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4.9%,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1.9%, '잘 모르겠다'는 13.2%였다. 복귀 시기는 아동이 평균 46.9개월이 되었을 때로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8〉 휴직 중 어머니의 향후 직장으로의 복귀 계획 및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복귀할 생각임	복귀할 생각이 없음	잘 모르겠다	계(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귀계획	84.9	1.9	13.2	100.0(53)	복귀시기	46.9(10.8)	38	84

현재 재직 중인 어머니에게 지난 1년간 휴직을 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3%이었다. 또한 직장 또는 직위 변동 여부에 대하여 67.4%가 변동이 없었고, 6.8%는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9〉 재직 중인 어머니의 휴직 경험여부 및 직장/직위 변동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구분	변동 없음	직장이 바뀌었	직위가 바뀌었	해당 없음	계(수)
휴직경험	8.3	91.7	100.0(641)	직장/직위변동	67.4	6.8	2.0	23.8	100.0(694)

주: 해당 없음은 지난 조사 시 미취업/미학업임.

취업 중인 어머니의 일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가 65.0%, '경제적 이유를 위해(생계를 위해)'가 15.4%, '자아실현을 위해'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0〉 어머니의 일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일하는 이유	65.0	15.4	1.0	0.3	13.7	2.4	1.3	0.9	100.0(694)

주: ①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 ② 경제적 이유를 위해(생계를 위해), ③ 지인 및 가족이 원해서, ④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⑤ 자아실현을 위해, ⑥ 경력개발을 위해, ⑦ 효과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⑧ 기타

출산이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소득에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본 결과, 취업 중인 어머니들의 54.0%는 소득이 출산 전과 동일하였고, 34.7%는 증가하였으면, 11.2%는 감소하였다.

〈표 IV-1-31〉 어머니의 출산 전/후 소득변화

단위: %(명)

구분	출산 전보다 증가	출산 전과 동일	출산 전보다 감소	계(수)
전체	34.7	54.0	11.2	100.0(694)

취업 중인 어머니의 직무만족도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5점 척도에 3.62점이고, 항목별로 모두 3점 이상이었다. 가장 낮은 항목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3.27점이고, 가장 높은 항목은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72점, 취업의 안정성 3.71점, 업무 내용 3.71점이었다.

〈표 IV-1-32〉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의 항목별 직무만족도

단위: 점

구분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업무 내용	근로 환경	근로 시간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 고과의 공정성	복지 후생
임금근로자									
평균	3.30	3.71	3.71	3.66	3.59	3.52	3.72	3.45	3.27
표준편차	0.81	0.73	0.67	0.72	0.72	0.74	0.62	0.69	0.88
비임금근로자									
평균	3.42	3.57	3.73	3.62	3.56	3.62	3.63	3.75	3.50
표준편차	0.76	0.70	0.62	0.70	0.82	0.67	0.67	0.95	1.00

4차년도 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3.59점이었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임금 또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가장 낮았고, 만족도는 인사고과의 안정성 3.75점, 업무내용 3.73점,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6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구분 없이 취업모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3.62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33〉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2	.62	
임금근로자	3.62	.61	
비임금근로자	3.59	.63	

라. 미취업/미학업 특성

현재 미취업/미학업인 어머니 1,038명 중 이전년도에 취업/학업 중이었던 어머니 596명의 미취업/미학업 이전의 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타 및 무응답 외에 재직 중이 32.9%로 가장 많았고, 졸업 16.0%, 출산 및 육아휴직이 16.8%, 휴학/방학이 0.7% 순이었다.

〈표 IV-1-34〉 어머니의 미취업/미학업 전의 취/학업 상태

									단위: %(명)
구분	휴학/방학	졸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직	기타	무응답	계(수)	
이전 상태	0.7	16.0	8.6	8.2	32.9	33.6	2.2	100.0(596)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는 11.4%,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각 7.9%로 어머니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가정과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5〉 어머니의 일/학업을 그만 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그만 둔 이유	0.8	11.4	1.5	5.9	45.5	2.0	0.7	3.0	0.7	7.9	7.9	0.3	12.4	100.0(596)

주: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⑦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⑩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⑪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⑫ 학교를 졸업해서, ⑬ 기타

현재 미취업/미학업인 1,038명의 향후 취/학업 계획에 대한 응답은 '계획이 전혀 없음'이 67.9%로 가장 많았고, 취/학업의 계획이 있는 경우 '1~2년 이내'가 7.3%, '5년 이후' 5.2%, '2~3년 이내' 4.8%였다.

〈표 IV-1-36〉 어머니의 향후 취/학업 계획

단위: %(명)

구분	계획 없음	6개월 이내	6개월 ~1년 이내	1~2년 이내	2~3년 이내	3~5년 이내	5년 이후	아동의 동생 출산 후	기타	계(수)
취/학업 계획	67.9	4.6	3.9	7.3	4.8	4.5	5.2	1.0	0.7	100.0(1,038)

마. 구직활동 특성

학업모와 미취업모 중 앞으로 취/학업할 계획이 없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언 제라도 취/학업할 계획이 있는 어머니에게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 근로 56.9%, 전일제 근로 43.1%이었고, 이는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1-37〉 어머니의 희망 근로시간 형태

단위: %(명)

구분	시간제 근로	전일제 근로	계(수)	$\chi^2(df)$
전체	56.9	43.1	100.0(304)	
지역규모				11.10(2)**
대도시	62.3	37.7	100.0(114)	
중소도시	45.4	54.6	100.0(119)	
읍면지역	67.6	32.4	100.0(71)	

** $p < .01$.

또한 시간제근로를 희망하는 173명의 어머니 중, '아이를 돌보려고'라는 응답이 92.5%, '가사일 때문에'가 4.0%,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가 2.9% 순이었다. 구직활동 중인 어머니 304명의 희망 근로수입은 '51~100만원'이 38.8%, '101~150만원'이 33.6%, '151~200만원' 16.1%였다.

〈표 IV-1-38〉 어머니의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를 돌보려고	가사일 때문에	학업을 위하여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계(수)
전체	92.5	4.0	0.6	2.9	100.0(173)
지역규모					
대도시	94.4	2.8	0.0	2.8	100.0(71)
중소도시	90.7	7.4	1.9	0.0	100.0(54)
읍면지역	91.7	2.1	0.0	6.3	100.0(48)

〈표 IV-1-39〉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망 근로수입

단위: %(명)

구분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250만원	251~300만원	301만원 이상	계(수)
전체	3.6	38.8	33.6	16.1	4.3	3.0	0.7	100.0(304)
지역규모								
대도시	3.5	32.5	34.2	19.3	5.3	3.5	1.8	100.0(114)
중소도시	2.5	35.3	37.0	18.5	3.4	3.4	0.0	100.0(119)
읍면지역	5.6	54.9	26.8	7.0	4.2	1.4	0.0	100.0(71)

학업모와 미취업모 중 6개월 이내 취/학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에게 구직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미취업모의 40.6%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고, 59.4%는 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 고졸이하가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 54.3%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였고 지역 규모나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40〉 어머니의 구직활동 유무

단위: %(명)

구분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40.6	59.4	100.0(64)	
모 학력				
고졸이하	54.3	45.7	100.0(35)	6.19(2)*
전문대졸	30.0	70.0	100.0(10)	
대졸이상	21.1	78.9	100.0(1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5	58.5	100.0(41)	0.59(3)
301~400만원	41.7	58.3	100.0(12)	
401~530만원	50.0	50.0	100.0(4)	
531만원 이상	28.6	71.4	100.0(7)	

(표 IV-1-40 계속)

구분	하고 있음	하고 있지 않음	계(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39.1	60.9	100.0(23)	2.41(2)
중소도시	32.0	68.0	100.0(25)	
읍면지역	56.3	43.8	100.0(16)	

* $p < .05$.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구직활동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를 69.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양육/보육비를 벌기 위해서'는 11.5%, '자신의 발전을 위해'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는 각 7.7%였다.

〈표 IV-1-41〉 어머니의 구직활동 이유

구직활동 이유	단위: %(명)					계(수)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양육/ 보육비를 벌기 위해	
비율	3.8	69.2	7.7	7.7	11.5	100.0(26)

바. 가구 특성

1) 가계경제요소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 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총액, 부채, 지출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널 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학력, 가구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가) 가구소득

3차년도 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을 한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나, 4차년에서는 근로 사업 소득, 이전 소득, 자산 소득 및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4문항으로 질문한 후 가구소득을 생성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533.01만원이었다. 가구소득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에 따라 월평균 가구 소득에 차이가 있어, 어머니가 취업한 집단이 취업하지 않은 집단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2〉 월평균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533.01	813.99	400.00	0.00	21,400.00	(1,752)	
모 취업여부							
취업	605.82	651.91	500.00	32.00	8,010.00	(702)	3.07**
미취업	483.48	908.13	340.00	0.00	21,400.00	(1,037)	
모 학력							
고졸이하	462.12	1,051.15	320.00	32.00	21,400.00	(533)	4.42*
전문대졸	509.57	710.58	360.00	0.00	10,450.00	(454)	
대졸이상	595.18	666.98	450.00	0.00	8,010.00	(75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47.71	54.01	250.00	0.00	300.00	(588)	128.36***
301~400만원	367.17	28.98	360.00	302.00	400.00	(419)	
401~530만원	476.83	32.28	500.00	402.00	530.00	(310)	
531만원 이상	1,118.44	1,478.22	700.00	540.00	21,400.00	(435)	
지역규모							
대도시	534.45	971.08	400.00	0.00	21,400.00	(686)	0.36
중소도시	547.33	661.13	400.00	110.00	8,010.00	(698)	
읍면지역	503.17	754.84	350.00	0.00	1,0450.00	(368)	

* $p < .05$, ** $p < .01$, *** $p < .001$.

근로 사업소득은 397.37만원⁵⁾이었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근로 사업 소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취업모 집단이 비취업모 집단보다 근로 사업 소득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IV-1-43〉 근로 사업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397.37	242.31	350.00	0.00	4,000.00	(1,753)	
모 취업여부							
취업	487.37	297.60	450.00	10.00	4,000.00	(703)	12.14***
미취업	336.39	172.22	300.00	0.00	2,500.00	(1,037)	
모 학력							
고졸이하	325.99	220.51	300.00	0.00	4,000.00	(533)	61.25***
전문대졸	366.32	202.73	350.00	0.00	3,000.00	(454)	
대졸이상	466.19	260.59	400.00	0.00	3,500.00	(758)	

5)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에 의하면 한국아동패널 조사가 주로 이루어진 2011년 3/4분기의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3,829,845원임.

(표 IV-1-43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40.25	58.84	250.00	0.00	300.00	(587)	323.31***
301~400만원	354.09	50.41	350.00	10.00	400.00	(419)	
401~530만원	446.83	81.13	455.00	0.00	530.00	(310)	
531만원 이상	614.81	374.19	600.00	0.00	4,000.00	(437)	
지역규모							
대도시	415.25	276.84	350.00	20.00	3,500.00	(685)	9.70***
중소도시	405.38	233.73	350.00	8.00	4,000.00	(699)	
읍면지역	348.99	174.37	300.00	0.00	1,400.00	(369)	

*** $p < .001$.

이전소득은 42.51만원이었고,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거주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다른 가계나 정부·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이전 소득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자산소득은 80.01만원, 기타 소득은 13.38만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44〉 이전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42.51	132.09	0.00	0.00	2,000.00	(1,754)	
모 취업여부							
취업	45.39	142.89	0.00	0.00	1,000.00	(703)	0.71
미취업	40.66	124.79	0.00	0.00	2,000.00	(1,038)	
모 학력							
고졸이하	37.43	99.37	0.00	0.00	650.00	(533)	1.46
전문대졸	51.06	158.45	0.00	0.00	2,000.00	(455)	
대졸이상	40.25	134.20	0.00	0.00	1,000.00	(75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54	22.05	0.00	0.00	150.00	(588)	122.14***
301~400만원	9.09	30.75	0.00	0.00	300.00	(419)	
401~530만원	22.11	64.83	0.00	0.00	450.00	(310)	
531만원 이상	137.44	231.23	0.00	0.00	2,000.00	(437)	
지역규모							
대도시	23.85	113.81	0.00	0.00	2,000.00	(686)	11.38***
중소도시	54.35	147.05	0.00	0.00	1,000.00	(699)	
읍면지역	54.79	130.10	0.00	0.00	700.00	(369)	

*** $p < .001$.

〈표 IV-1-45〉 자산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80.01	722.39	0.00	0.00	21,000.00	(1,752)	
모 취업여부							
취업	66.20	520.67	0.00	0.00	8,000.00	(702)	-0.64
미취업	88.81	835.10	0.00	0.00	21,000.00	(1,037)	
모 학력							
고졸이하	93.18	1,009.59	0.00	0.00	21,000.00	(533)	0.18
전문대졸	80.99	629.57	0.00	0.00	10,000.00	(454)	
대졸이상	68.87	502.35	0.00	0.00	8,000.00	(75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88	8.22	0.00	0.00	100.00	(588)	21.18***
301~400만원	2.11	12.25	0.00	0.00	150.00	(419)	
401~530만원	5.21	27.21	0.00	0.00	300.00	(310)	
531만원 이상	315.30	1,425.07	0.00	0.00	21,000.00	(435)	
지역규모							
대도시	71.85	870.64	0.00	0.00	21,000.00	(686)	0.08
중소도시	83.01	560.00	0.00	0.00	8,000.00	(698)	
읍면지역	89.51	692.19	0.00	0.00	1,000.00	(368)	

*** $p < .001$.

〈표 IV-1-46〉 기타 소득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13.38	188.07	0.00	0.00	55,000.00	(1,754)	
모 취업여부							
취업	6.66	54.69	0.00	0.00	1,000.00	(703)	-1.48
미취업	18.10	240.23	0.00	0.00	5,500.00	(1,038)	
모 학력							
고졸이하	5.52	54.74	0.00	0.00	1,000.00	(533)	0.93
전문대졸	11.95	96.00	0.00	0.00	1,500.00	(455)	
대졸이상	19.90	272.37	0.00	0.00	5,500.00	(75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0.46	4.65	0.00	0.00	80.00	(588)	7.20***
301~400만원	1.87	13.10	0.00	0.00	180.00	(419)	
401~530만원	2.68	26.01	0.00	0.00	370.00	(310)	
531만원 이상	49.38	373.90	0.00	0.00	5,500.00	(437)	
지역규모							
대도시	24.11	292.83	0.00	0.00	5,500.00	(686)	1.93
중소도시	4.71	36.58	0.00	0.00	500.00	(699)	
읍면지역	9.85	77.19	0.00	0.00	1,000.00	(369)	

*** $p < .001$.

이상의 각 소득 항목을 소득 수준 별로 차이 검증한 결과, 각 소득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각 소득 항목을 자세히 보면, 소득 집단 별 차이가 근로 사업 소득의 경우보다, 이전 소득, 자산 소득 및 기타 소득에서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나) 지출

가구 전체의 총 지출은 월 평균 313.81만원,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 108.77만원,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 54.01만원이었다.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는 아동의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와 학력, 가구 소득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 모든 지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패널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전체의 총 지출이 많았으며,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거주 가구와 취업모 가구에서 가구의 총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7〉 가구 총 지출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313.81	147.30	286.00	60.00	1,800.00	(1,719)		
아동 출생순위								
첫째	294.42	143.72	260.00	60.00	1,600.00	(797)	17.22***	
둘째	323.45	145.30	300.00	67.00	1,800.00	(727)		
셋째 이상	357.15	156.92	340.00	100.00	1,700.00	(195)		
모 취업여부								
취업	356.00	151.28	330.00	90.00	1,800.00	(687)	9.75***	
미취업	285.79	137.43	256.00	60.00	1,700.00	(1,019)		
모 학력								
고졸이하	268.49	114.68	250.00	60.00	1,040.00	(519)	59.62***	
전문대졸	298.91	139.44	272.50	70.00	1,600.00	(448)		
대졸이상	354.84	160.47	331.50	75.00	1,800.00	(74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20.02	66.25	220.00	60.00	500.00	(580)	264.91***	
301~400만원	292.32	78.89	300.00	105.00	650.00	(418)		
401~530만원	359.17	95.88	355.00	115.00	600.00	(301)		
531만원 이상	432.23	204.83	400.00	110.00	1,800.00	(420)		
지역규모								
대도시	318.85	159.67	290.00	60.00	1,700.00	(684)	5.53**	
중소도시	320.72	140.64	300.00	75.00	1,800.00	(682)		
읍면지역	290.70	132.25	260.00	67.00	1,300.00	(353)		

** $p < .01$, *** $p < .001$.

가구의 전체 자녀 모두를 위한 지출의 집단 별 차이 검증에서는 지역 규모를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 자녀를 위한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8〉 전체 자녀에 대한 지출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108.77	66.94	92.00	13.00	740.00	(1,741)	
아동 출생순위							
첫째	87.21	59.05	72.00	13.00	740.00	(810)	124.92***
둘째	118.64	63.35	110.00	15.00	520.00	(735)	
셋째 이상	160.85	73.38	150.00	46.00	520.00	(196)	
모 취업여부							
취업	123.22	67.51	110.00	13.00	520.00	(697)	7.42***
미취업	99.09	64.56	80.00	13.00	740.00	(1,032)	
모 학력							
고졸이하	96.78	55.93	83.00	13.00	380.00	(530)	35.59***
전문대졸	97.53	64.96	80.00	13.00	740.00	(451)	
대졸이상	123.87	71.66	110.00	15.00	520.00	(75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7.21	39.96	70.00	13.00	280.00	(584)	118.10***
301~400만원	102.37	50.21	92.50	23.00	310.00	(418)	
401~530만원	122.32	59.97	115.00	13.00	380.00	(309)	
531만원 이상	148.11	88.83	130.00	13.00	740.00	(430)	
지역규모							
대도시	112.96	73.37	90.00	13.00	600.00	(685)	4.29*
중소도시	109.09	61.91	100.00	13.00	400.00	(690)	
읍면지역	100.31	62.69	90.00	13.00	740.00	(366)	

* $p < .05$, *** $p < .001$.

패널 아동만을 위한 지출의 차이 검증 결과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즉, 패널 대상 아동이 첫 아이일 때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9〉 패널 아동에 대한 지출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54.01	36.28	45.00	4.00	400.00	(1,743)	
아동 출생순위							
첫째	63.61	41.97	55.00	5.00	400.00	(810)	61.05***
둘째	47.43	29.25	40.00	4.00	250.00	(735)	
셋째 이상	39.14	21.31	35.00	6.00	140.00	(198)	

(표 IV-1-49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모 취업여부							
취업	64.39	39.78	57.00	9.00	31.00	(700)	9.57***
미취업	47.15	31.91	40.00	4.00	400.00	(1,031)	
모 학력							
고졸이하	43.37	23.77	40.00	4.00	175.00	(530)	62.51***
전문대졸	49.12	33.99	43.00	8.00	400.00	(451)	
대졸이상	64.48	41.68	56.00	6.00	310.00	(75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46	23.06	35.00	4.00	220.00	(583)	96.51***
301~400만원	48.44	25.36	45.00	6.00	155.00	(417)	
401~530만원	56.58	30.07	54.00	7.00	190.00	(310)	
531만원 이상	75.78	50.66	65.00	5.00	400.00	(433)	
지역규모							
대도시	57.46	41.33	45.00	7.00	400.00	(685)	7.79***
중소도시	53.63	34.69	46.00	4.00	350.00	(692)	
읍면지역	48.26	27.33	45.00	5.00	207.00	(366)	

*** $p < .001$.

다) 자산

4차년도 조사에서 한국아동패널 가구의 자산은 금융자산이 전체 평균 6,048.38만원으로, 소유부동산이 18,241.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자산의 집단별 차이 분석에서 금융 자산과 부동산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 자산과 부동산 모두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대도시 지역 거주 집단이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기술한 소득의 분석 결과와 달리, 모 취업여부에 따라 가구의 자산 보유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IV-1-50〉 금융 자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6,048.38	14,439.64	2,000.00	0.00	300,000.00	(1,734)	
모 취업여부							
취업	5,673.49	9,151.08	3,000.00	0.00	100,000.00	(697)	-0.20
미취업	6,323.55	17,181.82	2,000.00	0.00	300,000.00	(1,025)	
모 학력							
고졸이하	4,253.80	8,317.63	2,000.00	0.00	100,000.00	(528)	10.34***
전문대졸	5,239.56	17,522.12	2,000.00	0.00	300,000.00	(453)	
대졸이상	7,801.95	15,609.55	3,000.00	0.00	220,000.00	(745)	

단위: 만원

(표 IV-1-50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지역규모							
대도시	7,190.90	15,206.47	3,000.00	0.00	220,000.00	(685)	3.54*
중소도시	5,304.54	10,483.49	2,000.00	0.00	200,000.00	(685)	
읍면지역	5,303.42	18,695.47	2,000.00	0.00	300,000.00	(364)	

* $p < .05$, *** $p < .001$.

〈표 IV-1-51〉 소유 부동산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18,241.40	44,942.44	10,000.00	0.00	1,000,000.00	(1,743)	
모 취업여부							
취업	18,042.30	44,083.11	10,000.00	0.00	1,000,000.00	(697)	-1.02
미취업	18,481.06	45,794.10	9,600.00	0.00	1,000,000.00	(1,033)	
모 학력							
고졸이하	12,119.79	28,657.79	5,000.00	0.00	370,000.00	(529)	9.32***
전문대졸	17,499.18	51,697.22	10,000.00	0.00	1,000,000.00	(452)	
대졸이상	23,040.80	49,448.33	15,000.00	0.00	1,000,000.00	(754)	
지역규모							
대도시	17,801.92	28,970.92	10,000.00	0.00	370,000.00	(686)	0.46
중소도시	19,430.70	48,856.53	12,500.00	0.00	1,000,000.00	(692)	
읍면지역	16,812.60	59,585.45	6,000.00	0.00	1,000,000.00	(365)	

*** $p < .001$.

라) 부채

부채는 전체 평균 4,117.93만원으로, 부채에 대한 월 상환금은 28.1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부채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가 많았다. 거주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의 부채가 가장 많았고 취업모의 가구도 미취업모의 가구에 비해 부채가 많았다. 부채가 더 많은 집단에서 월 상환금도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부채와 월 상환금이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2〉 총 부채

단위: 만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4,117.93	6,837.93	1,400.00	0.00	50,000.00	(1,685)	

(표 IV-1-5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모 취업여부							
취업	4,769.52	7,406.93	2,000.00	0.00	50,000.00	(667)	3.03**
미취업	3,704.68	6,436.05	1,000.00	0.00	50,000.00	(1,005)	
모 학력							
고졸이하	3,091.34	5,899.12	950.00	0.00	50,000.00	(514)	13.01***
전문대졸	3,821.79	6,245.47	2,000.00	0.00	50,000.00	(436)	
대졸이상	5,044.50	7,661.11	2,000.00	0.00	50,000.00	(72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310.30	4,187.94	500.00	0.00	50,000.00	(569)	24.50***
301~400만원	3,847.78	5,646.47	2,000.00	0.00	45,000.00	(405)	
401~530만원	5,257.57	7,060.65	2,000.00	0.00	37,000.00	(301)	
531만원 이상	6,052.37	9,524.24	2,000.00	0.00	50,000.00	(410)	
지역규모							
대도시	3,927.42	6,507.54	1,000.00	0.00	50,000.00	(681)	4.83**
중소도시	4,714.24	7,043.58	2,000.00	0.00	50,000.00	(654)	
읍면지역	3,376.09	6,999.66	600.00	0.00	50,000.00	(350)	

** $p < .01$, *** $p < .001$.

〈표 IV-1-53〉 월 상환금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소값	최대값	(수)	t/F
단위: 만원							
전체	28.12	60.68	6.50	0.00	1,500.00	(1,673)	
모 취업여부							
취업	35.87	77.83	10.00	0.00	1,500.00	(663)	3.82***
미취업	23.07	45.65	4.00	0.00	700.00	(997)	
모 학력							
고졸이하	22.89	50.34	4.00	0.00	700.00	(511)	4.37*
전문대졸	26.36	47.75	8.00	0.00	500.00	(433)	
대졸이상	32.95	72.99	9.50	0.00		(72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5.14	25.64	0.00	0.00	300.00	(566)	21.85***
301~400만원	25.36	34.05	10.00	0.00	150.00	(402)	
401~530만원	32.18	46.09	14.50	0.00	350.00	(300)	
531만원 이상	45.99	104.95	7.00	0.00	1,500.00	(405)	
지역규모							
대도시	27.14	49.34	6.00	0.00	500.00	(675)	4.05*
중소도시	32.71	74.23	10.00	0.00	1,500.00	(650)	
읍면지역	21.48	51.25	0.00	0.00	700.00	(348)	

* $p < .05$, *** $p < .001$.

2) 가족생활사건

지난 1년간 가족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을 겪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생활사건을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규범적 사건과 규범적으로 어긋나는 부정적인 비규범적 사건으로 나누어 각 문항의 사건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규범적 사건은 지난 1년간 평균 3.55건을 겪었고, 비규범적 사건은 평균 0.62건을 겪었다.

〈표 IV-1-54〉 가족생활사건

단위: 점(명)

구분	규범적 사건				비규범적 사건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55	2.27	(1,706)		0.62	0.90	(1,706)	
아동 출생순위								
첫째	3.49	2.28	(791)	5.58**	0.63	0.91	(791)	2.32
둘째	3.49	2.23	(721)		0.58	0.87	(721)	
셋째 이상	4.06	2.32	(194)		0.73	0.96	(194)	
모 취업여부								
취업	3.46	2.21	(681)	-1.42	0.51	0.81	(681)	-4.20***
미취업	3.62	2.30	(1,031)		0.69	0.95	(1,013)	
모 학력								
고졸이하	4.02	2.32	(517)	20.25***	0.75	1.01	(517)	7.28**
전문대졸	3.62	2.30	(441)		0.58	0.84	(441)	
대졸이상	3.20	2.15	(740)		0.56	0.85	(74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86	2.28	(572)	8.37***	0.73	0.97	(572)	4.86**
301~400만원	3.52	2.16	(407)		0.56	0.89	(407)	
401~530만원	3.60	2.38	(302)		0.61	0.87	(302)	
531만원 이상	3.14	2.21	(425)		0.53	0.82	(425)	
지역규모								
대도시	3.45	2.18	(671)	3.17*	0.61	0.88	(671)	0.23
중소도시	3.52	2.28	(669)		0.61	0.92	(669)	
읍면지역	3.81	2.39	(366)		0.65	0.92	(366)	

* $p < .05$, ** $p < .01$, *** $p < .001$.

규범적 사건의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상일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거나, 가구소득이 작거나 또는 거주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가족의 수입·지출·직장·이사 관련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비규범적 사건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가구 또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가족의 질병·상해 관련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평균 3.79점, 도구적 지원은 평균 3.84점, 사교적 지원은 평균 3.85점, 정보적 지원은 평균 3.74점으로, 각 영역 모두 높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V-1-55〉 사회적 지원: 정서적, 도구적 지원

단위: 점(명)

구분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79	.76	(1,703)		3.84	.72	(1,703)	
아동 출생순위								
첫째	3.79	.78	(790)	0.69	3.86	.72	(790)	1.78
둘째	3.80	.73	(721)		3.85	.72	(721)	
셋째 이상	3.73	.79	(192)		3.75	.75	(192)	
모 취업여부								
취업	3.80	.74	(681)	0.46	3.86	.72	(681)	0.73
미취업	3.78	.78	(1,011)		3.84	.73	(1,011)	
모 학력								
고졸이하	3.70	.79	(515)	7.96***	3.71	.78	(515)	16.22***
전문대졸	3.76	.76	(441)		3.84	.67	(441)	
대졸이상	3.87	.73	(740)		3.94	.69	(74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6	.78	(571)	7.96***	3.76	.76	(571)	16.22***
301~400만원	3.75	.80	(406)		3.85	.73	(406)	
401~530만원	3.60	2.38	(302)		3.86	.72	(302)	
531만원 이상	3.14	2.21	(424)		3.94	.66	(424)	
지역규모								
대도시	3.45	2.18	(670)	0.15	3.86	.70	(670)	0.42
중소도시	3.52	2.28	(667)		3.85	.74	(667)	
읍면지역	3.81	2.39	(366)		3.81	.73	(366)	

*** $p < .001$.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서적, 도구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모두에서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출생순위, 모 취업 여부 및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56〉 사회적 지원: 사회적, 정보적 지원

단위: 점(명)

구분	사회적 지원				정보적 지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85	0.69	(1,703)		3.74	0.73	(1,703)	
아동 출생순위								
첫째	3.87	0.67	(790)	2.21	3.74	0.75	(790)	1.04
둘째	3.86	0.70	(721)		3.76	0.71	(721)	
셋째 이상	3.76	0.71	(192)		3.68	0.76	(192)	
모 취업여부								
취업	3.88	0.68	(681)	1.15	3.76	0.74	(681)	0.75
미취업	3.84	0.70	(1,011)		3.73	0.73	(1,011)	
모 학력								
고졸이하	3.74	0.73	(515)	13.29***	3.62	0.78	(515)	12.31***
전문대졸	3.85	0.68	(441)		3.75	0.68	(441)	
대졸이상	3.94	0.65	(740)		3.83	0.72	(74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77	0.72	(571)	13.29***	3.70	0.74	(571)	12.31***
301~400만원	3.85	0.67	(406)		3.73	0.72	(406)	
401~530만원	3.90	0.70	(302)		3.77	0.77	(302)	
531만원 이상	3.93	0.64	(424)		3.80	0.70	(424)	
지역규모								
대도시	3.87	0.66	(670)	0.76	3.75	0.73	(670)	0.40
중소도시	3.85	0.70	(667)		3.75	0.73	(667)	
읍면지역	3.82	0.72	(366)		3.71	0.76	(366)	

*** $p < .001$.

4) 물리적 환경

아동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 유형과 주택유형을 통해 아동의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 34.2%이었다.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주

택의 소유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집단에서,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전세 거주 비율은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 집단, 가구 소득이 301~400만원인 집단 및 중소도시 거주 지역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의 집단과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집단에서는 전월세와 무상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수준별로 거주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측된 결과라고 사료되지만, 530.5만원의 고소득집단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58.1%, 300만원 이하 집단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40.5%인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집단이라고 해서 거주 주택의 자가 소유 비율이 월등하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세 거주 비율은 모든 소득 집단에서 30%대였다.

〈표 IV-1-57〉 거주 주택 소유 유형

단위: %(명)

구분	자가	전세	전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공공 입대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8.4	34.2	6.3	0.5	7.6	1.7	1.3	100.0(1,754)	
모 취업여부									
취업	48.5	34.7	5.0	0.7	8.8	1.4	0.9	100.0(703)	9.56(6)
미취업	48.1	34.1	7.2	0.3	6.8	1.8	1.6	100.0(1,038)	
모 학력									
고졸이하	42.0	32.3	11.6	1.1	9.2	2.6	1.1	100.0(533)	57.28(12)**
전문대졸	52.1	33.2	5.1	0.2	7.0	1.1	1.3	100.0(455)	
대졸이상	50.4	36.3	3.4	0.1	7.0	1.3	1.5	100.0(75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5	34.0	10.7	0.5	9.7	3.1	1.5	100.0(588)	80.11(18)**
301~400만원	48.0	37.0	5.5	0.7	6.2	2.1	0.5	100.0(419)	
401~530만원	50.3	33.9	5.5	0.3	7.1	0.3	2.6	100.0(310)	
531만원 이상	58.1	32.0	1.8	0.2	6.6	0.2	0.9	100.0(437)	
지역규모									
대도시	47.8	34.7	7.4	0.7	7.3	1.2	0.9	100.0(686)	40.59(12)**
중소도시	50.5	35.9	5.4	0.3	6.0	1.1	0.7	100.0(699)	
읍면지역	45.5	30.1	6.0	0.3	11.4	3.5	3.3	100.0(369)	

*** $p < .00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75.0%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 9.7%,

단독주택 9.5%, 다세대주택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유형을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주택유형으로 분류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아동의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소득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패널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거주 유형 비율이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거주 유형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58〉 거주 주택유형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아파트 포함)	연립 주택 (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	기타	계	$\chi^2(df)$
전체	9.5	75.0	9.7	4.0	1.5	0.1	0.2	100.0(1,754)	
아동 출생순위									
첫째	7.5	76.5	11.2	3.6	1.2	0.0	0.1	100.0(816)	7.47(2)*
둘째	9.7	75.4	8.5	4.1	1.9	0.1	0.3	100.0(740)	
셋째 이상	16.7	67.2	8.1	6.1	1.5	0.5	0.0	100.0(198)	
모 취업여부									
취업	10.0	74.5	9.4	4.1	1.4	0.3	0.3	100.0(703)	0.14(1)
미취업	9.1	75.3	9.8	4.0	1.6	0.0	0.1	100.0(1,038)	
모 학력									
고졸이하	14.4	63.8	13.9	5.4	2.3	0.2	0.0	100.0(533)	61.62(2)***
전문대졸	10.5	75.2	8.8	4.2	1.1	0.0	0.2	100.0(455)	
대졸이상	5.1	83.0	7.1	3.0	1.3	0.1	0.3	100.0(75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8	66.8	11.7	6.3	2.0	0.2	0.2	100.0(588)	33.07(3)***
301~400만원	8.1	78.3	9.3	3.1	1.2	0.0	0.0	100.0(419)	
401~530만원	8.4	77.1	9.4	3.5	1.3	0.0	0.3	100.0(310)	
531만원 이상	7.1	81.2	7.6	2.3	1.4	0.2	0.2	100.0(437)	
지역규모									
대도시	6.9	70.6	15.3	5.7	1.5	0.0	0.1	100.0(686)	24.55(2)***
중소도시	7.2	81.3	6.3	3.6	1.3	0.3	0.1	100.0(699)	
읍면지역	18.7	71.3	5.7	1.9	2.2	0.0	0.3	100.0(36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아파트', '아파트 외'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5$, *** $p < .001$.

가구의 16.2%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83.6%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및 거주지역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1-59〉 거주 중인 주택 외 주택 소유여부

구분	단위: %(명)			$\chi^2(df)$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6.2	83.8	100.0(1,754)	
아동 출생순위				
첫째	15.1	87.9	100.0(816)	1.62(2)
둘째	17.4	82.6	100.0(740)	
셋째 이상	16.7	83.3	100.0(198)	
모 취업여부				
취업	17.8	82.2	100.0(703)	2.02(1)
미취업	15.2	84.8	100.0(1,038)	
모 학력				
고졸이하	10.9	89.1	100.0(533)	28.15(2)**
전문대졸	14.1	85.9	100.0(455)	
대졸이상	21.5	78.5	100.0(75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5	92.5	100.0(588)	60.63(3)***
301~400만원	16.5	83.5	100.0(419)	
401~530만원	20.6	79.4	100.0(310)	
531만원 이상	24.7	75.3	100.0(437)	
지역규모				
대도시	15.0	85.0	100.0(686)	6.31(2)*
중소도시	18.9	81.1	100.0(699)	
읍면지역	13.6	86.4	100.0(369)	

* $p < .05$, ** $p < .01$, *** $p < .001$.

5) 사회보장 지원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지원의 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0.3%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6.4%가 차상위계층이었으며, 해당없음이 93.2%이었다. 사회보장 지원의 수급 여부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아동 출생순위, 모

학력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해당없음(지원받지 않음)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의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해당없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보장 지원의 수급 여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0〉 사회보장 지원

단위: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계(수)	$\chi^2(df)$
전체	0.3	6.4	93.2	100.0(1,754)	
아동 출생순위					
첫째	0.2	5.9	93.9	100.0(815)	6.62(2) *
둘째	0.4	5.9	93.6	100.0(740)	
셋째 이상	0.5	10.6	88.9	100.0(198)	
모 취업여부					
취업	0.0	7.0	93.0	100.0(703)	0.07(1)
미취업	0.6	6.1	93.3	100.0(1,037)	
모 학력					
고졸이하	1.1	9.9	88.9	100.0(533)	26.02(2) ***
전문대졸	0.0	6.6	93.4	100.0(455)	
대졸이상	0.0	3.8	96.2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0.3	4.1	95.6	100.0(686)	10.42(2) **
중소도시	0.4	8.0	91.6	100.0(699)	
읍면지역	0.3	7.9	91.8	100.0(36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지원받음', '해당없음'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6) 가정환경(HOME)

가) 검사개요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된 EC-HOME 은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모방학습, 다양성 및 수용성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시 방법은 문항에 따라 면접, 관찰 및 면접/관찰의 방법이 사용된다. 면접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와의 면접 및 관찰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EC-HOME의 국내 타당화 연구에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97로 보고되었다(김정미·곽금주, 2007). 4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각 하위척도별 문항 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61〉 HOME의 하위척도 및 문항수

구분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다양성	수용성	모방학습	계
문항 수	11	7	7	7	5	9	4	5	55

나) 검사결과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1,754가구 중 가정환경검사에는 1,753가구가 응답하였고, CAPI조사에서 어머니가 응답하지 않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알 수 없는 13가구와 어머니의 학력을 파악할 수 없는 8가구는 해당 변인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가정환경검사의 전체 평균은 43.88점이고, 각 하위척도별 평균은 <표 IV-3-63>부터 <표 IV-3-70>까지 제시되어 있다. HOME을 개발할 당시 사용한 표집에서도 하위척도의 점수와 총점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고 왼쪽으로 편포되었는데(Caldwell & Bradley, 2003, p.18), 본 조사의 결과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ldwell과 Bradley(2003)에 의하면 하위척도의 점수가 중위수보다 2~3점 낮은 경우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며, 총점에서 7~8점 이상 낮은 경우는 의심스럽게(suspect) 여겨야 하므로 이에 따라 각 집단별로 총점과 하위척도의 중위수 및 중위수와의 편차를 제시하였다.

전체 가구의 95.6%가 가정환경 검사 총점의 중위수에서 6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집단별로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집단의 12.5%와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집단의 10.9%가 총점의 중위수에서 7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가정환경 검사 총점의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가정환경 총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이었다. 여아의 가구가 남아의 가구보다, 취업모의 가구가 미취업모의 가구보다 가정환경 검사의 총점이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총점이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2〉 HOME: 가정환경 총점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중위수	편차≤6	편차=7	편차≥8
전체	43.88	4.31	1,753		45.00	95.6	0.9	3.5
아동 성별			1,753					
남	43.41	4.63	903	-4.83***	44.00	91.0	1.2	7.8
여	44.39	3.89	850		45.00	93.2	1.8	5.1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43.94	4.32	815	0.18	45.00	96.3	0.6	3.1
둘째	43.81	4.31	740		45.00	95.0	1.5	3.5
셋째 이상	43.92	4.34	198		45.00	94.4	0.0	5.6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44.26	4.03	702	2.94**	45.00	96.4	1.0	2.6
미취업	43.65	4.46	1,038		45.00	95.1	0.9	4.0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42.88	5.32	533	27.02***	44.00	87.4	2.6	9.9
전문대졸	43.83	4.17	455		45.00	91.6	1.5	6.8
대졸이상	44.64	3.33	757		45.00	94.2	2.6	3.2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42.79	5.02	588	28.16***	44.00	89.1	1.9	9.0
301~400만원	43.79	3.95	419		45.00	90.9	2.9	6.2
401~530만원	44.24	3.61	310		45.00	94.8	0.0	5.2
531만원 이상	45.20	3.64	436		46.00	92.9	1.4	5.7
지역규모			1,753					
대도시	44.03	3.78	686	0.87	45.00	97.5	0.1	2.3
중소도시	43.85	4.64	698		45.00	94.3	1.4	4.3
읍면지역	43.67	4.59	369		45.00	94.3	1.4	4.3

** $p < .01$, *** $p < .001$.

학습자료 하위척도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92.8%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집단과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집단의 12.2%가 학습자료의 중위수에서 2점 이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습자료 평균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에서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아의 가구가 남아의 가구보다 학습자료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습자료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 및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63〉 HOME: 학습자료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8.96	1.24	1,753		9.00	92.8	3.3	3.9
아동 성별			1,753					
남	8.85	1.36	903	-4.11***	9.00	90.8	3.4	5.8
여	9.09	1.08	850		9.00	94.8	3.2	2.0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8.94	1.18	815	0.64	9.00	93.4	3.1	3.6
둘째	8.97	1.22	740		9.00	92.7	3.4	3.9
셋째 이상	9.05	1.50	198		9.00	90.4	4.0	5.6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9.04	1.10	702	1.92	9.00	94.7	2.1	3.1
미취업	8.93	1.30	1,038		9.00	91.7	3.9	4.3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8.67	1.51	533	29.17***	9.00	87.8	4.3	7.9
전문대졸	8.96	1.19	455		9.00	92.5	3.7	3.7
대졸이상	9.19	.94	757		9.00	96.7	2.2	1.1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8.63	1.35	588	32.65***	9.00	87.8	5.1	7.1
301~400만원	8.95	1.15	419		9.00	93.6	3.6	2.9
401~530만원	9.02	1.10	310		9.00	95.2	2.3	2.6
531만원 이상	9.38	1.12	436		9.00	97.0	1.4	1.6
지역규모			1,753					
대도시	9.03	1.12	686	1.81	9.00	93.7	3.4	2.9
중소도시	8.95	1.26	698		9.00	91.8	4.0	4.2
읍면지역	8.88	1.38	369		9.00	91.7	1.9	5.4

*** $p < .001$.

전체 대상의 89.1%가 언어자극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의 10%이상에서 중위수와 2점 이상 차이를 보인 집단은 남아 가구, 아동 출생순위의 모든 집단,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301만원~400만원 집단 및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 집단이었다. 언어자극 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 언어자극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아동성별, 아동 출생순위,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이었다. 여아의 가구가 남아의 가구보다 언어자극의 점수가 높았고, 아동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가구가 미취업모의 가구보다 가정환경 검사의 총점이 높았으며,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언어자극의 점수가 높았다.

〈표 IV-1-64〉 HOME: 언어자극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42	.88	1,753		7.00	89.1	7.6	3.3
아동 성별			1,753					
남	6.34	.94	903	4.02***	7.00	87.2	8.9	4.0
여	6.51	.81	850		7.00	91.2	6.2	2.6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6.49	.87	815	4.72**	7.00	89.6	7.7	2.7
둘째	6.37	.91	740		7.00	89.5	6.4	4.2
셋째 이상	6.33	.82	198		7.00	85.9	11.6	2.5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6.47	.80	702	1.79	7.00	90.3	7.0	2.7
미취업	6.39	.92	1,038		7.00	88.3	8.0	3.7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6.31	1.11	533	6.28**	7.00	85.4	8.1	6.6
전문대졸	6.45	.85	455		7.00	90.1	7.0	2.9
대졸이상	6.48	.70	757		7.00	91.1	7.5	1.3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6.30	1.09	588	10.30***	7.00	85.7	8.7	5.6
301~400만원	6.39	.81	419		7.00	88.8	7.9	3.3
401~530만원	6.44	.80	310		7.00	90.3	7.1	2.6
531만원 이상	6.60	.64	436		7.00	93.1	6.2	0.7
지역규모			1,753					
대도시	6.49	.74	686	4.37*	7.00	91.0	7.1	1.9
중소도시	6.40	.92	698		7.00	89.3	6.7	4.0
읍면지역	6.34	1.04	369		7.00	85.4	10.0	4.6

* $p < .05$, ** $p < .01$, *** $p < .001$.

물리적 환경 하위척도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92.2%가 중위수보다 1점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집단의 10.2%,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집단의 12.4%와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집단의 11.2% 및 대도시 거주 지역 집단의 10.3%가 물리적 환경의 중위수에서 2점 이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물리적 환경 평균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에서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아의 가구가 남아의 가구보다 물리적 환경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물리적 환경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 및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65〉 HOME: 물리적 환경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66	.89	1,753		7.00	92.2	4.0	3.8
아동 성별			1,753					
남	6.60	.99	903	-2.97**	7.00	91.1	3.8	5.1
여	6.72	.75	850		7.00	93.3	4.2	2.5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6.67	.85	815	0.39	7.00	92.5	3.7	3.8
둘째	6.66	.89	740		7.00	92.4	4.1	3.5
셋째 이상	6.61	1.00	198		7.00	89.9	5.1	5.1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6.67	.86	702	0.66	7.00	92.7	3.0	4.3
미취업	6.64	.91	1,038		7.00	91.7	4.7	3.6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6.49	1.11	533	14.68***	7.00	87.6	6.0	6.4
전문대졸	6.68	.84	455		7.00	92.7	4.4	2.9
대졸이상	6.76	.70	757		7.00	95.0	2.4	2.6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6.53	1.02	588	10.62***	7.00	88.8	5.6	5.6
301~400만원	6.60	.98	419		7.00	90.5	5.7	3.8
401~530만원	6.79	.65	310		7.00	96.1	1.6	2.3
531만원 이상	6.79	.69	436		7.00	95.6	1.8	2.5
지역규모			1,753					
대도시	6.60	.88	686	2.20	7.00	89.8	6.9	3.4
중소도시	6.68	.92	698		7.00	93.1	2.7	4.2
읍면지역	6.71	.83	369		7.00	94.9	1.1	4.1

** $p < .01$, *** $p < .001$.

전체 조사 대상의 87.8%가 반응성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90%를 넘는 집단은 대졸 이상 집단과 고소득 집단이었다. 반응성 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언어자극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이었다. 취업모의 가구가 미취업모의 가구보다 반응성 점수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반응성 점수가 높았다.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출생순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6〉 HOME: 반응성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6.55	.99	1,753		7.00	87.8	7.2	4.9
아동 성별			1,753					
남	6.50	1.02	903	-1.87	7.00	86.7	8.1	5.2
여	6.59	.95	850		7.00	89.1	6.4	4.6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6.54	1.01	815	1.26	7.00	88.3	7.0	4.7
둘째	6.52	1.00	740		7.00	86.8	7.7	5.5
셋째 이상	6.65	.80	198		7.00	89.9	6.6	3.5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6.63	.87	702	2.84**	7.00	89.9	6.6	3.6
미취업	6.50	1.05	1,038		7.00	86.7	7.5	5.8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6.44	1.14	533	7.70***	7.00	84.6	9.2	6.2
전문대졸	6.51	1.06	455		7.00	87.3	6.6	6.2
대졸이상	6.65	.79	757		7.00	90.8	6.1	3.2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6.40	1.19	588	7.39***	7.00	83.2	9.5	7.3
301~400만원	6.56	1.00	419		7.00	88.5	6.9	4.5
401~530만원	6.64	.75	310		7.00	91.3	5.2	3.5
531만원 이상	6.66	.76	436		7.00	91.1	6.0	3.0
지역규모			1,753					
대도시	6.60	.81	686	2.21	7.00	88.8	8.7	2.5
중소도시	6.49	1.09	698		7.00	86.7	7.0	6.3
읍면지역	6.54	1.07	369		7.00	88.3	4.9	6.8

** $p < .01$, *** $p < .001$.

학습자극 하위척도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의 90.3%가 중위수와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의 10%이상에서 중위수와 2점 이상 차이를 보인 집단은 남아 가구,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집단, 미취업모 집단,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 집단,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의 집단 및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었다. 학습자극 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극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이었다. 여아의 가구가 남아의 가구보다, 대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학습자극의 점수가 높았고, 패널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습자극의 점수가 높았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7〉 HOME: 학습자극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4.56	.90	1,753		5.00	90.3	5.4	4.3
아동 성별			1,753					
남	4.49	.98	903	-3.21***	5.00	88.8	5.8	5.4
여	4.63	.80	850		5.00	91.9	4.9	3.2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4.66	.79	815	10.45***	5.00	92.9	4.0	3.1
둘째	4.47	.98	740		5.00	87.6	7.2	5.3
셋째 이상	4.45	.97	198		5.00	89.9	4.0	6.1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4.57	.87	702	0.24	5.00	91.0	5.0	4.0
미취업	4.55	.91	1,038		5.00	89.9	5.6	4.5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4.46	1.02	533	5.13**	5.00	87.6	5.8	6.6
전문대졸	4.56	.90	455		5.00	90.1	5.9	4.0
대졸이상	4.62	.78	757		5.00	92.3	4.8	2.9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4.45	1.05	588		5.00	87.8	5.6	6.6
301~400만원	4.53	.90	419	7.61***	5.00	90.0	5.7	4.3
401~530만원	4.57	.84	310		5.00	90.6	5.8	3.5
531만원 이상	4.72	.67	436		5.00	93.8	4.4	1.8
지역규모			1,753					
대도시	4.70	.64	686	16.51***	5.00	94.5	3.8	1.7
중소도시	4.43	1.09	698		5.00	87.1	6.2	6.7
읍면지역	4.52	.88	369		5.00	88.6	6.8	4.6

** $p < .01$, *** $p < .001$.

전체 하위척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인 81.6%가 다양성 하위척도의 중위수와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전체 대상의 10.8%는 다양성의 중위수와 2점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고, 7.5%는 3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양성 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이었다. 여아 가구가 남아 가구보다, 취업모의 가구가 미취업모의 가구보다 다양성 점수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양성 점수가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8〉 HOME: 다양성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7.63	1.37	1,753		8.00	81.6	10.8	7.5
아동 성별			1,753					
남	7.52	1.46	903	-3.32***	8.00	78.7	12.1	9.2
여	7.74	1.26	850		8.00	84.7	9.5	5.8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7.60	1.36	815	0.29	8.00	81.2	11.9	6.9
둘째	7.65	1.37	740		8.00	81.6	10.3	8.1
셋째 이상	7.64	1.43	198		8.00	83.3	8.6	8.1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7.75	1.31	702	3.10**	8.00	84.2	9.1	6.7
미취업	7.55	1.41	1,038		8.00	79.9	12.0	8.1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7.39	1.59	533	14.10***	8.00	75.0	11.8	13.1
전문대졸	7.61	1.34	455		8.00	82.0	11.6	6.4
대졸이상	7.80	1.19	757		8.00	86.1	9.6	4.2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7.37	1.52	588	14.06***	8.00	75.7	13.3	11.1
301~400만원	7.62	1.34	419		8.00	81.4	10.5	8.1
401~530만원	7.71	1.24	310		8.00	84.5	10.0	5.5
531만원 이상	7.91	1.21	436		8.00	87.8	8.5	3.7
지역규모			1,753					
대도시	7.66	1.31	686	1.59	8.00	81.0	11.8	7.1
중소도시	7.65	1.41	698		8.00	82.8	9.3	7.9
읍면지역	7.51	1.42	369		8.00	80.5	11.9	7.6

** $p < .01$, *** $p < .001$.

수용성 하위척도에서는 전체 하위척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인 94.8%가 중위수와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모든 집단에서 90%대를 유지하였다. 수용성 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용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및 지역규모이었다. 여아의 가구가 남아의 가구보다, 중소도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수용성 점수가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용성 점수가 높았다.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9〉 HOME: 수용성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3.44	.72	1,753		4.00	94.8	2.7	2.5
아동 성별			1,753					
남	3.39	.75	903	-3.08**	3.00	97.1	1.4	1.4
여	3.49	.68	850		4.00	95.8	2.1	2.1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3.46	.75	815	0.57	4.00	94.7	2.3	2.9
둘째	3.43	.71	740		4.00	94.7	2.8	2.4
셋째 이상	3.41	.62	198		3.00	99.0	1.0	0.0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3.47	.72	702	1.34	4.00	95.9	1.6	2.6
미취업	3.42	.72	1,038		4.00	94.0	3.5	2.5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3.36	.77	533	7.57**	3.00	96.6	2.1	1.3
전문대졸	3.41	.74	455		4.00	93.8	3.5	2.6
대졸이상	3.51	.66	757		4.00	97.1	1.1	1.8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3.40	.74	588		4.00	93.4	4.1	2.6
301~400만원	3.41	.69	419	2.35	3.00	97.6	1.9	0.5
401~530만원	3.44	.73	310		4.00	95.5	1.6	2.9
531만원 이상	3.51	.71	436		4.00	96.1	1.6	2.3
지역규모			1,753					
대도시	3.40	.74	686	3.27*	3.00	97.1	1.6	1.3
중소도시	3.49	.68	698		4.00	95.3	3.0	1.7
읍면지역	3.42	.76	369		4.00	94.3	2.4	3.3

* $p < .05$, ** $p < .01$.

전체 조사 대상의 95.5%가 모방학습 하위척도의 중위수에서 1점 이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사 대상의 10%이상에서 중위수와 2점 이상 차이를 보인 집단은 취업모 집단과 읍면 지역 거주 집단이었다. 모방학습 점수의 집단별 차이 검증은 실시한 결과, 가구소득 수준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고소득 집단의 모방학습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IV-1-70〉 HOME: 모방학습

단위: 점, 명, %

	평균	표준편차	수	t/F	중위수	편차≤1	편차=2	편차≥3
전체	4.23	.87	1,753		4.00	95.5	3.5	1.0
아동 성별			1,753					
남	4.21	.92	903	-1.03	4.00	94.1	4.3	1.6
여	4.25	.80	850		4.00	96.9	2.7	0.4
아동 출생순위			1,753					
첫째	4.24	.85	815	0.24	4.00	96.0	3.2	0.9
둘째	4.21	.87	740		4.00	95.1	4.1	0.8
셋째 이상	4.24	.92	198		4.00	94.9	3.0	2.0
모 취업여부			1,740					
취업	4.24	.85	702	0.25	4.00	84.6	7.7	7.7
미취업	4.23	.87	1,038		4.00	95.7	3.8	0.4
모 학력			1,745					
고졸이하	4.21	.90	533	0.21	4.00	95.1	3.4	1.5
전문대졸	4.22	.87	455		4.00	96.0	2.6	1.3
대졸이상	4.24	.83	757		4.00	95.5	4.2	0.3
가구소득			1,753					
300만원 이하	4.16	.91	588	3.52*	4.00	94.6	4.1	1.4
301~400만원	4.24	.85	419		4.00	96.2	2.6	1.2
401~530만원	4.19	.87	310		4.00	95.2	4.2	0.6
531만원 이상	4.33	.81	436		4.00	96.3	3.2	0.5
지역규모			1,753					
대도시	4.24	.84	686	1.17	4.00	95.9	3.5	0.6
중소도시	4.19	.86	698		4.00	95.7	3.0	1.3
읍면지역	4.27	.92	369		5.00	82.7	11.7	5.7

* $p < .05$.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가정환경 총점에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아동의 성별, 모 취업여부, 모 학력 및 가구소득의 네 변인이지만, 8개의 하위척도에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을 자세히 보면, 하위척도별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의 차이 검증을 통해 차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취업과 지역규모의 순이었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 또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정 이 전반적으로 가정환경 자극을 더 제시하고 있으며, 남아들보다 여아들이 가정 환경 자극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반응성과 다양성을 더 제공하고 있었고, 아동의 출생순위가 높거나 대도시에 거주 하는 경우, 언어자극과 학습자극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 지역사회 특성

1) 주거지역 유형

지역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아파트 지역이 72.2%, 일반 주택 지역이 22.7%로, 전체의 99.9%가 주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역의 유형을 일반 주택 지역, 일반 아파트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아동의 출생순위, 모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라 주거지역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 아파트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둘째,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 고소득 가구, 또는 중소도시 지역 거주 집단이었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1〉 지역 유형

단위: %(명)

구분	일반 주택지역	일반 아파트지역	상가·회사 지역	공장 지역	농·어가 지역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2.7	72.2	1.8	0.5	2.5	0.2	100.0(1,699)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8	73.9	1.3	0.5	2.3	0.3	100.0(789)	10.23(4)*
둘째	21.7	82.7	2.1	0.6	2.8	0.0	100.0(718)	
셋째 이상	29.7	63.0	3.1	0.5	2.6	1.0	100.0(192)	
모 취업여부								
취업	24.6	71.1	2.2	0.1	1.8	0.1	100.0(671)	3.12(2)
미취업	21.4	73.1	1.5	0.8	2.9	0.3	100.0(1,017)	
모 학력								
고졸이하	30.6	60.7	2.7	1.2	4.7	0.2	100.0(516)	63.97(4)***
전문대졸	23.2	72.4	1.1	0.5	2.5	0.2	100.0(439)	
대졸이상	16.7	80.5	1.5	0.1	0.9	0.3	100.0(73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9.1	63.7	1.8	1.4	3.7	0.4	100.0(570)	
301~400만원	19.8	76.2	1.5	0.2	2.0	0.2	100.0(404)	36.84(6)***
401~530만원	23.2	72.4	2.0	0.0	2.3	0.0	100.0(301)	
531만원 이상	16.3	79.7	2.1	0.0	1.7	0.2	100.0(424)	
지역규모								
대도시	31.0	66.6	1.6	0.1	0.4	0.1	100.0(670)	120.01(4)***
중소도시	16.9	80.3	1.8	0.5	0.3	0.3	100.0(664)	
읍면지역	17.8	67.9	2.2	1.4	10.4	0.3	100.0(36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일반 주택 지역', '일반 아파트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5$, *** $p < .001$.

2) 지역사회의 양육 적절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육아지원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각각에 대하여 평균 3.26점, 2.79점, 2.78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 위 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 유치원의 충분도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여, 첫째 아이의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유치원이 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모들은 미취업모들에 비해 가용 사교육기관이 더 많다고 반응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에 유치원과 사교육기관이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였고 어린이집에 대한 충분성 인식 차이는 다르지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기관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른 육아지원기관의 충분성 인식 차이 검증 결과,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3개 기관 모두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더 충분하다고 인식하였고, 읍면지역에서는 덜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72〉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단위: 점,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전체	3.26(.93)	1,701		2.79(1.00)	1,700		2.78(1.01)	1,701	
아동 출생순위									
첫째	3.23(.92)	789	1.37	2.71(.99)	788	4.96**	2.73(.99)	789	2.10
둘째	3.28(.94)	720		2.86(1.00)	720		2.83(1.03)	720	
셋째 이상	3.34(.90)	192		2.86(.95)	192		2.77(.99)	192	
모 취업여부									
취업	3.25(.90)	680	-0.47	2.84(.97)	680	1.58	2.84(.98)	680	2.05*
미취업	3.27(.95)	1,010		2.76(1.02)	1,009		2.74(1.02)	1,010	
모 학력									
고졸이하	3.25(.90)	516	0.35	2.69(.98)	516	6.46**	2.58(.96)	516	21.63***
전문대졸	3.29(.91)	440		2.75(.99)	440		2.73(1.00)	440	
대졸이상	3.25(.95)	738		2.89(1.00)	737		2.95(1.01)	7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30(.91)	571	0.92	2.75(.99)	571	2.37	2.64(.98)	571	6.22***
301~400만원	3.21(.97)	405		2.73(1.03)	405		2.79(1.03)	405	
401~530만원	3.23(.94)	301		2.83(1.00)	301		2.85(1.02)	301	
531만원 이상	3.27(.88)	424		2.89(.96)	423		2.90(.99)	424	

(표 IV-1-7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기관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지역규모									
대도시	3.25(.04)	670	6.35**	2.85(.04)	670	21.08***	2.87(.04)	670	55.84***
중소도시	3.35(.04)	665		2.90(.04)	664		2.94(.04)	665	
읍면지역	3.13(.05)	366		2.50(.06)	366		2.30(.05)	366	

* $p < .05$, ** $p < .01$, *** $p < .001$.

〈표 IV-1-73〉 지역사회의 시설 이용편리성

단위: 점, (명)

구분	여가시설 이용편리성				문화시설 이용편리성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12	1.02	(1,700)		2.50	1.02	(1,701)	
아동 출생순위				0.97				2.33
첫째	3.12	1.02	(789)		2.45	1.02	(789)	
둘째	3.14	1.03	(720)		2.56	1.04	(720)	
셋째 이상	3.02	1.01	(191)	2.47	0.98	(192)		
모 취업여부				3.14**				3.55***
취업	3.21	0.98	(679)		2.61	1.01	(680)	
미취업	3.05	1.05	(1,010)	2.43	1.03	(1,010)		
모 학력				32.02***				44.59***
고졸이하	2.88	1.04	(515)		2.24	0.96	(516)	
전문대졸	3.04	0.98	(440)		2.37	0.96	(440)	
대졸이상	3.33	1.00	(738)	2.75	1.04	(738)		
가구소득				7.56***				8.06***
300만원 이하	2.96	1.05	(571)		2.34	0.98	(571)	
301~400만원	3.13	1.03	(405)		2.51	1.02	(405)	
401~530만원	3.18	1.02	(300)		2.58	1.00	(301)	
531만원 이상	3.26	0.96	(424)	2.64	1.07	(424)		
지역규모				45.30***				62.47***
대도시	3.16	1.01	(670)		2.64	1.01	(670)	
중소도시	3.31	0.94	(665)		2.63	0.99	(665)	
읍면지역	2.69	1.02	(365)	1.99	0.94	(366)		

** $p < .01$, *** $p < .001$.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여가시설이나 공간 이용편리성과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이 얼마나 편리한지 인식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각각의 평균은 3.12점과 2.50점이었고, 치안측면과 안전사고측면에서의 안전도는 평균은 각각 3.26점과 3.11점이었다. 4개 항목 모두 모

취업여부, 모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취업모들은 미취업모에 비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이 더 편리하고 치안 등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IV-1-74〉 지역사회의 안전도

단위: 점, (명)

구분	치안 안전도				안전사고 안전도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26	0.81	(1,701)		3.11	.81	(1,701)	
아동 출생순위								
첫째	3.26	0.82	(789)	0.01	3.10	0.81	(789)	1.33
둘째	3.26	0.80	(720)		3.10	0.82	(720)	
셋째 이상	3.27	0.79	(192)		3.20	0.79	(192)	
모 취업여부								
취업	3.32	0.82	(680)	2.60**	3.18	0.82	(680)	2.76**
미취업	3.22	0.80	(1,010)		3.07	0.80	(1,010)	
모 학력								
고졸이하	3.07	0.84	(516)	43.98***	2.96	0.83	(516)	24.75***
전문대졸	3.13	0.78	(440)		3.03	0.77	(440)	
대졸이상	3.46	0.76	(738)		3.27	0.80	(7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11	0.84	(571)	11.36***	2.97	0.82	(571)	12.23***
301~400만원	3.26	0.80	(405)		3.12	0.77	(405)	
401~530만원	3.35	0.80	(301)		3.16	0.82	(301)	
531만원 이상	3.39	0.75	(424)		3.27	0.79	(424)	
지역규모								
대도시	3.24	0.81	(670)	10.51***	3.09	0.83	(670)	7.55**
중소도시	3.36	0.77	(665)		3.20	0.78	(665)	
읍면지역	3.12	0.86	(366)		3.00	0.83	(366)	

** $p < .01$, *** $p < .001$.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적절성에 대한 평균은 3.21점이었으며, 아동 성별,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양육에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의 어머니들이,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들이,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전반적인 양육적절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5〉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양육적절성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21	0.78	(1,701)	
아동 성별				
남	3.17	0.78	(871)	-2.28*
여	3.25	0.77	(830)	
아동 출생순위				
첫째	3.17	0.78	(789)	2.45
둘째	3.25	0.77	(720)	
셋째 이상	3.26	0.74	(192)	
모 취업여부				
취업	3.29	0.76	(680)	3.41**
미취업	3.16	0.78	(1,010)	
모 학력				
고졸이하	3.03	0.79	(516)	33.86***
전문대졸	3.15	0.73	(440)	
대졸이상	3.38	0.76	(7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08	0.81	(571)	9.38***
301~400만원	3.22	0.78	(405)	
401~530만원	3.27	0.73	(301)	
531만원 이상	3.33	0.73	(424)	
지역규모				
대도시	3.20	0.77	(670)	18.10***
중소도시	3.32	0.76	(665)	
읍면지역	3.02	0.77	(366)	

* $p < .05$, ** $p < .01$, *** $p < .001$.

아. 대리양육가구 특성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93.2%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았고, 0.3%는 아동을 타 가구에 대리양육하고 있었다.

〈표 IV-1-76〉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타 가구에 대리양육함	함께 살고 있음	계(수)
동거여부	0.3	93.2	100.0(1,754)

2. 아동발달 특성

가. 신체발달

아동의 체중은 평균 14.78kg이었으며 성별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아보다 남아가, 모취업은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지역규모는 읍면지역일수록 아동의 체중이 무거웠다. 한편,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V-2-1〉 아동의 체중

단위: kg(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14.78	1.69	10.0	21.0	(1,754)	
아동 성별						
남	15.02	1.67	11.0	21.0	(903)	6.33***
여	14.52	1.66	10.0	21.0	(851)	
아동 출생순위						
첫째	14.85	1.64	10.0	21.0	(816)	2.31
둘째	14.68	1.71	10.0	21.0	(740)	
셋째 이상	14.86	1.77	10.5	20.5	(198)	
모 취업여부						
취업	14.88	1.70	11.0	21.0	(703)	2.15*
미취업	14.70	1.67	10.0	21.0	(1,038)	
모 학력						
고졸이하	14.69	1.75	10.0	21.0	(533)	1.37
전문대졸	14.87	1.67	11.0	21.0	(455)	
대졸이상	14.78	1.64	11.0	20.0	(75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71	1.67	10.0	21.0	(588)	0.78
301~400만원	14.77	1.73	11.0	21.0	(419)	
401~530만원	14.78	1.63	11.0	20.1	(310)	
531만원 이상	14.78	1.70	10.5	21.0	(437)	
지역규모						
대도시	14.66	1.74	11.0	21.0	(686)	4.98**
중소도시	14.78	1.64	10.0	21.0	(699)	
읍면지역	15.00	1.64	11.0	21.0	(369)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평균 신장은 96.87cm이었다. 신장의 경우에는 성별, 출생순위와 어머니

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이 남아이고,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장이 컸다.

〈표 IV-2-2〉 아동의 신장

단위: cm(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96.87	3.74	85.0	111.0	(1,753)	
아동 성별						
남	97.43	3.82	85.0	111.0	(903)	6.56***
여	96.27	3.56	85.0	110.0	(850)	
아동 출생순위						
첫째	97.21	3.88	86.0	111.0	(815)	6.25**
둘째	96.57	3.60	85.0	109.0	(740)	
셋째 이상	96.58	3.59	87.0	110.0	(198)	
모 취업여부						
취업	97.03	3.60	85.0	111.0	(702)	1.67
미취업	96.73	3.81	85.0	110.0	(1,038)	
모 학력						
고졸이하	96.51	3.80	85.0	110.0	(533)	3.27*
전문대졸	96.98	3.45	87.0	110.0	(455)	
대졸이상	97.01	3.82	85.0	111.0	(75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6.58	3.77	86.0	110.0	(588)	1.71
301~400만원	97.02	3.74	85.0	110.0	(419)	
401~530만원	97.01	3.67	86.5	110.0	(310)	
531만원 이상	97.01	3.76	86.0	111.0	(436)	
지역규모						
대도시	96.92	3.76	85.0	110.0	(686)	1.72
중소도시	96.69	3.67	85.0	110.0	(698)	
읍면지역	97.12	3.84	87.0	111.0	(369)	

* $p < .05$, ** $p < .01$, *** $p < .001$.

나. 기질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Buss와 Plomin, 1984)를 사용하였다. 부모용 평정척도인 EAS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성 5개 문항, 활동성 5개 문항, 사회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서성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 점수와 사회성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

적인 의미이다. 정서성은 평균 2.87점, 활동성은 평균 3.82점, 사회성은 3.00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 유무, 가구소득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질 중 활동성에서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여아보다 남아가,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활동성 점수가 높았다. 또한 기질 중 사회성에서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사회성 점수가 높았다.

〈표 IV-2-3〉 아동의 기질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평균(표준편차)	t/F
전체	1,703	2.87(.62)		3.82(.60)		3.00(.23)	
아동 성별							
남	871	2.86(.61)	-0.78	3.88(.60)	4.29***	3.00(.23)	-0.28
여	832	2.89(.62)		3.75(.59)		3.00(.23)	
아동 출생순위							
첫째	790	2.86(.63)	1.37	3.86(.62)	5.74**	3.02(.23)	8.95***
둘째	721	2.90(.61)		3.80(.59)		2.99(.23)	
셋째 이상	192	2.82(.60)		3.71(.55)		2.96(.21)	
모 학력							
고졸이하	515	2.90(.61)	0.84	3.86(.59)	2.17	2.99(.24)	0.39
전문대졸	441	2.86(.62)		3.78(.60)		3.00(.23)	
대졸이상	740	2.86(.61)		3.81(.60)		3.01(.23)	
모 취업여부							
취업	681	2.86(.61)	-0.57	3.83(.59)	0.38	3.00(.23)	-0.53
미취업	1,011	2.88(.62)		3.81(.61)		3.00(.2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71	2.91(.64)	2.26	3.79(.61)	0.97	3.01(.24)	1.34
301~400만원	406	2.90(.63)		3.83(.60)		3.00(.21)	
401~530만원	302	2.81(.61)		3.86(.57)		2.98(.23)	
531만원 이상	424	2.84(.58)		3.80(.61)		3.00(.24)	
지역 규모							
대도시	670	2.87(.60)	0.13	3.82(.60)	1.89	2.99(.22)	0.69
중·소도시	667	2.88(.62)		3.79(.61)		3.01(.23)	
읍·면지역	366	2.87(.64)		3.87(.58)		3.00(.24)	

** $p < .01$, *** $p < .001$.

다. 일과활동 특성

아동의 일과활동은 어머니 대상 질문지에서는 기초습관을 수면, 식습관, 배변/씻기/옷 입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기초습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Allen과 Martoz(2010)의 Developmental Profiles에서 24~36개월 아동이 완수하여야할 기초과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서술된 문항을 5점 척도의 문항으로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기초습관 측정 도구는 아동의 발달과 연령에 맞추어 매해 문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4차년도에서 측정한 기초습관은 수면 습관 5문항, 식습관 5문항, 배변/씻기/옷 입기 습관 5문항이었다.

1) 기초습관

아동의 기초습관 중 수면습관에 대한 5개 문항은 ‘밤에 10~12시간 정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수면습관 1)가 평균 3.79점, ‘오후의 낮잠이 줄어들고 휴식을 취한다’(수면습관 2)가 평균 3.31점,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수면습관 5)는 평균 2.48점 순이었다. 수면습관 1에 대해서는 아동의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둘째아이와 미취업모의 아이가 수면습관 1이 더 높았다. 수면습관 2는 어머니의 학력과 취업여부, 수면습관 3은 어머니 취업여부만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수면습관 4는 성별, 출생순위와 모취업, 수면습관 5는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식습관에 대한 5개 문항 중 ‘배고프면 스스로 먹으며 숟가락과 포크 사용이 가능하다’(식습관 2)가 평균 4.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약간 흘리지만 주스나 우유를 따를 수 있고 지시에 따라 음식을 덜 수 있다’(식습관 4)가 4.01점, ‘다른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신다’(식습관 5)는 1.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식습관 1은 성별에 따라, 식습관 2는 성별, 출생순위, 모학력에 따라, 식습관 3은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식습관 4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식습관 5는 집단별 차이가 없었다.

씻기/배변/옷입기 습관은 배변 2개, 씻기 1개, 옷 입기 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변습관에서 ‘낮에는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있다’(배변습관 1)가 평균 4.36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밤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배변습관 2)로 2.29점이었다. 배변습관 1과 2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옷입기 2는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씻기 1과 옷입기 1은 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4〉 기초습관: 수면

단위: 점, 명

구분	수면 1			수면 2			수면 3			수면 4			수면 5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전체	3.79(.82)	1,700		3.31(.85)	1,696		3.22(1.13)	1,697		2.49(.84)	1,696		2.48(.95)	1,698	
아동 성별															
남	3.77(.84)	869	-1.00	3.28(.85)	866	-1.55	3.16(1.13)	867	-2.27 [†]	2.45(.83)	867	-2.11 [†]	2.49(.97)	868	0.50
여	3.81(.81)	831		3.34(.84)	830		3.29(1.12)	830		2.54(.85)	829		2.47(.93)	830	
아동 출생순위															
첫째	3.70(.86)	789	11.36 ^{***}	3.32(.84)	787	0.89	3.32(1.11)	786	8.63 ^{***}	2.60(.82)	787	19.33 ^{***}	2.55(.96)	788	6.02 ^{**}
둘째	3.90(.76)	719		3.32(.85)	718		3.18(1.15)	719		2.46(.86)	718		2.46(.96)	719	
셋째 이상	3.72(.87)	192		3.23(.84)	191		2.97(1.07)	192		2.19(.74)	191		2.30(.86)	191	
모 학력															
고졸이하	3.77(.85)	514	0.39	3.25(.87)	513	6.57 ^{**}	3.00(1.16)	513	30.16 ^{***}	2.54(.85)	513	1.84	2.45(.97)	513	1.60
전문대졸	3.78(.79)	440		3.24(.83)	439		3.09(1.11)	440		2.43(.82)	440		2.44(.93)	440	
대졸이상	3.81(.83)	739		3.39(.83)	737		3.46(1.07)	737		2.50(.84)	736		2.53(.95)	738	
모 취업여부															
취업	3.72(.86)	680	-2.84 ^{**}	3.25(.84)	679	-2.41 [†]	3.21(1.09)	679	4.74	2.43(.82)	680	1.00 [†]	2.44(.93)	680	2.90
미취업	3.84(.79)	1,009		3.35(.85)	1,006		3.23(1.15)	1,007		2.53(.84)	1,005		2.51(.96)	1,007	
지역 규모															
대도시	3.77(.87)	668	0.53	3.30(.87)	668	1.69	3.28(1.11)	667	3.55 [†]	2.51(.87)	667	1.38	2.49(.95)	667	0.56
중·소도시	3.81(.80)	667		3.35(.80)	663		3.23(1.12)	666		2.45(.80)	664		2.46(.94)	666	
읍 면지역	3.78(.80)	365		3.25(.88)	365		3.09(1.17)	364		2.53(.83)	365		2.52(.97)	365	

주: 수면 1(밤에 10~12시간 정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수면 2(오후의 낮잠이 줄어들고 휴식을 취한다), 수면 3(혼자서 잠 잘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 주거나 노래를 불러 주거나 토닥여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 수면 4(자다가 꿈 때문에 깨기도 한다), 수면 5(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5〉 기초습관: 식습관

단위: 점, 명

구분	식습관 1			식습관 2			식습관 3			식습관 4			식습관 5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전체	2.81(.95)	1,699		4.14(.74)	1,700		3.17(.92)	1,701		4.01(.77)	1,700		1.88(.81)	1,701	
아동 성별															
남	2.77(.94)	868	-1.97 [*]	4.07(.74)	870	-3.99 ^{***}	3.18(.92)	870	0.67	3.94(.77)	869	-3.51 ^{***}	1.90(.84)	870	0.85
여	2.86(.96)	831		4.21(.74)	830		3.15(.93)	831		4.07(.77)	831		1.87(.79)	831	
아동 출생순위															
첫째	2.86(.95)	789		4.07(.79)	789		3.21(.94)	789		4.04(.78)	788		1.86(.83)	789	
둘째	2.79(.96)	718	2.14	4.19(.69)	719	5.30 ^{**}	3.17(.90)	720	3.92 ^{**}	3.98(.76)	720	1.59	1.92(.81)	720	0.90
셋째 이상	2.72(.92)	192		4.19(.71)	192		3.00(.95)	192		3.96(.79)	192		1.85(.75)	192	
모 학력															
고졸이하	2.75(.97)	514		4.21(.71)	514		3.12(.94)	514		4.04(.03)	514		1.88(.04)	514	
전문대졸	2.81(.94)	441	1.92	4.12(.79)	440	3.35 [*]	3.12(.91)	441	2.88	4.02(.04)	441	0.74	1.95(.04)	441	1.85
대졸이상	2.86(.94)	737		4.10(.74)	739		3.23(.92)	739		3.98(.03)	739		1.85(.03)	739	
모 취업여부															
취업	2.77(.96)	679	-1.32	4.11(.76)	680	-1.36	3.19(.91)	680	0.70	4.02(.76)	679	0.31	1.92(.80)	680	1.31
미취업	2.84(.94)	1,009		4.16(.74)	1,009		3.15(.93)	1,010		4.01(.78)	1,010		1.86(.82)	1,010	
지역 규모															
대도시	2.86(.95)	667		4.10(.76)	669		3.18(.93)	669		4.00(.81)	669		1.90(.80)	669	
중·소도시	2.78(.95)	667	1.66	4.15(.72)	666	2.12	3.18(.93)	667	0.59	3.99(.75)	666	0.71	1.86(.77)	667	0.70
읍·면지역	2.77(.95)	365		4.19(.74)	365		3.12(.90)	365		4.05(.75)	365		1.90(.90)	365	

주: 식습관 1(식욕은 괜찮으며 양을 적게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식습관 2(배고프면 스스로 먹으며 숟가락과 포크 사용이 가능하다), 식습관 3(배고프지 않을 경우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만 것을 한다), 식습관 4(약간 흘리지만 주스나 우유를 따를 수 있고 지시에 따라 음식을 덜 수 있다), 식습관 5(다른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신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6〉 기초습관: 씻기/배변/옷 입기 습관

단위: 점, 명

구분	씻기 1			배변 1			배변 2			옷 입기 1			옷 입기 2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평균(표준편차)	n	t/F
전체	3.03(.92)	1,700		4.36(.97)	1,700		2.29(1.30)	1,696		3.53(.95)	1,697		3.37(.95)	1,696	
아동 성별															
남	3.02(.91)	869	-0.59	4.31(.98)	869	-2.53 [†]	2.39(1.29)	866	3.29 ^{**}	3.50(.93)	866	-1.26	3.11(.93)	867	-12.09 ^{***}
여	3.05(.94)	831		4.42(.95)	831		2.18(1.30)	830		3.56(.97)	831		3.65(.89)	829	
아동 출생순위															
첫째	3.02(.93)	789	0.41	4.42(.93)	788	2.58	2.27(1.30)	784	1.95	3.54(.96)	787	1.41	3.46(.93)	784	6.59 ^{**}
둘째	3.06(.93)	720		4.31(1.00)	721		2.26(1.29)	721		3.49(.95)	719		3.30(.95)	721	
셋째 이상	3.00(.88)	191		4.32(1.01)	191		2.46(1.32)	191		3.62(.94)	191		3.30(1.00)	191	
모 학력															
고졸이하	2.97(.97)	514	2.71	4.32(1.02)	514	3.46 [*]	2.39(1.34)	513	2.00	3.49(1.00)	512	1.33	3.39(.93)	513	0.53
전문대졸	3.03(.88)	440		4.29(1.04)	441		2.24(1.21)	441		3.50(.94)	441		3.34(.92)	441	
대졸이상	3.09(.91)	739		4.43(.89)	738		2.25(1.32)	735		3.57(.94)	737		3.39(.98)	735	
모 취업여부															
취업	3.03(.92)	681	-0.25	4.35(.97)	680	-0.54	2.32(1.28)	677	-0.85	3.51(.96)	680	-0.61	3.42(.93)	678	1.44
미취업	3.04(.92)	1,008		4.37(.97)	1,009		2.27(1.30)	1,008		3.54(.95)	1,006		3.35(.96)	1,007	
지역 규모															
대도시	3.02(.93)	669	0.42	4.39(.96)	668	1.02	2.27(1.29)	667	0.23	3.52(.97)	668	0.07	3.36(.96)	666	0.19
중·소도시	3.03(.91)	666		4.37(.94)	667		2.28(1.31)	666		3.53(.95)	664		3.39(.95)	666	
읍·면지역	3.07(.94)	365		4.30(1.05)	365		2.33(1.29)	365		3.55(.95)	365		3.39(.93)	365	

주: 씻기 1(혼자서 잘 씻고 목욕탕에서 나오기 싫어한다), 배변 1(낮에는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있다), 배변 2(밤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 옷 입기 1(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벗는 것을 더 잘한다), 옷 입기 2(지퍼, 큰 단추와 똑딱이 단추 같은 것을 잘 다룬다)

* $p < .05$, ** $p < .01$, *** $p < .001$.

2) 하루일과 시간

아동의 하루일과 활동은 TV 및 비디오 시청이 90.2%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책 읽기 86.0%,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8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하루일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오락 및 컴퓨터 게임하기와 책 읽기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오락 및 컴퓨터게임은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하였고, 책 읽기는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혼자 집에서 놀기, 친구와 놀기,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낮잠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활동은 취업모가 높게 나타났으나, 혼자 집에서 놀기와 친구와 놀기, 낮잠의 여부에서는 미취업모가 높게 나타났다(부록 3, 부표 1 참고).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은 저녁 수면시간이 594.18분으로 약 10시간 정도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을 하는 시간이 446.40분으로 약 7.44시간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주양육자와 놀기, 형제/자매와 놀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위: 분, (명)
					(수)
혼자 집안에서 놀기	68.86	52.01	10	400	(1,263)
친구와 놀기(육아지원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71.55	49.61	10	300	(303)
주양육자와 놀기	129.14	102.65	8	720	(1,420)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115.75	73.14	6	480	(1,172)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55.81	47.43	5	240	(37)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446.40	95.06	40	780	(1,455)
학습지 등 방문교육	20.46	12.74	5	70	(450)
TV, 비디오 시청	72.54	51.29	10	600	(1,581)
오락, 컴퓨터 게임 하기	33.18	22.95	5	150	(272)
성인과의 외출	72.25	49.65	5	360	(946)
책 읽기	35.67	23.86	5	360	(1,507)
낮잠(육아지원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93.89	44.02	5	601	(361)
저녁 수면시간	594.18	53.99	330	780	(1,754)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31.10	34.37	5	360	(173)
기타	77.65	35.27	20	120	(17)

라. 언어발달(REVT)

1) 검사개요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이다. 이 검사는 2006년 7월~2008년 1월에 걸쳐 신체, 정서 및 인지발달에 이상이 없고 청각, 시각 및 언어발달이 정상으로 보고된 아동 및 성인 약 5,200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알아볼 수 있는 표준화 검사이다. 본 검사는 언어발달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표준화된 검사 중 가장 최근인 2009년도에 개발된 도구이다. REVT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어휘능력과 발달정도를 측정하고 해석하기 위한 정상성과 이탈정도를 해석할 수 있는 평균 및 표준편차 기준, 등가연령 기준, 백분위 기준이 제공된다(김영태 외, 2009).

검사는 수용어휘검사와 표현어휘검사 각 185문항, 총 3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사자가 검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행검사이다. 수용어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98개, 동사 68개, 형용사 및 부사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표현어휘 문항은 품사별로 명사 106개, 동사 58개, 형용사 및 부사 21개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를 시작하기 위해 생활연령을 계산하고 피검자의 생활연령에 따라 검사의 시작문항을 달리한다. 본 연구의 대상아동의 생활연령은 2세 9개월~3세 11개월에 해당하므로 검사시작은 모두 표현어휘 1번 문항부터 실시하였다. 검사는 표현어휘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후 표현어휘검사에서 설정된 기초선(baseline) 번호를 시작문항번호로 수용어휘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초기문항부터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는 원저자의 자문을 받아 연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표현어휘, 수용어휘 연습문항 3문항을 실시 후 통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문항 1번부터 시작하였다. 검사는 최고한계선(ceiling) 문항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상자가 연속적으로 8개 문항 중 6개를 틀릴 경우 검사를 중지한다.

검사의 각 문항은 1점씩 배점되며 기초선이 확립되어 기초선보다 낮은 문항으로 간주하고 최고한계선이 확정되면 그 보다 높은 문항들은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표현어휘와 수용어휘의 원점수는 최고한계선 문항번호에서 틀린 문항수를 빼서 계산하게 된다.

2) 검사결과

REVT의 생활연령은 조사일자에서 아동의 생년월일을 빼어 산출한다. 4차년도 패널아동의 REVT 생활연령은 3세 0~5개월 아동이 전체의 96.6%로 가장 많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생활연령의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규모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생활연령의 차이가 있었다.

〈표 IV-2-8〉 REVT 생활연령

구분	단위: %(명)				$\chi^2(df)$
	2세 9-11개월	3세 0-5개월	3세 6-11개월	계(수)	
전체	2.1	96.6	1.3	100.0(1,747)	
아동 성별					
남	2.2	96.2	1.6	100.0(898)	1.11(2)
여	1.9	97.1	1.1	100.0(849)	
모 취업여부					
취업	1.1	98.1	0.7	100.0(700)	8.53(2)*
미취업	2.7	95.6	1.7	100.0(1,034)	
지역규모					
대도시	3.5	95.3	1.2	100.0(685)	17.45(4)**
중소도시	1	97.0	2.0	100.0(697)	
읍면지역	1.4	98.4	0.3	100.0(365)	

* $p < .05$, ** $p < .01$.

아동의 REVT 검사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표현어휘력의 원점수는 평균 29.79점, 수용어휘력의 원점수는 33.13점으로 표현어휘력보다 수용어휘력의 점수가 약 3.3점 가량 높았다. 표현어휘력의 기초선 문항의 평균은 3.75으로 보통 3~4번 문항이 기초선 문항이었고, 수용어휘력의 기초선 문항평균은 5.29로 보통 5번 문항이 패널아동의 기초선 문항이었다. 또한 표현어휘력의 최고한계선 문항 평균은 29.79로 보통 29~30번 문항이 패널아동의 최고 한계선이었으나 최대값은 69번으로 아동마다 편차가 있었다. 수용어휘력의 최고한계선 문항 평균은 47.36으로 아동들의 평균 최고한계선 문항은 47번 문항이었으나 최대로 많이 나온 아동의 경우는 121번 문항으로 그 편차가 표현어휘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 IV-2-9〉 표현·수용어휘력 일반적 경향

단위: 점, 문항

구분	(수)	원점수	총실시문항수	정답문항수	오답문항수	기초선	최고한계선
표현어휘력	(1,732)						
평균		29.79	44.43	29.79	14.63	3.75	29.79
표준편차		13.80	16.72	13.80	4.86	6.01	13.80
최소값		0	6	0	6	1	0
최대값		69	84	69	31	47	69
수용어휘력	(1,725)						
평균		33.13	47.36	33.13	14.23	5.29	47.36
표준편차		15.90	18.20	15.90	4.89	8.50	18.20
최소값		0	6	0	6	1	6
최대값		95	121	95	42	72	121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서 아동의 어휘 발달 정상성 정도를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V-2-10〉 표현어휘력 정상성 기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정상발달 [평균이상]	정상발달	유의요망 [약간 지체]	표현어휘력 발달지체	계(수)	$\chi^2(df)$
전체	37.9	32.4	20.0	9.7	100.0(1,747)	
아동 성별						
남	35.2	31.1	21.2	12.5	100.0(890)	20.49(3)***
여	40.7	33.8	18.6	6.8	100.0(842)	
아동 출생순위						
첫째	44.8	29.1	16.7	9.3	100.0(803)	46.90(6)***
둘째	34.6	35.1	21.4	9.0	100.0(735)	
셋째 이상	21.6	36.1	28.4	13.9	100.0(194)	
모 취업여부						
취업	38.0	33.7	20.2	8.1	100.0(694)	2.70(3)
미취업	37.8	31.9	20.0	10.3	100.0(1,025)	
모 학력						
고졸이하	27.0	36.3	25.6	11.1	100.0(523)	58.91(6)***
전문대졸	36.1	31.5	20.2	12.2	100.0(451)	
대졸이상	46.4	30.7	16.1	6.8	100.0(750)	

*** $p < .001$.

표현어휘력의 경우 전체 패널아동의 70.3%가 정상발달을 보였다. 표현어휘력에서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약간의 지체정도를 보이는 아동은 20.0%

였고, 표현어휘능력의 발달지체를 보이는 아동은 전체의 9.7%였다. 여아일수록 표현어휘의 정상발달인 경우가 더 많았고,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평균이상의 정상발달인 경우가 많았다. 정상발달 기준에 속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표 IV-2-11〉 수용어휘력 정상성 기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정상발달 [평균이상]	정상발달	유의요망 [약간 지체]	표현어휘능력 발달지체	계(수)	$\chi^2(df)$
전체	59.0	21.1	14.1	5.8	100.0(1,725)	
아동 성별						
남	57.0	20.2	15.5	7.3	100.0(886)	11.56(3)**
여	61.0	22.1	12.8	4.2	100.0(839)	
아동 출생순위						
첫째	61.9	20.4	11.9	5.9	100.0(800)	13.94(6)*
둘째	58.4	20.9	15.1	5.6	100.0(733)	
셋째 이상	49.0	25.0	19.8	6.2	100.0(192)	
모 취업여부						
취업	58.9	22.4	13.7	5.1	100.0(693)	1.91(3)
미취업	59.1	20.4	14.2	6.3	100.0(1,020)	
모 학력						
고졸이하	54.2	20.7	17.6	7.5	100.0(522)	17.99(6)**
전문대졸	59.5	19.9	14.3	6.3	100.0(447)	
대졸이상	62.2	22.0	11.5	4.3	100.0(749)	

* $p < .05$, ** $p < .01$.

수용어휘력에서 정상발달을 보이는 아동은 전체의 80.1%, 유의가 요구되는 아동이 14.1%, 수용어휘능력의 발달지체를 보이는 아동은 5.8%였다. 여아의 경우,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에 정상발달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정상발달 기준에 속한 아동이 많았다.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을 비교해보면 정상발달의 비율은 약 10% 정도의 차이로 수용어휘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평균이상의 발달을 보이는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표현어휘력은 전체 패널아동의 37.9%, 수용어휘력은 59.0%로 수용어휘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검사는 수용 및 표현 어휘능력 발달연령 기준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휘력 발달이 문제가 되는 경우 정상발달 연령 수준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등가연령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이에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 획득점수에 따른 등가연령 기준표에 따라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력의 경우 2세 6개월 미만인 경우가 6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세 0개월~11개월은 9.8%, 3세 0개월~5개월은 8.1%의 순이었다.

〈표 IV-2-12〉 표현어휘력 등가연령

단위: %(명)

구분	2세 6개월 미만	2세 6-8개월	2세 9-11개월	3세 0-5개월	3세 6-11개월	4세 0-11개월	5세 이상	계(수)	$\chi^2(df)$
전체	62.6	3.8	5.8	8.1	6.5	9.8	3.3	1000(1,732)	
아동 성별									
남	65.4	3.5	6.0	7.0	6.0	10.2	2.0	1000(890)	16.53(6)*
여	59.6	4.2	5.7	9.3	7.1	9.4	4.8	1000(842)	
아동 출생순위									
첫째	55.7	3.6	5.4	9.0	7.7	13.8	4.9	1000(803)	63.71(12)***
둘째	66.1	4.2	6.3	8.3	6.3	6.5	2.3	1000(735)	
셋째 이상	77.8	3.1	6.2	3.6	2.6	5.7	1.0	1000(194)	
모 취업여부									
취업	62.4	3.7	5.9	9.2	5.5	9.7	3.6	1000(694)	4.08(6)
미취업	62.7	3.9	5.7	7.3	7.2	10.0	3.2	1000(1,025)	
모 학력									
고졸이하	73.6	3.4	5.0	5.7	5.2	5.7	1.3	1000(523)	61.75(12)***
전문대졸	64.5	3.3	6.2	8.4	5.1	8.9	3.5	1000(451)	
대졸이상	53.9	4.4	6.1	9.5	8.1	13.3	4.7	1000(750)	

* $p < .05$, *** $p < .001$.

수용어휘력의 경우에도 2세 6개월 미만인 경우가 41.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5세 이상인 경우가 12.7%, 4세 0개월~11개월이 11.7%, 3세 0~5개월이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을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세 6개월 미만 집단의 비율이 약 21.2%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언어발달에서 표현어휘력보다는 수용어휘력 발달이 먼저 발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2-13〉 수용어휘력 등가연령

단위: %(명)

구분	2세 6개월 미만	2세 6-8개월	2세 9-11개월	3세 0-5개월	3세 6-11개월	4세 0-11개월	5세 이상	계(수)	$\chi^2(df)$
전체	41.4	7.9	5.0	11.4	9.9	11.7	12.7	1000(1732)	
아동 성별									
남	43.8	7.6	5.3	12.0	8.8	11.2	11.4	1000(886)	8.74(6)
여	38.9	8.2	4.6	10.8	11.1	12.3	14.1	1000(839)	
아동 출생순위									
첫째	38.6	8.8	5.9	11.9	10.2	12.5	12.1	1000(800)	15.61(12)
둘째	41.9	7.9	4.5	11.2	9.7	11.6	13.2	1000(733)	
셋째 이상	51.0	4.2	3.1	10.4	9.4	8.9	13.0	1000(192)	
모 취업여부									
취업	41.6	7.4	4.0	12.4	10.5	11.3	12.8	1000(693)	4.40(6)
미취업	41.2	8.3	5.7	10.8	9.5	12.1	12.5	1000(1020)	
모 학력									
고졸이하	46.2	8.6	4.6	8.8	8.0	11.7	12.1	1000(523)	20.13(12)
전문대졸	41.2	6.7	5.8	13.6	11.6	9.6	11.4	1000(451)	
대졸이상	37.9	8.1	4.8	11.9	10.1	13.1	14.0	1000(750)	

마. 사회성 발달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와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또래와의 놀이 상호작용 도구(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였다. PIPPS는 세 가지 관찰 범주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하는 평정척도이다. 놀이방해 하위범주는 공격적 행동 및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에 관한 내용이고, 놀이상호작용은 친사회적 행동, 대인관계 기술, 자기 통제 등 또래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행동 관련 내용이며, 놀이단절은 위축, 배회 등 놀이가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행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놀이방해의 평균 점수는 2.40점, 상호작용의 평균 점수는 3.45점, 놀이단절의 평균 점수는 1.95점이었고, 놀이방해는 아동 성별,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상호작용은 아동 성별, 어머니의 학력 및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놀이단절은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 평정

단위: 점, 명

구분	놀이방해			놀이 상호작용			놀이단절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전체	2.40(.40)	1,696		3.45(.49)	1,697		1.95(.45)	1,697	
아동 성별									
남	2.45(.39)	866	5.65***	3.37(.48)	867	-6.87***	1.98(.45)	867	2.48*
여	2.34(.40)	830		3.53(.48)	830		1.93(.44)	830	
아동 출생순위									
첫째	2.35(.41)	788	9.46***	3.46(.50)	789	0.62	1.97(.45)	789	1.34
둘째	2.44(.38)	717		3.44(.46)	717		1.94(.44)	717	
셋째 이상	2.40(.40)	191		3.42(.52)	191		1.95(.48)	191	
모 학력									
고졸이하	2.42(.12)	513	5.19**	3.45(.51)	513	3.90*	1.95(.47)	513	1.15
전문대졸	2.43(.37)	438		3.39(.47)	438		1.98(.43)	438	
대졸이상	2.36(.39)	738		3.48(.48)	739		1.94(.45)	739	
모 취업여부									
취업	2.40(.40)	679	-0.01	3.48(.49)	678	2.32*	1.96(.45)	679	0.36
미취업	2.40(.40)	1,006		3.43(.49)	1,008		1.95(.45)	1,00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41(.41)	569	1.74	3.43(.47)	571	0.76	1.96(.48)	570	0.48
301~400만원	2.42(.38)	405		3.45(.49)	405		1.97(.43)	405	
401~530만원	2.35(.40)	300		3.44(.48)	299		1.93(.43)	300	
531만원 이상	2.40(.38)	422		3.47(.50)	422		1.95(.43)	422	
지역 규모									
대도시	2.40(.40)	670	2.07	3.42(.49)	670	1.39	1.96(.45)	670	0.61
중소도시	2.38(.39)	662		3.46(.49)	663		1.96(.43)	663	
읍면지역	2.43(.41)	364		3.47(.47)	364		1.93(.49)	364	

* $p < .05$, ** $p < .01$, *** $p < .001$.

3. 부모됨 특성

가. 향후 출산계획

1) 후속 출산 의도

아동이 만 3세가 된 4차년도 조사에서 어머니들에게 앞으로의 출산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가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72.7%는 없

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아동 성별, 지역 규모,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후속 출산 의도

구분	낳겠음(또는 임신 중 낳지 않겠음)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20.2	72.7	7.2	100.0(1,701)	
아동 성별					
남	19.6	73.9	6.4	100.0(871)	2.02(2)
여	20.7	71.3	8.0	100.0(830)	
아동 출생순위					
첫째	35.7	54.9	9.4	100.0(788)	250.96(4)***
둘째	6.8	87.2	6.0	100.0(720)	
셋째 이상	6.7	90.7	2.6	100.0(193)	
모 학력					
고졸이하	20.2	74.8	5.0	100.0(516)	13.02(4)**
전문대졸	24.3	68.6	7.0	100.0(440)	
대졸이상	17.9	73.3	8.8	100.0(739)	
모 취업여부					
취업	21.2	71.3	7.5	100.0(671)	0.75(2)
미취업	19.7	73.3	7.1	100.0(1,02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3.6	70.1	6.3	100.0(571)	
301~400만원	17.2	72.7	10.1	100.0(407)	14.25(6)*
401~530만원	18.4	76.6	5.0	100.0(299)	
531만원 이상	19.6	73.3	7.1	100.0(424)	
지역규모					
대도시	22.2	71.4	6.4	100.0(671)	7.35(4)
중소도시	17.3	74.3	8.4	100.0(666)	
읍면지역	21.7	72.0	6.3	100.0(364)	

* $p < .05$, ** $p < .01$, *** $p < .001$.

2)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및 시기

후속 출산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20.2%에게 현재 자녀 외에 추가로 몇 명을 더 출산할 계획인지 조사한 결과 91.1%가 1명, 2명은 7.4%, 3명 또는 4명 이상은 매우 낮았다. 언제 낳을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들의 43.2%가 '1년 이내'에, '1~2년 이내'가 25.6%로, 68.8%가 2년 이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후속 출산 계획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수)
계획 자녀 수	91.1	7.4	1.2	0.3	100.0(338)

〈표 IV-3-3〉 후속 출산 계획 시기

단위: %(명)							
구분	1년 이내 (또는 현재 임신 중)	1~2년 이내	2~3년 이내	3년 이후	미정 (또는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43.2	25.6	6.5	3.6	21.1	100.0(336)	
아동 성별							
남	39.9	24.4	7.1	4.8	23.8	100.0(168)	3.68(4)
여	46.4	26.8	6.0	2.4	18.5	100.0(168)	
아동 출생순위							
첫째	42.4	27.5	7.6	3.3	19.2	100.0(276)	10.87(8)
둘째	45.8	18.8	0.0	6.2	29.2	100.0(48)	
셋째 이상	50.0	8.3	8.3	0.0	33.3	100.0(12)	
모 취업여부							
취업	41.7	28.1	8.6	3.6	18.0	100.0(139)	3.36(4)
미취업	44.2	23.9	5.1	3.6	23.4	100.0(19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0	26.1	8.2	3.7	20.9	100.0(134)	5.65(12)
301~400만원	39.7	22.1	5.9	2.9	29.4	100.0(68)	
401~530만원	45.3	28.3	5.7	3.8	17.0	100.0(53)	
531만원 이상	48.1	25.9	4.9	3.7	17.3	100.0(81)	
지역규모							
대도시	46.2	26.9	4.1	1.4	21.4	100.0(145)	12.68(8)
중소도시	42.5	23.0	8.8	2.7	23.0	100.0(113)	
읍면지역	38.5	26.9	7.7	9.0	17.9	100.0(78)	

3)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

후속 출산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라는 응답이 27.1%이었다. 후속 출산 의도는 아동의 출생순위, 가구소득, 지역 규모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후속 출산 비계획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chi^2(df)$
전체	9.3	27.1	6.6	4.2	28.2	5.5	15.9	1.1	1.9	100.0(1,236)	
아동 성별											
남	9.8	29.2	5.9	4.0	26.2	5.3	16.9	1.2	1.4	100.0(644)	8.71(8)
여	8.8	24.8	7.4	4.4	30.4	5.7	14.9	1.0	2.5	100.0(592)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2	22.9	7.9	5.3	24.0	6.7	18.9	2.3	1.8	100.0(433)	67.53(16) ^{***}
둘째	9.7	30.9	7.6	3.7	26.0	5.1	14.0	0.6	2.4	100.0(628)	
셋째 이상	5.7	24.0	0.0	3.4	46.9	4.0	15.4	0.0	0.6	100.0(175)	
모 취업여부											
취업	9.4	23.0	15.1	3.1	29.3	5.4	10.3	2.5	1.9	100.0(478)	114.35(8) ^{***}
미취업	9.1	29.9	1.3	4.9	27.4	5.6	19.4	0.3	2.0	100.0(74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2	30.5	2.8	5.2	23.5	6.0	16.8	1.2	1.8	100.0(400)	
301~400만원	9.8	31.1	3.7	5.7	26.7	5.4	15.2	0.3	2.0	100.0(296)	73.29(24) ^{***}
401~530만원	6.6	27.9	9.2	2.6	31.9	3.1	16.6	0.9	1.3	100.0(229)	
531만원 이상	7.1	18.3	12.5	2.6	33.1	6.8	15.1	1.9	2.6	100.0(311)	
지역규모											
대도시	7.1	27.8	7.1	5.4	29.2	5.4	16.3	0.6	1.0	100.0(479)	35.49(16) ^{**}
중소도시	7.9	25.7	6.3	3.6	27.7	6.3	17.6	1.8	3.2	100.0(495)	
읍면지역	16.0	28.6	6.5	3.1	27.5	4.2	12.2	0.8	1.1	100.0(262)	

주: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및 무응답

** $p < .01$, *** $p < .001$.

4) 국가 지원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후속 출산 의도를 조사한 문항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도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54.5%는 출산을 고려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의도가 없다가 11.6%, 잘 모르겠다 33.9%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불할 경우, 66.1%가 자녀를 더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없다가 잘 모르겠다 33.9%로 나타났다. 출산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적절한 비용에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각각 33.8%, '50만원 이상'이 30.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5%였다.

〈표 IV-3-5〉 보육교육비 무상지원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영향력

구분	단위: %(명)					계(수)
	전혀없음	거의없음	조금있음	매우많음	잘 모르겠음	
무상지원에 따른 영향력	6.6	5.0	42.1	12.4	33.9	100.0(121)

〈표 IV-3-6〉 양육비 지원에 따른 후속 출산 의도 영향력

구분	단위: %(명)				계(수)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양육비 지원에 따른 영향력	66.1	8.3	25.6		100.0(121)

〈표 IV-3-7〉 어머니가 생각하는 적절한 양육 지원 금액

구분	단위: %(명)				계(수)
	10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50만 이상	
적절한 양육 지원 금액	2.5	33.8	33.8	30.0	100.0(80)

5)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어머니 본인이 52.5%로 가장 많았고, 부부가 23.4%, 남편이 16.8%이었다. 친정과 시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은 근소하였다.

〈표 IV-3-8〉 후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구분	단위: %(명)		
	전체	구분	전체
본인	52.5	남편의 친인척	0.1
남편	16.8	친구, 동료 및 이웃	0.7
친정 부모님	0.8	부부	23.4
시부모님	1.2	다른 자녀	3.7
본인의 형제·자매	0.4	기타 및 무응답	0.3
남편의 형제·자매	0.1		
	계(수)		100.0(1,689)

6) ‘만 5세 공통과정⁶⁾’ 시행과 출산 의도

4차 조사가 시행되기 전인 2011년 5월에 정부는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3%가 보도를 들은 것으로, 28.7%가 보도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1.3%의 대다수인 95.3%가 그러한 언론 보도가 자녀의 출산 의도에 끼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영향이 있다가 4.7%였다.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아본 결과, 후속 출산 계획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한 경우가 84.2%였고, 후속 출산 계획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뀐 경우는 15.8%였다.

〈표 IV-3-9〉 만 5세 공통과정 시행에 대한 보도 인지 여부

구분	접한 적 있음	접한 적 없음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71.3	28.7	100.0(1,699)	
모 취업여부				
취업	68.7	31.3	100.0(670)	3.58(1)
미취업	72.9	27.1	100.0(1,019)	
모 학력				
고졸이하	63.8	36.2	100.0(514)	26.00(2) ^{***}
전문대졸	70.2	29.8	100.0(440)	
대졸이상	77.0	23.0	100.0(73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4.0	36.0	100.0(569)	23.04(2) ^{***}
301~400만원	76.2	23.8	100.0(407)	
401~530만원	75.3	24.7	100.0(300)	
531만원 이상	73.5	26.5	100.0(423)	
지역규모				
대도시	72.4	27.6	100.0(670)	12.14(2) ^{**}
중소도시	74.1	25.9	100.0(664)	
읍면지역	64.1	35.9	100.0(365)	

** $p < .01$, *** $p < .001$.

6) 4차년도 조사수행 중인 2011년 7월 17일에 만 5세 공통과정 명칭이 ‘5세 누리과정’으로 정해짐.

〈표 IV-3-10〉 만 5세 공통과정에 따른 후속 출산 계획 영향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계(수)	구분	없음→있음	있음→없음	계(수)
영향 여부	95.3	4.7	100.0(1,210)	영향 내용	84.2	15.8	100.0(46)

7) 이상 자녀수

부모에게 이상 자녀수, 즉 자신의 가족계획이나 현재 자녀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어머니 중 가장 많은 56.6%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9.2%가 3명의 자녀수에 응답하였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8.9%였다. 반면에 이상 자녀수가 1명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하였다. 아버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도 어머니와 유사한 응답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역시 제일 많은 60.1%가 2명이 이상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29.0%가 3명이라고 응답하였다. 대상 아동의 성별, 거주 지역 규모 및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V-3-11〉 부모의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구분	무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잘 모르겠음	계(수)
아버지	0.1	3.9	60.1	29.0	4.4	1.2	1.2	100.0(1,618)
어머니	0.2	2.9	56.6	29.2	8.9	0.5	1.6	100.0(1,701)

(2)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이상 자녀수의 기대성별에 대해 어머니 57.5%와 아버지 59.5%가 '아들·딸 구분 없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머니 39.0%와 아버지 38.3%가 '성별을 구분하여'라고 하였다.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응답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표 IV-3-12〉 아버지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딸·아들 구분 없이	딸·아들 구분해서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59.5	38.3	1.8	0.5	100.0(1,541)	
아동 성별						
남	55.7	42.2	1.5	0.5	100.0(779)	10.62(2)**
여	63.4	34.3	2.0	0.4	100.0(762)	
아동 출생순위						
첫째	60.8	37.4	1.4	0.4	100.0(722)	5.54(6)
둘째	57.7	40.2	1.7	0.5	100.0(647)	
셋째 이상	61.0	34.9	3.5	0.6	100.0(17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잘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분석함.

** $p < .01$.

〈표 IV-3-13〉 어머니의 이상적인 자녀의 기대성별

단위: %(명)

구분	딸·아들 구분 없이	딸·아들 구분해서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잘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57.5	39.0	2.4	1.2	100.0(1,613)	
아동 성별						
남	54.3	42.5	1.8	1.4	100.0(831)	11.62(3)**
여	60.9	35.3	2.9	0.9	100.0(782)	
아동 출생순위						
첫째	61.8	34.4	2.5	1.2	100.0(749)	15.14(6)*
둘째	53.6	42.6	2.3	1.5	100.0(686)	
셋째 이상	53.9	44.4	1.7	0.0	100.0(17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잘 모르겠음'을 제외하고 분석함.

* $p < .05$, ** $p < .01$.

8) 기대 자녀수

기대 자녀수는 지금까지 실제 출생한 자녀수에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를 합한 개념으로 완결 출산력의 의미를 가지며, 부모의 미래 출산력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출산 자녀수와 향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의 합산으로 산출되는 기대자녀 수는 계획 자녀수가 있다고 응답한 338명의 어머니에게 조사한 결과, 59.8%가 '2명'이 자녀수라고 응답하였고, 30.5%가 '3명'의 자녀수에 응답하였으며, '4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9.8%였다. 아동 성별, 거주 지역

규모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아동의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14〉 기대 자녀수

구분	2명	3명	4~6명	계(수)	$\chi^2(df)$
전체	59.8	30.5	9.5	100.0(338)	
아동 성별					
남	58.3	32.1	9.5	100.0(168)	0.44(2)
여	61.2	28.8	10.1	100.0(170)	
아동 출생순위					
첫째	71.8	24.2	4.0	100.0(277)	198.22(4)***
둘째	6.2	75.0	18.8	100.0(48)	
셋째 이상	0.0	0.0	100.0	100.0(13)	
모 학력					
고졸이하	48.1	32.7	19.2	100.0(104)	18.24(4)**
전문대졸	61.9	31.4	6.7	100.0(105)	
대졸이상	67.4	27.9	4.7	100.0(129)	
모 취업여부					
취업	60.4	34.0	5.6	100.0(144)	5.61(2)
미취업	59.3	27.8	12.9	100.0(19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8.2	30.6	11.2	100.0(134)	5.12(6)
301~400만원	51.8	32.4	5.9	100.0(68)	
401~530만원	63.0	22.2	14.8	100.0(54)	
531만원 이상	58.5	34.1	7.3	100.0(82)	
지역규모					
대도시	65.5	25.7	8.8	100.0(148)	6.78(4)
중소도시	25.7	32.1	8.0	100.0(112)	
읍면지역	48.7	37.2	14.2	100.0(78)	

** $p < .01$, *** $p < .001$.

나.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

1, 2, 3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개인 내적 특성만을 조사하였으나, 4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버지의 개인 내적 특성도 조사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을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가능한 최소 점수는 4점, 최대 점수는 2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임을 의미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평균점수는 각각 2.35점과

2.17점이었다. 모의 학력이 낮은 가정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5〉 부모의 (부정적) 자기효능감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17	.69	(1,624)		2.35	.72	(1,702)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5	.69	(760)	3.12*	2.33	.71	(789)	2.24
둘째	2.18	.69	(682)		2.35	.71	(721)	
셋째 이상	2.29	.70	(182)		2.45	.76	(192)	
모 학력								
고졸이하	2.24	.71	(488)	4.28*	2.42	.72	(515)	3.87*
전문대졸	2.19	.70	(426)		2.36	.72	(441)	
대졸이상	2.12	.67	(703)		2.30	.71	(739)	
모 취업여부								
취업	2.19	.68	(645)	0.90	2.33	.69	(681)	-0.85
미취업	2.16	.70	(968)		2.36	.73	(1,01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23	.72	(537)	1.95	2.40	.73	(571)	1.66
301~400만원	2.17	.72	(388)		2.35	.72	(406)	
401~530만원	2.15	.69	(295)		2.32	.71	(301)	
531만원 이상	2.13	.64	(404)		2.31	.70	(424)	
지역 규모								
대도시	2.14	.68	(650)	1.42	2.34	.72	(670)	0.79
중소도시	2.17	.69	(625)		2.34	.71	(666)	
읍면지역	2.24	.71	(349)		2.39	.73	(366)	

* $p < .05$.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임을 나타내며,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평균 3.63점과 3.76점이었다. 어머니는 학력이 높은 경우, 취업모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6〉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76	.53	(1,624)		3.63	.59	(1,702)	
모 학력								
고졸이하	3.66	.50	(488)	19.85***	3.50	.59	(515)	36.73***
전문대졸	3.72	.55	(426)		3.58	.57	(441)	
대졸이상	3.85	.52	(703)		3.76	.57	(739)	
모 취업여부								
취업	3.74	.53	(645)	-1.06	3.73	.57	(681)	0.15***
미취업	3.77	.53	(968)		3.57	.60	(1,01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9	.53	(537)	5.44**	3.53	.61	(571)	11.29***
301~400만원	3.76	.53	(388)		3.62	.56	(406)	
401~530만원	3.80	.53	(295)		3.71	.58	(301)	
531만원 이상	3.82	.53	(404)		3.73	.57	(424)	
지역 규모								
대도시	3.79	.52	(650)	5.70**	3.65	.60	(670)	1.00
중소도시	3.77	.53	(625)		3.64	.60	(666)	
읍면지역	3.67	.54	(349)		3.60	.54	(366)	

** $p < .01$, *** $p < .001$.

우울은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 우울 평균 점수는 11.89점과 11.26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 있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는 높아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이나 거주지역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표 IV-3-17〉 부모의 우울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11.26	4.17	(1,623)		11.89	4.09	(1,701)	
모 학력								
고졸이하	11.66	4.16	(489)	4.34*	12.37	4.85	(515)	4.78**
전문대졸	11.31	4.49	(425)		11.86	4.63	(440)	
대졸이상	10.94	3.96	(702)		11.58	4.14	(739)	
모 취업여부								
취업	11.27	4.12	(644)	0.18	11.67	4.37	(681)	-1.56
미취업	11.23	4.20	(968)		12.02	4.60	(1,009)	

(표 IV-3-17 계속)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1.72	4.35	(537)	4.19**	12.47	4.80	(570)	5.90**
301~400만원	11.26	4.30	(386)		11.93	4.60	(406)	
401~530만원	11.08	4.01	(295)		11.48	4.39	(301)	
531만원 이상	10.78	3.88	(405)		11.37	3.97	(424)	
지역 규모								
대도시	11.10	4.18	(650)	1.42	11.80	4.45	(670)	0.39
중소도시	11.27	4.07	(624)		12.01	4.47	(665)	
읍면지역	11.56	4.34	(349)		11.83	4.67	(366)	

* $p < .05$, ** $p < .01$.

다. 부부관계 특성

결혼만족도는 5점 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어머니의 점수는 3.74점, 아버지는 평균 4.03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경우 모두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고 소득별 비교에서도 대체로 소득이 낮은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었다.

〈표 IV-3-18〉 부모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03	.65	(1,623)		3.74	.73	(1,698)	
모 학력								
고졸이하	3.90	.66	(488)	17.77***	3.60	.78	(514)	13.91***
전문대졸	4.03	.65	(426)		3.75	.73	(440)	
대졸이상	4.12	.61	(703)		3.82	.67	(738)	
모 취업여부								
취업	4.07	.66	(645)	2.87	3.77	.69	(679)	1.89
미취업	3.96	.66	(968)		3.68	.75	(1,00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97	.62	(537)	3.50*	3.68	.73	(567)	3.41*
301~400만원	4.06	.65	(388)		3.78	.73	(407)	
401~530만원	4.01	.70	(293)		3.70	.75	(300)	
531만원 이상	4.10	.63	(405)		3.81	.69	(424)	

* $p < .05$, ** $p < .01$, *** $p < .001$.

부부갈등은 8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어머니는 평균 2.10점, 아버지는 평균 2.12점으로 이는 점수가 낮을수록 갈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는 어머니 학력이 낮은 경우에,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는 상태일 때 부부갈등 점수가 높고, 어머니의 경우는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갈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9〉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12	.73	(1,623)		2.10	.76	(1,697)	
모 학력								
고졸이하	2.19	.76	(488)	5.43**	2.19	.78	(514)	8.38***
전문대졸	2.15	.73	(426)		2.14	.76	(439)	
대졸이상	2.06	.71	(704)		2.02	.73	(738)	
모 취업여부								
취업	2.07	.73	(646)	3.52*	2.06	.72	(679)	2.59
미취업	2.20	.72	(968)		2.17	.77	(1,00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18	.75	(537)	2.04	2.16	.78	(567)	2.06
301~400만원	2.10	.73	(388)		2.09	.75	(407)	
401~530만원	2.14	.77	(294)		2.10	.81	(300)	
531만원 이상	2.06	.68	(404)		2.04	.69	(423)	

* $p < .05$, ** $p < .01$, *** $p < .001$.

라. 양육특성

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네 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부모에게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평정은 평균 3.61점과 3.62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동 성별, 거주 지역 규모 및 모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아동의 출생순위로 볼 때 첫째 자녀인 경우 가장 참여도가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가구소득이 531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 모두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부모의 인식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62	.65	(1,624)		3.61	.81	(1,697)	
아동 성별								
남	3.60	.66	(827)	-1.00	3.61	.81	(869)	0.04
여	3.64	.65	(797)		3.61	.80	(828)	
아동 출생순위								
첫째	3.68	.66	(759)	6.18**	3.69	.82	(784)	7.44**
둘째	3.57	.65	(682)		3.56	.80	(720)	
셋째 이상	3.54	.59	(183)		3.49	.76	(193)	
모 학력								
고졸이하	3.52	.69	(489)	9.90***	3.47	.81	(514)	13.69***
전문대졸	3.61	.64	(426)		3.62	.81	(439)	
대졸이상	3.69	.63	(703)		3.71	.79	(738)	
모 취업여부								
취업	3.63	.64	(645)	0.39	3.66	.82	(679)	1.87
미취업	3.61	.66	(969)		3.58	.80	(1,00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57	.67	(537)	3.54*	3.53	.79	(567)	3.88**
301~400만원	3.63	.65	(388)		3.65	.83	(407)	
401~530만원	3.58	.69	(294)		3.60	.83	(300)	
531만원 이상	3.70	.62	(405)		3.70	.78	(423)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가 응답한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의 경우, 아버지는 주중 평균 1.56시간, 주말에는 평균 4.86시간, 어머니 자신의 양육참여 시간은 주중 평균 5.12시간, 주말에 평균 9.02시간 참여한다고 하였다. 자녀가 첫째일 경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시간이 가장 길었고, 어머니가 인식하기에 어머니 학력이 높은 집단일 수록, 또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일 때, 대도시 지역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1〉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단위: 점, (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1.56	1.52	(1,732)		4.86	3.09	(1,734)	

(표 IV-3-21 계속)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아동 성별								
남	1.62	1.68	(889)	1.74	4.91	3.15	(890)	0.62
여	1.49	1.34	(843)		4.82	3.03	(844)	
아동 출생순위								
첫째	1.73	1.61	(802)	9.71***	5.22	3.19	(804)	11.50***
둘째	1.43	1.52	(733)		4.64	2.95	(733)	
셋째 이상	1.34	1.05	(197)		4.23	3.02	(197)	
모 학력								
고졸이하	1.64	1.55	(530)	1.38	4.37	3.04	(531)	13.44***
전문대졸	1.48	1.27	(452)		4.78	3.05	(452)	
대졸이상	1.55	1.64	(749)		5.26	3.11	(750)	
모 취업여부								
취업	1.56	1.45	(696)	0.21	5.08	3.12	(696)	2.41*
미취업	1.54	1.57	(1,032)		4.71	3.07	(1,03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56	.06	(580)	2.21	3.15	.13	(581)	6.36***
301~400만원	1.27	.06	(415)		2.91	.14	(416)	
401~530만원	1.29	.07	(306)		2.94	.17	(306)	
531만원 이상	1.82	.09	(431)		3.23	.16	(431)	
지역 규모								
대도시	1.66	1.57	(679)	2.82	5.21	3.18	(680)	7.42**
중소도시	1.47	1.58	(688)		4.68	2.93	(689)	
읍면지역	1.53	1.32	(365)		4.56	3.16	(365)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양육 참여시간을 보면, 주중은 평균 5.12시간, 주말은 평균 9.02시간이었다. 양육시간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22〉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단위: 점, (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5.12	3.03	(1,741)		9.02	3.61	(1,741)	
아동 성별								
남	5.12	2.92	(895)	-0.20	9.03	3.65	(895)	0.03
여	5.12	3.13	(846)		9.02	3.57	(846)	

(표 IV-3-22 계속)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아동 출생순위								
첫째	5.16	2.78	(811)	0.17	9.08	3.57	(811)	1.92
둘째	5.09	3.24	(733)		9.09	3.61	(733)	
셋째 이상	5.04	3.18	(197)		8.55	3.77	(197)	
모 학력								
고졸이하	5.05	2.79	(530)	2.45	8.91	3.47	(530)	0.61
전문대졸	4.91	2.98	(453)		8.98	3.74	(453)	
대졸이상	5.29	3.20	(757)		9.13	3.63	(757)	
모 취업여부								
취업	3.76	2.25	(703)	-17.69***	8.79	3.66	(703)	-2.24*
미취업	6.04	3.14	(1,038)		9.18	3.57	(1,03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04	.13	(584)	6.13***	3.77	.16	(584)	2.94*
301~400만원	2.93	.14	(417)		3.43	.17	(417)	
401~530만원	2.97	.17	(307)		3.35	.19	(307)	
531만원 이상	3.08	.15	(433)		3.72	.18	(433)	
지역 규모								
대도시	5.47	3.29	(681)	7.77***	10.00	3.85	(681)	46.46***
중소도시	4.87	2.89	(693)		8.18	3.20	(693)	
읍면지역	4.94	2.71	(367)		8.81	3.47	(367)	

* $p < .05$, *** $p < .001$.

2) 부모의 자녀가치

자녀 가치는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 문항씩, 총 8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가치의 하위척도인 정서적 가치는 어머니 평균 4.33점과 아버지 평균 4.49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자녀의 출생순위나 가구소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어머니가 취업을 한 가정에서, 중소도시에 살 때 정서적 가치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지역규모에 의해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23〉 부모의 자녀가치: 정서적 가치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49	.52	(1,620)		4.33	.58	(1,702)	
아동 성별								
남	4.46	.54	(828)	-1.97*	4.30	.60	(873)	-2.02*
여	4.51	.50	(799)		4.36	.56	(829)	
아동 출생순위								
첫째	4.48	.53	(760)	0.20	4.32	.59	(788)	0.32
둘째	4.50	.51	(684)		4.32	.57	(721)	
셋째 이상	4.49	.53	(183)		4.36	.58	(193)	
모 학력								
고졸이하	4.47	.57	(489)	3.76*	4.29	.60	(514)	2.51
전문대졸	4.45	.52	(426)		4.32	.58	(441)	
대졸이상	4.53	.49	(705)		4.36	.57	(740)	
모 취업여부								
취업	4.52	.50	(646)	4.76**	4.34	.57	(680)	0.12
미취업	4.42	.55	(970)		4.32	.60	(1,01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47	.56	(538)	0.40	4.33	.59	(571)	0.24
301~400만원	4.49	.50	(388)		4.31	.57	(407)	
401~530만원	4.50	.53	(295)		4.34	.58	(301)	
531만원 이상	4.50	.49	(406)		4.34	.57	(423)	
지역 규모								
대도시	4.46	.54	(650)	-1.97*	4.30	.60	(671)	-2.02*
중소도시	4.51	.50	(628)		4.36	.56	(665)	
읍면지역	4.49	.52	(349)		4.33	.57	(366)	

* $p < .05$, ** $p < .01$.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진 도구적 자녀가치 측면의 인식을 보면, 아버지는 5점 척도에서 3.20점, 어머니는 2.85점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서 셋째 이상인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4〉 부모의 자녀가치: 도구적 가치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20	.80	(1,616)		2.85	.78	(1,702)	

(표 IV-3-24 계속)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아동 성별								
남	3.21	.80	(825)	0.52	2.84	.78	(873)	0.63
여	3.19	.80	(798)		2.87	.78	(829)	
아동 출생순위								
첫째	3.13	.79	(756)	6.79**	2.78	.77	(788)	13.89***
둘째	3.23	.81	(684)		2.89	.78	(721)	
셋째 이상	3.36	.81	(183)		3.09	.77	(193)	
모 학력								
고졸이하	3.21	.83	(488)	0.07	2.89	.82	(514)	0.75
전문대졸	3.19	.82	(424)		2.83	.75	(441)	
대졸이상	3.20	.77	(704)		2.85	.77	(740)	
모 취업여부								
취업	3.18	.79	(645)	0.45	2.82	.76	(680)	1.53
미취업	3.18	.85	(967)		2.91	.80	(1,01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20	.81	(535)	0.34	2.87	.81	(571)	0.38
301~400만원	3.20	.81	(387)		2.86	.76	(407)	
401~530만원	3.16	.82	(295)		2.85	.80	(301)	
531만원 이상	3.22	.78	(406)		2.82	.75	(423)	
지역 규모								
대도시	3.21	.80	(648)	0.52	2.84	.78	(671)	0.63
중소도시	3.19	.80	(626)		2.87	.78	(665)	
읍면지역	3.22	.79	(349)		2.86	.79	(366)	

** $p < .01$, *** $p < .001$.

3) 부모의 자녀 기대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는 부모 각 평균 3.86점과 3.83점이었다.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에 가장 높은 기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 성별과 지역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25〉 부모의 자녀기대

단위: 점, (명)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금전			이타심		
어머니	3.25(.59)	(1,699)	어머니	3.29(.62)	(1,697)
아버지	3.16(.66)	(1,623)	아버지	3.30(.63)	(1,620)

(표 IV-3-25 계속)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명성			행복한 가정		
어머니	2.84(.76)	(1,699)	어머니	3.86(.38)	(1,700)
아버지	2.89(.74)	(1,622)	아버지	3.83(.42)	(1,625)
사회적 지위			취미나 여가		
어머니	2.84(.76)	(1,696)	어머니	2.76(.69)	(1,697)
아버지	2.88(.76)	(1,623)	아버지	2.86(.73)	(1,623)

4) 양육실제

어머니의 양육실제 척도는 사회적 양육유형 하위척도 9문항과 한계설정 하위척도 5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적 양육유형 하위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9~45점이며, 한계설정 하위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유형의 평균점수는 3.80점이었고, 한계설정은 3.50점이었다. 아버지의 양육실제 척도는 사회적 양육유형 8문항과 한계설정 5문항의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이다.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유형의 평균점수는 3.64점이었고, 한계설정은 3.47점이었다.

〈표 IV-3-26〉 양육 실제: 사회적 양육유형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64	.58	(1,626)		3.80	.49	(1,703)	
아동 출생순위								
첫째	3.71	.57	(760)	11.09***	3.84	.50	(790)	6.32**
둘째	3.58	.58	(683)		3.76	.47	(721)	
셋째 이상	3.58	.58	(183)		3.76	.52	(192)	
모 학력								
고졸이하	3.55	.59	(489)	15.69***	3.74	.55	(515)	6.78**
전문대졸	3.59	.58	(426)		3.79	.46	(441)	
대졸이상	3.73	.56	(704)		3.84	.47	(740)	
모 취업여부								
취업	3.67	.59	(646)	2.30	3.80	.50	(681)	0.05
미취업	3.59	.58	(970)		3.79	.48	(1,01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58	.60	(538)	4.18**	3.74	.49	(571)	5.03**
301~400만원	3.65	.60	(388)		3.78	.50	(406)	
401~530만원	3.63	.58	(295)		3.82	.51	(302)	
531만원 이상	3.72	.53	(405)		3.86	.48	(424)	

** $p < .01$, *** $p < .001$.

사회적 양육유형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첫째 자녀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과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점수가 높았다 (표 IV-5-1 참조). 한계설정 양육실제에서는 아동의 출생 순위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셋째 이상의 경우 한계 설정 양육실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IV-3-27〉 양육 실제: 한계 설정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3.47	.52	(1,626)		3.50	.46	(1,703)	
아동 출생순위								
첫째	3.41	.53	(760)	7.61**	3.46	.48	(790)	5.98**
둘째	3.50	.51	(683)		3.55	.45	(721)	
셋째 이상	3.54	.49	(183)		3.50	.42	(192)	
모 학력								
고졸이하	3.44	.52	(489)	0.76	3.49	.46	(515)	0.57
전문대졸	3.47	.50	(426)		3.50	.43	(441)	
대졸이상	3.48	.53	(704)		3.51	.48	(740)	
모 취업여부								
취업	3.48	.52	(645)	0.92	3.50	.46	(681)	0.12
미취업	3.44	.53	(967)		3.51	.47	(1,011)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45	.49	(538)	0.22	3.49	.46	(571)	0.30
301~400만원	3.48	.56	(388)		3.51	.47	(406)	
401~530만원	3.48	.54	(295)		3.52	.45	(302)	
531만원 이상	3.46	.51	(405)		3.49	.47	(424)	

** $p < .01$.

5)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총 11개 문항, 5점 척도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는 평균 2.76점이었고, 아버지는 평균 2.44점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아동 출생 순위와 가구 소득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3-28〉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44	.62	(1,626)		2.76	.68	(1,702)	
아동 성별								
남	2.47	.63	(828)	1.78	2.78	.68	(870)	1.39
여	2.41	.61	(798)		2.74	.68	(832)	
아동 출생순위								
첫째	2.40	.61	(760)	4.09*	2.73	.70	(790)	6.35**
둘째	2.49	.63	(683)		2.82	.66	(720)	
셋째 이상	2.45	.60	(183)		2.64	.66	(192)	
모 학력								
고졸이하	2.51	.63	(489)	7.60**	2.82	.70	(513)	3.17*
전문대졸	2.48	.62	(426)		2.75	.67	(441)	
대졸이상	2.37	.60	(704)		2.72	.68	(740)	
모 취업여부								
취업	2.44	.63	(645)	-0.09	2.72	.66	(680)	-1.92
미취업	2.44	.61	(970)		2.79	.69	(1,010)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50	.61	(538)	3.42*	2.81	.67	(571)	3.44*
301~400만원	2.42	.60	(388)		2.76	.68	(405)	
401~530만원	2.46	.63	(295)		2.77	.65	(302)	
531만원 이상	2.37	.64	(405)		2.67	.71	(424)	
지역 규모								
대도시	2.44	.60	(650)	2.83	2.75	.68	(670)	0.31
중소도시	2.41	.62	(627)		2.77	.69	(667)	
읍면지역	2.51	.65	(349)		2.76	.66	(365)	

* $p < .05$, ** $p < .01$.

4.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조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낮 시간에 주로 아이를 돌보아준 양육자 또는 기관을 월별로 조사하였다. 폐널별로 조사 시점이 다르므로, 3차년도 조사 시작 시기인 2010년 6월

부터 4차년도 조사 종료 시기인 2011년 12월까지의 응답을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대리양육자의 이용률과 미이용률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4-1〉 지난 조사이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구분	미이용	개인대리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	개인대리양육과 어린이집	개인대리양육과 유치원	기타	단위: %
									계
2010년									
6월	43.9	8.7	45.6	0.1	0.2	1.0	0.0	0.5	100.0
7월	42.0	8.4	47.7	0.2	0.2	1.0	0.1	0.5	100.0
8월	40.0	6.4	51.3	0.2	0.4	1.3	0.1	0.4	100.0
9월	38.2	5.1	54.2	0.3	0.5	1.4	0.1	0.3	100.0
10월	37.2	4.7	55.6	0.3	0.6	1.4	0.1	0.2	100.0
11월	36.6	4.3	56.6	0.3	0.6	1.3	0.1	0.2	100.0
12월	36.3	4.2	56.8	0.3	0.7	1.4	0.1	0.2	100.0
2011년									
1월	35.8	4.1	57.3	0.3	0.7	1.4	0.1	0.2	100.0
2월	35.5	4.0	57.6	0.3	0.8	1.4	0.1	0.2	100.0
3월	18.4	2.3	75.0	1.2	1.1	1.4	0.2	0.4	100.0
4월	17.2	2.1	76.2	1.3	1.2	1.5	0.2	0.4	100.0
5월	16.4	1.8	77.3	1.3	1.2	1.5	0.2	0.4	100.0
6월	15.8	1.7	77.8	1.3	1.3	1.5	0.2	0.5	100.0
7월	15.2	1.8	78.4	1.3	1.2	1.6	0.2	0.4	100.0
8월	12.5	1.9	81.5	1.1	1.3	1.4	0.1	0.2	100.0
9월	11.9	2.2	81.7	1.1	1.1	1.6	0.2	0.2	100.0
10월	11.7	1.3	82.5	0.4	1.8	2.2	0.0	0.0	100.0
11월	26.1	4.3	69.6	0.0	0.0	0.0	0.0	0.0	100.0

주: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현황은 중복응답 결과임.

조사가 이루어진 당시 달의 낮 시간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이 9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개인대리양육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3.7%였다. 어린이집 다음으로 개인대리양육 2.0%, 유치원 1.7%, 반일제 이상 학원이 1.4% 순이었고, 4.2%가 육아지원서비스를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표 IV-4-2〉 현재 달의 낮 시간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유형

		단위: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개인대리양육	2.0	개인대리양육자+반일제이상 학원	0.1
어린이집	90.8	개인대리양육자+어린이집	3.7
유치원	1.7	개인대리양육자+유치원	0.2
반일제이상 학원	1.4	어린이집+반일제이상 학원	0.1
선교원 등 기타 기관	0.1	어린이집+기타 기관	0.1
계(수)		100.0(1,480)	

나. 비대가성 양육지원

어머니가 주 양육자인 경우, 배우자 외에 별도의 양육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양육 관련 도움을 받는 지인 비대가성 양육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비대가성 양육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지원 없이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93.6%로 가장 많았다. 자세한 비대가성 양육지원 특성은 <표 IV-4-3>에 나타나 있다.

〈표 IV-4-3〉 비대가성 양육지원 특성

		단위: %(명), 명, 분, 시간, %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양육지원자 여부		아동과의 관계	
없음	93.6	친할머니	36.8
있음	6.4	친할아버지	5.3
계	100.0(295)	외할머니	57.9
동거여부		외할아버지	21.1
동거	10.5	형제·자매	0.0
비동거	121.1	기타 친인척	10.5
구분	평균(표준편차)	친구 또는 이웃	0.0
인원 수	1.32(.58)	가사 도우미	0.0
거주 거리(분)	20.15(18.36)	기타	0.0
주당 지원 시간	9.26(13.84)		

주: 동거여부, 인원 수, 거주 거리, 주당 지원 시간, 아동과의 관계는 모두 중복응답 결과임.

다. 개인대리양육

지난 조사와 개인대리양육자가 동일한 지 조사한 결과, 84.9%가 동일하다고

하였고, 11.6%는 동일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올해 처음 대리양육자를 이용한 가구는 이용자의 3.5%였다. 아이와의 관계는 외할머니가 40.7%, 친할머니 34.6%로 가장 많았고, 개인대리양육자의 34.9%는 아이의 집으로 출퇴근, 33.7%는 함께 거주, 개인대리양육자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는 경우는 19.8%로 조사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경우는 15.3%, 일주일 내내 이용하는 경우는 12.9%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이용시간은 9.03시간이었고, 현금이나 현물을 지불하는 경우가 84.8%, 평균 84.17만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도는 5점 척도 상에서 평균은 3.32점이었고, 이용만족도는 평균 4.21점이었다.

〈표 IV-4-4〉 개인대리양육 특성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변경여부			동거여부		
동일함		84.9	함께 살고 있음		33.7
동일하지 않음		11.6	아기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9.3
올해 처음 이용		3.5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34.9
아동과의 관계			이분 집에 낮 시간 맡기고 있음		19.8
친할머니		34.6	기타		2.3
친할아버지		2.5	비용 지불여부		
외할머니		40.7	지불 안함		14.1
외할아버지		0.0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82.4
형제·자매		0.0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1.2
기타 친인척		6.2	현물로 지불		1.2
아기만 돌보는 비혈연 도우미		13.6	숙식만 제공		1.2
가사, 육아를 함께하는 도우미		2.5	계(수)		100.0(85)
주간 이용 빈도			단위: 시간, 만원, 점		
월~토요일까지 매일		15.3	구분	평균(표준편차)	
월~금요일까지 매일		69.4	1일 총 이용시간		9.03(4.55)
일주일 내내		12.9	이용비용(현물 및 현금)		84.17(103.17)
일주일에 며칠만		2.4	비용 부담도		3.32(.96)
계(수)		100.0(85)	이용 만족도		4.21(.71)

라. 육아지원기관

1) 육아지원기관 특성

아동이 이용 중인 육아지원기관의 특성 중 물리적 환경 요소인 주변 환경을 알아보면, 육아지원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일반아파트 지역 51.4%, 일반주택지역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이 거주지역과 근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육아지원기관의 입지 조건이 유사하다고 추정된다. 재원 중인 육아지원기관의 입지 조건을 일반 주택 지역, 일반 아파트 지역 및, 그 밖의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이 일반 아파트지역에 소재하고 있었고,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그러하였다.

〈표 IV-4-5〉 육아지원기관 입지 조건

단위: %(명)

	일반 주택지역	일반 아파트지역	상·화 지역	공장(단) 지역	농·어·가 지역	기타	계(수)	$\chi^2(df)$
전체	35.0	51.4	7.5	0.6	4.2	1.4	100.0(1452)	
모 취업여부								
취업	32.3	54.2	8.5	0.5	2.9	1.7	100.0(657)	3.88(2)
미취업	36.9	49.3	6.6	0.6	5.4	1.1	100.0(783)	
모 학력								
고졸이하	44.4	43.1	5.6	0.6	5.0	1.3	100.0(462)	43.05(10)**
전문대졸	33.6	49.6	9.6	0.3	5.2	1.8	100.0(387)	
대졸이상	28.2	59.4	7.6	0.7	3.0	1.2	100.0(596)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7	44.4	6.7	0.4	4.5	1.2	100.0(489)	22.07(6)**
301~400만원	32.2	54.4	8.3	0.9	3.3	0.9	100.0(338)	
401~530만원	33.1	52.2	8.0	0.0	4.0	2.8	100.0(251)	
531만원 이상	28.6	57.2	7.5	0.8	4.8	1.1	100.0(374)	
지역규모								
대도시	41.7	48.9	8.0	0.2	0.5	0.7	100.0(566)	61.18(4)***
중소도시	24.5	60.2	7.9	0.5	4.6	2.3	100.0(571)	
읍면지역	41.9	39.7	6.0	1.3	10.2	1.0	100.0(31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불가하여 '일반 주택 지역', '일반 아파트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p < .01$, *** $p < .001$.

이용하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95.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지역 규모 및 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이용기관 유형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4-6〉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관 유형

구분	단위: %(명)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놀이학교	선교원	미술, 태권도 등 각종학원	기타	계(수)
전체	95.3	2.0	0.5	1.4	0.3	0.3	0.1	100.0(1,452)
아동성별								
남	95.3	1.7	0.7	1.5	0.5	0.3	0.0	100.0(752)
여	95.3	2.3	0.3	1.4	0.1	0.3	0.3	100.0(700)
지역규모								
대도시	95.1	1.8	0.5	1.6	0.5	0.4	0.2	100.0(566)
중소도시	94.2	3.0	0.2	2.1	0.2	0.2	0.2	100.0(571)
읍면지역	97.8	0.6	1.0	0.0	0.3	0.3	0.0	100.0(315)
모 취업								
취업	96.0	1.8	0.3	1.4	0.3	0.2	0.0	100.0(657)
미취업	94.8	2.0	0.6	1.5	0.4	0.4	0.3	100.0(783)

2) 육아지원기관 이용 실제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98%로 가장 많았다. 아동의 성별 및 모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빈도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 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매일 보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구분	단위: %(명)					$\chi^2(df)$
	월~토요일 까지 매일	월~금요일 까지 매일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며칠만	계(수)	
전체	1.2	98.0	0.1	0.7	100.0(1,452)	
지역규모						
대도시	0.2	98.8	0.2	0.9	100.0(566)	15.51(6)*
중소도시	1.4	97.9	0.0	0.7	100.0(571)	
읍면지역	2.9	96.8	0.0	0.3	100.0(315)	
모 취업						
취업	1.8	97.7	0.0	0.5	100.0(657)	5.05(3)
미취업	0.8	98.2	0.1	0.9	100.0(783)	

* $p < .05$.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전체의 아동의 68.7%와 67.4%가 차량을 이용하여 등원 또는 하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수단에 있어 성별 및 모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읍면 지역의 거주자가 자녀의 등/하원 수단으로 차량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육아지원기관 등/하원 이용수단

단위: %(명)

구분	등원				하원			
	도보	차량	계(수)	$\chi^2(df)$	도보	차량	계(수)	$\chi^2(df)$
전체	31.3	68.7	100.0(1,754)		32.6	67.4	100.0(1,754)	
지역규모								
대도시	32.5	67.5	100.0(566)	15.30(2) ***	35.0	65.0	100.0(566)	13.27(2) **
중소도시	35.0	65.0	100.0(571)		35.0	65.0	100.0(571)	
읍면지역	22.5	77.5	100.0(315)		24.1	75.9	100.0(315)	
모 취업								
취업	32.9	67.1	100.0(657)	1.242(1)	24.7	65.3	100.0(657)	97.46(2) ***
미취업	30.1	69.9	100.0(783)		31.0	69.0	100.0(783)	

** $p < .01$, *** $p < .001$.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은 매월 최소 1만원 이용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월 평균 19.93만원이었다. 이용비용은 아동의 출생순위, 모 취업여부, 모 학력,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 등 분석한 모든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취업모와 중소도시 지역에서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담되는 편임과 매우 부담됨을 합하여 44.9%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29.9%는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전혀 부담되지 않음과 크게 부담되지 않음을 합한 25.3%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5점 척도로 보면 평균 3.26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출생순위,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둘째 아이에게 가장 부담스럽게 느꼈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모 취업여부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육아지원기관 월평균 이용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i>t/F</i>
전체	19.93	16.90	1.00	120.00	(1,325)	
아동 출생순위						
첫째	21.12	18.00	1.00	120.00	(638)	8.63***
둘째	19.93	16.13	1.00	100.00	(540)	
셋째 이상	14.73	13.50	1.00	100.00	(147)	
모 취업여부						
취업	22.23	16.48	1.00	100.00	(604)	4.63***
미취업	17.94	17.00	1.00	120.00	(712)	
모 학력						
고졸이하	13.74	13.26	1.00	100.00	(418)	75.24***
전문대졸	17.64	15.03	1.00	110.00	(355)	
대졸이상	26.08	18.36	1.00	120.00	(54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2.46	13.53	1.00	120.00	(439)	75.35***
301~400만원	18.31	15.05	1.00	100.00	(292)	
401~530만원	22.23	17.26	1.00	100.00	(236)	
531만원 이상	28.89	17.31	1.00	110.00	(358)	
지역규모						
대도시	20.09	17.23	1.00	120.00	(525)	15.51***
중소도시	22.25	17.51	1.00	110.00	(518)	
읍면지역	15.36	14.06	1.00	70.00	(282)	

*** $p < .001$.

〈표 IV-4-10〉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되지 않음	부담 크지 않음	부담 크게 부담 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i>t/F</i>
전체	7.5	17.8	29.9	30.8	14.1	100.0(1,328)	3.26		
아동 출생순위									
첫째	6.6	17.7	32.6	29.9	13.3	100.0(639)	3.26	3.82*	
둘째	7.2	16.8	27.3	33.2	15.5	100.0(542)	3.33		
셋째 이상	12.2	21.8	27.9	25.9	12.2	100.0(147)	3.04		
모 취업여부									
취업	7.3	17.5	30.2	29.9	15.2	100.0(606)	3.28	0.50	
미취업	7.7	17.7	29.7	31.6	13.3	100.0(713)	3.25		
모 학력									
고졸이하	8.4	18.9	33.7	27.5	11.5	100.0(418)	3.15	4.46*	
전문대졸	8.4	18.5	28.7	29.2	15.2	100.0(356)	1.17		
대졸이상	6.2	16.2	27.9	34.1	15.5	100.0(548)	1.11		

(표 IV-4-10 계속)

구분	전혀 되지 않음	부담 크게 되지 않음	적당함	부담 되는 편임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t/F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8.4	21.1	33.9	27.3	9.3	100.0(440)	3.08	7.73***
301~400만원	7.8	19.8	28.3	28.0	16.0	100.0(293)	3.25	
401~530만원	7.6	15.7	28.4	32.2	16.1	100.0(236)	3.33	
531만원 이상	5.8	13.4	27.3	36.5	17.0	100.0(359)	3.45	
지역규모								
대도시	5.9	19.2	29.7	35.0	10.3	100.0(526)	3.25	2.35
중소도시	7.7	16.7	28.8	27.7	19.0	100.0(520)	3.34	
읍면지역	9.9	17.0	32.3	28.7	12.1	100.0(282)	3.16	

* $p < .05$, *** $p < .001$.

국가로부터 보육·교육비용을 지원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63.9%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보육·교육비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받고 있었다.

〈표 IV-4-11〉 보육·교육비 지원여부

구분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계(수)	$\chi^2(df)$
전체	36.1	63.9	100.0(1,428)	
아동 출생순위				
첫째	39.4	60.6	100.0(675)	27.53(2)***
둘째	37.5	62.5	100.0(586)	
셋째 이상	18.0	82.0	100.0(167)	
모 취업여부				
취업	44.4	55.6	100.0(648)	35.54(1)***
미취업	29.2	70.8	100.0(768)	
모 학력				
고졸이하	18.7	81.3	100.0(460)	130.92(2)***
전문대졸	31.9	68.1	100.0(382)	
대졸이상	52.5	47.5	100.0(57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6	85.4	100.0(485)	219.18(3)***
301~400만원	31.8	68.2	100.0(333)	
401~530만원	45.1	54.9	100.0(246)	
531만원 이상	62.6	37.4	100.0(364)	
지역규모				
대도시	34.6	65.4	100.0(557)	30.02(2)***
중소도시	43.6	56.4	100.0(559)	
읍면지역	25.3	74.7	100.0(312)	

*** $p < .001$.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54.6%는 소득하위 70%이하로 보육 및 교육비 전액 감면을 받고 있었고, 36.1%는 수혜를 받지 않고 있었다.

〈표 IV-4-12〉 보육·교육비 감면 이유

단위: %(명)

구분	미수혜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아동	농어업인 자녀	기타	계(수)
전체	36.1	54.6	0.4	1.7	7.1	100.0(1,428)
아동 출생순위						
첫째	39.4	53.9	0.7	1.3	4.6	100.0(675)
둘째	37.5	55.6	0.2	2.0	4.6	100.0(586)
셋째 이상	18.0	53.9	0.0	1.8	26.3	100.0(167)
모 취업여부						
취업	44.4	46.5	0.3	1.5	7.3	100.0(648)
미취업	29.2	61.7	0.5	1.7	6.9	100.0(768)
모 학력						
고졸이하	18.7	69.6	0.4	2.6	8.7	100.0(460)
전문대졸	31.9	60.2	0.3	1.8	5.8	100.0(382)
대졸이상	52.5	39.6	0.5	0.7	6.7	100.0(57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4.6	75.9	0.6	1.9	7.0	100.0(485)
301~400만원	75.9	58.3	0.9	2.1	6.9	100.0(333)
401~530만원	45.1	45.9	0.0	1.2	7.7	100.0(246)
531만원 이상	62.6	28.8	0.0	1.4	7.1	100.0(364)
지역규모						
대도시	34.6	56.0	0.5	0.5	8.3	100.0(557)
중소도시	43.6	48.8	0.5	0.7	6.3	100.0(559)
읍면지역	25.3	62.5	0.0	5.4	6.7	100.0(312)

아동이 재원 중인 육아지원기관에서는 68.5%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보다 대도시에서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어프로그램을 75.4%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체육 56.5%, 음악 48.9%, 교구 32.9%, 미술 31.6%, 한글 12.1%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표 IV-4-13〉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행 여부

단위: %(명)

구분	특별활동 프로그램 없음	특별활동 프로그램 있음	계(수)	$\chi^2(df)$
전체	31.5	68.5	100.0(1,446)	
아동 출생순위				
첫째	33.0	67.0	100.0(685)	1.49(2)
둘째	30.4	69.6	100.0(593)	
셋째 이상	29.2	70.8	100.0(168)	
모 취업여부				
취업	30.3	69.7	100.0(656)	0.46(1)
미취업	32.0	68.0	100.0(778)	
모 학력				
고졸이하	30.4	69.6	100.0(461)	4.62(2)
전문대졸	28.0	72.0	100.0(386)	
대졸이상	34.3	65.7	100.0(592)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28.6	71.4	100.0(486)	2.98(3)
301~400만원	32.3	67.7	100.0(337)	
401~530만원	34.0	66.0	100.0(250)	
531만원 이상	32.7	67.3	100.0(373)	
지역규모				
대도시	24.8	75.2	100.0(564)	21.28(2)***
중소도시	37.5	62.5	100.0(568)	
읍면지역	32.5	67.5	100.0(314)	

*** $p < .001$.

〈표 IV-4-14〉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통합	기타	사태수
전체	31.6	48.9	56.5	4.6	6.5	12.1	0.3	32.9	1.2	75.4	1.1	8.5	11.4	991
아동 성별														
남	31.6	47.3	56.2	4.8	6.6	13.4	0.4	32.2	1.6	74.8	1.2	10.9	11.8	516
여	31.6	50.7	56.8	4.4	6.3	10.7	0.2	33.7	0.8	76.0	1.1	5.9	10.9	475
아동 출생순위														
첫째	31.4	50.8	57.5	6.1	5.7	12.0	0.4	33.6	1.3	76.9	0.7	8.1	11.8	459
둘째	31.7	46.7	53.3	3.6	8.0	13.6	0.2	33.2	0.7	74.3	1.5	8.7	10.4	413
셋째 이상	31.9	49.6	63.9	2.5	4.2	7.6	0.0	29.4	2.5	73.1	1.7	9.2	13.4	119
모 취업여부														
취업	33.3	50.5	56.2	2.8	6.6	11.8	0.4	31.7	1.5	74.6	1.1	9.2	9.0	457
미취업	30.2	47.8	56.7	6.2	6.4	12.3	0.2	33.8	0.9	76.2	1.1	7.8	13.6	529

(표 IV-4-14 계속)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통합	기타	사례수
모 학력														
고졸이하	28.3	48.0	56.1	3.1	7.2	13.7	0.3	29.0	0.6	75.7	1.6	7.8	11.5	321
전문대졸	32.4	46.4	50.4	5.8	8.6	14.4	0.4	33.5	2.2	74.5	0.4	9.7	12.2	278
대졸이상	33.7	51.7	60.9	5.1	4.4	9.3	0.3	35.7	1.0	75.8	1.3	8.2	10.8	38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0.5	47.0	55.0	6.1	7.5	13.8	0.0	33.1	1.2	74.4	0.9	8.1	13.0	347
301~400만원	32.9	52.2	56.6	3.9	4.8	12.3	0.4	28.9	1.3	76.3	0.9	9.2	10.5	228
401~530만원	32.1	46.1	55.8	4.8	7.9	10.3	0.0	35.8	0.0	73.3	1.8	7.3	12.7	165
531만원 이상	31.5	50.6	59.0	3.2	5.6	10.8	0.8	34.3	2.0	77.3	1.2	9.2	9.2	251
지역규모														
대도시	36.1	52.6	55.7	6.1	8.3	15.3	0.5	35.4	1.4	78.8	1.2	9.0	10.1	424
중소도시	29.9	49.0	62.3	3.7	4.8	8.7	0.3	28.2	0.8	70.4	0.8	8.5	13.5	355
읍면지역	25.5	41.5	48.6	3.3	5.7	11.3	0.0	35.8	1.4	76.9	1.4	7.5	10.4	212

특별활동 프로그램 전체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61,305원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531만원 이상 가구, 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총 이용횟수는 일주일 평균 3.92회였다. 각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월평균 이용비용과 일주일 평균 이용횟수는 부록 3(부록 표 2, 3)에 수록되어 있다.

〈표 IV-4-15〉 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이용비용 및 평균 이용횟수

단위: 원, 회, 명

구분	월평균 이용비용				일주일 평균 이용횟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전체	61,305	37,883	794		3.92	3.00	981	
아동 성별								
남	58,901	32,675	410	-1.84	3.96	3.32	510	0.53
여	63,872	42,644	384		3.86	2.61	471	
아동 출생순위								
첫째	642,011	40,994	372	2.52	4.16	3.16	455	2.84
둘째	596,899	35,526	330		3.74	3.07	408	
셋째 이상	553,910	318,201	92		3.59	1.83	118	
모 취업여부								
취업	60,622	34,660	348	-0.45	3.81	2.97	451	-0.95
미취업	61,855	40,364	442		4.00	2.99	525	

(표 IV-4-15 계속)

구분	월평균 이용비용				일주일 평균 이용횟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모 학력								
고졸이하	55,615	32,942	257 a	4.68*	3.62	2.62	318	2.26
전문대졸	61,909	41,159	220 ab		3.96	2.84	275	
대졸이상	65,249	38,776	315 b		4.09	3.32	38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6,755	33,095	278 a	4.75**	3.87	2.85	346	1.21
301~400만원	59,303	30,505	178 ab		3.97	2.54	224	
401~530만원	60,815	33,902	130 ab		3.59	1.85	163	
531만원 이상	69,406	49,225	208 b		4.15	4.01	248	
지역규모								
대도시	68,930	37,521	328 a	15.04***	4.11	3.19	422	1.64
중소도시	59,625	41,098	276 b		3.73	2.71	348	
읍면지역	50,584	30,127	190 c		3.83	3.04	211	

* $p < .05$, ** $p < .01$, *** $p < .001$.

마.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이용 프로그램의 수,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주로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아동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7%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평균 1.45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육아지원기관 외에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글(국어)이 59.9%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통합프로그램이 18.6%, 교구이용 프로그램 16.6%, 영어 11.9%의 순이었다.

〈표 IV-4-16〉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여부 및 이용 수

단위: %, 개(명)

구분	이용 여부			$\chi^2(df)$	이용 수					t/F
	없음	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전체	68.3	31.7	100.0(1,726)		1.45	.79	1	7	(548)	
아동 성별										
남	69.5	30.5	100.0(889)	1.36(1)	1.41	.79	1	7	(271)	-0.94
여	66.9	33.1	100.0(837)		1.48	.79	1	5	(277)	
아동 출생순위										
첫째	61.4	38.6	100.0(806)	39.16(2)**	1.53	.85	1	7	(311) a	5.14**
둘째	72.2	27.8	100.0(727)		1.35	.72	1	6	(202) ab	
셋째 이상	81.9	18.1	100.0(193)		1.20	.41	1	2	(35) b	
모 취업여부										
취업	70.6	29.4	100.0(676)	3.01(1)	1.46	.82	1	6	(199)	0.38
미취업	66.6	33.4	100.0(1,038)		1.44	.77	1	7	(347)	
모 학력										
고졸이하	71.5	28.5	100.0(530)	4.63(2)	1.30	.60	1	3	(151) a	10.44***
전문대졸	68.4	31.6	100.0(449)		1.30	.56	1	3	(142) a	
대졸이상	65.8	34.2	100.0(740)		1.61	.96	1	7	(253) b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0.4	29.6	100.0(588)	5.23(3)	1.31	.62	1	4	(174) a	3.48*
301~400만원	68.0	32.0	100.0(416)		1.42	.751	1	6	(133) ab	
401~530만원	70.2	29.8	100.0(299)		1.60	.836	1	4	(89) ab	
531만원 이상	64.1	35.9	100.0(423)		1.53	.934	1	7	(152) b	
지역규모										
대도시	69.7	30.3	100.0(671)	1.13(2)	1.56	0.86	1	6	(203)	3.32*
중소도시	67.3	32.7	100.0(691)		1.37	0.77	1	7	(226)	
읍면지역	67.3	32.7	100.0(364)		1.40	0.67	1	4	(119)	

* $p < .05$, ** $p < .01$, *** $p < .001$.

〈표 IV-4-17〉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

단위: %(명)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통합	기타
전체 (수)	10.6 (58)	3.8 (21)	8.4 (46)	0.4 (2)	8.6 (47)	59.9 (328)	0.0 (0)	16.6 (91)	0.4 (2)	11.9 (65)	0.4 (2)	18.6 (102)	4.9 (27)
아동 성별													
남	9.6	3.3	5.5	0.4	7.7	60.1	0.0	17.3	0.0	10.7	0.7	19.9	5.5
여	11.6	4.3	11.2	0.4	9.4	59.6	0.0	15.9	0.7	13.0	0.0	17.3	4.3

(표 IV-4-17 계속)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기타 외국어	통합	기타
아동 출생순위													
첫째	11.6	4.8	10.0	0.3	7.7	61.1	0.0	20.3	0.3	15.8	0.0	16.7	4.8
둘째	10.9	2.5	5.9	0.5	9.4	56.9	0.0	12.9	0.5	7.4	1.0	21.3	5.4
셋째 이상	0.0	2.9	8.6	0.0	11.4	65.7	0.0	5.7	0.0	2.9	0.0	20.0	2.9
모 취업여부													
취업	9.0	3.5	4.5	0.5	13.6	63.3	0.0	17.1	0.5	16.1	0.0	15.6	2.5
미취업	11.5	4.0	10.7	0.3	5.8	57.9	0.0	16.1	0.3	9.5	0.6	20.2	6.3
모 학력													
고졸이하	6.0	1.3	2.0	0.7	11.3	69.5	0.0	6.6	0.0	6.0	0.7	16.6	9.3
전문대졸	7.0	1.4	7.7	0.0	6.3	66.2	0.0	12.0	0.7	5.6	0.7	18.3	4.2
대졸이상	15.4	6.7	12.6	0.4	8.3	50.6	0.0	24.9	0.4	19.0	0.0	19.8	2.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7.5	2.3	5.2	0.0	5.7	66.1	0.0	10.3	0.6	8.6	0.0	18.4	6.3
301~400만원	11.3	3.8	12.0	0.0	6.0	60.2	0.0	17.3	0.0	10.5	0.8	17.3	3.0
401~530만원	14.6	6.7	6.7	1.1	18.0	64.0	0.0	7.9	1.1	11.2	0.0	23.6	3.4
531만원 이상	11.2	3.9	9.9	0.7	8.6	50.0	0.0	28.3	0.0	17.1	0.7	17.1	5.9
지역규모													
대도시	14.8	4.9	9.4	0.0	6.9	57.6	0.0	24.1	1.0	14.8	0.5	19.2	2.5
중소도시	8.4	2.7	9.3	0.0	10.2	59.7	0.0	12.8	0.0	10.6	0.4	17.3	4.9
읍면지역	7.6	4.2	5.0	1.7	8.4	63.9	0.0	10.9	0.0	9.2	0.0	20.2	9.2

주: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은 중복응답 결과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만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111.5%, 다른 아동과 함께 진행이 33.0%였다. 여아인 경우가 남아인 경우보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에 개별 진행 프로그램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였다.

〈표 IV-4-18〉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방식

구분	우리 아이만 개별로 진행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진행	단위: %(명) (수)
전체	111.5	33.0	(792)
아동 성별			
남	115.1	26.2	(271)
여	107.9	39.7	(277)
아동 출생순위			
첫째	117.0	36.3	(311)
둘째	104.5	30.7	(202)
셋째 이상	102.9	17.1	(35)

(표 IV-4-18 계속)

구분	우리 아이만 개별로 진행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진행	(수)
모 취업여부			
취업	122.6	23.6	(199)
미취업	104.9	38.6	(347)
모 학력			
고졸이하	118.5	11.9	(151)
전문대졸	107.0	23.2	(142)
대졸이상	109.5	51.4	(25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8.6	22.4	(174)
301~400만원	104.5	37.6	(133)
401~530만원	121.3	38.2	(89)
531만원 이상	115.1	38.2	(152)
지역규모			
대도시	111.8	43.8	(203)
중소도시	108.4	28.3	(226)
읍면지역	116.8	23.5	(119)

주: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중복응답 결과임.

본 조사에서는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의 이용 장소를 각기 알아보았으나, 분석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이용 장소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1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백화점 및 마트 등의 문화센터가 19.0%, 사설 학원 7.1%의 순이었다.

〈표 IV-4-19〉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장소

구분	집	공공 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기타 비영리 기관	문화 센터	사설 학원	종교단체 사회단체	단위: %(명)	
								기타	(수)
전체	111.1	2.7	0.0	1.3	19.0	7.1	1.1	2.2	(792)
아동 성별									
남	115.1	1.1	0.0	0.4	15.1	5.2	1.8	2.6	(271)
여	107.2	4.3	0.0	2.2	22.7	9.0	0.4	1.8	(277)
아동 출생순위									
첫째	117.0	2.9	0.0	1.6	21.2	0.3	0.3	1.6	(311)
둘째	103.5	2.5	0.0	1.0	16.3	2.5	2.5	3.5	(202)
셋째 이상	102.9	2.9	0.0	0.0	14.3	0.0	0.0	0.0	(35)
모 취업여부									
취업	121.6	0.5	0.0	0.5	13.6	5.5	0.0	4.5	(199)
미취업	104.9	4.0	0.0	1.7	22.2	8.1	1.7	0.9	(347)

(표 IV-4-19 계속)

구분	집	공공 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기타 비영리 기관	문화 센터	사설 학원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타	(수)
모 학력									
고졸이하	118.5	2.0	0.0	1.3	2.6	3.3	1.3	1.3	(151)
전문대졸	106.3	1.4	0.0	2.1	15.5	3.5	0.7	0.7	(142)
대졸이상	109.1	4.0	0.0	0.8	30.8	11.5	1.2	3.6	(25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08.0	2.3	0.0	2.3	12.6	3.4	1.7	0.6	(174)
301~400만원	104.5	3.0	0.0	1.5	21.8	4.5	0.0	6.8	(133)
401~530만원	120.2	0.0	0.0	0.0	23.6	11.2	3.4	1.1	(89)
531만원 이상	115.1	4.6	0.0	0.7	21.1	11.2	0.0	0.7	(152)
지역규모									
대도시	110.8	3.9	0.0	1.5	26.6	8.9	1.0	3.0	(203)
중소도시	108.0	3.1	0.0	1.8	15.0	5.8	1.3	1.8	(226)
읍면지역	117.6	0.0	0.0	0.0	13.4	6.7	0.8	1.7	(119)

주: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중복응답 결과임.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98.9%가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 사용할 때 교사가 함께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116.1%가 교사가 함께 진행하였고, 교사 없이 부모가 진행하는 경우는 14.2%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을 아이 혼자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20〉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학습지 이용 여부 및 학습지 교사 유무
단위: %(명)

구분	학습지 이용 여부			학습지 교사 유무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수)	교사가 있음	부모가 진행함	아이 혼자함	(수)
전체	98.9	45.6	(792)	116.1	14.2	0.0	(542)
아동 성별							
남	97.0	44.3	(271)	112.1	15.0	0.0	(207)
여	100.7	46.9	(277)	120.1	13.4	0.0	(209)
아동 출생순위							
첫째	104.2	49.2	(311)	120.8	16.5	0.0	(236)
둘째	91.1	44.1	(202)	112.0	10.7	0.0	(150)
셋째 이상	97.1	22.9	(35)	100.0	13.3	0.0	(30)
모 취업여부							
취업	107.5	38.7	(199)	122.9	13.4	0.0	(157)
미취업	4.2	49.3	(347)	112.0	14.7	0.0	(258)

(표 IV-4-20 계속)

구분	학습지 이용 여부			학습지 교사 유무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수)	교사가 있음	부모가 진행함	아이 혼자함	(수)
모 학력							
고졸이하	106.0	24.5	(151)	116.4	8.6	0.0	(128)
전문대졸	96.5	33.8	(142)	106.2	16.1	0.0	(112)
대졸이상	96.4	64.4	(253)	122.3	17.1	0.0	(17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97.7	33.3	(174)	103.5	16.2	0.0	(142)
301~400만원	94.0	48.1	(133)	118.8	11.5	0.0	(96)
401~530만원	111.2	48.3	(89)	119.4	18.1	0.0	(72)
531만원 이상	97.4	55.9	(152)	128.3	11.3	0.0	(106)
지역규모							
대도시	100.0	55.7	(203)	127.4	11.6	0.0	(146)
중소도시	2.9	43.8	(226)	103.5	19.3	0.0	(171)
읍면지역	108.4	31.9	(119)	121.2	9.1	0.0	(99)

주: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의 학습지 이용 여부와 교사 유무는 중복응답 결과임.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시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평균 이용횟수는 5.77회로 주 1회 정도 이용하였다. 아동이 첫째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의 월별 참여횟수가 높았다. 회별 참여시간은 프로그램 전체 평균 42.01분이었고, 최소 10분에서 최대 300분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프로그램별 차이가 컸다(편차 37.23분). 아동이 셋째 자녀이거나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 이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회별 참여시간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IV-4-21〉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 시 월별 참여횟수

단위: 회, 분, (명)

구분	월별 참여횟수					회별 참여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F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5.77	3.49	1	28		42.01	37.23	10	300 (548)	
아동 성별										
남	5.62	3.38	1	28	-1.02	39.02	33.77	10	270 (271)	-1.86
여	5.92	3.59	1	20		44.93	40.17	10	300 (277)	
아동 출생순위										
첫째	6.16 a	3.76	1	28	5.83**	47.43 a	41.44	10	300 (311)	8.47***
둘째	5.38 ab	3.16	1	21		36.01 ab	30.27	10	170 (202)	
셋째 이상	4.57 b	2.12	1	8		28.43 b	23.57	10	110 (35)	

(표 IV-4-21 계속)

구분	월별 참여횟수					회별 참여시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F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모 취업여부											
취업	5.77	3.49	1	21	0.04	39.37	31.43	10	180	(199)	-1.34
미취업	5.76	3.49	1	28		43.53	40.21	10	300	(347)	
모 학력											
고졸이하	5.15 ^a	2.66	1	13	9.39***	32.85 ^a	28.31	10	150	(151)	16.17***
전문대졸	5.20 ^a	2.60	1	17		34.89 ^a	28.78	10	180	(142)	
대졸이상	6.45 ^b	4.17	1	28		51.48 ^b	43.54	10	300	(25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26 ^a	2.82	1	17	2.70*	36.67 ^a	36.16	10	300	(174)	3.70*
301~400만원	5.65 ^{ab}	3.32	1	21		39.10 ^{ab}	31.12	10	170	(133)	
401~530만원	6.38 ^{ab}	3.85	1	20		43.82 ^{ab}	35.62	10	150	(89)	
531만원 이상	6.11 ^b	4.01	1	28		49.61 ^b	42.85	10	270	(152)	
지역규모											
대도시	6.17	3.75	1	21	2.10	47.88 ^a	39.68	10	300	(203)	4.24*
중소도시	5.50	3.49	1	28		39.40 ^{ab}	37.07	10	270	(226)	
읍면지역	5.61	2.96	1	17		36.93 ^b	31.80	10	190	(119)	

주: 1)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중복응답 결과임.
 2) 월별 참여횟수에 대한 가구소득은 Duncan의 사후검증을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프로그램 전체의 월별 이용비용은 평균 적으로 7.26만원이었고 무료에서부터 최대 55만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어, 월별 이용비용에서도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 것(편차 6.73만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첫째이고,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401만원 이상의 가구인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월별 이용비용이 높았다.

〈표 IV-4-22〉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7.26	6.73	0	55	(548)	
아동 성별						
남	6.86	6.59	0	55	(271)	-1.38
여	7.65	6.86	0	41	(277)	
아동 출생순위						
첫째	8.18 ^a	7.63	0	55	(311)	6.80**
둘째	6.00 ^b	4.78	0	28	(202)	
셋째 이상	6.37 ^{ab}	6.68	1	36	(35)	

(표 IV-4-22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모 취업여부						
취업	7.44	6.20	0	41	(199)	0.49
미취업	7.15	7.02	0	55	(347)	
모 학력						
고졸이하	5.68	a	5.41	0	35	18.88***
전문대졸	5.63	a	3.80	1	19	
대졸이상	9.09	b	8.14	1	5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5.63	a	5.39	0	39	10.69***
301~400만원	6.35	a	5.34	0	39	
401~530만원	7.97	b	6.29	1	29	
531만원 이상	9.50	b	8.59	1	55	
지역규모						
대도시	7.92		7.25	0	39	1.56
중소도시	6.84		6.42	0	55	
읍면지역	6.93		6.33	0	36	

주: 1)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진행방식은 중복응답 결과임.

2) 아동 출생순위, 가구소득은 Duncan의 사후검증을 하였음.

** $p < .01$, *** $p < .001$.

바. 부모참여

아동이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참여 프로그램 및 아동이 기관과 교사를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을 때,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부모참여 형태는 교사 상담과 자녀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풍, 재롱잔치, 운동회 등 아동관련 행사였다.

〈표 IV-4-23〉 육아지원기관의 부모참여 형태

구분	아동 행사	자녀 생활과 발달 체크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원 봉사	기관운영 의사결정	가정통신문 활용	재정적 기여	계
참여형태	28.7	45.1	9.7	8.0	4.1	7.6	1.5	100.0

단위: %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지난 1년 동안의 방문 횟수는 6개월에 1~2회가 2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월 1회가 19.3%, 연간 1~2회가 13.5%였고, 거의 가지

않음도 15.9%였다.

〈표 IV-4-24〉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

구분	단위: %(명)								계(수)
	주 1회	주 2~3회	월 1회	월 2~3회	6개월에 1~2회	6개월에 3~4회	1년 간 1~2회	거의 가지 않음	
방문빈도	6.9	7.6	19.3	8.4	21.2	7.2	13.5	15.9	100.0(1,387)

부모참여 행사 중 소풍, 재롱잔치, 운동회 등 아동 행사와 담임교사 상담에 대한 안내는 각각 약 85%정도가 안내를 받은 반면, 원장 상담과 강연회, 워크숍 등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약 50%만 안내를 받았다.

〈표 IV-4-25〉 부모참여 행사 안내받은 경험

구분	단위: %(명)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계(수)
아동행사	84.4	15.6	100.0(1,192)
담임교사 상담	85.3	14.7	100.0(1,214)
원장 상담	52.0	48.0	100.0(1,001)
부모교육 프로그램	55.1	44.9	100.0(978)

가장 많이 참석한 부모참여 행사는 담임교사 상담으로 74.8%이었고, 그 다음은 아동행사로 64.6%였고, 부모교육프로그램에는 37.0%가 참석하였다.

〈표 IV-4-26〉 부모참여 행사 참석 여부

구분	단위: %(명)		
	참석함	참석 못함	계(수)
아동행사	64.6	35.4	100.0(1,187)
담임교사 상담	74.8	25.2	100.0(1,207)
원장 상담	45.7	54.3	100.0(997)
부모교육 프로그램	37.0	63.0	100.0(975)

부모참여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각 행사별로 연간 참석 횟수를 조사한 결과, 아동행사가 평균 1.80으로 가장 많았고, 담임교사 상담이 평균 1.68, 원장 상담이 1.54점 순이었고, 전체적으로 평균 1~2회 기관 행사에 참석하였다.

〈표 IV-4-27〉 부모참여 행사 연간 참석 횟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명)
			(수)
아동행사	1.80	1.16	(749)
담임교사 상담	1.68	1.64	(866)
원장 상담	1.54	1.34	(434)
부모교육 프로그램	1.47	1.18	(346)
기타	1.21	.50	(75)

부모참여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 상담이 평균 3.75점, 아동행사가 3.75점, 담임교사 상담이 3.70점으로 높았으며, 대부분 행사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기관 행사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IV-4-28〉 부모참여 행사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단위: %(명)
			(수)
아동행사	3.73	.68	(760)
담임교사 상담	3.70	.68	(866)
원장 상담	3.75	.67	(437)
부모교육 프로그램	3.65	.68	(352)
기타	3.76	.71	(76)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과 담임교사를 좋아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아동의 육아지원기관 선호도 평균 점수는 3.96점이었고 교사 선호도는 4.05점이었다. 아동의 기관과 교사 선호도는 여아가 더 높았고, 교사선호도의 경우 가구소득이 531만원 이상인 경우 높았다.

〈표 IV-4-29〉 어머니가 인식한 아동의 육아지원 서비스 기관 선호도

구분	기관 선호도				교사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전체	3.96	.69			4.05	.67	
아동 성별								
남	3.88	.70	713	-4.40***	4.00	.68	713	-3.13**
여	4.04	.66	664		4.11	.66	663	

(표 IV-4-29 계속)

구분	기관 선호도				교사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아동 출생순위									
첫째	3.91	.70	650	3.02*	4.01	.70	649	2.88	
둘째	4.00	.67	566		4.09	.65	566		
셋째 이상	4.01	.68	161		4.11	.64	161		
모 취업여부									
취업	3.94	.70	623	-1.12	4.04	.68	623	-0.67	
미취업	3.98	.67	743		4.07	.67	742		
모 학력									
고졸이하	3.93	.69	441	1.92	4.01	.71	440	1.39	
전문대졸	3.94	.67	364		4.05	.62	364		
대졸이상	4.00	.69	565		4.08	.67	56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95	.65	467	1.28	4.04	a	.66	467	3.15*
301~400만원	4.01	.69	323		4.07	ab	.68	323	
401~530만원	3.90	.77	234		3.95	ab	.74	234	
531만원 이상	3.98	.67	353		4.12	b	.63	352	
지역규모									
대도시	3.96	.68	536	0.47	4.05	.70	536	0.24	
중소도시	3.98	.70	533		4.07	.65	533		
읍면지역	3.93	.67	308		4.03	.67	307		

* $p < .05$, ** $p < .01$, *** $p < .001$.

5. 육아지원기관 이용특성

아동을 둘러싼 미시적인 환경의 일부로써 육아지원기관 이용 경향을 살펴보고자,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담당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부모와의 면접 조사 시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이용하는 기관의 담당 교사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을 동의한 패널 9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수된 응답은 800개였다.

7) 육아지원기관 설문조사는 웹 페이지와 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짐.

가. 기관특성

1) 기관 및 설립유형

조사된 800명의 육아지원기관 교사 중 어린이집 교사는 767명, 유치원 교사는 8명, 반일제이상 학원 교사는 25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약 96%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이용 아동은 1.0%로 가장 적었다.

〈표 IV-5-1〉 아동이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종류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계(수)
비율	95.9	1.0	3.1	100.0(800)

육아지원기관별로 유형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는 54.5%가 민간, 23.9%가 가정, 10.2%가 법인, 8.3%가 국공립, 2.7%가 직장, 0.4%가 부모협동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사립 개인이 87.5%, 공립초등병설이 12.5%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놀이학원이 56.0%, 영어학원이 28.0%, 미술학원과 기타 학원 유형이 각각 8.0%로 나타났다.

〈표 IV-5-2〉 아동의 이용 기관별 유형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어린이집				
국공립	8.3(64)	민간	54.5(418)	
법인	10.2(78)	가정	23.9(183)	
직장	2.7(21)	부모협동	0.4(3)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국립	0.0(0)	영어학원	28.0(7)	
공립초등병설	12.5(1)	미술학원	8.0(2)	
공립단설	0.0(0)	놀이학원	56.0(14)	
사립 법인	0.0(0)	기타	8.0(2)	
사립 개인	87.5(7)			
계		계	100.0	

기관 설립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은 일반이 75.7%로 가장 많았고, 영아전담과 시간 연장이 15.3%, 15.1% 순이었으며, 장애아통합 유형은 4.6%로 적은 편이었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개인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 44.0%로

가장 많았고, 프랜차이즈 개인이 24.0%, 직영 학원이 12.%였다.

〈표 IV-5-3〉 어린이집 기관 설립유형

단위: %(명)

구분	일반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시간 연장	24 시간	휴일	방과 후	기타	사례수
전체	75.7	15.3	0.0	4.6	15.1	0.9	0.4	2.2	0.0	767
모 취업여부										
취업	73.3	16.4	0.0	6.2	17.4	1.3	0.3	2.1	0.0	374
미취업	78.0	14.4	0.0	3.1	12.9	0.5	0.5	2.3	0.0	391
지역규모										
대도시	75.9	13.3	0.0	4.0	16.4	1.2	0.6	2.8	0.0	323
중소도시	75.6	17.2	0.0	4.1	13.8	0.4	0.0	0.7	0.0	270
읍면지역	75.7	16.3	0.0	6.4	14.5	1.2	0.6	3.5	0.0	173

주: 어린이집 설립유형은 중복응답 결과임.

〈표 IV-5-4〉 기관 설립유형: 반일제이상 학원

단위: %(명)

구분	개인 독자적운영	프랜차이즈 개인	직영(본사 운영)	기타	계(수)
전체	44.0	24.0	12.0	20.0	100.0(25)
모 취업여부					
취업	55.6	11.1	22.2	11.1	100.0(9)
미취업	40.0	26.7	6.7	26.7	100.0(15)
지역규모					
대도시	22.2	44.4	11.1	22.2	100.0(9)
중소도시	58.3	16.7	16.7	8.3	100.0(12)
읍면지역	50.0	0.0	0.0	50.0	100.0(4)

2) 학급 및 재원아 수

기관의 총 학급 수는 전체 평균 5.93개였으며, 기관의 총 정원에 대한 전체 평균은 64.11명이었다. 지역 규모와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V-5-5〉 기관의 총 학급 수 및 정원

단위: 개(명)

구분	총 학급 수			총 정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72	3.01	(793)	64.33	55.45	(793)

(표 IV-5-5 계속)

구분	총 학급 수			총 정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모 취업여부						
취업	5.70	3.09	(384)	64.42	58.48	(384)
미취업	5.74	2.94	(407)	64.35	48.52	(407)
지역규모						
대도시	5.90	3.15	(333)	67.71	54.91	(333)
중소도시	5.39	2.97	(285)	58.75	51.65	(285)
읍면지역	5.92	2.76	(175)	67.00	53.06	(175)

3) 기관 평가여부

어린이집 교사에게 평가인증 통과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과한 기관은 73.5%, 통과하지 않은 기관은 26.5%이었고, 유치원 교사에게 평가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가에 참여한 기관은 62.5%,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37.5%로 나타났으며,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1주기 참여 기관은 40.0%, 2주기 참여 기관은 60.0%였다.

〈표 IV-5-6〉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여부

구분	단위: %(명)		
	통과함	통과하지 않음	계(수)
전체	73.5	26.5	100.0(767)
모 취업여부			
취업	72.8	27.2	100.0(375)
미취업	74.2	25.8	100.0(391)
지역규모			
대도시	77.4	22.6	100.0(323)
중소도시	69.7	30.3	100.0(271)
읍면지역	72.3	27.7	100.0(173)

〈표 IV-5-7〉 유치원평가 참여여부 및 평가시기

구분	비율(수)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유치원 평가		유치원 평가시기	
참여함	62.5(5)	1주기 참여	40.0(2)
참여하지 않음	37.5(3)	2주기 참여	60.0(3)
계(수)		100.05(8)	

나. 교사 특성

1)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

아동이 다니는 기관의 담당 교사들은 평균 32.60세로 가장 연령이 낮은 교사는 19세, 가장 연령이 많은 교사는 53세였다.

〈표 IV-5-8〉 교사 연령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위: 세(명)
					(수)
연령	32.60	7.45	19	53	(800)

〈표 IV-5-9〉 교사 특성

구분	비율(수)	구분	단위: %(명)
			비율(수)
성별		전공	
남	1.0(8)	유아교육학	48.3
여	99.0(792)	보육학	26.7
계	100.0(800)	아동학	19.3
최종학력		교육학	5.3
고등학교 졸업	13.3(106)	미술계열(미술교육)	6.1
전문대 재학	5.5(44)	음악계열(음악교육)	1.4
전문대 졸업	51.8(414)	영문학(영어교육)	1.3
대학교 재학	3.3(26)	체육계열(체육교육)	0.4
대학교 졸업	24.4(195)	기타(인문, 사회, 이공계열)	24.5
대학원 재학	0.4(3)	자격증별 종류	
대학원 졸업	1.5(12)	유치원 2급	87.6
계	100.0(800)	유치원 1급	16.7
소지 자격증		유치원 원감	0.8
없음	0.8	유치원 원장	4.3
유치원교사 자격증	32.5	보육교사 3급	6.5
보육교사 자격증	96.9	보육교사 2급	43.9
초중등교원 자격증	1.3	보육교사 1급	53.9
기타 교사 자격증	0.8	보육교사 시설장	28.8

주: 교사전공, 소지자격증, 자격증별 종류는 중복응답 결과임.

응답자 중 여자교사가 99.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교사는 1.0%가 있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3%, 전문대 졸업이 51.8%, 대학교 졸업 24.4%, 대학원 졸업이 1.5%이었으며, 전문대 재학 이상의 응답자 중 유아교육학

전공 48.3%, 보육학 전공 26.7%, 아동학 전공 19.3%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기관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가 96.9%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 32.5%, 초중등교원 자격증 소지 1.3% 순이었다. 기타 교사 자격증을 소지자와 자격증이 없는 교사는 각각 0.8% 있었다.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경우 1급 자격 53.9%, 2급 자격 43.9% 있었으며, 유치원 자격 소지자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이 87.6%로 가장 많았다. 교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IV-5-9>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담당교사의 재직경험을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재직경력이 전체 중 85.0%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반일제이상 학원의 재직경력은 각각 22.3%, 19.0% 순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재직경험에 따른 재직기간은 어린이집은 평균 59.10개월, 유치원은 39.87개월, 반일제이상 학원은 40.79개월로 조사되었다.

<표 IV-5-10> 교사의 기관별 재직경험 및 평균 재직기간

단위: %, 개월

구분	비율	(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재직경험			재직기간			
어린이집	85.0	(800)	어린이집	59.10	43.57	(680)
유치원	22.3		유치원	39.87	36.45	(172)
반일제이상 학원	19.0		반일제이상 학원	40.79	39.56	(149)
기타	10.5		기타	34.50	33.89	(88)

주: 재직경험은 중복응답 결과임.

2) 근무특성

담당교사의 현 재직기관 근무기간은 평균 33.94개월이었으며 최소 1개월, 최대 257개월(21.42년)로 나타나 교사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기관의 근무처 횟수는 평균 2.39회이다. 교사의 주말근무를 포함한 1주일 총 근무시간은 50.53시간으로 하루 평균 7.22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5-11> 교사의 현 기관 근무기간, 근무처 횟수 및 근무시간

단위: %, 개월, 시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근무기간	33.94	36.20	1	257	(800)
근무처 횟수	2.39	1.34	1	9	
1주일 총 근무시간(주말포함)	50.53	7.85	21	112	
1일 평균 근무시간(주말포함)	7.22	1.12	3	16	

3) 교수 효능감

담당교사의 교사로서의 효능감에 대한 질문은 교사가 현재의 생각을 나타내는 정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5점 척도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35점 만점의 교수 효능감을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3.88점으로 나타나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유능하다고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V-5-12〉 교사의 교수 효능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단위: 점(명)
				<i>tF</i>
전체	3.88	.48	(800)	
모 취업여부				
취업	3.89	.49	(387)	0.17
미취업	3.87	.47	(411)	
지역규모				
대도시	3.88	.47	(335)	0.46
중소도시	3.89	.49	(288)	
읍면지역	3.86	.50	(177)	

4)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아동과 대화하는 태도, 독립심을 권장하는 태도, 친사회적 행동을 권장하는 교사의 태도, 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 결과 10~50점까지의 범위 중 교사들은 총점 평균 42.3점으로 높게 나타나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5-13〉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단위: 점(명)
				<i>tF</i>
전체	42.3	4.65	(800)	
모 취업여부				
취업	42.48	4.47	(387)	0.17
미취업	42.11	4.82	(411)	
지역규모				
대도시	42.38	4.64	(335)	0.46
중소도시	42.17	4.78	(288)	
읍면지역	42.36	4.49	(177)	

다. 교실특성

1) 교실형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즉 아동이 재원 중인 교실의 아동 수와 교사 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 수는 평균 10.18명이었으며, 남아가 5.26명이고 여아가 4.92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다. 교사 수는 총 교사 수가 1.58명으로 주 교사가 1.39명, 보조교사는 0.14명, 보조담임은 0.06명이었다.

〈표 IV-5-14〉 아동 및 교사 수

구분	아동 수			교사 수
	총 아동 수	남아 수	여아 수	
평균(표준편차)	10.18(4.15)	5.26(2.57)	4.92(2.51)	1.49(.71)

단위: 명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실의 형태에 대한 응답에서는 단일 연령반이 87.4%, 혼합 연령반이 12.6%로 동일 연령의 아동들이 있는 교실에 대부분의 패널 아동이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 연령반의 연령은 평균 만 2.06세이며 혼합 연령반은 평균 1.62세부터 2.67세까지의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5〉 교실의 해당연령

구분	비율	(수)	단위: %(명), 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일 연령반	87.4	(699)				
아동연령			2.06	0.23	2	3
혼합 연령반	12.6	(101)				
아동연령(부터)			1.62	0.75	1	4
아동연령(까지)			2.67	0.83	2	5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실에 제시된 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언어영역, 쌓기 영역, 역할놀이영역, 미술/조형영역, 수/과학영역, 음률영역 순으로 교실 내에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컴퓨터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교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이상 학원은 미술표현영역, 신체표현영역, 음악표현영역, 영어 학습영역, 한국어 학습영역, 기타 언어영역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고, 영역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는 16.7%였다. 각 비율에 대해서는 <표 IV-5-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5-16〉 교실 내 영역구성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언어영역	98.8	영역 없음	16.7
미술/조형영역	91.7	영어 학습영역	42.1
쌓기 영역	94.2	한국어 학습영역	31.6
수/과학영역	84.8	미술표현영역	73.7
조작영역	96.9	수리과학영역	36.8
역할놀이영역	92.6	기타 언어영역	10.5
음률영역	82.4	음악표현영역	50.6
컴퓨터영역	8.5	신체표현영역	57.9
기타	0.0	기타	5.3

주: 교실 내 영역구성 여부는 중복응답 결과임.

교실환경에 관하여 '교실 내의 공간은 연령과 흥미,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였다', '교실 내의 자료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하다', '교실 내에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가 골고루 있다', '교실 내에 영유아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자료가 있다'의 총 4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4.09점으로 교사들은 담당하고 있는 교실환경이 각 항목에 대해 잘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17〉 교실환경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09	.69	(800)	
모 취업여부				
취업	4.07	.74	(382)	2.35
미취업	4.11	.63	(5)	
지역규모				
대도시	4.13	.68	(335)	-0.68
중소도시	4.02	.68	(288)	
읍면지역	4.14	.71	(177)	

교실 내 아동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93.3%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교실 내 휴식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와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IV-5-18〉 휴식 공간 유무

구분			계(수)	단위: %(명) $\chi^2(df)$
	없다	있다		
전체	6.8	93.3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6.2	93.8	100.0(387)	0.60(2)
미취업	7.3	92.7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7.5	92.5	100.0(335)	0.38(1)
중소도시	5.9	94.1	100.0(288)	
읍면지역	6.8	93.2	100.0(177)	

2) 표준보육/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평균 3.42점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인지정도는 평균 2.78점으로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되었으며 인지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실시정도를 물어본 결과 평균 2.38점으로 나타났다.

〈표 IV-5-19〉 표준보육과정 및 유치원교육과정 인지정도

구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혀 알고 있지 않다	별로 알고 있지 않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표준보육과정	0.3	2.5	52.8	44.5	100.0(800)	3.42	.56
유치원교육과정	3.9	30.1	50.1	15.9	100.0(800)	2.78	.76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는 평균 3.25점으로 표준보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IV-5-20〉 표준보육과정 및 유치원교육과정 실시정도

구분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대체로 실시하고 있다	잘 실시 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	0.6	5.6	62.3	31.5	100.0(798)	3.25	.58
표준교육과정	13.3	41.4	39.9	5.5	100.0(769)	2.38	.78

3)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서 1일 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7.89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취업모가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더 긴 기관에 아동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21〉 프로그램 운영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i>t/F</i>
전체	7.89	2.48	2	21	(800)	
모 취업여부						
취업	8.09	2.60	4	21	(387)	2.25*
미취업	7.70	2.36	2	13	(411)	
지역규모						
대도시	7.83	2.56	2	21	(335)	0.23
중소도시	7.90	2.39	4	14	(288)	
읍면지역	7.98	2.50	4	21	(177)	

* $p < .05$.

1일 간 실내자유선택활동을 몇 번하는지에 대해서 1회가 6.0%, 2회, 3회 이상이 각각 55.0%, 38.9%로 아동들은 기관에서 1회 이상 실내 자유선택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5-22〉 실내자유선택활동 횟수

						단위: %(명)
구분	안 한다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0.1	6.0	55.0	38.9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0.3	4.9	53.0	41.9	100.0(387)	4.47(3)
미취업	0.0	6.8	56.9	36.3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0.0	6.3	57.0	36.7	100.0(335)	4.38(6)
중소도시	0.3	4.9	54.9	39.9	100.0(288)	
읍면지역	0.0	7.3	51.4	41.2	100.0(177)	

실내자유선택활동 1회 당 활동 시간은 평균 48.54분이었으며 읍면지역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회당 활동시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표 IV-5-23〉 실내자유선택활동 회당 활동시간

단위: 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48.54	28.17	10	150	(799)	
모 취업여부						
취업	50.12	29.26	10	150	(386)	3.10*
미취업	47.15	27.11	10	150	(411)	
지역규모						
대도시	51.19	29.27	10	150	(335)	1.48
중소도시	47.68	29.30	10	150	(288)	
읍면지역	44.92	23.47	15	150	(177)	

* $p < .05$.

실외놀이 공간이 있거나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여 활용한다는 교사들에게 실외놀이를 하루에 몇 번 실시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1회가 82.1%, 2회 이상이 13.4%로 약 95%가 실외놀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24〉 실외놀이 실시여부

단위: %, (명)

구분	안 한다	1회	2회	3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4.4	82.1	11.5	1.9	100.0(721)	
모 취업여부						
취업	5.9	80.9	10.9	2.3	100.0(341)	4.56(3)
미취업	2.9	83.3	12.2	1.6	100.0(378)	
지역규모						
대도시	6.0	79.4	13.6	1.0	100.0(301)	9.62(6)
중소도시	4.0	84.5	9.5	2.0	100.0(252)	
읍면지역	2.4	83.3	10.7	3.6	100.0(168)	

실외놀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1회 당 얼마나 활동하는가에 대해 평균 36.34분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활동시간의 길이가 최소 10분에서 최대 120분으로 그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IV-5-25〉 실외놀이 실시시간

단위: 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t/F
전체	36.34	12.25	10	120	(689)	
모 취업여부						
취업	37.71	12.41	15	120	(321)	2.83**
미취업	35.08	11.94	10	90	(367)	
지역규모						
대도시	36.17	11.99	10	90	(283)	0.63
중소도시	37.00	13.31	10	120	(242)	
읍면지역	35.67	11.03	15	60	(164)	

** $p < .01$.

라. 아동의 기관이용 특성

1) 아동의 등/하원

아동의 등원의 경우 오전 9-10시 사이가 64.6%, 오전 8-9시 사이 26.0%, 오전 10-11시 사이가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의 경우 오후 3시 이후가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 운영시간이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유치원과 반 일제이상 학원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이 많아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등/하원 시간 모두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모의 아동은 미취업모의 아동보다 일찍 등원하고 늦게 하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26〉 아동의 등원 시간

단위: %(명)								
구분	오전 8시 이전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1시	오전 11시 이후	일정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3.3	26.0	64.6	4.4	0.4	1.4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6.2	36.2	50.6	4.9	0.5	1.6	100.0(387)	75.91(5)***
미취업	0.2	16.5	77.9	3.9	0.2	1.2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3.3	22.7	66.6	6.0	0.3	1.2	100.0(335)	8.63(10)
중소도시	3.8	28.8	61.5	3.8	0.3	1.7	100.0(288)	
읍면지역	2.3	27.7	66.1	2.3	0.6	1.1	100.0(177)	

*** $p < .001$.

〈표 IV-5-27〉 아동의 하원 시간

단위: %(명)

구분	정오 12시 이전	오후 12~1시	오후 1~2시	오후 2~3시	오후 3시 이후	일정하지 않음	계(수)	$\chi^2(df)$
전체	0.1	0.1	2.1	12.3	82.1	3.3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0.0	0.0	1.3	7.5	85.5	5.7	100.0(387)	32.39(5)***
미취업	0.2	0.2	2.9	16.5	79.1	1.0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0.0	0.0	2.4	12.8	81.2	3.6	100.0(335)	8.10(10)
중소도시	0.0	0.0	1.7	12.5	82.6	3.1	100.0(288)	
읍면지역	0.6	0.6	2.3	10.7	83.1	2.8	100.0(177)	

*** $p < .001$.

아동이 등/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엄마가 각각 80.1%, 73.9%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아빠 순으로 나타났다. 등/하원 모두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등/하원을 할 때 동반하는 사람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업모의 경우에는 엄마가 약 93%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모의 경우에는 미취업모에 비하여 아빠와 조부모가 아동을 데려다주고 데리러온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은 지역 규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28〉 아동의 등원 시 동반하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조부모	대리 양육자	친인척	이웃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80.1	7.4	9.9	0.9	0.1	0.0	0.0	1.6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64.9	13.7	17.8	1.3	0.3	0.0	0.0	2.1	100.0(387)	113.24(5)***
미취업	94.4	1.5	2.4	0.5	0.0	0.0	0.0	1.2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78.8	6.9	11.6	1.5	0.0	0.0	0.0	1.2	100.0(335)	15.76
중소도시	79.5	9.4	9.7	0.0	0.0	0.0	0.0	1.4	100.0(288)	
읍면지역	83.6	5.1	6.8	1.1	0.6	0.0	0.0	2.8	100.0(177)	

*** $p < .001$.

〈표 IV-5-29〉 아동의 하원 시 동반하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엄마	아빠	조부모	대리 양육자	친인척	이웃	혼자 걸어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73.9	6.1	12.8	2.0	1.0	0.0	0.1	4.1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53.7	11.6	24.0	3.1	2.1	0.0	0.3	5.2	100.0(387)	172.98(6) ^{***}
미취업	93.2	1.0	1.9	0.7	0.0	0.0	0.0	3.2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76.1	5.1	12.2	2.7	0.3	0.0	0.0	3.6	100.0(335)	23.74*
중소도시	69.8	9.7	13.2	1.4	2.1	0.0	0.0	3.8	100.0(288)	
읍면지역	76.3	2.3	13	1.7	0.6	0.0	0.6	5.6	100.0(177)	

* $p < .05$, *** $p < .001$.

아동의 등/하원 수단은 기관운영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54.0%, 5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보, 승용차 순이었다. 등/하원 방법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이용과 도보로 등원이 가장 많았지만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보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 등/하원 시간의 취업모가 미취업모보다 아이를 장시간 육아지원기관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이용 시간보다 어머니의 시간에 맞추어 등/하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원의 경우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도보나 승용차 이용보다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0〉 아동의 등원 수단

단위: %(명)

구분	도보	대중교통	기관운영차량	승용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8.4	0.5	54.0	16.5	0.6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29.5	0.5	41.3	27.6	1.0	100.0(387)	80.70(4) ^{***}
미취업	27.3	0.5	65.9	6.1	0.2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31.3	0.9	50.1	17.3	0.3	100.0(335)	15.46(8)
중소도시	29.5	0.3	51.4	17.7	1.0	100.0(288)	
읍면지역	20.9	0.0	65.5	13.0	0.6	100.0(177)	

*** $p < .001$.

〈표 IV-5-31〉 아동의 하원 수단

단위: %(명)

구분	도보	대중교통	기관운영차량	승용차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7.4	0.6	54.8	15.6	1.5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28.2	1.0	43.3	24.9	2.6	100.0(387)	66.60(2)***
미취업	26.5	0.2	65.7	7.1	0.5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31.1	0.9	50.3	16.5	1.2	100.0(335)	16.91(8)*
중소도시	27.1	0.3	52.8	17.4	2.4	100.0(288)	
읍면지역	20.9	0.6	66.7	11.3	0.6	100.0(177)	

* $p < .05$, *** $p < .001$.

2) 아동의 간식 및 낮잠

기관에서 하루에 간식을 제공하는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2.11회였으며, 아동이 간식을 먹는 횟수는 평균 1.96회로 나타났다. 간식제공 횟수 및 먹는 횟수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간식제공 횟수 및 먹는 횟수가 적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집에서 간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99.5%가 가져오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기관에서 제공되는 간식을 먹는다고 할 수 있다. 가져오는 0.5%의 경우 오픈응답으로 간식을 가져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침을 먹고 오지 않아서’, ‘아침 대응으로’,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등이 있었다.

〈표 IV-5-32〉 간식제공 횟수 및 간식 먹는 횟수

단위: 회, (명)

구분	제공 횟수				먹는 횟수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2.11	.42	(800)		1.96	.48	(800)	
모 취업여부								
취업	2.23	.43	(382)	0.43	3.04	.41	(382)	0.28
미취업	2.22	.43	(5)		3.04	.44	(5)	
지역규모								
대도시	2.16	.41	(335)	2.53*	2.00	.41	(335)	5.75***
중소도시	2.15	.40	(288)		2.06	.45	(288)	
읍면지역	2.07	.43	(177)		1.86	.50	(177)	

* $p < .05$, *** $p < .001$.

〈표 IV-5-33〉 간식 가져오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가져옴	가져오지 않음	계(수)
가져오는지 여부	0.5	99.5	100.0(800)

3) 아동의 기관이용 생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아동이 선호하는 놀이영역에 대해 순위별로 2가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놀이영역은 쌓기 영역 45.5%와 역할놀이영역 33.7%가 약 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언어영역, 조작영역, 미술/조형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놀이영역으로는 역할놀이영역 28.2%, 조작영역 22.2%, 쌓기 영역 20.5%, 미술/조형영역과 언어영역 11.9%, 11.8% 순이었다. 선호 놀이영역은 1, 2순위 모두 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순위에서 남이는 쌓기 영역을 74.4%가 선호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역할놀이영역을 62.0%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선호 놀이영역은 남아가 조작영역과 역할놀이영역, 여아가 쌓기 영역, 역할놀이영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 남이는 신체활동이 있는 대근육 활동을, 여아는 타인과 정서를 교류하는 활동을 선호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IV-5-34〉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1순위

단위: %(명)											
구분	언어 영역	미술/ 조형 영역	쌓기 영역	수학 영역	조작 영역	역할 놀이 영역	음률 영역	컴퓨터 영역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3	5.7	45.5	0.6	6.7	33.7	0.5	0.1	0.8	100.0(775)	
아동 성별											
남	5.4	2.1	74.4	0.8	9.2	5.9	0.5	0.3	1.5	100.0(391)	359.21(8) ^{***}
여	7.3	9.4	16.0	0.5	4.2	62.0	0.5	0.0	0.0	100.0(384)	
모 취업여부											
취업	6.9	5.8	45.6	0.5	5.8	34.5	0.3	0.3	0.3	100.0(378)	6.07(8)
미취업	5.8	5.3	45.4	0.8	7.6	33	0.8	0.0	1.3	100.0(396)	
지역규모											
대도시	4.9	5.2	45.7	1.2	7.7	33.7	0.9	0.0	0.6	100.0(326)	11.49(16)
중소도시	8.1	6.2	45.4	0.0	5.9	32.6	0.4	0.4	1.1	100.0(276)	
읍면지역	6.4	5.8	45.1	0.6	6.4	35.3	0.0	0.0	0.6	100.0(173)	

*** $p < .001$.

〈표 IV-5-35〉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선호하는 놀이 영역: 2순위

단위: %(명)

구분	언어 영역	미술/ 조형 영역	쌓기 영역	수학 영역	조작 영역	역할 놀이 영역	음률 영역	컴퓨터 영역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1.8	11.9	20.5	1.8	22.2	28.2	3.2	0.4	0.0	100.0(775)	
아동 성별											
남	8.5	6.4	15.4	3.3	33.8	30.0	1.8	0.8	0.0	100.0(391)	104.99(7) ^{***}
여	15.2	17.5	25.7	0.3	10.2	26.4	4.7	0.0	0.0	100.0(384)	
모 취업여부											
취업	13.3	13.5	21.2	0.8	21.2	27.6	2.1	0.3	0.0	100.0(378)	11.17(7)
미취업	10.2	10.4	19.8	2.8	23.1	28.9	4.3	0.5	0.0	100.0(396)	
지역규모											
대도시	10.4	14.4	19.6	2.5	21.2	29.1	2.5	0.3	0.0	100.0(326)	8.97(14)
중소도시	12.8	10.6	20.5	1.8	22.3	28.2	3.3	0.4	0.0	100.0(276)	
읍면지역	12.7	9.2	22.0	0.6	23.7	26.6	4.6	0.6	0.0	100.0(173)	

*** $p < .001$.

아동이 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5점 척도로 3가지 하위요인에 포함된 3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표 IV-5-36〉 또래 상호작용: 교사 평정

단위: 점, (명)

구분	놀이방해			놀이 상호작용			놀이단절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F
전체	2.23(.43)	800		3.04(.42)	800		1.61(.48)	800	
아동 성별									
남	2.29(.42)	405	3.97 ^{***}	2.95(.45)	405	2.02	1.65(.50)	405	2.63 ^{**}
여	2.17(.44)	395		3.13(.38)	395		1.56(.46)	395	
모 취업여부									
취업	2.23(.43)	387	0.43	3.04(.41)	387	2.67	1.62(.48)	387	0.53
미취업	2.22(.43)	411		3.04(.44)	411		1.60(.48)	411	
지역 규모									
대도시	2.21(.17)	335	2.02	3.01(.43)	335	0.75	1.60(.47)	335	0.75
중소도시	2.21(.44)	288		3.09(.40)	288		1.59(.48)	288	
읍면지역	2.29(.46)	177		3.03(.45)	177		1.64(.49)	177	

** $p < .01$, *** $p < .001$.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은 어머니에게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평정한 경우는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패널의 결과이고, 교사가 평정한 경우는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아동 중 어머니가 동의하여 교사가 응답한 경우에 제한되므로, 두 결과의 비교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교사가 평정한 또래상호작용에서 놀이방해 평균 점수는 2.23점, 놀이상호작용은 평균 3.04점, 놀이단절은 평균 1.61점이었다. 또래상호작용 3개의 하위요인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에 관한 부정적 행동을 더 하였다. 어머니 평정에서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놀이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달리 교사 평정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부모 특성 <표 IV-4-12> 참고).

마. 부모참여 특성

1) 부모참여 내용

교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교육의 유형으로는 '정기적 면담과 상담'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와 교사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전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17.6%,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이 6.3%, '인쇄매체' 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37> 가장 중요한 부모교육 유형

단위:%(명)

구분	정기적 면담과 상담	인쇄 매체	입학 전 오리엔 테이션	전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연 또는 워크숍	기타	계(수)	$\chi^2(df)$
전체	65.8	5.1	6.3	17.6	4.3	1.0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64.6	6.5	6.5	18.1	4.4	0.0	100.0(387)	10.37(5)
미취업	66.7	3.9	6.1	17.3	4.1	1.9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68.4	4.2	6.6	15.8	4.2	0.9	100.0(335)	8.15(10)
중소도시	64.2	7.3	4.9	18.1	4.5	1.0	100.0(288)	
읍면지역	63.6	3.4	7.9	20.3	4.0	1.1	100.0(177)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1, 2순위 모두 '아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내용

및 교육방법', '부모역할 및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 순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과반수이상 응답하였고, 그 외에 '아이의 건강, 영양, 안전관리', '아이의 문제행동'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표 IV-5-38〉 부모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 1, 2순위

단위: %(명)

구분	아이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내용 및 교육방법	부모역할 및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	아이 건강, 영양, 안전 관리	부모의 취미생활 및 정신, 신체 건강정보	아이의 문제 행동	기관 운영에 대한 내용	기타	계(수)
1순위	51.5	18.8	15.9	0.3	9.8	3.8	0.1	100.0(800)
2순위	28.4	26.0	18.9	1.4	21.6	3.8	0.0	100.0(800)

교사가 속한 기관의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종류는 아동관련 행사참여(소풍, 운동회 등)가 43.9%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자녀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상담, 공개 수업 등)이 29.9%, 가정통신문 활용을 통한 참여가 21.3%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부모교육 프로그램, 기관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순이었다.

〈표 IV-5-39〉 기관 부모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아동 관련 행사 참여	자녀 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	부모 교육 프로그램	기관 자원 봉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가정 통신문 활용	재정적 기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43.9	29.9	2.9	0.0	1.3	21.3	0.3	0.6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46.0	25.1	3.1	0.0	0.8	24.3	0.3	0.5	100.0(387)	11.47(6)
미취업	42.1	34.3	2.7	0.0	1.7	18.2	0.2	0.7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42.4	34.9	3.3	0.0	0.6	18.5	0.3	0.0	100.0(335)	25.96(12)*
중소도시	39.9	28.5	3.8	0.0	1.4	24.7	0.3	1.4	100.0(288)	
읍면지역	53.1	22.6	0.6	0.0	2.3	20.9	0.0	0.6	100.0(177)	

* $p < .05$.

2) 부모의 기관 참여형태

아동의 부모가 주로 참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자

녀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 38.4%, 아동관련 행사참여 33.5%로 나타나 교사와 자녀에 대한 상담이나 자녀가 기관에서 활동하는 모습 등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재정적 기여, 기관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5-40〉 아동의 부모가 주로 참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참여하지 않음	아동 관련 행사 참여	자녀 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	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원 봉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가정통신문 활용	재정적 기여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0	33.5	38.4	2.9	0.3	1.1	18.3	1.0	2.6	100.0(800)	
모 취업여부											
취업	3.4	34.6	33.9	2.8	0.3	1.3	20.2	1.0	2.6	100.0(387)	12.90(8)
미취업	0.7	32.6	42.6	2.9	0.2	1.0	16.3	1.0	2.7	100.0(411)	
지역규모											
대도시	1.8	30.4	40.9	4.2	0.6	1.8	16.4	0.6	3.3	100.0(335)	20.68(16)
중소도시	1.7	32.6	37.5	2.8	0.0	0.7	21.2	1.0	2.4	100.0(288)	
읍면지역	2.8	40.7	35.0	0.6	0.0	0.6	16.9	1.7	1.7	100.0(177)	

기관에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횟수는 1년 평균 6.47회이며, 아동의 부모가 실제 참여한 횟수는 평균 4.92회로 조사되었다. 기관에서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 횟수에 대한 지역 규모의 차이검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 부모참여 횟수에서는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IV-5-41〉 기관 부모참여 프로그램 실시 횟수 및 아동의 부모참여 횟수

단위: 회,(명)

구분	실시 횟수				부모참여 횟수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6.47	9.06	(800)		4.92	8.18	(800)	
모 취업여부								
취업	6.48	10.02	(387)	0.05	4.66	8.73	(387)	-0.82
미취업	6.45	8.09	(411)		5.14	7.64	(411)	
지역 규모								
대도시	7.46	10.47	(335)	3.56*	5.55	9.47	(335)	1.74
중소도시	5.63	7.83	(288)		4.43	7.21	(288)	
읍면지역	5.96	7.81	(177)		4.51	6.89	(177)	

* $p < .05$.

부모와 담당 교사의 의사소통을 5점 척도의 4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평균 4.43점으로 대부분의 교사가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42〉 부모와 담당 교사의 의사소통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전체	4.43	.53	(800)	
모 취업여부				
취업	4.40	.53	(387)	-1.56
미취업	4.46	.53	(411)	
지역규모				
대도시	4.45	.50	(335)	0.50
중소도시	4.41	.55	(288)	
읍면지역	4.44	.56	(177)	

6. 육아지원정책 특성

가. 정책의 방향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인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및 확대와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 가운데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55.8%가 '두 가지 모두'라고 답했으며,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24.9%,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및 확대 19.3% 순이었다.

〈표 IV-6-1〉 바람직한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 및 확대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두 가지 모두	계(수)	$\chi^2(df)$
전체	19.3	24.9	55.8	100.0(1,697)	
아동 출생순위					
첫째	18.6	25.2	56.2	100.0(786)	0.56(4)
둘째	20.0	24.5	55.5	100.0(719)	
셋째 이상	19.8	25.0	55.2	100.0(192)	

(표 IV-6-1 계속)

구분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 및 확대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두 가지 모두	계(수)	$\chi^2(df)$
모 취업여부					
취업	21.5	22.8	55.7	100.0(670)	4.34(2)
미취업	18.0	26.2	55.8	100.0(1,016)	
모 학력					
고졸이하	13.7	27.5	58.8	100.0(512)	16.52(4)**
전문대졸	20.7	23.0	56.3	100.0(439)	
대졸이상	22.5	24.2	53.3	100.0(739)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18.6	22.8	58.5	100.0(569)	7.89(6)
301~400만원	17.5	26.1	56.4	100.0(406)	
401~530만원	18.9	23.9	57.1	100.0(301)	
531만원 이상	22.3	27.1	50.6	100.0(421)	
지역규모					
대도시	19.4	26.2	54.4	100.0(669)	5.38(4)
중소도시	21.1	23.9	55.0	100.0(664)	
읍면지역	15.9	24.2	59.9	100.0(364)	

** $p < .01$.

나.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1)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성

직장에서 실시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게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여성의 출산휴가와 휴직에 대한 아버지의 평균은 4.73점과 4.67점, 어머니의 평균은 4.84점과 4.80점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에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 집단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표 IV-6-2 참조).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아버지의 평균은 4.11점과 3.84점, 어머니의 평균은 4.45점과 4.20점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남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남성의 출산휴가에서만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일 경우에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아버지 집단의 경우에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6-3 참조).

나) 보육지원

직장에서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버지 평균 4.38점, 어머니 평균 4.53점이었고,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은 아버지 평균 4.71점, 어머니 평균 4.82점이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미취업을 한 어머니가 보육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6-4 참조).

다) 모성보호

수유실 설치와 유급 수유시간 제공의 필요성 평균 점수는 아버지의 경우 4.27점과 4.16점, 어머니의 경우 4.48점과 4.32점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수유실 설치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IV-6-5 참조).

라)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

유연성 있는 노동환경의 제공을 위한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운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각각에 대한 아버지의 평균 점수는 4.05점, 4.07점, 4.15점이었고, 어머니의 평균 점수는 4.33점, 4.29점, 4.42점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했을 때 시차출근제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나 둘째일 때 시차출근제와 대체인력풀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표 IV-6-6, 표 IV-6-7 참조).

〈표 IV-6-2〉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필요성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여성의 출산휴가				여성의 육아휴직				여성의 출산휴가				여성의 육아휴직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73	0.65	1,609		4.67	0.65	1,609		4.84	.53	1,695		4.80	.56	1,696	
아동 출생순위																
첫째	4.76	.62	752	1.48	4.70	.65	752	1.82	4.87	.47	787	3.16*	4.83	.50	787	4.11*
둘째	4.70	.66	677		4.63	.73	677		4.82	.55	717		4.79	.57	718	
셋째 이상	4.70	.69	180		4.67	.73	180		4.77	.67	191		4.71	.70	191	
모 취업여부																
취업	4.72	.64	639	-0.20	4.66	.70	639	-0.54	4.82	.61	678	-1.11	4.76	.65	678	-2.46*
미취업	4.73	.64	959		4.68	.68	959		4.85	.47	1,006		4.83	.48	1,007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70	.65	532	0.66	4.66	.68	531	0.48	4.84	.48	570	0.48	4.82	.50	570	0.98
301~400만원	4.72	.67	384		4.66	.72	384		4.82	.58	405		4.78	.61	405	
401~530만원	4.77	.60	292		4.71	.64	292		4.82	.64	301		4.76	.67	301	
531만원 이상	4.74	.64	401		4.67	.72	402		4.86	.47	419		4.82	.48	420	

* $p < .05$.

〈표 IV-6-3〉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필요성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남성의 출산휴가				남성의 육아휴직				남성의 출산휴가				남성의 육아휴직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11	.94	1,608		3.81	1.01	1,609		4.45	.79	1,696		4.20	.91	1,696	
아동 출생순위																
첫째	4.23	.92	753	10.51***	3.93	.99	752	10.40***	4.50	.74	788	5.10**	4.23	.90	787	1.50
둘째	4.01	.94	675		3.71	1.00	677		4.43	.81	717		4.20	.91	718	
셋째 이상	4.03	.99	180		3.67	1.07	180		4.31	.90	191		4.10	.99	191	
모 취업여부																
취업	4.09	.94	639	-0.75	3.76	1.01	640	-1.25	4.39	.86	678	-2.79**	4.09	.98	677	-3.97***
미취업	4.13	.94	958		3.83	1.02	958		4.50	.74	1,007		4.28	.86	1,00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12	.93	534	0.23	3.85	.97	533	0.56	4.49	.75	569	0.81	4.23	.90	470	0.57
301~400만원	4.14	.94	382		3.79	1.02	382		4.44	.80	406		4.19	.91	406	
401~530만원	4.10	.91	292		3.76	.99	293		4.42	.86	301		4.22	.95	300	
531만원 이상	4.09	.99	400		3.79	1.07	401		4.43	.78	420		4.16	.91	420	

** $p < .01$, *** $p < .001$.

〈표 IV-6-4〉 직장 어린이집 및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직장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38	.86	1,606		4.71	0.68	1,613		4.53	.76	1,694		4.82	.56	1,696	
아동 출생순위																
첫째	4.42	.84	752	1.73	4.72	.69	754	0.39	4.55	.74	787	1.07	4.84	.51	786	1.46
둘째	4.37	.87	674		4.69	.67	679		4.53	.77	716		4.80	.58	719	
셋째 이상	4.29	.92	180		4.73	.66	180		4.47	.81	191		4.80	.70	191	
모 취업여부																
취업	4.41	.88	639	1.05	4.69	.68	641	-1.02	4.49	.87	677	-1.75	4.78	.67	677	-2.40*
미취업	4.37	.84	956		4.73	.67	961		4.56	.68	1,006		4.85	.48	1,008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5	.87	532	1.49	4.73	.65	534	1.25	4.52	.74	570	0.82	4.85	.49	571	1.66
301~400만원	4.34	.89	382		4.74	.67	384		4.53	.77	404		4.83	.59	404	
401~530만원	4.44	.78	292		4.71	.66	294		4.50	.81	301		4.80	.64	301	
531만원 이상	4.44	.88	400		4.66	.72	401		4.58	.75	419		4.77	.56	420	

* $p < .05$.

〈표 IV-6-5〉 수유실 설치 및 유급 수유시간의 필요성

단위: 점, 명

구분	부								모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수유실 설치				유급 수유시간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27	0.91	1,604		4.16	0.93	1,599		4.48	0.76	1,693		4.32	0.84	1,691	
아동 출생순위																
첫째	4.30	.90	751	0.98	4.18	.90	747	0.42	4.50	.73	787	0.64	4.33	.83	787	0.12
둘째	4.23	.93	673		4.14	.96	672		4.46	.78	715		4.33	.86	714	
셋째 이상	4.30	.92	180		4.14	.94	180		4.44	.82	191		4.29	.72	190	
모 취업여부																
취업	4.27	.92	639	-0.03	4.19	.94	637	1.03	4.37	.85	677	-4.50***	4.27	.89	676	-1.94
미취업	4.27	.91	954		4.14	.92	951		4.55	.69	1,005		4.36	.80	1,004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22	.93	530	0.76	4.12	.94	529	0.76	4.54	.71	569	2.00	4.35	.80	569	0.51
301~400만원	4.26	.94	382		4.18	.93	380		4.46	.80	404		4.31	.89	403	
401~530만원	4.31	.88	292		4.14	.94	292		4.43	.79	301		4.28	.87	301	
531만원 이상	4.31	.90	400		4.21	.91	398		4.44	.77	419		4.34	.82	418	

*** $p < .001$.

〈표 IV-6-6〉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필요성: 아버지

단위: 점, 명

구분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평균	표준편차	(수)	t/F
전체	4.05	0.94	1,604		4.07	0.91	1,606		4.15	0.91	1,604	
아동 출생순위												
첫째	4.09	.92	750	1.37	4.10	.88	751	1.41	4.19	.91	750	1.32
둘째	4.03	.97	674		4.05	.93	675		4.12	.90	674	
셋째 이상	3.98	.89	180		3.98	.90	180		4.08	.92	180	
모 취업여부												
취업	4.11	.96	641	2.01*	4.10	.93	641	1.17	4.20	.89	640	1.85
미취업	4.01	.93	952		4.04	.89	954		4.11	.91	953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02	.90	530	0.48	4.03	.89	531	0.64	4.15	.88	531	0.44
301~400만원	4.05	.94	380		4.06	.92	380		4.12	.94	380	
401~530만원	4.07	.98	293		4.12	.88	293		4.20	.89	292	
531만원 이상	4.08	.97	401		4.08	.93	402		4.14	.92	401	

* $p < .05$.

〈표 IV-6-7〉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필요성: 어머니

단위: 점, 명

	시차출근제				대체인력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평균	표준편차	(수)	<i>t/F</i>
전체	4.33	.82	1,690		4.29	.82	1,692		4.42	.80	1,693	
아동 출생순위												
첫째	4.35	.80	785	3.04*	4.29	.81	786	3.39*	4.45	.77	786	1.93
둘째	4.34	.83	714		4.32	.81	716		4.42	.82	716	
셋째 이상	4.19	.86	191		4.15	.87	190		4.32	.81	191	
모 취업여부												
취업	4.31	.89	676	-0.81	4.28	.89	675	-0.27	4.42	.83	675	-0.11
미취업	4.34	.77	1,003		4.29	.76	1,006		4.42	.77	1,00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4.36	.79	567	0.46	4.27	.79	569	1.00	4.46	.76	569	1.29
301~400만원	4.31	.88	404		4.25	.87	403		4.36	.86	405	
401~530만원	4.30	.86	300		4.29	.82	300		4.44	.79	300	
531만원 이상	4.32	.79	419		4.34	.80	420		4.41	.79	419	

* $p < .05$.

2)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각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우선순위를 세 가지만 순서대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어머니가 1순위로 선택한 항목은 여성의 출산휴가로 48.3%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1순위로 38.8%가 남성의 출산휴가를 선택하였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육아 지원 제도 중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38.0%가 응답하였고, 아버지의 경우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33.3%가 선택하였다. 육아지원 제도 중 세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일 많이 선택한 항목이 동일하게 보육비 지원이었으며, 어머니는 27.4%, 아버지는 26.2%가 응답하였다.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의 1순위부터 3순위에 대한 선택을 상·중·하로 가정하여, 3~1점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는 여성의 출산휴가, 여성의 육아휴직 및 보육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27.6%와 23.8%, 21.1%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경우는 보육비 지원, 남성의 출산휴가 및 남성의 육아휴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25.8%, 25.1%, 18.1%로 나타났다.

〈표 IV-6-8〉 부모가 생각하는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구분	단위: %(명)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여성의 출산휴가	8.0	48.3	4.6	8.3	8.3	4.8	6.9	27.6
여성의 육아휴직	4.5	18.6	5.8	38.0	5.9	10.9	5.2	23.8
남성의 출산휴가	38.8	1.5	13.5	5.8	7.2	5.3	25.1	3.6
남성의 육아휴직	9.0	1.1	33.3	5.3	15.4	6.9	18.1	3.5
직장 어린이집	5.9	6.1	14.9	12.7	11.7	14.4	9.9	9.7
보육비 지원	30.2	20.3	19.0	19.2	26.2	27.4	25.8	21.1
수유실 설치	0.1	0.1	0.6	0.5	0.9	1.4	0.4	0.5
유급수유시간	0.1	0.1	0.4	0.5	0.8	0.9	0.3	0.4
시차 출근제	1.4	1.5	3.7	4.7	7.6	9.0	3.2	3.8
대체인력풀 운영	0.6	0.2	1.5	1.3	4.1	3.3	1.5	1.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5	2.2	2.7	3.8	12.0	15.7	3.7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615)	(1,701)	(1,614)	(1,701)	(1,696)	(1,604)	-	-

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하는 어머니 전체에게 부모의 취업으로 부모 외의 사람이 자녀를 대리양육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 가장 많은 64.6%가 ‘아이가 부모가 돌보는 것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에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에 30.1%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6-9〉 대리양육 시 가장 중요한 점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계(수)	$\chi^2(df)$
전체	64.6	30.1	3.8	1.2	0.2	100.0(1,694)	
아동 성별							
남	64.2	31.5	3.2	0.8	0.3	100.0(868)	5.88(4)
여	65.1	28.7	4.5	1.6	0.1	100.0(826)	
아동 출생순위							
첫째	64.2	31.0	3.6	1.1	0.1	100.0(788)	2.69(8)
둘째	64.9	29.4	4.3	1.1	0.3	100.0(717)	
셋째 이상	65.6	29.1	3.2	1.6	0.5	100.0(189)	
모 취업여부							
취업	65.4	29.0	4.4	0.8	0.5	100.0(665)	5.27(4)
미취업	63.9	31.0	3.5	1.5	0.1	100.0(1,018)	
모 학력							
고졸이하	57.4	34.8	5.3	2.1	0.4	100.0(512)	35.72(8)***
전문대졸	63.6	29.5	5.7	1.1	0.0	100.0(440)	
대졸이상	69.9	27.5	1.8	0.5	0.3	100.0(735)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63.9	29.8	4.6	1.4	0.4	100.0(570)	7.07(12)
301~400만원	65.2	30.9	3.2	0.7	0.0	100.0(405)	
401~530만원	62.4	32.2	4.0	1.3	0.0	100.0(298)	
531만원 이상	66.7	28.3	3.3	1.2	0.5	100.0(421)	
지역규모							
대도시	61.2	33.9	3.4	1.2	0.3	100.0(670)	9.69(8)
중소도시	68.3	26.6	3.9	1.1	0.2	100.0(662)	
읍면지역	64.4	29.6	4.4	1.4	0.3	100.0(362)	

주: ① 부모가 돌보는 것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②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③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④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⑤ 잘 모르겠음.

*** $p < .001$.

다. 직장의 육아지원정책

1) 직장 육아지원제도 시행 및 이용 여부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및 이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직장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여성의 출산 휴가로 조사 대상자의 71.6%가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육아휴직이 58.2%, 남성의 출산휴가 39.6%, 남성의 육아휴직 30.9%, 대체인력풀 운영이 23.6%이었다.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보육비 지원을 이용한 취업모가 50.4%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출산휴가 48.6%, 대체인력풀 운영 40.2%, 여성의 육아휴직 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10〉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및 이용 여부

단위: %(명)

구분	시행여부		계(수)	이용여부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여성의 출산휴가	71.6	26.6	100.0(560)	48.6	51.4	100.0(401)
여성의 육아휴직	58.2	37.5		34.4	65.6	100.0(326)
남성의 출산휴가	39.6	50.4		-	-	-
남성의 육아휴직	30.9	56.8		-	-	-
직장보육시설	14.8	82.1		26.5	73.5	100.0(83)
보육비 지원	21.3	75.2		50.4	49.6	100.0(119)
수유실 설치	12.7	83.6		11.3	88.7	100.0(71)
유급 수유시간	11.4	83.4		14.1	85.9	100.0(64)
시차출근제	16.6	80.2		23.7	76.3	100.0(93)
대체인력풀 운영	23.6	72.1		40.2	59.8	100.0(13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0	80.7		22.6	77.4	100.0(84)

주: 1) 응답자가 어머니이므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이용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음.

2)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시행 및 이용여부는 중복응답의 결과임.

4차년도 조사에서는 직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지원제도 중 여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 또는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이유의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0.7%로 가장 많았고, 아이가 둘 이상이어서라는 응답과 좋은 대리 양육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17.9%와 15.2%로 조사되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의 성격상 어려움이 3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부모 또는 친정 부모님의 자녀양육 능력이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1〉 육아휴직 이용 및 미이용 이유

단위: %(명)

구분	비율
육아휴직 이용 이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60.7
아이가 둘 이상이어서	17.9
직접 돌보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서	4.5
좋은 대리 양육자가 없어서	15.2
기타	1.8
계(수)	100.0(112)
육아휴직 미이용 이유	
일의 성격상 어려움	33.8
승진지연 가능	3.6
연봉삭감 가능	1.0
동료들의 압력	1.0
시부모 또는 친정 부모님의 자녀양육 가능	15.9
좋은 대리양육자가 있어서	4.6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어서	7.7
이미 육아휴직을 이용해서	12.3
기타	20.0
계(수)	100.0(195)

2) 직장 육아지원제도 이용만족도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인력풀을 운영하는 제도에 '매우 만족'이 15.1%, '대체로 만족'이 73.6%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육비 지원은 '대체로 불만족'이 18.3%, '보통'이 43.3%로 높게 나타나 직장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보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5점 척도상 평균은 모두 4점에 가까워 이용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6-12〉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이용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여성의 출산휴가	1.0	8.2	17.9	61.5	11.3	100.0(195)	3.74
여성의 육아휴직	0.0	6.3	17.9	61.6	14.3	100.0(112)	3.84
직장보육시설	0.0	9.1	4.5	81.8	4.5	100.0(22)	3.82

(표 IV-6-12 계속)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보육비 지원	0.0	18.3	43.3	35.0	3.3	100.0(60)	3.23
수유실 설치	0.0	12.5	0.0	75.0	12.5	100.0(8)	3.88
유급수유시간	0.0	0.0	11.1	88.9	0.0	100.0(9)	3.89
시차출근제	0.0	4.5	13.6	72.7	9.1	100.0(22)	3.86
대체인력풀 운영	0.0	0.0	11.3	73.6	15.1	100.0(53)	4.0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0.0	0.0	15.8	78.9	5.3	100.0(19)	3.89

3)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출산 및 양육 도움도

직장에서 이용한 육아지원제도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유급수유시간과 대체인력풀운영의 '매우 도움 됨'이 각 33.3%, 28.3%로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보육비 지원은 '대체로 도움 되지 않음'이 13.3%로 나타나 이용만족도가 낮음이 양육에도 도움 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보육비 지원과 시차출근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5점 척도상 평균 4점 이상으로 양육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6-13〉 직장 육아지원제도의 양육도움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여성의 출산휴가	0.5	3.1	11.8	65.1	19.5	100.0(195)	4.00
여성의 육아휴직	0.0	3.6	9.8	63.4	23.2	100.0(112)	4.06
직장보육시설	0.0	0.0	9.1	63.6	27.3	100.0(22)	4.18
보육비 지원	0.0	13.3	33.3	45.0	8.3	100.0(60)	3.48
수유실 설치	0.0	0.0	12.5	62.5	25.0	100.0(8)	4.13
유급수유시간	0.0	0.0	0.0	66.7	33.3	100.0(9)	4.33
시차출근제	0.0	4.5	13.6	63.6	18.2	100.0(22)	3.95
대체인력풀 운영	0.0	1.9	3.8	66.0	28.3	100.0(53)	4.2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0.0	0.0	10.5	63.2	26.3	100.0(19)	4.16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는 총 28가구였고, 그 중 양육수당을 받아본 경험은 57.1%, 농어민 가정 육아비는 7.15%, 기타 현금지원은 28.6%였으며, 각 지원의 만족도는 양육수당 평균 2.75점, 농어민 가정 육아비 4.50점, 기타 현금지원 3.13점이었다.

〈표 IV-6-14〉 정부지원 육아정책: 현금지원

단위: %(명), 천원, 점

구분	양육수당	농어민 가정육아비	기타 현금지원
수혜 여부			
수혜	57.1	7.1	28.6
비수혜	42.9	92.9	71.4
계	100.0(28)	100.0(28)	100.0(28)
현금지원액(총액)			
평균	720.67	795.00	449.29
표준편차	801.405	855.60	504.80
최소값	60	190	100
최대값	3000	1400	1415
만족도			
매우불만족	12.5	0.0	12.5
불만족	25.0	0.0	0.0
보통	43.8	0.0	50.0
만족	12.5	50.0	37.5
매우만족	6.3	50.0	0.0
계	100.0(1,754)	100.0(1,754)	100.0(1,754)
평균	2.75	4.50	3.13
표준편차	1.07	0.71	0.99

정부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 가구는 총 199가구였고, 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이 68.8%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순이었으며, 만족도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 평균 3.57 점, 영유아 건강검진이 3.31점이었다.

〈표 IV-6-15〉 정부지원 육아정책 - 서비스 지원

단위: %, 천원, 점

구분	아이 돌보미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도우미	가정 보육 교사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 검진	기타 현물 지원
수혜 여부								
수혜	1.0	0.0	0.0	3.5	0.5	7.4	68.8	10.6
비수혜	99.0	0.0	0.0	96.5	99.5	92.6	31.2	89.4
계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9)	(0)	(0)	(199)	(199)	(54)	(199)	(199)

(표 IV-6-12 계속)

구분	아이 돌보미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도우미	가정 보육 교사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장애 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영유아 건강 검진	기타 현물 지원
현금지원액(총액)								
평균	500	0.0	0.0	80.33	200	41.85	15	226.28
표준편차	-	0.0	0.0	92.83	-	35.32	-	120.13
최소값	500	0.0	0.0	11	200	6	15	120
최대값	500	0.0	0.0	200	200	100	15	600
만족도								
매우불만족	0.0	0.0	0.0	0.0	0.0	0.8	4.4	4.8
불만족	50.0	0.0	0.0	28.6	0.0	3.9	8.8	4.8
보통	0.0	0.0	0.0	0.0	0.0	46.5	49.6	42.9
만족	0.0	0.0	0.0	42.9	100.0	34.9	26.3	47.6
매우만족	50.0	0.0	0.0	28.6	0.0	14.0	10.9	-
계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	0.0	0.0	(7)	(1)	(1,754)	(137)	(21)
평균	3.50	0.0	0.0	3.71	4.0	3.57	3.31	3.33
표준편차	2.12	0.0	0.0	1.25	-	.81	.93	.79

V. 1~4차년도(2008~2011) 결과 간 비교

본 장에는 종단 비교 분석을 개별 장으로 실어, 아동의 연령이 0~4세인 1~4차년도까지 패널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각 년도의 자료는 종단과 횡단 가중치와 모수 가중치가 적용되어 산출된 결과치이므로 기초적인 빈도를 통한 비교만이 가능하며, 사례수 제시나 통계적 검정은 실시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1~4차년도 변인의 추가 및 삭제 사항은 이정림 외(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의 49~55쪽에 작성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의 III장(pp.45-52)에 가중치 산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은 이를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일반적 특성

가. 건강 특성

1) 아동 특성

가) 아동의 병력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치료 경험을 살펴보면, 1세와 2세에는 각각 16.4%, 18.6% 정도의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년간의 치료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3세에는 전체 아동의 11.2%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었다. 1세의 21.8%, 2세에는 15.1% 정도로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입원 경험 비율이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1〉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1세	2세	3세	구분	1세	2세	3세
사고/중독으로 인한 치료 여부				입원경험 여부			
있음	16.4	18.6	17.6	있음	21.8	15.1	11.2
없음	83.6	81.4	82.4	없음	78.2	84.9	88.8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아동이 경험한 사고/중독 건수를 1세~3세에 걸쳐 확인한 결과, 작게는 한 번, 크게는 12회의 사고와 중독 건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38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또한 3년에 걸쳐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표 V-1-2〉 사고/중독 건수

구분	단위: 회		
	1세	2세	3세
평균	1.41	1.40	1.34
표준편차	0.81	1.00	0.77
최소값	1	1	1
최대값	7	12	7

나) 모유수유

모유수유에 대한 4년간의 추이를 보면, 0세의 60.9%, 1세 24.2%, 2세 3.1%, 3세 0.6%의 변화를 나타내어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모유 수유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증가와 함께 유동식에서 일반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V-1-3〉 모유수유 여부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모유수유 중	60.9	24.2	3.1	0.6
모유수유 안함	39.1	75.8	96.9	99.4
계	100.0	100.0	100.0	100.0

2) 부모 특성

가) 부모의 음주 습관

음주 빈도는 어머니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음이 가장 많았으며, 월 2~4회 음주가 다음 순이었다. 아버지는 월 2~4회 음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 2~3회라고 응답한 경우와 월 1회 이하라고 응답한 아버지가 다음 순이었다. 부모의 음주 빈도 모두 아동이 만 3세인 해에 찾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1-4〉 부모의 음주 빈도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음	0.0	0.0	38.3	36.8	0.0	0.0	9.9	17.9
월 1회 이하	36.2	35.8	35.0	23.9	11.1	11.8	18.4	38.7
월 2~4회	53.1	54.7	21.9	5.4	52.0	50.5	37.6	27.9
주 2~3회	10.4	9.4	4.3	1.0	32.1	32.2	26.2	7.7
거의 매일	0.3	0.1	0.6	32.9	4.8	5.5	7.9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부모의 흡연 습관

부모의 흡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경우 1.1%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51.6%가 흡연자였으며, 비흡연자는 48.4%였다. 0세 조사 시에는 피움 53.5%, 1세 조사 시에는 피움 52.8%, 2세 조사 시 피움 51.9%, 3세 48.3%로 매해 아버지의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5〉 부모의 흡연 여부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피움	0.7	1.0	1.1	1.6	53.5	52.8	51.9	48.3
피우지 않음	9.3	99.0	98.9	98.4	46.5	47.2	48.1	51.7
임신 모유수유로 피우지 않음	1.9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어머니의 경우 "임신, 모유수유로 피우지 않음"은 3세 삭제함.

나. 부모 근로특성

어머니의 취업/학업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 중인 어머니는 33.0%, 학업 중인 어머니는 0.5%이며, 나머지 66.6%는 미취업/학업 상태이다. 취업 중인 어머니의 비율은 0세 29.2%, 1세 31.3%, 2세 32.9%, 3세 38.5%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버지는 전체의 98.1%가 취업중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직업이 있었고, 학업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0.3%,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표 V-1-6〉 부모의 취업/학업 상태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취업중	29.2	31.3	32.9	38.5	98.5	98.1	97.5	98.3
학업중	0.8	0.2	0.2	0.6	0.4	0.3	0.3	0.1
미취학/미취업	70.0	68.4	66.9	60.9	1.1	1.6	2.1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명

취업모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상용직 76.0%, 비정규직 중 임시직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및 상용직의 비율은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직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업여성이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점점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짐을 추측할 수 있다.

〈표 V-1-7〉 부모의 종사상 지위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정규직/상용직	86.0	80.8	70.0	67.1	81.9	83.6	72.4	74.4
비정규직 중 임시직	4.9	7.4	12.0	12.4	4.2	3.5	2.7	3.1
비정규직 중 일용직	1.4	2.4	1.6	1.2	2.2	2.7	2.8	3.3
고용주/자영업자	-	0.0	0.0	14.1	0.0	10.3	20.7	7.4
무급가족 종사자	-	7.3	12.7	5.2	0.0	0.0	1.1	10.9
기타	7.7	2.1	3.8	-	11.7	0.0	0.4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주: 3세에 기타를 삭제함.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나누지 않고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는 0세 3.68, 1세 3.63, 2세 3.69, 3세 3.61점으로 4년 동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V-1-8〉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구분	0세	1세	2세	3세
평균	3.68	3.63	3.69	3.61
표준편차	.63	.63	.59	.62

단위: 점

다. 가구 특성

1) 가구원 특성

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 구성원 수를 알아 본 결과, 대상 이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는 4년간 평균 2.92명으로 나타났다. 결과 패널 이동을 제외하고는 3명 정도의 가족구성원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V-1-9〉 아동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 수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평균(표준편차)	2.86(.93)	2.82(.92)	2.93(.90)	3.05(.86)

가구 구성으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구성이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부모와 부부,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이 8.1%, 조부모와 부부, 자녀와 친척으로 구성된 가구원 구성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0세에 비해 1세에 조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3세에 이르러 조부모와 사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다시 핵가족 형태가 91.3%가 되었다.

〈표 V-1-10〉 가구 구성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부부+자녀	86.7	88.2	86.2	91.3
조부모+부부+자녀	8.9	7.8	9.3	6.3
부부+자녀+친척	2.1	1.3	1.6	0.6
조부모+부부+자녀+친척	2.3	2.7	2.2	1.6
기타(무응답 가구)	0.0	0.0	0.6	0.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응답자가 친척일 경우, 부모를 구성원 수에 따라 추정할 수 없으므로 '기타'에 포함함.

2) 가계경제요소

경제적인 특성 중 4년간의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309.55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의 추이를 보면, 0세에서 3세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이며, 가구들 간의 편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1〉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318.16	337.36	360.07	508.96
표준편차	151.93	267.25	262.24	663.66
중위값	300	300	300	380
최소값	0	50	0	0
최대값	1,300	7,000	6,000	21,400

가구의 총 지출은 평균적으로 4년 동안 월 평균 256.02만원으로 추측된다. 가구 총 지출은 0세부터 2세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3세에 이르러서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1-12〉 월평균 가구 총지출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243.60	278.43	289.29	212.76
표준편차	122.55	287.54	243.88	106.92
중위값	220	235	250	200
최소값	6	44	40	50
최대값	1,200	4,200	3,600	1,600

소비성 지출 중 아동을 위해 소비하는 지출은 평균적으로 월 평균 61.41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자녀 지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점점 감소하다가 3세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이 태어났을 때 지출되는 초기 양육비용이 점차 줄어들다가 유아기에 이르면서 다른 형태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V-1-13〉 월평균 자녀관련 지출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61.12	50.31	48.75	85.46
표준편차	68.54	82.59	56.82	58.05
중위값	40	35	35	70
최소값	0	5	3	5
최대값	720	1805	2010	700

3) 가족생활사건

지난 4년간 가족이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을 겪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생활사건을 알아보았다. 규범적 사건은 지난 4년간 평균적으로 3.65건을 겪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비규범적 사건은 지난 1년간 평균 적으로 0.66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4〉 가족생활사건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규범적 사건				
평균	3.62	3.86	3.59	3.51
표준편차	2.34	.67	2.40	2.27
비규범적 사건				
평균	0.64	0.67	0.71	0.61
표준편차	.95	.99	1.01	.88

4) 사회적 지원

지원의 분류와 관계없이 전체 사회적 지원은 3.94점으로 나타났으며,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원 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사회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지원의 4년간의 네 가지 지원 점수 모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이 커감에 따라 사회적 지원을 덜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V-1-15〉 사회적 지원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전체				
평균	4.15	3.91	3.87	3.81
표준편차	.60	.73	.63	.64
정서적 지원				
평균	4.17	3.89	3.84	3.80
표준편차	.71	.86	.76	.75
도구적 지원				
평균	4.23	3.96	3.91	3.85
표준편차	.68	.79	.70	.72

(표 V-1-15 계속)

구분	0세	1세	2세	3세
여가적 지원				
평균	4.09	3.92	3.90	3.85
표준편차	.68	.79	.68	.69
정보적 지원				
평균	4.10	3.86	3.82	3.75
표준편차	.70	.85	.72	.73

5) 물리적 환경

주택소유형태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4년간의 평균을 볼 때,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가 44.5%, 전세 39.5%, 보증부 월세 7.2%, 무상 주택 6.7% 순으로 응답되어 83.9%가 자가나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전세가 감소하면서 자가 소유가 많아지고 있었다.

〈표 V-1-16〉 주택 소유형태

구분	0세	1세	2세	3세
자가	43.0	42.5	44.9	47.5
전세	42.2	40.8	38.5	36.3
전월세(보증부 월세)	8.4	8.1	6.3	5.9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0.2	0.5	0.2	0.4
무상	5.7	7.0	7.0	7.2
공공임대	0.0	0.0	1.7	1.5
기타	0.5	1.2	1.5	1.2
계	100.0	100.0	100.0	100.0

단위: %

거주 중인 주택의 유형은 4년 평균 아파트가 71.5%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 11.9%, 단독주택 13.6%, 다세대주택 5.7% 순으로 나타났다. 1세~3세에 걸쳐 아파트 거주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7〉 거주 중인 주택 유형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단독주택	9.1	7.4	8.3	9.6
아파트(상가아파트 포함)	67.6	71.0	73.6	73.9
연립주택(빌라 포함)	13.5	12.2	10.9	11.0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7.2	6.9	4.7	3.9
비주거용 건물 내의 주택	2.1	1.7	1.9	1.3
오피스텔	0.4	0.6	0.4	0.1
기타	0.0	0.0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6) 사회보장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의 0.8%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하였으며, 5.8%가 차상위계층이라고 답하였다. 0~3세를 비교해보았을 때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해당 없는 가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응답 비율은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8〉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	1.1	0.7	0.4
차상위계층	2.6	3.9	10.0	6.8
해당 없음	96.2	95.0	89.3	92.8
계	100.0	100.0	100.0	100.0

라. 지역사회 특성

1) 주거지역 유형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 4년에 걸쳐 일반아파트 지역이 가장 높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으며, 일반주택지역, 상가/회사지역 및 공장(단)지역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9〉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일반주택지역	32.1	25.9	25.2	23.7
일반아파트지역	59.5	66.4	68.9	71.2
상가/회사지역	4.2	3.0	2.0	1.9
공장(단)지역	1.0	1.0	0.7	0.5
농어가지역	2.6	3.3	2.9	2.5
기타	0.6	0.4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2) 지역사회 양육 적절성

거주지역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에 대한 평균값은 평균 3.21점으로 보통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4년간의 비율을 보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46.8%, 좋음이라는 의견이 32.7%, 그 다음은 좋지 않음이 14.6%였다.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느끼는 비율이 79.5%이므로 전반적 양육적절성이 좋은 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1-20〉 지역사회의 전반적 양육 적절성

구분	단위: %, 점			
	0세	1세	2세	3세
매우 좋지 않음	2.4	2.3	1.8	2.7
좋지 않음	16.6	15.0	14.7	12.0
보통임	42.4	47.1	47.7	50.1
좋음	33.9	31.8	32.3	32.7
매우 좋음	4.7	3.9	3.4	2.5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3.22	3.20	3.21	3.20
표준편차	0.86	0.82	0.80	0.78

2. 아동발달 특성

가. 신체발달

출생 시 3.27kg의 체중에서 1세에 체중의 평균값이 약 10kg으로 전형적인 발달 유형을 보여준다. 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체중은 출생 시의 3배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중은 그 후 해마다 2kg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1세에서 3세까지는 약 2kg정도의 체중증가를 보였다.

초기에 50.34cm이었던 신장이 1세에는 77.23cm로 생후 1년간 1.5배 증가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2007)에 따르면, 아동은 생후 초기 1년간은 약 1.5배의 증가를 보이고 그 후 6세까지는 7cm 정도씩 증가한다고 한다. 패널 아동들의 경우 1세에서 2세까지는 약 11cm, 3세에는 약 8cm가 증가했다. 아동의 체중과 신장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볼 때, 신체발달이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1〉 아동의 체중 및 신장

구분	단위: kg, cm			
	0세	1세	2세	3세
체중				
평균	3.27	10.12	12.55	14.77
표준편차	.41	1.12	1.41	1.71
최소값	1.20	6.00	9.00	10.0
최대값	4.90	15.00	17.00	21.0
신장				
평균	50.34	77.23	88.82	96.72
표준편차	2.62	4.12	3.84	3.76
최소값	29.4	60.00	75.00	85.0
최대값	60.0	100.00	102.00	111.0

나. 기질

아동 기질의 4년간 정서성은 평균 2.79점, 활동성은 평균 3.84점이었고, 2세와 3세에 측정된 사회성은 3.00점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이나 사회성의 평균점수에 비해 활동성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정서성과 활동성에서만 종단비교를 하면 0세와 1세에 동일하였던 기질의 정서성 평균 점수가 2세와 3세에 약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0세에 비해 1세와 2세에 약간 증가한 활동성 평균 점수는 3세에는 약간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성은 2세와 3세 사이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표 V-2-2〉 기질의 일반적 경향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정서성				
평균	2.72	2.72	2.84	2.87
표준편차	.61	.63	.61	.62
활동성				
평균	3.73	3.91	3.91	3.82
표준편차	.55	.57	.58	.60
사회성				
평균	-	-	3.01	3.00
표준편차	-	-	0.23	.23

다. 일과활동 특성

아동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2세에는 교육과 보육 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의 383.45분으로 조사되었고, 주양육자와 놀기 194.11분,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147.69분, 친구와 놀기 133.17분, 혼자 집에서 놀기 121.12분, 휴식 및 낮잠 자기 111.86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

구분	단위: 분			
	2세		3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혼자 집에서 놀기	121.12	102.77	69.04	53.76
친구와 놀기	133.17	120.24	69.61	45.64
주양육자와 놀기	194.11	135.60	134.97	113.18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83.90	81.64	50.91	42.53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383.45	146.88	442.52	94.78
학원, 복지관 등 기관에서의 교육	147.69	167.59	-	-
학습지 등 방문교육	35.55	29.88	19.93	12.42
TV, 비디오 시청	82.02	58.16	72.60	49.77
오락, 컴퓨터 게임 하기	52.84	37.65	34.27	25.17
성인과의 외출	90.23	55.74	73.43	51.20
책 읽기	49.32	34.89	-	-
휴식 및 낮잠 자기	111.86	43.24	95.51	51.27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67.59	94.70	34.26	50.54
기타	125.27	65.73	80.30	34.242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	-	116.04	75.22

주: 3세에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가 추가됨.

2세 때 친구와 놀기, 혼자 집에서 놀기, 휴식 및 낮잠 자기 등의 시간이 3세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신 교육과 보육 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시간과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의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3. 부모됨의 특성

가. 향후 출산계획

1) 후속 출산 의도

추가 출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8.9%, 58.8%는 없다, 잘 모르겠다는 11.9%였다. '출산계획이 있다'는 1, 2세에 증가하였지만 3세 다시 감소하였다. 반면에 '출산계획이 없다'는 0세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이는 '잘 모르겠다'에 응답한 어머니들이 후속 출산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V-3-1〉 후속 출산 의도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낳겠음	28.0	35.0	32.5	20.1
낳지 않겠음	49.7	52.9	59.9	72.6
잘 모르겠음	22.2	10.7	7.4	7.2
기타	0.2	0.1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2) 후속 출산 계획 자녀

가) 자녀 수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추가로 몇 명을 더 출산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7.9%가 1명이라고 응답했으며, 2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11.2%, 3명 또는 4명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전반적으로 후속출산을 계획한 어머니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1명을 더 낳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2명을 낳겠다는 어머니들의 비

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V-3-2〉 후속 출산 계획 자녀수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1명	85.3	85.6	89.2	91.5
2명	13.7	14.2	9.6	7.1
3명	0.9	0.2	0.7	7.1
4명이상	0.1	0.0	0.5	0.4
계	100.0	100.0	100.0	100.0

나) 이상 자녀수

이상 자녀수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557.0%가 아들·딸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41.0%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이상 자녀수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에 일관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딸·아들 구분 없이'에 대한 응답률은 증가하고 '딸·아들 구분해서'에 대한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3-3〉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어머니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딸·아들 구분 없이	54.2	56.6	58.8	58.2
딸·아들 구분해서	44.3	41.6	40.0	38.0
잘 모르겠음	1.4	1.6	1.0	1.4
구분 없이 동성으로	0.0	0.2	0.1	2.5
계	100.0	100.0	100.0	100.0

한편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이상 자녀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적으로 60.1%가 아들·딸 구분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8.4%가 성별을 구분하여 이상 자녀수를 응답하였다. 아버지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아이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아들 딸 구분 없이 이상 자녀수를 생각하지만, 3세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V-3-4〉 성별구분에 따른 이상 자녀수: 아버지

구분	단위: 명(%)		
	1세	2세	3세
딸·아들 구분 없이	58.7	61.4	60.3
딸·아들 구분해서	39.2	37.7	38.3
잘 모르겠음	2.0	0.9	0.4
구분 없이 동성으로	0.1	0.0	0.9
계	100.0	100.0	100.0

다) 후속 출산 계획 시기

후속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낳을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들의 37.0%가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에 출산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1~2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9%로 그 뒤를 이었다. 즉, 61.9%가 2년 이내에 다음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이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1년 이내로 낳겠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1년 이후에 낳겠다는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V-3-5〉 후속 출산 계획 시기

구분	단위: %		
	1세	2세	3세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23.9	41.1	46.0
1~2년 이내	39.8	36.0	23.7
2~3년 이내	14.5	7.7	6.5
3년 이후	9.1	4.9	2.9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12.6	10.2	20.9
낳았음	0.1	0.0	0.0
기타	0.0	0.1	0.0
계	100.0	100.0	100.0

라)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1세부터 3세까지의 후속 출산 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어머니 본인이 64.8%로 가장 많았고, 남편이 20.2%로 그 뒤를 이었다. 친정과 시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은 응답자의 비율은 매우 작았고, 부부라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이런 응답 경향은 다음 자녀의 출산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비율은 작아지지만 어머니 본인 스스로의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V-3-6〉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단위: %

구분	1세	2세	3세
본인	70.8	70.6	53.1
남편	21.4	22.3	17.0
친정부모님	1.3	1.6	0.7
시부모님	2.3	1.3	1.2
본인의 형제자매	1.0	0.9	0.5
남편의 형제자매	0.3	0.4	0.1
본인의 친인척	0.2	0.1	0.0
남편의 친인척	0.1	0.1	0.1
친구, 동료 및 이웃	0.9	0.6	0.6
다른 자녀	0.3	2.0	3.8
부부	1.0	0.0	22.7
양가 부모님	0.3	0.0	0.0
기타	0.1	0.2	0.2
없다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나. 부모의 개인 내적 특성

1)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은 4년간의 평균점수는 2.64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머니의 부정적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세에 이르러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점수는 3.03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가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서 어머니들 간의 개인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3-7〉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단위: 점

구분	0세	1세	2세	3세
자기효능감				
평균(표준편차)	2.22(.69)	2.31(.69)	3.68(.72)	2.36(.72)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2.52(.21)	2.53(.21)	3.48(.41)	3.62(.59)

2) 우울

4년간의 어머니 우울의 평균점수는 1.81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의 우울 점수는 완만하게 낮았지만, 아이가 3세에 이르러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 정도를 정상, 경도/중등도와 중도로 나누어보면, 70.7%는 정상군에 속하는 반면, 나머지 22.5%는 경도/중등도 우울, 6.8%는 중도 우울 집단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종단비교를 하자면, 어머니의 우울의 정도는 0세~2세에 걸쳐 비슷한 정도를 보이며 70%이상이 정상군에 있으며 3세에 이르러 정상군의 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경도/중등도의 경우도 4년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도 우울은 3세에 이르러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V-3-8〉 어머니의 우울 정도

구분	단위: 점, %			
	0세	1세	2세	3세
우울정도				
평균(표준편차)	1.94(.71)	1.92(.69)	1.96(.70)	1.40(.64)
우울 임상집단				
정상	71.5	72.5	70.2	68.5
경도/중등도	22.0	22.1	23.2	22.8
중도	6.5	5.4	6.6	8.7
계	100.0	100.0	100.0	100.0

다. 부부관계 특성

1) 결혼만족도

4년간의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3.81점,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점수는 4.20점으로 모두 중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보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 모두 개인차는 적지만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3-9〉 부부의 결혼만족도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평균	3.81	3.86	3.85	3.72	4.28	4.28	4.21	4.04
표준편차	.76	.79	.77	.73	.68	.71	.70	.65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의 평균 점수를 보면 어머니는 2.05점, 아버지의 점수는 2.02점으로 갈등이 별로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부부갈등을 약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부부갈등의 점수가 부부 모두에게서 증가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경우 개인차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V-3-10〉 부부 갈등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평균	1.99	2.03	2.09	2.10	1.88	2.01	2.08	2.09
표준편차	.78	.77	.77	.77	.69	.71	.74	.75

라. 양육 특성

1) 부의 자녀양육 참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를 어머니의 보고로 조사한 결과, 평균 3.64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4년간의 추이를 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평균 3.73점으로 증가하여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버지가 양육에 보다 협조하다가 3세에는 덜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11〉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단위: 점

구분	0세	1세	2세	3세
평균	3.60	3.64	3.73	3.60
표준편차	.80	.88	.83	.80

어머니가 응답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시간의 경우, 아버지들이 주중에는 평균 4.12시간의 양육참여를 하며, 주말에는 평균 6.53시간을 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들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시간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2세 보다는 3세에 이르러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3-12〉 부모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어머니 응답)

단위: 시간

구분	어머니		아버지	
	2세	3세	2세	3세
주중				
평균	29.90	5.29	6.69	1.54
표준편차	20.80	3.15	6.52	1.55
최소값	0.02	0.00	0.00	0.0
최대값	120.00	24.00	80.0	20.0
주말				
평균	15.34	9.17	8.18	4.88
표준편차	7.71	3.63	5.82	3.13
최소값	0.02	1.00	0.02	0
최대값	48.00	24.00	48.0	24

2) 자녀가치

4년 동안의 부모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자녀의 가치가 0세~2세까지는 증가하다가 3세에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적 가치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도구적 가치는 정서적 가치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아버지에 비해 도구적 가치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표 V-3-13〉 부모의 자녀가치

단위: 점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전체								
평균	3.60	3.53	3.50	2.86	3.79	3.82	3.82	3.21
표준편차	.57	.58	.58	.78	.58	.57	.57	.80

(표 V-3-13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정서적								
평균	4.46	4.32	4.29	4.33	4.50	4.48	4.46	4.49
표준편차	.54	.58	.58	.58	.53	.52	0.56	.53
도구적								
평균	2.96	2.93	2.91	2.86	3.26	3.33	3.33	3.21
표준편차	.78	.77	.76	.78	.80	.79	.78	.80

3) 자녀기대

부모가 자녀의 장래에 대해 갖는 기대를 알아 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한다는 항목에 높은 평균 점수(어머니 2.45 점, 아버지 2.38점)를 나타내어 부모 모두 자녀의 장래에서 행복한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년간의 추이를 살펴 보면 일반적으로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모든 기대의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특히 3세에 이르러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3-14〉 부모의 자녀기대

구분	어머니				아버지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금전									
평균	1.83	1.78	1.79	3.24	1.89	1.84	1.86	3.17	
표준편차	.61	.58	.58	.59	.66	.65	.64	.66	
명성									
평균	2.23	2.20	2.22	2.85	2.14	2.11	2.14	2.90	
표준편차	.77	.75	.75	.76	.75	.77	.75	.74	
사회적 지위									
평균	2.17	2.17	2.18	2.85	2.14	2.12	2.17	2.90	
표준편차	.76	.74	.74	.76	.76	.78	.77	.76	
이타심									
평균	1.78	1.79	1.80	3.29	1.75	1.71	1.76	3.30	
표준편차	.63	.62	.61	.61	.63	.64	.65	.64	
행복한 가정									
평균	1.10	1.12	1.13	3.87	1.14	1.15	1.17	3.83	
표준편차	.33	.35	.36	.36	.37	.39	.43	.41	

(표 V-3-14 계속)

구분	어머니				아버지			
	0세	1세	2세	3세	0세	1세	2세	3세
취미나 여가								
평균	2.38	2.34	2.30	2.78	2.21	2.21	2.22	2.86
표준편차	.68	.67	.69	.70	.69	.73	.73	.73

4) 양육실제 및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실제 평균점수는 3.89점으로 아이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긍정적 양육 점수도 낮아지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4년간 평균값은 2.76점으로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의 종단비교를 하면, 아이의 연령 증가에 따라 스트레스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높지 않으며, 개인차도 조금씩 높아지나 크지 않아 보인다.

〈표 V-3-15〉 양육실제 및 양육스트레스

구분	단위: 점			
	0세	1세	2세	3세
양육실제				
평균(표준편차)	4.05(.50)	3.89(.49)	3.80(.51)	3.80(.49)
양육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2.75(.62)	2.73(.64)	2.79(.63)	2.77(.69)

4.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0세에서는 84.4%가 부모였으나 1세에는 72.3%, 2세에는 48.1%, 3세에는 17.3%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부모 이외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반대로 점차 높아져 4차년도인 만3세의 경우는 82.7%가 부모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부모(주로 어머니)	84.4	72.3	48.1	17.3
부모 외의 육아지원서비스	15.6	27.7	51.9	82.7
계	100.0	100.0	100.0	100.0

부모가 아닌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패널 가정 중,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서비스는 0세에는 개인대리양육자가 압도적 다수였으나 연령이 높아지면서 차츰 낮아져 3세에는 1.4%에 머물렀고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0세 2%에서 1세 10%, 2세 41%, 그리고 3세에는 전체의 75.6%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이 외에 유치원, 학원, 대리양육과 어린이집 병행 등이 3세에 차츰 나타나고 있다.

〈표 V-4-2〉 주 이용 육아지원서비스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전체	15.6	27.8	51.7	82.8
개인대리양육자	13.5	16.8	9.5	1.4
어린이집	2.0	10.1	41.2	75.6
유치원	-	-	-	1.5
반일제 이상 학원	-	-	0.2	1.2
기타기관 (선교원 등)	-	-	0.2	0.2
개인대리양육자 + 어린이집 병행	0.1	0.9	0.6	2.6
개인대리양육자 + 유치원 병행	-	-	-	0.2
개인대리양육자 + 반일제 학원 병행	-	-	-	0.1
어린이집 + 기타기관 병행	-	-	-	0.1

주: 3세에 유치원, 개인대리양육자와 반일제이상학원, 개인대리양육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반일제이상학원, 어린이집과 기타기관 보기를 추가함.

나. 개인대리양육

개인대리양육에 자녀 돌봄을 의존하는 경우 어떤 개인대리양육자가 있는지를 연령별로 보면 가장 비율이 높았던 친/외조모가 돌보는 경우는 미미하게 줄어들고 가사/육아 도우미에 의존하는 비율이 2세부터 조금 커지고 있는 듯하다.

〈표 V-4-3〉 개인대리양육자와의 관계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친할머니	37.6	34.3	38.3	27.4
친할아버지	0.9	0.9	2.1	2.7
외할머니	41.9	46.2	42.0	43.8
외할아버지	0.4	0.0	0.0	0.7
아동의 손위 형제,자매	-	-	-	8.7
기타 친인척	7.1	3.9	5.7	13.3
친구 또는 이웃	-	-	-	0.8
비친인척 육아 도우미	11.6	13.2	8.5	-
가사 및 육아 도우미	0.5	1.5	2.9	2.5
기타	0.0	0.1	0.4	-
계	100.0	100.0	100.0	100.0

주: 비친인척 육아 도우미와 기타 보기를 3세에 삭제함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아동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시간은 줄어들고 특히 3세에는 현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편차가 조금 커지기는 하였으나 3세에는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많아지면서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V-4-4〉 개인대리양육 이용 시간

구분	단위: 시간			
	0세	1세	2세	3세
총 이용 시간				
평균	12.08	11.38	11.52	8.82
표준편차	3.38	3.07	2.81	4.29
중위값	11.00	11.00	11.50	10.00
최소값	5.50	1.00	2.00	1.00
최대값	22.98	23.97	23.00	23.50

개인대리양육을 이용하는 데 지급되는 비용(현금+현물 통합 비용)을 보면 0세에서 1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3세에는 비용이 10만원 이상 매우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표 V-4-4>와 <표 V-4-5>를 함께 해석해보면, 개인대리양육 이용율은 3세에 매우 낮아지고 이용시간도 짧아졌지만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용비용은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5〉 개인대리양육 이용비용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63.62	61.38	62.30	73.66
표준편차	28.51	29.20	31.35	36.73
중위값	60	50	60	70
최소값	5	1	5	15
최대값	170	180	170	170

다. 육아지원기관

1) 육아지원기관 특성

육아지원기관을 다니는 경우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세보다는 3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대신 유치원이나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이용하는 기관 종류가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표 V-4-6〉 육아지원기관 이용 유형

구분	단위: %	
	2세	3세
어린이집	98.9	95.1
유치원	-	1.9
영어학원(영어유치원)	-	0.4
놀이학교	0.1	1.6
선교원	0.3	0.5
미술,태권도 등의 각종학원	-	0.3
기타	0.6	0.3
계	100.0	100.0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빈도를 보면 영아기인 0세에는 토요일까지 매일 이용하는 비율이 16.0%였으나 점차 낮아져 3세에는 1.1%에 이르게 되고 반면 금요일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대부분(98.2%)이 주 5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세에 나타났던 주중 간헐 이용이 거의 사라진 것도 한 가지 특징이다.

〈표 V-4-7〉 육아지원기관 이용 빈도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6.0	13.3	3.3	1.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8.1	85.7	96.0	98.2
일주일 내내	0.0	1.0	0.7	0.0
일주일에 며칠만	5.9	0.0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0세에서 3세까지 이용 시간을 비교해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아일수록 어머니의 취업 등 돌보아 줄 필요성에 의해 기관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가 점차 사회성, 인지 발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단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4-8〉 육아지원기관 이용 시간

구분	단위: 시간			
	0세	1세	2세	3세
평균	12.44	8.76	7.79	7.39
표준편차	3.25	2.08	1.86	1.55
중위값	13.50	9.00	8.00	7.00
최소값	2.00	3.00	1.10	2.50
최대값	16.83	13.98	15.50	13.00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지불되는 비용을 보면, 0세에서 3세까지 꾸준히 평균 비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세는 19만 8,500원으로 보육비 지원 단가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연령에 따라 커지고 3세의 최대값도 매우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이 다양해져 비용도 개인별로 많이 차이가 남을 짐작하게 한다.

〈표 V-4-9〉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구분	단위: 만원			
	0세	1세	2세	3세
평균	29.94	28.85	23.36	19.85
표준편차	11.38	12.56	15.11	17.04
중위값	37	31	26	11
최소값	5	3	1	1
최대값	50	60	100	120.0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정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1세보다 2, 3세에서 크게 높아져, 이용 기관에 따른 편차로 추측된다.

〈표 V-4-10〉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용 부담도

구분	단위: %, 점			
	0세	1세	2세	3세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10.2	13.8	7.6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	43.5	13.3	18.5
적당하다	-	26.7	21.1	29.9
부담되는 편이다	-	13.3	38.3	30.5
매우 부담된다	-	6.3	13.6	13.6
계	-	100.0	100.0	100.0
평균	-	3.38	3.25	3.24
표준편차	-	1.04	1.24	1.13

2) 어린이집 관련 특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연령별 차이가 뚜렷하다. 0세에는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또래와 어울릴 수 있음'을 이유로 든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또한 점차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11〉 어린이집 이용 이유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개인대리양육자나 다른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23.8	15.0	4.8	2.1
개인대리양육자나 다른 기관보다 덜 부담 되어서	43.1	31.8	8.2	4.4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을 받을 수 없어서	7.9	5.1	0.8	0.5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1.5	16.2	40.6	47.7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4	25.3	33.2	34.1
남들이 보내니까	0.0	0.0	0.2	0.5
아이가 원해서	0.0	0.0	1.1	0.7
집에서 가까워서	0.0	0.0	2.4	3.7
유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	-	-	1.4
이용시간이 가장 길어서	-	-	-	1.3
기타	11.2	6.6	8.7	3.7
계	100.0	100.0	100.0	100.0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수를 보면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육아지원정책의 변동으로 지원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되며, 3세에 대한 전액 면제 비율은 소득 70%까지 보육료를 면제하고 있는 현 제도의 현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V-4-12〉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여부

구분	단위: %			
	0세	1세	2세	3세
전액 면제	9.9	28.4	48.4	64.8
일부 감면	56.5	38.1	17.2	-
아무런 혜택 없음	33.6	33.5	34.4	35.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일부 감면 보기를 3세에서 삭제함.

3) 특별활동 프로그램

육아지원기관에 다니는 경우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과 이용하지 않는 비율 간 관계가 조사를 실시한 2세와 3세간 완벽한 대조를 보인다. 3세의 경우 거의 70%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30%의 2세 때와 비교된다.

〈표 V-4-13〉 육아지원기관 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여부

구분	단위: %	
	2세	3세
참여프로그램 없음	69.3	30.1
참여프로그램 있음	30.7	69.9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은 2세와 3세의 이용여부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 23,400원인 2세에 비해 3세는 6만원이 넘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값 또한 1년 사이 거의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4〉 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

			단위: 만원
구분	2세	3세	
평균	23,411	60,581	
표준편차	27,111	37,427	
최소값	3,000	2,000	
최대값	130,000	370,000	

주: 특별활동 프로그램 월 평균 비용은 중복응답 결과임.

육아지원기관 이외의 곳에서 예체능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세에는 16.4%였으나 2세는 22.5%, 3세는 30.7%로 프로그램 참여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 프로그램의 수에서도 평균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부모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커짐을 짐작케 한다.

〈표 V-4-15〉 육아지원기관 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1세	2세	3세	
참여프로그램 없음	83.6	77.2	69.3	
참여프로그램 있음	16.4	22.5	30.7	
계	100.0	100.0	100.0	

〈표 V-4-16〉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수

				단위: 수
구분	1세	2세	3세	
평균	1.25	1.37	1.42	
표준편차	0.55	0.76	0.75	
최소값	1	1	1	
최대값	4	9	7	

육아지원기관 이외에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내용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글교육 비율이 매우 커졌고 체육이나 음악활동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도 2세에 비해 3세에 3배 이상 높아졌다.

〈표 V-4-17〉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구분	1세	2세	3세
미술	4.5	7.1	7.2
음악	18.8	9.1	2.1
체육	7.1	13.1	5.1
과학	0.1	0.0	0.5
수학	0.3	0.5	5.9
한글(국어)	2.5	10.8	43.3
컴퓨터		0.0	-
교구이용프로그램	31.8	10.4	11.2
한자		0.4	0.2
영어	1.0	2.6	8.0
기타 외국어		0.0	0.2
통합	36.8	39.7	12.9
기타	0.0	6.3	3.4
계	100.0	100.0	100.0

주: 1)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은 중복응답 결과임.

2) 1세에 컴퓨터와 교구이용프로그램은 '감각·조각', 한자와 영어, 기타 외국어는 '외국어'였음, 3세에 컴퓨터 삭제함.

월별 참여 비용은 2세와 3세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세보다는 1세에서 비용이 더 높았다. 이용 개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타당한 결과이기는 하나 1세에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수의 가정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참여하고 있는 듯하다.

〈표 V-4-18〉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월별 참여 비용

단위: 만원

구분	1세	2세	3세
평균	6.19	4.77	7.00
표준편차	6.47	3.77	6.34
최소값	0	0	0
최대값	46	32	55

주: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내용은 중복응답 결과임.

5. 육아지원정책 특성

가.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우선순위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중 필요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자녀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양상을 보인다. 출산휴가의 필요성을 우선으로 꼽은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보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상승되는 모습을 보인다. 직장보육시설의 요구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수유실 설치, 시차출근제 등도 아이가 자라면서 우선 필요성에서 밀려나고 있다.

〈표 V-5-1〉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필요 우선순위

구분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여성의 출산휴가	62.9	61.4	55.1	48.6
여성의 육아휴직	13.8	15.3	18.3	19.4
남성의 출산휴가	1.2	1.5	2.0	1.5
남성의 육아휴직	1.0	1.2	0.9	1.4
직장 보육시설	6.5	6.3	5.2	5.9
보육비 지원	12.5	11.4	13.9	19.8
수유실 설치	0.6	0.6	0.2	0.1
유급 수유시간	0.3	0.1	0.1	0.0
시차 출근제	0.7	2.0	2.0	1.3
대체인력풀 운영	0.5	0.2	0.2	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0.0	1.8
계	100.0	100.0	100.0	100.0

나. 직장 육아지원제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지난 1년간 이용한 경험을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은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수유실 이용이나 시차 근무제가 2세 때보다 조금 높아진 것은 패널 아동 이후 후속 출산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다.

〈표 V-5-2〉 직장 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

단위: %

구분	0세	1세	2세	3세
여성의 출산휴가	97.3	93.2	87.4	46.7
여성의 육아휴직	57.6	60.9	76.6	36.2
남성의 출산휴가	-	-	-	-
남성의 육아휴직	-	-	-	-
직장 보육시설	20.5	40.7	8.5	26.7
보육비 지원	61.4	60.7	29.9	52.1
수유실 설치	50.5	44.3	7.6	9.6
유급 수유시간	47.1	47.0	9.9	11.4
시차 출근제	37.5	40.9	13.3	22.9
대체인력풀 운영	64.4	77.6	36.1	36.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19.7

주: 직장 육아지원제도 이용여부는 중복응답 결과임.

다. 정부 육아지원과 후속 출산 계획

아동을 출산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육료나 양육비 지원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출산에 관한 의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 출산의향은 줄어들고 '잘 모르겠다'라는 불명확한 의향을 보이는 비율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출산하겠다라는 의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적어지는 듯하다.

〈표 V-5-3〉 보육료 지원 및 양육비 지원과 자녀 출산 의도

단위: 점

구분	1세	2세	3세
보육료 지원			
전혀 없음	5.8	4.8	4.4
거의 없음	6.5	3.2	3.1
조금 있음	52.2	50.1	46.7
매우 많음	14.2	27.2	11.4
잘 모르겠음	21.2	14.7	34.4
계	100.0	100.0	100.0
양육비용 지원			
있음	63.4	70.2	64.2
없음	8.5	6.9	5.4
잘 모르겠음	28.2	22.9	30.4
계	100.0	100.0	100.0

양육비 보조에 대한 의견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 3차년도 조사결과(아동 만 1, 2세)에 비해 4차년도(만 3세) 조사결과가 확연히 낮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 2세 때에는 55.7%가 3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세에는 39.5%가 10~20만원, 35.2%는 20~30만원을 희망하여 연령에 따른 양육비 지원 차이를 두고 있는 국가 정책의 타당성을 볼 수 있으나, 현 제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요구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V-5-4〉 양육비용 보조 희망 금액

구분	단위: %		
	1세	2세	3세
10만원 미만	0.3	0.4	1.9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12.3	10.3	39.5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6.9	33.7	35.2
30만원 이상	50.5	55.7	23.3
계	100.0	100.0	100.0

참 고 문 헌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증합복지관.
- 오경자·김영아(2009).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부모용 매뉴얼. 서울: (주)휴노컨설팅.
-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정영혜(2011). 한국아동패널 2011 사업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숙·신은수·박은혜·김영태·곽영숙·유영의 외(2008).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교사 지침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 장명림·신나리·박수연(2006). 아동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전경원(2001). 유아 도형창의성 검사 전문가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서울: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
-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예방접종전문위원회(2011). 201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역학과 관리-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방법. 서울: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예방접종전문위원회.
- 통계청(2007). 한국표준직업분류 2007. 서울: 통계청.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0). *Manual for the ASEBA Preschool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llen, K. E., & Martoz, L. R. (2003).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4th ed)*. Clifton Park, NY: Delmar Learning.
- Allen, K. E., & Martoz, L. R. (2007). *Developmental profiles: Pre-birth through twelve (5th ed)*. Florence, KY: Cengage Learning.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Abstract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2

Eunseol Kim Namhee Do Younghee Wang Yo Hyun Song
Yejin Yi Younghye Jung Youngwon Kim

This study was designed to obtain national data on the current facts and trends of child rearing in Korea. It is expected research in related fields to be promoted and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of the nation to be made and improved, based on the PSKC data. The report is consist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describes how the PSKC 2012 annual study was conducted and the second part presents the results of the PSKC 2011 data and the longitudinal data of the 4 years.

For the PSKC 2012 annual study, the 5th year survey, an individual creativity test was performed to each panel child as well as CBCL and HOME test through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CAPI). The 4th year data was collected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1,754 panels in 2011. The data was also obtained being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s, questionnaires from parents by mail or in person, and questionnaires from teachers via web-mail.

The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six topic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panels, child development, parenting, child care services, types of child care/education, and child care poli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panels:** The average monthly income of households was 5,330,100 won, while the average monthly expenses were 3,138,100 won. The employment rate of mothers increased every year with 29.2% in the first year, 31.3% in the second year, 32.9% in the third year, and 38.5% in the fourth year. 2)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The children weighed 4.78kg, and were 96.87cm tall on the

average. The activity that the children did most during a day was TV/video watching, followed by reading and attending at a day care or preschool. Analysis of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has found that the receptive vocabulary proficiency was higher than the expressive vocabulary proficiency; 80.2% and 70.4% of the children were within the normal range at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proficiency, respectively. 3)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20.2% of the participating panels had an additional birth plan; 72.7% didn't have; and 7.2% didn't know. About 60% of the mothers and fathers didn't show any preference over the sex of their children. Mothers responded that the husbands took part in child rearing for 1.56 hours during the weekdays and 4.86 hours during the weekends on the average, while they did 5.12 hours and 9.02 hours, respectively. Over the four years, the husbands intended to satisfy with their marriage more than the mothers. 4)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services:** During the daytime, 90.8% of the panel children attended a day care center, 2% got a personal care service, 1.7% went to a kindergarten, and 1.4% used a cram school. Almost 70% of the institutions offered an extra curriculum with the English program most. 5) **Characteristics of types of child care/education:** Most of the children preferred the block and pretend-play area most at a day care center or kindergarten. The parent mainly participated in parental guidance for child development and child activity-related programs.

6)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policies:** Regarding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about 30% of mothers choose maternity leave, while as 26% of fathers did aid for child-care expenses. One hundred ninety-nine households have received a support service from a government. The households used regular physical check-up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most. Over the years, as the need for maternity leave has decreased, the needs for child-care leave and aid for child-care expenses have increased.

부 록

부록 1. 5차년도(2012) 조사 안내문

부록 2. 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일정

부록 3. 4차년도(2011) 결과 추가분석 표

부록 4. 4차년도(2011) 면접조사용(CAPI) 질문지

부록 5. 4차년도(2011) 어머니대상 질문지

부록 6. 4차년도(2011) 기관조사용 질문지

부록 7. 4차년도(2011) 도구프로파일

부록 1. 5차년도(2012) 조사 안내문

가. 일반조사



한국아동패널 2012년도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국아동패널 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리서치의 패널 조사팀입니다.
2008~2011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12년 7월부터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조사는 지난 조사에 참여하였던 귀 닥의 자녀가 50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면접원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 후 귀 닥을 방문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귀 닥 방문에 앞서 우송해 드린 '어머니 질문지'와 '아버지 질문지'는 미리 작성하셔서 면접원이 방문할 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아동의그림 그리기와 어머니의 응답을 통해 자녀행동특성을 조사합니다.**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당일 면접원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 5차년도 조사에서는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는 교육·보육 기관의 생활에 대해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를 마친 후에는 소정의 사례(2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본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7월 초순부터 진행되는 '2012년 한국아동패널'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패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panel/>
- ※ 한국아동패널연구, 그리고 아이 육아에 관한 궁금한 점 등 무엇이든 글을 남겨주세요. [부모방]
- ※ **아이 양육 및 육아정보와 한국아동패널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02-398-7769)

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한국아동패널」연구팀 TEL) 02-398-7766, FAX) 02-730-3313	[조사수행기관] (주)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한국아동패널」조사팀 TEL) 02-3488-2783
---	--



나. 기관조사



2012 한국아동패널 기관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설문 응답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2008년 4~7월 출생한 아동 2천여명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올해로 5차년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대부분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작년부터는 패널 아동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의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는 이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반일제이상 학원 중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하신 기관 유형에 따라 설문 이 진행됩니다.

설문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지막까지 빠뜨리는 문항 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12년 07월 02일 ~ 2012년 09월 30일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영어유치원/놀이학교/각종 학원)




연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한국아동패널」연구팀
정명혜 연구원 : (02)398-7769, 이예진 연구원 : (02)398-7739

조사수행기관 :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한국아동패널」조사팀
이수희 연구원 : (02)3488-1641, 김훈미 차장 : (02)3488-2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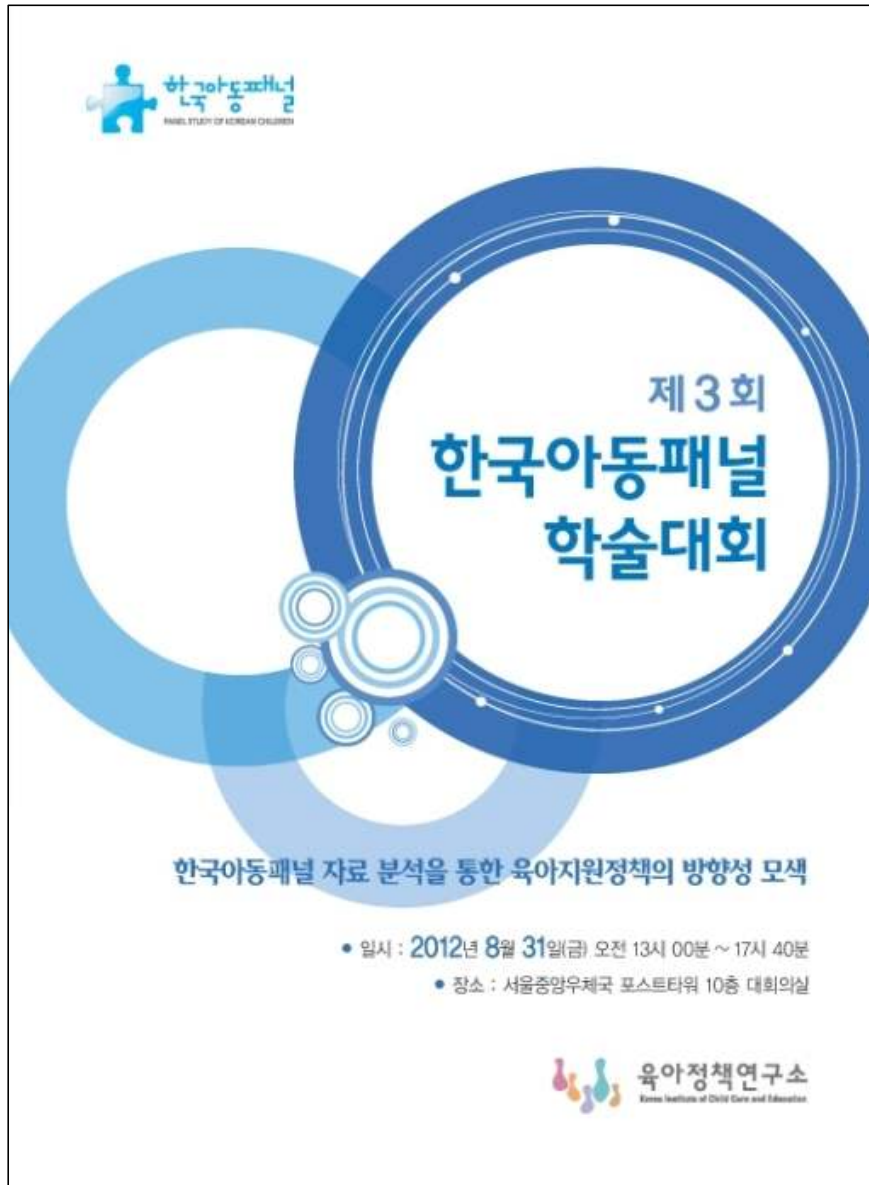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Family and Education



미디어리서치
MillwardBrown

부록 2. 제3회 학술대회 자료집 표지 및 일정

가. 자료집 표지



나. 학술대회 일정



사회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3:00~13:20 ◆ 등 록

13:20~13:30 ◆ 개회 및 인사말 이 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좌장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13:30~14:30 ◆ 제1주제: 어머니 취업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4:30~15:30 ◆ 제2주제: 저소득가정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5:30~15:40 ◆ 휴 식

좌장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15:40~16:40 ◆ 제3주제: 후속출산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6:40~17:40 ◆ 제4주제: 육아지원기관 이용
주제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17:40~ ◆ 폐회 및 마무리

부록 3. 4차년도(2011) 결과 추가분석 표

〈부록 표 1〉 아동의 하루일과 활동 여부

구분	전체	아동 성별		모 취업	
		남	여	취업	미취업
				단위: %(명)	
혼자 집에서 놀기					
활동함	72.0	71.8	72.3	68.9	74.1
활동하지 않음	28.0	28.2	27.7	31.1	2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04(1)		5.49(1)*	
친구와 놀기(육아지원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활동함	17.3	16.7	17.9	10.5	22.1
활동하지 않음	82.7	83.3	82.1	89.5	7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39(1)		38.65(1)**	
주양육자와 놀기					
활동함	81.0	81.7	80.3	81.2	81.0
활동하지 않음	19.0	18.3	19.7	18.8	1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60(1)		0.01(1)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활동함	66.9	65.1	68.7	65.8	67.6
활동하지 않음	33.1	34.9	31.3	34.2	3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2.65(1)		0.63(1)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활동함	2.1	2.2	2.0	1.7	2.3
활동하지 않음	97.9	97.8	98.0	98.3	9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10(1)		0.75(1)	
교육·보육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활동함	82.8	83.3	82.3	93.5	75.4
활동하지 않음	17.2	16.7	17.7	6.5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32(1)		95.21(1)**	

(부록 표 1 계속)

구분	전체	아동 성별		모 취업	
		남	여	취업	미취업
학습지 등 방문교육					
활동함	25.7	24.4	27.0	24.1	27.0
활동하지 않음	74.3	75.6	73.0	75.9	7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1.60(1)		1.84(1)	
TV, 비디오 시청					
활동함	90.2	91.5	88.8	90.3	90.1
활동하지 않음	9.8	8.5	11.2	9.7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3.41		0.03(1)	
오락, 컴퓨터 게임 하기					
활동함	15.6	17.3	13.7	14.4	16.6
활동하지 않음	84.4	82.7	86.3	85.6	8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4.19(1)*		1.51(1)	
성인과의 외출					
활동함	54.0	53.7	54.3	52.1	55.2
활동하지 않음	46.0	46.3	45.7	47.9	4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07(1)		1.58(1)	
책 읽기					
활동함	86.0	84.1	87.9	85.5	86.6
활동하지 않음	14.0	15.9	12.1	14.5	1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5.11(1)*		0.46(1)	
낮잠(육아지원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활동함	20.6	21.5	19.6	17.0	23.1
활동하지 않음	79.4	78.5	80.4	83.0	7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95(1)		9.74(1)**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활동함	9.9	10.9	8.9	9.8	10.1
활동하지 않음	90.1	89.1	91.1	90.2	8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1 계속)

구분	전체	아동 성별		모 취업	
		남	여	취업	미취업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1.83(1)		0.04(1)	
기타					
활동함	1.0	0.9	1.1	0.7	1.2
활동하지 않음	99.0	99.1	98.9	99.3	9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753)	(902)	(851)	(702)	(1,038)
$\chi^2(df)$		0.13(1)		0.85(1)	

*p<.05, **p<.01, ***p<.001

〈부록 표 2〉 기관 내 특기교육 월평균 비용

단위: 원

구분	전체	아동 성별		지역 규모			모 취업	
		남	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취업	미취업
전체								
평균	61,305	58,901	63,872	68,930	59,625	50,584	60,622	61,855
표준편차	37,883	32,675	42,644	37,521	41,098	30,127	34,660	40,364
<i>t/F</i>		-1.85		15.04***			-0.46	
미술								
평균	22,612	21,361	23,897	22,619	24,988	18,404	22,670	22,587
표준편차	22,527	11,578	29,871	12,720	33,938	8,604	15,199	27,101
<i>t/F</i>		-0.84		1.29			0.03	
음악								
평균	20,717	20,105	21,336	22,553	19,908	18,051	20,629	20,788
표준편차	14,338	16,116	12,294	11,960	10,419	22,293	10,618	16,781
<i>t/F</i>		-0.34		2.99			-0.11	
체육								
평균	19,916	18,722	21,260	22,408	19,028	16,833	19,765	19,906
표준편차	10,871	8,560	12,882	11,852	10,635	8,066	9,651	11,643
<i>t/F</i>		-2.40		8.93***			-0.14	
과학								
평균	18,328	15,667	20,676	19,156	18,636	15,000	18,750	18,231
표준편차	10,457	7,988	11,980	13,084	8,090	5,000	10,695	10,614
<i>t/F</i>		-1.40		0.29			0.11	
수학								
평균	21,200	19,474	22,762	21,900	23,333	16,250	22,500	20,239
표준편차	14,023	9,113	17,416	16,471	13,540	5,825	10,232	16,437
<i>t/F</i>		-0.76		0.65			0.53	
한글(국어)								
평균	20,706	19,667	22,064	20,298	22,538	19,318	20,583	20,802
표준편차	13,193	11,295	15,376	11,291	19,039	7,121	16,604	10,598
<i>t/F</i>		-0.82		0.38			-0.07	
컴퓨터								
평균	10,000	-	10,000	-	-	-	-	10,000
표준편차	-	-	-	-	-	-	-	-
<i>t/F</i>		-		-			-	
교구 이용프로그램								
평균	23,150	22,725	23,560	25,974	20,691	21,954	23,330	23,051
표준편차	17,277	12,678	20,830	22,488	10,277	14,615	12,094	20,083
<i>t/F</i>		-0.38		2.31			0.14	

(부록 표 2 계속)

구분	전체	아동 성별		지역 규모			모 취업	
		남	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취업	미취업
한자								
평균	25,000	26,667	20,000	25,000	20,000	30,000	20,000	26,667
표준편차	5,774	5,774	-	7,071	-	-	-	5,774
<i>t/F</i>		-		0.50			-	
영어								
평균	24,590	24,119	25,069	27,471	22,617	22,027	26,116	23,376
표준편차	13,145	12,088	14,143	14,589	11,530	11,361	14,527	11,847
<i>t/F</i>		-0.89		11.64***			2.54*	
기타 외국어								
평균	20,714	20,000	21,250	17,500	20,000	23,333	20,000	20,833
표준편차	4,499	0	6,292	3,536	0	5,774		4,916
<i>t/F</i>		-0.40		1.07			-0.16	
통합								
평균	35,890	37,128	33,119	43,318	31,952	24,286	33,226	38,625
표준편차	34,953	38,429	26,164	27,759	50,484	12,988	26,912	41,192
<i>t/F</i>		0.50		1.68			-0.64	
기타								
평균	24,804	20,600	29,723	25,316	26,814	19,762	22,622	26,046
표준편차	18,064	9,548	23,740	11,964	24,447	9,596	9,479	21,450
<i>t/F</i>		-2.62		1.10			-1.11	

p*<.05, **p*<.001

〈부록 표 3〉 기관 내 특기교육 주당 총 횟수

단위: 회

구분	전체	이동 성별		지역 규모			모 취업	
		남	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취업	미취업
미술								
평균	1.33	1.39	1.26	1.16	1.54	1.40	1.48	1.18
표준편차	1.11	1.28	0.89	0.54	1.66	0.84	1.42	0.67
<i>t/F</i>		1.06		3.86*			2.41*	
음악								
평균	1.16	1.20	1.12	1.15	1.16	1.20	1.15	1.15
표준편차	0.71	0.90	0.44	0.80	0.66	0.50	0.82	0.54
<i>t/F</i>		1.23		0.14			0.05	
체육								
평균	1.12	1.13	1.10	1.09	1.15	1.10	1.10	1.11
표준편차	0.50	0.54	0.45	0.43	0.61	0.36	0.49	0.47
<i>t/F</i>		0.50		0.74			-0.29	
과학								
평균	1.20	1.21	1.19	1.12	1.33	1.29	1.25	1.18
표준편차	0.79	0.72	0.87	0.59	1.15	0.76	0.87	0.77
<i>t/F</i>		0.07		0.35			0.24	
수학								
평균	1.46	1.45	1.46	1.46	1.29	1.67	1.29	1.61
표준편차	1.04	1.00	1.10	1.09	0.61	1.30	0.71	1.25
<i>t/F</i>		-0.04		0.42			-1.20	
한글(국어)								
평균	1.54	1.54	1.54	1.30	1.73	1.96	1.36	1.70
표준편차	1.30	1.03	1.59	0.77	1.87	1.46	0.90	1.55
<i>t/F</i>		-0.01		2.72			-1.41	
컴퓨터								
평균	2.00	2.50	1.00	2.50	1.00	-	2.50	1.00
표준편차	1.73	2.12	-	2.12	-	-	2.12	-
<i>t/F</i>				0.33			0.58	
교구 이용프로그램								
평균	1.35	1.33	1.37	1.25	1.36	1.53	1.26	1.40
표준편차	0.94	0.84	1.03	0.74	1.11	1.02	0.75	1.03
<i>t/F</i>		-0.36		2.34			-1.42	
한자								
평균	1.55	1.75	1.00	1.50	1.00	2.00	1.50	1.60
표준편차	1.04	1.16	0.00	1.22	0.00	1.00	1.22	0.89
<i>t/F</i>		1.82		0.52			-0.16	

(부록 표 3 계속)

구분	전체	이동 성별		지역 규모			모 취업	
		남	여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취업	미취업
영어								
평균	1.61	1.55	1.67	1.64	1.53	1.65	1.56	1.65
표준편차	1.01	0.91	1.10	0.99	1.02	1.03	0.97	1.04
<i>t/F</i>		-1.59		0.98			-1.21	
기타 외국어								
평균	1.27	1.50	1.00	1.60	1.00	1.00	1.60	1.00
표준편차	0.90	1.22	0.00	1.34	0.00	0.00	1.34	0.00
<i>t/F</i>		1.00		0.55			1.11	
통합								
평균	1.68	1.82	1.39	2.18	1.20	1.38	1.52	1.85
표준편차	1.21	1.32	0.92	1.50	0.55	0.89	1.11	1.31
<i>t/F</i>		1.73		7.02**			-1.23	
기타								
평균	1.22	1.18	1.27	1.12	1.25	1.36	1.15	1.26
표준편차	0.72	0.62	0.82	0.32	0.84	0.95	0.36	0.86
<i>t/F</i>		-0.64		0.93			-1.02	
전체								
평균	3.92	3.96	3.86	4.11	3.73	3.83	3.81	4.00
표준편차	3.00	3.32	2.61	3.19	2.71	3.04	2.97	2.99
<i>t/F</i>		0.53		1.64			-0.95	

*p<.05, **p<.01

부록 4. 4차년도(2011) 면접조사용 질문지



면접조사용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날짜	년 월 일	아동이름	
아동성별	① 남 ② 여	아동생일	양/음력 년 월 일
아동 출생순위	째	출생순위 변동사유	① 순위형제 사망 ② 순위형제 입양 ③ 재혼으로 형제순위 변동 ④ 기타_____
응답자 변경여부	① 작년과 동일함 ② 작년과 동일하지 않음		
응답자 이름		응답자이름 변동사유	응답자의 이름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명함 ② 이전 조사 시 잘못 입력함 ③ 기타 _____
아동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⑥ 형제자매의 배우자 ⑪ 이모부·외숙모 ② 아버지 ⑦ 고모·삼촌 ⑫ 이종사촌·외사촌 ③ 형·오빠, 언니·누나 ⑧ 고모부·숙모 ⑬ 기타 _____ ④ 친조부·친조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⑤ 외조부·외조모 ⑩ 이모·외삼촌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생년월일	양/음력 년 월 일
응답자 연락처	집 전화: _____ 어머니 휴대폰: _____ 아버지 휴대폰: _____ 이메일: _____		
현주소	시·도 _____ 군·구 _____ 동·읍·면 _____		
변경사유	① 기존 정보 오류 ② 이사 ③ 분가 ④ 합가 ⑤ 기타 _____ ⑥ 해당없음		
현주소 이사 날짜	년 _____ 월 _____		
방문 횟수	면접 일시		면접 결과
1	2011년 ____월 ____일 :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료 ③ 기타()
2	2011년 ____월 ____일 : ____시 ____분 ~ ____시 ____분		① 완료 ② 미완료 ③ 기타()
면접원 성명			면접원 전화번호 _____



다음은 조사 대상 아동(이하 OO)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OO(이)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입니까? _____ kg

※ 준비된 체중계로 조사원이 직접 측정

2. OO(이)의 **현재** 키는 몇 cm입니까? _____ cm

※ 준비된 줄자로 조사원이 직접 측정

3. 다음의 표는 생후 36개월까지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목록입니다.

예방접종 목록 각각에 대해 접종 여부 및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기수첩 등의 병원 방문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대상 전염병 (백신종류)	년도	접종 여부
1) 결핵(BCG)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⑥ 잘모름
2)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⑤ 4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⑤ 4회 접종함 ⑥ 잘모름
3) B형 간염(HepB)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⑥ 잘모름
4) 소아마비(폴리오)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⑥ 잘모름
5) 홍역/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풍진(MMR)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⑥ 잘모름
6) 수두(Var)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⑥ 잘모름
7) 일본뇌염(JEV)	2010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⑥ 잘모름
	2011년	① 접종 안함 ② 1회 접종함 ③ 2회 접종함 ④ 3회 접종함 ⑥ 잘모름

다음은 어머니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기존자료) 귀하는 지난 조사에서 OO에게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재도 모유수유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예(변동 없음) → 7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변동 있음) → 5번 문항으로

5. 모유수유를 언제까지 하셨습니다? 생후 _____개월 까지

6. 모유수유를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젖이 나오질 않아서
- ② 젖을 떼어야 할 시기가 되어서
- ③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 ④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낮 시간 동안 수유가 어려워서
- 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 ⑥ 질병, 약 복용 등 의사의 권유로
- ⑦ OO 동생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해
- ⑧ 아이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
- ⑨ 기타 _____

7. 귀하는 OO(이)를 돌보는데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 자녀를 돌보는 시간:

- 1) 이유식, 밥, 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기저귀갈기, 상호작용 놀이 시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과 시간
- 2) 짐보리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

※ 포함되지 않는 시간: 1) 가족식사준비, 빨래,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 시간
2) 아이가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1)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2) 주말(토, 일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다음은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8.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두 가지 보기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는 **지난 조사 이후**로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단,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합니다.

※ **휴학한 경우**도 학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9번 문항으로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27번 문항으로
- ③ 미취업/미학업 ⇒ 34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취업/휴직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9. 현재 귀하의 취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10. 귀하는 언제부터 휴직하셨습니다? _____년 ____월부터
① 휴직중 ⇒	11. 귀하의 휴직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OO 육아휴직 ② OO 동생 출산으로 인한 출산/육아휴직 ③ 기타 _____
	12. OO가 몇 개월이 될 때 직장에 복귀하실 계획이십니까? ⇒ 18번 문항으로 ① 생후 ____ 개월 ② 복귀할 생각이 없음 ③ 잘 모르겠음
② 재직중 ⇒	10-1. 지난 1년간 휴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14번 문항으로

- 18-3. 위 직장(사업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직장의 사업 내용(업종): _____
 ※ 직장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체인 경우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 표기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장소를 기입
- 18-4.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가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일: _____
 ※ 사무직인 경우 행정직/전산직/기술직, 음식점인 경우 조리/서빙 등, 교사인 경우 영어/수학 등 과목명 기입
 ※ 가급적 자세히 기입(ex. 택시운전, 건설용 트럭 운전, 한식조리, 양식조리 등)
- 18-5. 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직장(사업체) 내 직위: _____
 ※ 프리랜서, 공무원의 경우 급수, 회사원인 경우 평사원/대리/과장/부장 등의 직위, 음식점인 경우 사장/매니저/일반직원 등

19. 귀하의 현재 고용 형태는 어떻습니까?	19-1. 귀하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① 임금근로자	① 상용직(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②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③ 일용직(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
② 비임금근로자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20. 현직장(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99명
 ⑥ 100~299명 ⑦ 300~499명 ⑧ 500~999명 ⑨ 1,000명 이상

21.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경제적으로 보다 여유롭게 살기 위해 ② 경제적 이유를 위해(생계를 위해)
 ③ 지인 및 가족이 원해서 ④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⑤ 자아실현을 위해 ⑥ 경력개발을 위해
 ⑦ 효과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⑧ 기타 _____

22. 현 직장(사업체)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은 얼마나 됩니까?(세전 금액으로 말씀해주세요)
 월평균 _____만원

23. 출산을 전후로 소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출산 전보다 증가	⇨	23-1. 임금 증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승진 ② 가족수당 증가 ③ 임금인상 ④ 이직 ⑤ 기타_____
② 출산 전과 동일		
③ 출산 전보다 감소	⇨	23-2. 임금 감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강등 ② 이직 ③ 업무시간 감소 ④ 초과근무 시간 감소 ⑤ 기타_____

24. 귀하의 (주된)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해주시시오.

보기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①	②	③	④	⑤
4) 근로환경	①	②	③	④	⑤
5)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의 발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8) 인사과과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9) 복지후생	①	②	③	④	⑤

25. 그렇다면 귀하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6. 다음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 시차출근제 등 직장에서 시행 가능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현재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표해주시시오.

⇒ 42번 문항으로

정책	26-1. 시행 여부			26-2. 이용 여부	26-3. 이용/미이용 이유	26-4. 이용 만족도					26-5. 출산 및 양육 도움도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도움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정책	26-1. 시행 여부			26-2. 이용 여부	26-3. 이용/미이용 이유	26-4. 이용 만족도					26-5. 출산 및 양육 도움도				
	①예	②아니오	③잘 모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전혀 도움되지 않음	대체로 도움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도움	매우 도움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①	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직접 키우고 싶어서 (승진지연, 연봉삭감 등) ② 아이가 돌 이상이어서 ③ 직업을 돌보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서 ④ 출근 대리양육자가 없어서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① 일의 성격상 어려움 ② 승진지연 가능 ③ 연봉삭감 가능 ④ 동료들의 압력 ⑤ 시부모 또는 친정부모님의 자녀양육 가능 ⑥ 좋은 대리양육자가 있어서 ⑦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일을 하고 싶어서 ⑧ 기타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5) 직장 어린이집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8)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10) 대체인력 운영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 * 여성의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임신부의 보호)
- * 남성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게 3일의 휴가를 주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육아휴직)
- * 시차출근제: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다음은 현재 학업 또는 휴학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27. 현재 귀하의 학업관련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아래 왼쪽의 보기 ①~②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해당하는 오른쪽 추가 문항에 답해주시시오.

① 재학중

2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휴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29번 문항으로
- 28-1. 귀하께서 휴학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⑤ 가족이 원해서 ⑥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⑦ 건강상의 이유로 ⑧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⑨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⑩ 기타 _____
- 28-2. 귀하의 휴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_____년 ____월 ~ _____년 ____월
29. 지난 1년간 귀하께서 학업에 할애한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에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등학교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2) 주말(토, 일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30. 귀하는 평소 등학교하는데 하루에 평균 왕복 몇 분이 걸리십니까? → 38번 문항으로
 1)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왕복 _____ 분 2) 주말(토, 일요일) 1일 평균 왕복 _____ 분

② 휴학중

- 28-1. 귀하께서 휴학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⑤ 가족이 원해서 ⑥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⑦ 건강상의 이유로 ⑧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⑨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⑩ 기타 _____
31. 귀하는 언제부터 휴학하셨습니까? _____년 ____월부터
32. ○○가 몇 개월이 될 때 복학하실 계획이십니까?
 ① 생후 ____ 개월 → 38번 문항으로
 ② 복귀할 생각이 없음 → 33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38번 문항으로
33. 복학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③ 학업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④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⑤ 가족이 원해서 ⑥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⑦ 기타 _____
 → 38번 문항으로

다음은 현재 미취업 또는 미학업 중인 어머니만 답하여 주십시오.

34. 언제 일 또는 학업을 그만두셨습니까?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_____년 _____월

35. 그만 둘 당시 취업 또는 학업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휴학 또는 방학 중 ② 학업 중 ③ 졸업 ④ 출산휴가 중 ⑤ 육아휴직 중
⑥ 재직 중 ⑦ 기타 _____

36. 일 또는 학업을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③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④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⑤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⑥ 가족이 원해서
⑦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⑩ ○○ 동생 임신 또는 출산으로
⑪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⑫ 학교를 졸업해서 ⑬ 기타 _____

37. 앞으로의 취업 또는 취학 관련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 ① 계획이 전혀 없음 ⇒ 42번 문항으로
②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38번 문항으로
③ 6개월~1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40번 문항으로
④ 1~2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40번 문항으로
⑤ 2년~3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40번 문항으로
⑥ 3년~5년 이내에 취업 또는 취학할 계획임 ⇒ 40번 문항으로
⑦ 5년 이후 ⇒ 40번 문항으로
⑧ ○○의 동생 출산 ⇒ 40번 문항으로 ⑨ 기타 _____ ⇒ 38번 문항으로

다음은 어머니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38.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39번 문항으로 ②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42번 문항으로

39.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가사부담, 양육에서의 탈출)
②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실직하여(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③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④ 자신의 발전을 위해
⑤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을 위해 ⑥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⑦ 양육비/보육비를 벌기 위해 ⑧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⑨ 기타 _____

40.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제 근로 ⇨ 40-1. 시간제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를 돌보려고
- ② 가사일 때문에
- ③ 학업을 위하여
- ④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⑤ 다른 일(직장)을 같이 하려고
- ⑥ 건강상의 이유로
- ⑦ 유학, 시험, 개인사업 등을 준비하기 위해
- ⑧ 하루 종일 직장에 매여 있는 것이 싫어서
- ⑨ 기타 _____

② 전일제 근로

41. 희망하는 일자리의 수입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세금을 포함한 소득을 표기해주시시오.

월 _____ 만원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42. 다음은 부모님의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42-1. OO와의 관계	42-2. 결혼상태	42-3. 현재 결혼상태 시작일시	42-4. 가족과의 동거 여부	42-5. 비동거 이유	42-6. 양/음력	42-7. 생년월일	42-8. 최종학력
① 부 ② 모 ③ 해당 없음	① 미혼 ② 유배우 -초혼 ③ 유배우 -재혼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⑦ 동거	_____년 _____월	① 함께 살고 있음 ⇨ 42-6번 문항으로 ② 떨어져 살고 있음 ⇨ 42-5번 문항으로	① 타지역 근무 중 (해외포함) ② 학업관계 ③ 군복무 ④ 장기입원, 요양 중 ⑤ 기타 ____	① 양력 ② 음력	예) 19750211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전문대 졸 (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⑥ 대학교 졸 (4년제 이상) ⑦ 대학원석사 졸 ⑧ 대학원박사 졸

42-9. 학과과정	42-10. 대한민국 국민여부	42-11. 귀화 여부	42-12. 국적/귀화 전 국적	42-13. 종교	42-14. 1,2급 장애 유무	42-15. 희귀난치성 유전병
① 초등학교 학년	① 예 ⇒ 42-11번 문항으로	① 예 (귀화함) ⇒ 42-12번 문항으로	① 일본 ② 중국 ③ 미국 ④ 북한 ⑤ 베트남 ⑥ 대만 ⑦ 캐나다 ⑧ 영국 ⑨ 기타 다른 나라 _____	① 없음 ② 불교 ③ 기독교 (개신교) ④ 기독교 (천주교) ⑤ 유교 ⑥ 원불교 ⑦ 증산교 (대순진리회, 증산도) ⑧ 천도교 ⑨ 기타 _____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② 중학교 ___ 학 년	② 아니오 ⇒ 42-1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귀화안함) ⇒ 42-13번 문항으로				
③ 고등학교 학년						
④ 전문대 ___ 학 기						
⑤ 대학교 ___ 학 기						
⑥ 대학원석사 _학 기						
⑦ 대학원박사 _학 기						
⑧ 해당없음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43.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지난 조사 때와 동일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4. 현재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단,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경우는 **지난 조사 이후** 주로 한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육아휴직,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시간제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됩니다.
 ※ **휴학한 경우**도 학업 중에 해당됩니다.
- ① 취업 중 ⇒ 45번 문항으로
 ② 학업 중 ⇒ 45번 문항으로
 ③ 미취업/미학업 ⇒ 47번 문항으로
45.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평소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을 근무 또는 학업에 할애하십니까? **출퇴근 혹은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단, 업무와 관련된 회식 등의 시간은 포함됨.
- 1)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2) 주말(토, 일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46.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평소 출퇴근 혹은 등하교하는데 하루에 평균 몇 분이 걸리십니까?
- 1)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왕복 _____ 분 2) 주말(토, 일요일) 1일 평균 왕복 _____ 분

46-1.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통근 또는 통학 시간을 30분 이내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재택근무 ② 기숙사 근무 ③ 직장이(학교가) 왕복 30분 이내에 ④ 기타 _____

47. 귀하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OO를 돌보는데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 자녀를 돌보는 시간:

- 1) 이유식, 밥, 간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기저귀갈기, 상호작용 놀이 시간 등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일과 시간
2) 집보리 등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

※ 포함되지 않는 시간: 1) 가족식사준비, 빨래,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 시간

2) 아이가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

- 1) 주중(월~금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2) 주말(토, 일요일) 1일 평균 _____ 시간

다음은 조사 대상 아동(이하 OO)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48. OO(이)는 평상시 하루에 낮잠을 얼마나 잡니까? ※ 가정 및 육아지원 기관에서의 낮잠을 모두 포함

- ① 낮잠을 자지 않음 → 50번 문항으로 ② 하루에 1번 ③ 하루에 2번 ④ 하루에 3번 이상

49. OO(이)가 평상시 하루에 자는 낮잠 시간은 1회 평균 몇 분입니까? 분 단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회 평균 _____ 분

50. OO(이)는 평상시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오후 _____ 시 _____ 분 ~ 오전 _____ 시 _____ 분

51. OO(이)는 대체로 밤에 깨지 않고 잡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51-1. 하루 밤 평균 몇 번이나 깼니까? 평균 _____ 번

52. OO(이)가 하루(평일 기준)에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하는지 기록하여 주십시오.

(모든 항목을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많이 하는 활동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활동 내용	52-1. 활동 여부	52-2. 활동 시간
1)	혼자 집안에서 놀기		_____ 분
2)	친구와 놀기(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_____ 분
3)	주양육자와 놀기		_____ 분
4)	형제/자매와 함께 놀기		_____ 분
5)	혼자 밖에서 놀거나 돌아다니기		_____ 분
6)	학습지 등 방문교육		_____ 분
7)	TV, 비디오 시청		_____ 분
8)	오락, 컴퓨터 게임하기		_____ 분
9)	성인과의 외출		_____ 분
10)	책 읽기		_____ 분
11)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있기		_____ 분
12)	낮잠(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시간 제외)		_____ 분
13)	기타()		_____ 분

53. ○○(이)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53-1. 있다면 사고 또는 중독은 몇 번 발생했습니까? _____번 ② 없다

54. ○○(이)는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54-1. 입원한 적이 있다면 몇 번입니까? _____번
54-2. 1년 중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까?
입원횟수가 2회 이상이면 총 입원일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_____개월 _____일
54-3. 주된 입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폐렴 ② 골절 ③ 장염 ④ 수술(수술명 : _____) ⑤ 기타 _____
- ② 없다

55. ○○(이)는 **최근 2주간**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경험이 없을 경우, '0' 번 입력 _____번

56. ○○(이)는 장애아로 판정받았습니까? 판정받으신 경우,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장애의 경우**는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기입하여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장애아는 장애 급수를 판정 받은 경우를 의미

장애명	판정받은 급수
① 지체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② 뇌병변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시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④ 청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⑤ 언어장애	③ 3급 ④ 4급
⑥ 안면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⑦ 신장장애	② 2급 ⑤ 5급
⑧ 심장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⑨ 간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⑩ 호흡기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⑤ 5급
⑪ 장루, 요루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⑫ 간질장애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⑬ 지적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⑭ 정신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⑮ 자폐성장애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⑯ 없음	⇒ 57번 문항으로

57. ○○(이)는 지금까지 다음의 각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생후 몇 개월** 때입니까? **해당 질환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한해** 응답해 주십시오.

질 환 명	57-1. 의사진단여부	57-2. 진단 시 개월 수
1) 선천성 심장질환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2) 간질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3) 당뇨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4) 천식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5) 주의력 결핍 장애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6) 아토피 피부염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7)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8) 만성 중이염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9) 만성 요로감염	① 진단받음 ② 해당없음	_____ 개월

다음은 ○○를 돌보시는 분 또는 ○○를 맡기는 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58. 지난 조사 이후 ○○를 낮 시간(오전 8시~오후 8시)동안 주로 돌보아준 대리양육자를 개인 대리양육자,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인지를 구분하여 월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먼저 작년에는 ○○를 돌보아준 대리양육자가 있었나요? 월 중에 대리양육자가 바뀐 경우는 해당 달에 가장 많은 일수를 차지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직접 ○○를 돌보신 경우는 미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 대리양육자는 **주중의 낮 시간 동안 부모보다 아이를 가장 많은 시간 돌보는 주된 양육자**로, 조부모, 기타 친인척, 유급·무급 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 기관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과 같은 **기관의 경우는 주중 3일 이상 하루 반나절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010년	2011년
1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2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3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4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5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6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7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8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9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10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11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12월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① 개인대리양육자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반일제이상학원 ⑤ 기타 ⑥ 미이용

59. 이달 현재 낮시간(오전8시~오후8시)동안 ○○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달 중에 주로 돌보는 사람이 바뀐 경우는 응답일을 기준으로 이달 낮 시간동안 가장 많이 ○○를 돌본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2일 이하로 개인대리양육자만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님 중 1인으로 응답하도록 함. 이 경우 도움 주시는 분에 대해서 Q59-2에서 응답하게 됨.

- ① 어머니 ⇒ 59-1번 문항으로 ② 아버지 ⇒ 59-1번 문항으로
- ③ 부모외의 대리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 학원 포함) ⇒ 60번 문항으로

- ⑦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아서 ⑧ 주변에 이용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_____

⇒ 62번 문항으로

61-2. 개인대리양육자나 유치원 또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마땅한 유치원이나 학원을 찾기 힘들어서
 ② 개인대리양육자나 유치원 이용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③ 유치원이나 학원을 믿을 수 없어서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보살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⑥ 남들이 보내니까
 ⑦ 아이가 원해서
 ⑧ 집에서 가까워서
 ⑨ 유치원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⑩ 이용 시간이 가장 길어서
 ⑪ 기타 _____

⇒ 72번 문항으로

61-3.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 또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유치원에서 ○○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나이가 되어서 (만 3세부터 입학/ 이용이 가능해서)
 ② 개인 대리양육자나 마땅한 학원을 찾기 힘들어서
 ③ 개인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 이용비용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④ 개인대리양육자나 학원을 믿을 수 없어서
 ⑤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⑥ 아이에게 유치원이 교육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⑦ 남들이 보내니까
 ⑧ 아이가 원해서
 ⑨ 집에서 가까워서
 ⑩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⑪ 기타 _____

⇒ 72번 문항으로

61-4. 개인대리양육자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선교원 등 기타 기관에서 ○○를 돌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개인 대리양육자나 마땅한 육아지원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② 개인대리양육자나 육아지원기관 보다 부담이 덜 되어서
 ③ 개인대리양육자나 육아지원기관을 믿을 수 없어서
 ④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⑤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 ⑥ 남들이 보내니까
- ⑦ 아이가 원해서
- ⑧ 집에서 가까워서
- ⑨ 기타 _____

⇒ 72번 문항으로

61-5. 육아지원 기관과 개인대리양육자를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한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개인 대리양육자의 장시간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④ 아이가 개인 대리양육자와 하루 종일 있기 심심해해서
- ⑤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 ⑥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⑦ 기타 _____

⇒ 62번 문항으로

61-6. 둘 이상의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장시간 동안 한 기관에 있기 힘들까봐
- ②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 ③ 기관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서
- ④ 아이가 원해서
- ⑤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 ⑥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⑦ 기타 _____

⇒ 72번 문항으로

다음은 부모님을 대신하여 친인척이나 도우미를 포함한 개인 대리양육자가 대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개인 대리양육자와 육아지원기관을 모두 이용하는 가구는, 함께 이용하는 개인 대리양육자에 대한 부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62. 작년과 비교하여 개인대리양육자가 동일합니까?

- ① 예(동일함) ⇒ 66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동일하지 않음) ⇒ 62-1번 문항으로
- ③ 처음 대리양육자 이용 ⇒ 63번 문항으로

62-1. 대리양육자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양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② 아이가 싫어해서
- ③ 양육비가 안 맞아서
- ④ 대리양육자의 사정으로
- ⑤ 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봐주는 게 가능해져서
- ⑥ 거리상 편리해서
- ⑦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 ⑧ 아이의 발달을 고려해서
- ⑨ 기타 _____

63. 부모를 대신하여 낮 시간 동안 ○○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입니까?

- ① 친할머니 ⇒ 65번 문항으로 ② 친할아버지 ⇒ 65번 문항으로
- ③ 외할머니 ⇒ 65번 문항으로 ④ 외할아버지 ⇒ 65번 문항으로
- ⑤ 기타 친인척(아동과의 관계: _____) ⇒ 65번 문항으로
- ⑥ 베이비시터, 이웃탁아모, 보모 등 아기를 전담해서 돌보는 비 혈연 도우미 ⇒ 64번 문항으로
- ⑦ 파출부 등 가사와 육아를 함께 담당하는 도우미 ⇒ 64번 문항으로
- ⑧ 기타 _____ ⇒ 64번 문항으로

64. 이분은 어떤 경로로 아시게 되었습니까?

※ 온라인 상으로 업체를 검색한 후 해당업체를 이용한 경우는 ③번이 아니라, ⑤번에 해당함.

- ① 평소 알던 사람임 ② 주변의 소개로
- ③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구인구직 사이트,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 ④ 오프라인상의 구인·구직 광고로(지역신문, 아파트 전단지 등)
- ⑤ 업체, 인력전문기관 등의 소개로 ⑥ 기타 _____

65. 이분에게 ○○를 맡기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

66. 이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 ① 함께 살고 있음 ② 아이만 이분 집에서 살고 있음
- ③ 우리 집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 ④ 아이를 이분 집에 낮 시간동안 맡기고 있음
- ⑤ 기타 _____

67. 현재 이분은 ○○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동안 돌봐줍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 ③ 일주일 내내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68. 평상시 이분은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를 돌보십니까? 함께 살면서 대리양육자가 **전적으로 양육을 하는 경우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부터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까지

69.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지불 안함 ⇒ 70번 문항으로 ②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69-1번 문항으로
- ③ 비정기적으로 현금 지불 ⇒ 69-1번 문항으로 ④ 현물로 지불 ⇒ 69-2번 문항으로
- ⑤ 속식만 제공 ⇒ 70번 문항으로 ⑥ 기타 _____ ⇒ 70번 문항으로

69-1.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 아이 양육과 관계없이 대리양육가가 귀댁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또는 용돈은 제외하여 답해 주십시오. 비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 현 대리양육자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이후 지불한 **금액의 월평균**으로 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 69-3번 문항으로

69-2. 이분에게 ○○를 돌보는데 대한 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금액의 월평균**을 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 69-3번 문항으로**

69-3. 이분 이외에 ○○를 돌보는데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예를 들어 육아도우미가 퇴근한 이후 친정어머니가 저녁시간에 ○○를 돌보는 경우 등) 추가 비용은 얼마입니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0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69-3-1. 귀하께서는 ○○를 주로 돌보는 개인 대리양육자보다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께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69-4번 문항으로**

69-4. 귀 닥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의 개인 대리양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임 ③ 적당함 ④ 크게 부담되지 않음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70. 지금 ○○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71. 지금 ○○를 돌보는 대리양육자의 특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특성	보기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최종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졸 ⑦ 대학원 이상 ⑧ 잘 모름
3)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잘 모름
4) 국적	① 한국인 ② 조선족 ③ 기타 외국인 (국가: _____)
5) 자녀양육경험	① 있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다음은 아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또는 선교원 등 기타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 대리양육자와 육아지원기관을 둘 다 이용하는 가구는, 함께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부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72. ○○가 주로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니까?

-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__

73. ○○가 다니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는 무엇입니까? ※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명 명확하게 작성요망

- 1) 기관명 _____
2)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
3) 기관 전화번호 _____

74. ○○가 다니는 기관이 위치한 주변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75. 이 기관에 ○○를 보내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생후 _____개월 이후

76. 현재 다니는 기관에 ○○가 일주일에 며칠 갑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③ 일주일 내내 ④ 일주일에 며칠만 (_____일)

77. 평상시에 ○○는 기관을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옵니까?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부터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까지

78. 등·하원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도보와 차량 중 선택하여 이용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도보/차량) _____시간 _____분, (도보/차량) _____시간 _____분

79. 현재 기관에 지불하는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차량이용비, 특기적성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월평균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국가지원금 및 직장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80. 귀 덕의 생활수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 ○○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에 드는 총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④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80-1. 지금 이용하는 육아지원기관의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81. 현재 ○○는 국가로부터 보육·교육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단, 다니시는 직장에서부터 보조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① 지원받지 않음
 ②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로 월 197,000원 정도의 보육 및 교육비 전액을 감면받음
 ③ 장애아동으로 월 197,000원 정도의 보육 및 교육비 전액을 감면받음
 ④ 농어업인 자녀로 보통 236,000원의 현금 또는 보육·교육비를 지원받음
 ⑤ 기타 _____

다음은 ○○가 이용하는 기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관한 문항입니다.

82. 다음은 ○○이가 주로 다니는(3일 이상)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기타학원 포함)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수, 월평균 비용, 일주일 총 이용 횟수와 회당 평균 이용 시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기관의 정규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수업 초반에 노래로 주의집중을 하는 것은 음악과 체육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 ① 특별활동 프로그램 없음 ➔ 83번 문항으로
- ② 특별활동 프로그램 있음 ➔ 82-1번 문항으로

특기교육	82-1.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	82-2. 월평균 비용	82-3. 일주일 총 이용 횟수 ※ 일주일 기준으로 시간 직접 기입	82-4. 1회당 평균 이용 시간
	_____개	_____원	_____회	1회 _____분
1) 미술				
2) 음악				
3) 체육				
4) 과학				
5) 수학				
6) 한글(국어)				
7) 컴퓨터				
8) 교구 이용프로그램				
9) 한자				
10) 영어				
11) 기타 외국어				
12) 통합				
13) 기타				

83. 지난 조사 이후 ○○가 주기적으로 이용한 학습지 및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가정방문, 부모님 또는 아이를 돌보는 성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시오. 단, 주로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이상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에서 받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감각·조작 프로그램은 퍼즐, 블록, 끼우기, 레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통합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목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내용을 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체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수업 초반에 노래로 주의집중을 하는 것은 음악과 체육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 한 기관에서 일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 별로 각 문항에 응답해야 합니다.

- ① 참여프로그램 없음
- ① 참여프로그램 있음 _____개

83-1. 프로그램 명	_____
83-2. 프로그램 내용	① 미술 ② 음악 ③ 체육 ④ 과학 ⑤ 수학 ⑥ 한글(국어) ⑦ 컴퓨터 ⑧ 교구 이용프로그램 ⑨ 한자 ⑩ 영어 ⑪ 기타 외국어_____ ⑫ 통합(위의 내용 중 2개 이상을 같은 비중으로 함께 하는 프로그램) ⑬ 기타 _____
83-3. 진행 방식	① 우리 아이만 개별로 진행 ②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진행

83-4. 장소	① 집(자택 외 다른 아기들의 집 포함) ② 시청·군청·구청·교육청 등의 공공기관 ③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④ 기타 비영리 기관(도서관,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⑤ 백화점/마트 등의 사설 문화센터 ⑥ 사설 학원(집보리, 발레, 피아노학원 등) ⑦ 종교단체, 사회단체 ⑧ 기타 _____																																							
83-5. 학습지 이용여부	① 이용함 → 83-6번 문항으로 ② 이용하지 않음 → 83-7번 문항으로																																							
83-6. 학습지 교사유무	① 학습지 교사가 있음 ② 교사 없이 부모가 진행함 ③ 아이 혼자서 진행함																																							
83-7. 월별 참여횟수	월별 _____ 번																																							
83-8. 회별 참여시간	회별 _____ 분																																							
83-9. 월별 비용	월별 _____ 만원																																							
83-10. 참여 기간 (해당 월에 체크)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2010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11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2011년																																								

84. ○○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주중 반나절 이상을 주당 3일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미술 또는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 앞으로 이용할 기관에 관련한 문항입니다. 올해에는 다음 기관 중 ○○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내실 계획이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가 5세가 되는 2012년에는 다음 기관 중 ○○를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내실 계획이시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7세까지 반복하여 질문) 두 기관 이상을 계획 중이신 경우는 1순위로 고려하시는 기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④ 놀이학교: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으로 보통 3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유치원이나 학원보다 고가임
-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집보리 등 각종 사설기관은 대부분 각종 학원에 해당함
- ⑦ 기타: YMCA 아기스포츠탄 등

2011년(4세)												
6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7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8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9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0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2012년(5세)												
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3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4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5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6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7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8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9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0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2013년(6세)																			
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3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4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5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6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7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8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9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0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2014년(7세)																			
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3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4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5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6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7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8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9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0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1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12월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영어유치원	④	놀이학교	⑤	선교원	⑥	미술, 태권도 등의 각종 학원	⑦	기타	___	⑧	미이용	⑨	잘모름

**다음은 귀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식구의 도움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85. 지난 12개월간 **귀 가구의 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소비성 지출에는 식비, 주거비, 교육·교육비, 의료비, 현물 구입비, 기타 잡비 등이 포함됩니다.
86. 월평균 소비성 지출 중 **귀 가구의 모든 자녀를 위해** 지난 12개월간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총 가구 소비성 지출 (Q85 응답값)만원 중 월 평균 _____ 만원
87. 월평균 소비성 지출 중 **OO를 위해** 지난 12개월간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자녀가 외동인 경우에는 앞 문항과 동일하게 응답해주세요.
 전체 자녀를 위한 총 가구 소비성지출 (Q86 응답값)만원 중 월 평균 _____ 만원
88. 지난 12개월간 **귀 가구의 비소비성 지출**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비소비성 지출에는 각종 세금,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보장성 보험 및 귀댁으로부터의 사적이전(타 가구를 위한 생활비) 등을 뜻합니다.
89.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 중 **귀 가구의 모든 자녀를 위해** 지난 12개월간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총 가구 비소비성 지출 (Q88 응답값)만원 중 월 평균 _____ 만원

90.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 중 OO를 위해 지난 12개월간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 자녀가 외동이신 경우에는 앞 문항과 동일하게 응답해주세요.
- ※ 자녀를 위한 비소비성 지출에는 자녀를 위한 보험금, 자녀 명의의 적금 등을 뜻합니다.
- 전체 자녀를 위한 총 가구 비소비성지출 (Q89 응답값)만원 중 월 평균 _____ 만원

91. 귀 가구의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사업)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응답인 경우 92번 문항으로, 무응답인 경우 91-1번 문항으로

- ※ 근로(사업)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얻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91-1. (무응답일 경우)그럼 귀 가구의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600만원 ⑦ 601만원~700만원 ⑧ 701만원~800만원
- ⑨ 801만원~900만원 ⑩ 901만원~1000만원 ⑪ 1000만원 이상

⇒ 92번 문항으로

92. 귀 가구의 지난 1년 동안의 이전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응답인 경우 93번 문항으로, 무응답인 경우 92-1번 문항으로

- ※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다른 가계나 정부·기업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정부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유족원호금·육영자금(예.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 급부나 개인에 대한 기업의 무상 증여·기부 등에 의해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됨, 이와 같은 이전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 ※ 단, 부모님 댁에서 정기적으로 현물(예. 쌀 등)을 지원 받는 것은 비포함.

92-1. (무응답일 경우)그럼 귀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600만원 ⑦ 601만원~700만원 ⑧ 701만원~800만원
- ⑨ 801만원~900만원 ⑩ 901만원~1000만원 ⑪ 1000만원 이상

⇒ 93번 문항으로

93. 귀 가구의 지난 1년 동안의 자산(금융소득, 임대소득)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응답인 경우 94번 문항으로, 무응답인 경우 93-1번 문항으로

- ※ 자산소득(금융 및 임대소득): 자산소득은 금융 및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93-1. (무응답일 경우)그럼 귀 가구의 월평균 자산(금융소득, 임대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④ 301만원~400만원
-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600만원 ⑦ 601만원~700만원 ⑧ 701만원~800만원
- ⑨ 801만원~900만원 ⑩ 901만원~1000만원 ⑪ 1000만원 이상

⇒ 94번 문항으로

94. 귀 가구의 지난 1년 동안의 **기타소득**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_____ 만원

⇒ 응답인 경우 95번 문항으로, 무응답인 경우 94-1번 문항으로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함.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94-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가구의 **월평균 기타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만원~200만원 ③ 201만원~300만원
- ④ 301만원~400만원 ⑤ 401만원~500만원 ⑥ 501만원~600만원
- ⑦ 601만원~700만원 ⑧ 701만원~800만원 ⑨ 801만원~900만원
- ⑩ 901만원~1000만원 ⑪ 1000만원 이상

⇒ 95번 문항으로

95. 주택, 건물, 임야 또는 토지 등 귀 가구에서 **소유하신 부동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시가 _____ 만원 ⇒ 응답인 경우 96번 문항으로, 무응답인 경우 95-1번 문항으로

95-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가구에서 **소유하신 부동산의 총액**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0만원 이하 ② 1001만원~3000만원 ③ 3001만원~5000만원
- ④ 5001만원~7000만원 ⑤ 7001만원~1억원 ⑥ 1억 1만원~2억
- ⑦ 2억 1만원~3억 ⑧ 3억 1만원~5억 ⑨ 5억 1만원~10억 ⑩ 10억 이상

⇒ 96번 문항으로

96. 은행예금, 저축성 보험, 주식, 채권, 타지 않은 계, 빌려준 돈 등의 **금융자산**은 얼마입니까?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단, 전월세 보증금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으신 임대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_____ 만원 ⇒ 응답인 경우 97번 문항으로, 무응답인 경우 96-1번 문항으로

96-1. (무응답일 경우) 그럼 귀 가구에서 **소유하신 금융자산**의 총액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1000만원 이하 ② 1001만원~3000만원 ③ 3001만원~5000만원
- ④ 5001만원~7000만원 ⑤ 7001만원~1억원 ⑥ 1억 1만원~2억
- ⑦ 2억 1만원~3억 ⑧ 3억 1만원~5억 ⑨ 5억 1만원~10억 ⑩ 10억 이상

⇒ 97번 문항으로

97. 귀 가구는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부채의 총액과 월 상환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 전월세 보증금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으신 임대보증금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 부채 _____ 만원 월 상환금(원금 또는 이자) _____ 만원

98. 현재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 없음

다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99. 귀 가구는 지난 12개월간 국가로부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외에 ○○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99-1. 지원 종류	99-2. 지난 12개월간 수혜 경험 (중복응답 가능) → ①~③ 응답 시 99-4번, ④~⑥ 응답 시 99-3번 문항으로	99-3. 비용지불유무 ①무료 ②유료 ※ 현물지원의 경우만 → ① 응답 시 99-5번, ② 응답 시 99-4번 문항으로	99-4. 지난 12개월간 (현금지원의 경우) 현금지원액 (현물지원의 경우) 추가 지불액 (총액)	99-5. 만족도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만족
① 현금 지원	1) 양육수당			총 _____ 원	
	2) 농어민 가정 육아비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금)			총 _____ 원	
	3) 현금지원 기타()			총 _____ 원	
② 현물 지원 (인력, 물품, 서비스 등)	4) 아이돌보미			총 _____ 원	
	5) 장애아가족 아동양육도우미			총 _____ 원	
	6) 가정보육교사(경기도)			총 _____ 원	
	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만 2세 이상)			총 _____ 원	
	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총 _____ 원	
	9)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총 _____ 원	
	10) 영유아 건강검진			총 _____ 원	
	11) 현물지원 기타()			총 _____ 원	
③ 없음					

※ 현물지원이란 금전 이외의 물품, 서비스 형태의 지원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이외 모든 형태의 지원은 '현물지원'에 속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는 '현금지원'이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면 이는 '현물지원'에 속합니다.

※ 현금 지원

- 1) 양육수당: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만 0~1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이용시에 월 10만원 지원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2) 농어민 가정 육아비: 농지소유면적 5ha 이하 농가로서 농어업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게 제공되는 양육비 지원.

※ 현물 지원

- 1) 아이돌보미: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등·하교, 식사챙기기 등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 2)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도우미: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만 18세 이하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는 서비스
- 3) 가정보육교사: 보육교사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만 5세 이하 영유아 육아지원 인력으로 파견하는 서비스(경기도).
- 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바우처 제공): 만2~6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여 독서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바우처 제공):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 6)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비용 지원
- 7)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 인근병원에서 제공

104-1. 귀하의 작년도 가구원 중 **분가(혼인, 이혼, 경제적 독립, 사망 등)한 가구원**이 있으셨습니까?

① 있음
—명

⇒ 104-1-1. 변동된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① 형/오빠·누나/언니 ② 동생 ③ 친조부·친조모
 ④ 외조부·외조모 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의 자녀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_____

② 없음

104-1-2. 변동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혼인 ② 이혼 ③ 경제적 독립 ④ 사망 ⑤ 기타_____

⇒ 103번에 ①, 104번에 "0"명 응답 시, 119번 문항으로

⇒ 103번에 ①, 104번에 "0"명을 응답하고, 104번에 ② 응답 시, 119번 문항으로

105. 다음은 위탁가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가구 가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아기를 돌보아주시는 데에서 **OO를 제외한 위탁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명

가구원	비가구원
가.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 아기의 부모, 형제, 조부모, 기타 친척(삼촌, 고모/이모 등) 및 인척(고모부/이모부, 숙모 등) 나.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식구	가. 입주 도우미, 운전사 등의 비혈연 고용인 나. 하숙생 등의 비혈연 동거자 다. 미혼자녀 중 생계,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위탁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독립한 경우

105-1. 귀하의 작년도 위탁가구원 중 **분가(혼인, 이혼, 경제적 독립, 사망 등)한 가구원**이 있으셨습니까?

① 있음
—명

⇒ 105-1-1. 변동된 가구원은 누구입니까?
 ① 형/오빠·누나/언니 ② 동생 ③ 친조부·친조모
 ④ 외조부·외조모 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의 자녀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_____

② 없음

105-1-2. 변동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혼인 ② 이혼 ③ 경제적 독립 ④ 사망 ⑤ 기타_____

106. 지난 조사에서 OO 가족의 가구원은 다음과 같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모를 제외한 아래의 가구원과 혼인, 출산, 입양, 합가 등의 이유로 새로 들어온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응답해 주세요.

107. 다음은 위탁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OO를 제외한 모든 식구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각각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활동의 경우 계속 일을 해왔으나 질병,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경우는 평소에 하는 일을 기준으로 답해주십시오. 가족 사업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보수로 도와주는 경우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됩니다. 두 가지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직장과 학교 병행 등)는 지난 6개월간 주로 한 것으로 응답해주십시오.

106-1. 107-1. ○○와의 관계	106-2. 107-2. 가구원 변동 여부	106-3. 107-3. 가구원 변동 사유	106-4. 107-4. 양/음력	106-5. 107-5. 생년 월일	106-6. 107-6. 대략적인 나이는 어떻습니까?	106-7. 107-7. 성별	106-8. 107-8. 최종학력	106-9. 107-9. 소득활동여부	106-10. 107-10. 학과과정	106-11. 107-11. 1,2급 장애 유무	106-12. 107-12. 희귀 난치성 유전병
① 형/오빠·누나/언니 ② 동생 ③ 친조부·친조모 ④ 외조부·외조모 ⑤ 형제자매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의 자녀 ⑦ 고모·삼촌 ⑧ 고모부·숙모 ⑨ 고종사촌·친사촌 ⑩ 이모·외삼촌 ⑪ 이모부·외숙모 ⑫ 이종사촌·외사촌 ⑬ 기타 _____	① 동일 가구원 ⇒ 106-4번 문항으로 ⇒ 107-4번 문항으로 ② 새로 들어옴 ⇒ 106-3번 문항으로 ⇒ 107-3번 문항으로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⑤ 기타	① 양력 ② 음력		_____년	① 남자 ② 여자	① 미취학-기관 미이용 ② 미취학-어린이집이용 ③ 미취학-유치원이용 ④ 미취학-학원 등의 기타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주 3회 반일제 이상) ⑤ 무학 ⑥ 초등학교 졸 ⑦ 중학교 졸 ⑧ 고등학교 졸 ⑨ 전문대 졸 (3년제 이하 기능대학) ⑩ 대학교(4년제 이상) 졸 ⑪ 대학원 석사 졸 ⑫ 대학원 박사 졸	① 일을 하고 있음 ⇒ 106-11번 문항으로 ⇒ 107-11번 문항으로 ② 학교에 다님 (휴학생 포함) ⇒ 107-10번문항으로 ⇒ 107-11번 문항으로 ③ 전업주부임 (집안일, 가사) ⇒ 107-11번 문항으로 ⇒ 107-11번 문항으로 ④ 무직임 ⇒ 107-11번 문항으로 ⇒ 107-11번 문항으로 ⑤ 미취학 ⇒ 107-11번 문항으로 ⇒ 107-11번 문항으로 ⑥ 기타 _____ ⇒ 107-11번 문항으로 ⇒ 107-11번 문항으로	① 초등학교 _____학년 ② 중학교 _____학년 ③ 고등학교 _____학년 ④ 전문대 _____학기 ⑤ 대학교 _____학기 ⑥ 대학원 석사 _____학기 ⑦ 대학원 박사 _____학기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103번 ① 응답자는 119번 문항으로

다음은 위탁가구가 위치한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108. 위탁가구의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동/읍/면
109. 위탁가구에서 현재 ○○를 주로 돌봐주시는 분은 현재 사시는 동네로 언제 이사 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110. ○○를 돌봐주시는 분이 사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111.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선교원은 제외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112.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교는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5세(만 3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113.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114.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115.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116.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117.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함 ② 비교적 위험함 ③ 보통임 ④ 비교적 안전함 ⑤ 매우 안전함

118. ○○를 돌봐주시는 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지 않음 ② 좋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119.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에는 ○○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환경이 되는 육아지원 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방문 조사를 실시하도록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① 예(동의함) **⇒ 12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료**
③ 해당없음 **⇒ 조사종료**

120. ○○의 담임 선생님, 학급 명, 기관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 1) 담임 교사 성명 _____
2) ○○이의 소속 학급 명 _____
3) 기관 연락처 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5. 4차년도(2011) 어머니대상 질문지

ID - 

어머니대상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이름		아동 성별	① 남 ② 여
아동 출생순위	___ 남 ___ 녀 중 ___째		
질문지 작성자 이름			
질문지 작성일	___월 ___일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유치 조사 ② 우편 조사 ③ e-mail 조사		

본 질문지는 2008년 4월~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없는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외 대상 아이를 주로 돌보시는 주양육자께서 응답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양육자는 아이와 친인척관계인 분만 포함됩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25분가량** 소요됩니다.

질문지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13, 7709, Fax 02) 730-3313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의 양육 시 남편의 협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5.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① 낳겠음 (또는 임신 중)	⇒	5-1. 더 낳으실 계획인 경우,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몇 명을 더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5-2. 다음 자녀는 언제쯤 출산할 계획입니까? ① 1년 이내(또는 현재 임신 중) ② 1년~2년 이내 ③ 2년~3년 이내 ④ 3년 이후 ⑤ 미정(또는 잘 모르겠음) ⑥ 기타 _____		
→ 6번 문항으로		

② 낳지 않겠음	⇒	5-3. 더 낳지 않으실 계획인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자녀 양육비용 때문에(아이 관련 생필품, 육아 도우미 비용 등) ②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의 기관 이용비용, 그 외 학원 등의 사교육비용 등) ③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개인시간/여가 또는 자아성취를 위하여 ⑤ 이미 계획한 수만큼의 아이를 낳아서 ⑥ 나이가 많아서 ⑦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출산 및 양육 등) ⑧ 믿을 만한 양육자 또는 육아지원기관이 없어서 ⑨ 기타 _____
→ 6번 문항으로		

③ 잘 모르겠음 ⇒ ④ 기타 _____ ⇒	5-4.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조금 있음 ④ 매우 많음 ⑤ 잘 모르겠음
5-5. 국가에서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용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	5-5-1. 매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②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
② 없음 ③ 잘 모르겠음	

6. 귀하의 향후 자녀 출산계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 출산계획에는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는 계획도 포함됩니다.

- ① 본인 ② 남편 ③ 친정부모님 ④ 시부모님
- ⑤ 본인의 형제·자매 ⑥ 남편의 형제·자매 ⑦ 본인의 친인척 ⑧ 남편의 친인척
- ⑨ 친구, 동료 및 이웃 ⑩ 부부 (본인+남편) ⑪ 다른 자녀 ⑫ 기타_____

7. 최근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 도입제도 시행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네(접한 적이 있음) ➔ 7-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접한 적이 없음) ➔ 8번 문항으로

7-1. 최근 이런 보도를 접한 후, 보도의 내용이 귀하의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① 영향 없음

② 영향 있음 ➔ 7-2. 영향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① 출산 계획 없음 → 출산 계획 있음
 ② 출산 계획 있음 → 출산 계획 없음

다음은 자녀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8.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무자녀
- ② 1명 ➔
- ③ 2명 ➔
- ④ 3명 ➔
- ⑤ 4명 ➔
- ⑥ 5명 이상 ➔
- ⑦ 잘 모르겠음

8-1. 딸·아들 구분해서 입니까? 구분 없이 입니까?
 ① 딸·아들 구분 없이
 ② 딸·아들 구분해서(아들 _____ 명, 딸 _____ 명)
 ③ 딸·아들 구분 없이 동성으로
 ④ 잘 모르겠음
 ⑤ 기타 _____

9. 자녀에 대한 다음의 태도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의 장래에 대하여 귀하가 부모로서 갖는 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원하시는 정도를 ✓표 해주십시오.

우리 ○○는 장래에.....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1) 돈을 잘 번다.	①	②	③	④
2) 명성을 얻거나 유명해진다.	①	②	③	④
3)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5)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6)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육아정책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1.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정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1) 어머니가 직장과 병행하여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탄력적인 근무조건을 보장하는 것 (예: 육아휴직, 탄력근무 등)
- 2) 어머니를 대신하는 육아지원 서비스(예: 육아도우미,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반 등)에 아이를 맡고 맡길 수 있도록 질 높고 비싸지 않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귀하께서는 이 둘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육아휴직, 탄력근무(시차 출근제) 등의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및 확대
- ② 비용이 적절하면서도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확대
- ③ 두 가지 모두

12. 다음은 근로 장소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입니다. 각각의 필요 정도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구 분	매우 불필요	대체로 불필요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1) 여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3) 남성의 출산휴가	①	②	③	④	⑤
4) 남성의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⑤
5) 직장 어린이집	①	②	③	④	⑤
6) 보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수유실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근무 중 수유시간 부여 또는 유급 수유시간	①	②	③	④	⑤
9) 시차 출근제	①	②	③	④	⑤
10) 대체인력풀 운영	①	②	③	④	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⑤

12-1. 위의 11가지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방식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 여성의 출산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는 것(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임신부의 보호)
- ※ 남성의 출산휴가 :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남성에서 3일의 휴가를 주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2의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휴직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육아휴직)
- ※ 유급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자 근로자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근무 중 수유시간을 부여받는 것
- ※ 시차출근제 : 근로자가 사정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것, 탄력근무라고도 함(근로기준법 제 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 ※ 대체인력풀 운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단,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의 총 사용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13. 부모의 취업으로 취학 전 자녀를 부모 외의 사람이 대리양육 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아이가 부모가 돌보는 것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
- ② 보호 뿐 아니라 양질의 교육적인 경험이 함께 제공되는 것
- ③ 저녁이나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양해지는 것
- ④ 비용이 저렴해 지는 것
- ⑤ 잘 모르겠음
- ⑥ 기타 _____

다음은 귀하의 음주와 흡연 습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4.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최근 1년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② 월 2~4회
 - ③ 주 2회~3회
 - ④ 일주일에 4회 이상
 -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 17번 문항으로**

- 15. 술을 마시면 보통 몇 잔정도 마시는 편입니까? 소주, 양주 구분 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계산합니다. 단, 캔 맥주 1개(355cc)는 맥주 1.6잔과 같습니다.
 - ① 1잔 또는 2잔
 - ② 3잔 또는 4잔
 - ③ 5잔 또는 6잔
 - ④ 7잔 또는 9잔
 - ⑤ 10잔 또는 그 이상

- 16. 한번의 술좌석에서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경우,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전혀 없음
 - ② 한 달에 1번미만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④ 1주일에 1번 정도
 - ⑤ 거의 매일

20. 다음은 ○○에 대한 귀하의 양육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예: 먹이기, 목욕시키기, 옷 입히기 등)을 잘 만족시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가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이의 공격행동 (예: 물건 던지기, 때리기 등)을 제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중복응답가능)

지난 1년간	경험함
1)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에 영향을 받았다.	
2) 병원비(임신·출산관련 비용 포함)나 치과비 등의 지출로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3) 의식·주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4)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었다.	
5) 자동차 또는 인테리어 개조 등 값비싼 물품 구입 등으로 목돈을 지출하였다.	
6)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	
7) 빚을 지거나 대출을 받았다.	
8) 가족 중 직장을 옮긴 사람이 있다.	
9) 가족 중 일을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	
10) 가족 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다.	
11) 가족 중 일(주부로서의 일 포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사람이 있다.	
12) 가족 중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있다.	
13) 나 또는 배우자가 해외나 지방(다른 지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15) 가족 중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책임이 커진 사람이 있었다.	
16) 자녀의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22. 아래의 사건들 중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칸에 모두 표해주시시오.(중복응답 가능).

지난 1년간	경험함
1) 내 자신,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2) 자녀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3)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	
4) 신체장애가 있거나 오랫동안 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졌다.	
5)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직접 돌보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커졌다.	
6) 배우자가 사망했다.	
7) 자녀가 사망했다.	
8) 친정부모, 시부모, 가까운 친척, 친구 중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	
9) 가족 중 법을 어겨 조사를 받거나 체포를 당한 사람이 있었다.	
10) 가정폭력이 있었다.	
11) 가족 중 가출한 사람이 있었다.	

23.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 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를 포함해서 본인이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바를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상 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간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평소 느낌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다음의 각 문장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살면서 때때로 원가에 휘둘리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통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3)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 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조사 대상 아이(이하 ○○)의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다음은 ○○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27. 다음은 ○○의 생활 중 수면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에 10~12시간 정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2) 오후의 낮잠이 줄어들고 휴식을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혼자서 잠 잘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 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토닥여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다가 꿈 때문에 깨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은 ○○의 생활 중 식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식욕은 괜찮으며 양을 적게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배고프면 스스로 먹으며 숟가락과 포크 사용이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배고프지 않을 경우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떠난 짓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약간 흘리지만 주스나 우유를 따를 수 있고 지시에 따라 음식을 덜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신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음은 ○○의 생활 중 배변/씻기 습관/옷 입기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십시오. |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혼자서 잘 씻고 목욕탕에서 나오기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낮에는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있다(남아는 가끔 바지에 실수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어떤 날은 잘 가리지만, 어떤 날은 가리지 못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벗는 것을 더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지퍼, 큰 단추와 똑딱이 단추 같은 것을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30. 다음은 ○○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가 지난 두 달 간 보여준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른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⑤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들에게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 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자.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⑤
25) 교사나 어른의 지시(지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8)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⑤
2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0)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⑤
31) 놀이에서 다른 아이를 주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놀이에서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는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① 일반주택지역 ② 일반아파트지역 ③ 상가·회사지역
 ④ 공장(단)지역 ⑤ 농·어가지역 ⑥ 기타 _____
32.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히 있습니까?
 ※ 어린이집에는 선교원은 제외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3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학원, 놀이학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 놀이학원은 기관 명칭에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통상 상가 또는 주상복합건물에 별도의 실외 놀이터 없이 4세(만 3세) 이하의 어린이부터 대상으로 함. 예로는 위즈 아일랜드, 하바 등이 있음.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34.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35.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36.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함
37.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 ② 비교적 위험 ③ 보통 ④ 비교적 안전 ⑤ 매우 안전
38.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① 매우 위험 ② 비교적 위험 ③ 보통 ④ 비교적 안전 ⑤ 매우 안전
39.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전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지 않음 ② 좋지 않음 ③ 보통임 ④ 좋음 ⑤ 매우 좋음

다음은 ○○(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등의 기관에서의 부모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질문이 종료됩니다.

40. 다음은 육아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참여 형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2가지만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아동관련 행사 참여(소풍, 재롱잔치, 운동회 등)
 ② 자녀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교사 상담, 공개 수업 등)

- ③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 ④ 자원봉사(1일 교사, 교구제작 보조, 귀가지도, 간식준비 등)
- ⑤ 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⑥ 가정통신문의 활용
- ⑦ 재정적 기여(바자회 참여, 간식 제공 등) ⑧ 기타()

41. ○○가 다니는 기관에서는 부모 참여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실시되지 않음 ② 잘 실시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잘 실시됨 ⑤ 매우 잘 실시됨

42.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가 다니는 기관에 얼마나 자주 가보셨습니까? 평균 방문 횟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현재 다니는 곳의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해 주십시오. ※ 단, 등하원 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은 제외함.
 ① 일주일에 1회 정도 ② 일주일에 2-3회 정도 ③ 한 달에 1회 정도
 ④ 한 달에 2-3회 정도 ⑤ 6개월에 1-2회 정도 ⑥ 6개월에 3-4회 정도
 ⑦ 연간 1-2회 정도 ⑧ 거의 가지 않음

43. ○○가 다니는 기관에서 지난 1년간 이루어진 부모참여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사 안내, 참석 여부, 참석 횟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응답 예시>를 참고하여 응답하시면 됩니다. 현재 다니는 곳의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응답해 주십시오.

행사 내용	행사 안내	참석 여부	참석 횟수	부모의 활동	만족도
	① 받은 적 있음 ② 받은 적 없음	① 참석함 ② 참석못함	년 회	① 단순 참석 (참관, 교육 등) ② 상담 참석 ③ 교사 보조 활동 ④ 적극적 참여 (활동을 함) ⑤ 기타: _____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한 편 ③ 보통 ④ 만족한 편 ⑤ 매우 만족
<응답 예시>	1	1	3	1	4
1) 아동 행사(소풍, 재롱잔치, 운동회 등)					
2) 담임교사 상담					
3) 원장 상담					
4) 부모교육프로그램 (강연회, 워크숍 등)					
5) 기타: _____ (그외 부모참여 경험)					

44. ○○는 주로 다니는 기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좋아함 ⑤ 아주 좋아함

45. ○○는 주로 다니는 기관의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① 전혀 좋아하지 않음 ② 별로 좋아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대체로 좋아함 ⑤ 아주 좋아함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6. 4차년도(2011) 기관조사용 질문지



기관조사용 질문지

※ 본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전국단위의 종단적 연구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질 높은 육아환경 설계를 위한 육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질문지는 「한국아동패널」 연구에 참여한 아이와 기관에 관한 것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담당 선생님이 응답**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개인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니, 선생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10층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팀
Tel 02) 398-7713, 7782
Fax 02) 730-3319
e-mail: panel@kicce.re.kr

<조사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아동패널』 조사팀
Tel 02) 3488-2783,
Fax 02) 598-7652

기관 이름	기관 연락처		
기관의 설립 유형	① 국공립 ② 법인 ③ 직장 ④ 민간 ⑤ 가정 ⑥ 부모협동 ⑦ 기타 ()		
어린이집별 유형 (중복응답)	① 일반 ② 영아 전담 ③ 장애아 전담 ④ 장애아 통합 ⑤ 시간연장 ⑥ 24시간 ⑦ 휴일 ⑧ 방과후 ⑨ 기타 ()		
기관의 평가 인증 통과 여부	① 통과 ② 통과하지 않음 ③ 기타 ()		
전체 학급 수	총 _____ 학급	총 정원	총 _____ 명
선생님의 성별	① 여 ② 남	선생님의 연령	만 _____ 세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2. 선생님의 교사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근무기간이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0개월로 응답.

기관	2-1. 재직 경험 유무	2-2. 교사 경력
어린이집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유치원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학원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기타	① 없다 ② 있다	()년 ()개월

3. 선생님께서 교사로 근무하신 기관 중 이 기관은 몇 번째 근무처이십니까? _____ 번째

4. 선생님의 교사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① 없음

② 유치원
교사 자격증
(원감, 원장
자격 포함)

⇒

4-1. 선생님의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유하신 자격을 모두 표
시해 주세요.(중복응답) ⇒ 5번 문항으로
① 2급 정교사
② 1급 정교사
③ 원감 자격증
④ 원장 자격증

③ 보육교사
자격증
(시설장
자격 포함)

⇒

4-1. 선생님의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보유하신 자격을 모두 표
시해 주세요.(중복응답) ⇒ 5번 문항으로
⑤ 3급 보육교사
⑥ 2급 보육교사
⑦ 1급 보육교사
⑧ 시설장 자격증

⑤ 기타 교사 자격증 ()

5.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 및 수료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 ① 고등학교 졸업 ⇒ 7번 문항으로
- ②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재학
-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기능대학) 졸업
- ④ 대학교 (4년제 이상) 재학
- ⑤ 대학교 (4년제 이상) 졸업
- ⑥ 대학원 재학
- ⑦ 대학원 졸업

17. 하루 중 실내자유선택활동은 몇 회 하십니까?

- ① 안 한다 → 18번 문항으로
- ② 1회 → 17-1번 문항으로
- ③ 2회 → 17-1번 문항으로
- ④ 3회 이상 → 17-1번 문항으로

17-1. 실내자유선택활동을 1회에 평균 몇 분정도 하십니까? _____분

18. 기관 내에 실외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 ① 없다 → 19번 문항으로
- ② 있다 → 18-1번 문항으로
- ③ 없지만 다른 공간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다 → 18-1번 문항으로

18-1. 하루 중 실외놀이는 일반적으로 몇 회 하십니까?

- ① 안 한다 → 19번 문항으로
- ② 1회 → 18-2번 문항으로
- ③ 2회 → 18-2번 문항으로
- ④ 3회 이상 → 18-2번 문항으로

18-2. 실외놀이 활동을 1회에 평균 몇 분정도 하십니까? _____분

다음은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9. 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교육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정기적 면담, 상담
- ② 인쇄매체(가정통신문, 소책자 등)
- ③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 ④ 전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예: PET, STEP 등)
- ⑤ 강연 또는 워크숍
- ⑥ 기타 ()

20. 부모교육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루어집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부모참여 프로그램 예시	아동 관련 행사 참여(소풍, 재롱잔치, 운동회 등) 자녀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교사 상담, 공개 수업 등)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자원봉사(1일 교사, 교구제작 보조, 귀가지도, 간식준비 등) 기관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가정통신문의 활용 재정적 기여(바자회 참여, 간식 제공 등)
--------------	--

다음은 선생님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24. 선생님께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가정통신, 전화, 쪽지,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부모와 골고루 의사소통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 달에 1-2번 정도는 모든 담당 영유아의 부모와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25. 다음은 ○○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 지난 두 달간 보여준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에게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 _____ 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자. 너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선생님의 지시(지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6)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7)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30)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1) 놀이에서 다른 아이를 주도한다.	①	②	③	④
32) 놀이에서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30-1. OO는 집에서 간식을 가지고 옵니까?

- ① 예 → 30-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간식 횟수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 31번 문항으로

30-2. 집에서 간식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31. OO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잡니까?

- ① 낮잠시간 없음 → 32번 문항으로
 ② 낮잠을 잡 → 31-1번 문항으로
 ③ 낮잠을 안 잡 → 32번 문항으로
 ④ 불규칙적임 → 31-1번 문항으로
 ⑤ 기타 () → 31-1번 문항으로

31-1. 낮잠 자는 시간은 1회 평균 얼마입니까? _____ 분

32. OO는 보통 몇 시에 귀가합니까?

- ① 정오 12시 이전
 ② 오후 12-1시
 ③ 오후 1-2시
 ④ 오후 2-3시
 ⑤ 오후 3시 이후
 ⑥ 일정하지 않음

33. OO는 어떤 방법으로 귀가하고 있습니까?

- ① 도보
 ② 대중교통기관 이용(지하철, 버스 등)
 ③ 기관 운영 차량 이용
 ④ 승용차 이용
 ⑤ 기타 ()

34. OO가 귀가 시 동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엄마
 ② 아빠
 ③ 할아버지/할머니
 ④ 대리양육자
 ⑤ 친인척
 ⑥ 이웃
 ⑦ 혼자(아이 혼자 걸어서) ⑧ 기타 ()

35. OO가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에 비해 어린이집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②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아한다
 ⑤ 아주 좋아한다

36. OO가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아이에 비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②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좋아한다
 ⑤ 아주 좋아한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7. 4차년도(2011) 도구프로파일

가. 면접조사 도구프로파일 구성

No.	도구명	해당변인	비고
1	아동의 건강특성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장애, 병력, 만성질환	유지
2	임신	산모 신장, 산모 체중, 임신방법, 재태기간	1차년도
3	출산	분만형태, 출산 후 접촉	1차년도
4	K-ASQ	아동 발달특성(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문제해결, 개인-사회성)	3차년도
5	한국형 Denver II	아동 발달특성 (개인-사회성, 미세운동-적응, 언어, 전체운동)	3차년도
6	EAS 기질척도	기질	유지
7	기본생활습관 (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수면, 수유, 배변/씻기	유지
8	알코올 사용장애 식별검사(AUDIT)	건강특성(음주)	유지
9	니코틴 중독 자가 검사(FND)	건강특성(흡연)	유지
10	임신/출산관련특성 (YourPregnancy)	임신 및 출산 관련 느낌, 계획된 임신 여부	1차년도
11	임신/출산 관련 태도 및 부모교육	기대성별, 기대자녀 수/이상자녀 수, 향후 출산 계획, 부모교육 여부, 내용 및 교육기관	유지
12	자녀 가치	부모됨의 태도	유지
13	양육스타일(PSQ)	양육실제	유지
14	양육지식(KIDI)	양육지식	3차년도
15	양육신념	양육신념	3차년도
16	자녀의 미래기대	자녀의 미래기대	유지
17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	유지
18	아버지 특성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유지
19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	자기 효능감	유지

No.	도구명	해당변인	비고
20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유지
21	Kessler 우울 척도(K6)	우울	유지
22	어머니의 취업/학업 특성	*공동: 취업/학업 상태, 취업/학업 계획 *취업모: 근로복귀시기, 직업/직무만족도,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학업모: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 학업시간, 등하교시간 *미학업/미취업모: 취업/학업 경험여부, 휴직/휴학시기, 근로/학업중단이유	유지
23	결혼만족도(RKMSS)	결혼만족도	유지
24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유지
25	사회적 지원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유지
26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학력, 종교, 건강특성	유지
27	가계경제요소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유지
28	가족생활사건(FILE)	가족생활사건	유지
29	주거 환경 특성	주택 소유형태, 주택 유형	유지
30	기초생활수급 여부	사회보장지원 수혜 여부	유지
31	육아지원 정책 수혜	재정지원 수혜, 서비스지원 수혜	유지
32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주양육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미이용 이유, 최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계획, 육아지원서비스 및 교사선호도	유지
33	개인 대리양육자 및 서비스 특성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및 알게 된 경로,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 대리양육 이용만족도	유지
34	어린이집 및 서비스 특성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입지조건, 어린이집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어린이집 이용만족도, 평가인증 통과 여부	유지

No.	도구명	해당변인	비고
35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및 특성	육아지원기관 외 이용 프로그램 유형,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비용	유지
36	최초 대리양육 특성	최초 대리양육 유형 및 최초 대리양육 시작 시기	1차년도
37	지역사회특성 (일반적특성, 물리적 특성, 육아관련특성)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유지
38	육아지원정책 방향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취업모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국가정책 도입의 영향	유지
39	아동의 일과특성	낮잠여부, 낮잠시간, 수면시간, 아동의 하루생활시간	유지
40	가정 내 영어학습	가정에서 구비된 영어학습 관련자료 종류, 최초 이용시기, 영어 학습을 함께하는 사람, 자료 구입 및 이용비용, 자료이용 시간	3차년도
41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수용·표현 어휘력 발달	신규
42	유아용 가정환경자극 검사 (EC-HOME)	가정환경 특성	신규

나. 기관조사 도구프로파일 구성

No.	도구명	해당변인	비고
1	교사 자기 효능감 (TSES)	교수능력	신규
2	유아 또래 상호작용 (PIPPS)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신규
3	교사-유아 상호작용 (ECOI)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신규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

1. 도구명: 아동의 건강특성
2. 해당 변인: 체중, 신장, 두위, 출생 후 건강상태, 예방접종, 모유수유, 장애, 병력, 만성질환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체중, 신장: 면접조사용 질문지 1~2번(면접원 실제측정, 대리응답불가)
 - 예방접종: 면접조사용 질문지 3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모유수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4~6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장애: 면접조사용 질문지 56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병력: 면접조사용 질문지 53~55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 만성질환: 면접조사용 질문지 57번(어머니, 대리응답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6

1. 도구명: EAS 기질척도 (The EAS: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2. 해당 변인: 기질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6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2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점~100점임. 단, EAS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이 요구됨.
 -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영역별로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서성에서 높은 점수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많

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활동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아동은 움직이길 좋아하고 활동적인 특성을 지님을 의미함. 또한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아동이 타인과 잘 어울리며 덜 수줍어함을 의미함. (표 참조).

문항내용	하위영역	역코딩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사회성	○
2)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정서성	
3)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사회성	
4)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활동성	
5)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사회성	
6)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정서성	
7)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활동성	○
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귀다.	사회성	
9)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활동성	
10)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사회성	
11)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정서성	
12)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사회성	
13)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활동성	
14)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회성	○
1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정서성	
16)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사회성	○
17)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활동성	○
18)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사회성	○
19)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정서성	
2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사회성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7

1. 도구명: 기본생활습관(Dep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2. 해당 변인: 수면, 수유, 배변/씻기, 놀이 및 사회적 활동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 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7~2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수면습관 5문항, 식습관 5문항, 배변/씻기습관 5문항, 놀이/사회적 활동 5문항의 총 15개 문항임.

4. 4차년도 변경사항

- 3차년도에 기본생활습관의 변인으로 질문하였던 '놀이 및 사회적 활동'은 아동의 발달상 확대되는 영역이므로 또래상호작용 등의 사회적 발달 변인 등으로 강화하여 질문함. 이에 본 도구의 변인에 해당하는 놀이 및 사회적 활동은 4차년도 질문에서 삭제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8

1. 도구명: 알코올 사용 장애 식별검사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2. 해당 변인: 건강특성(음주)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14~1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11~13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4. 4차년도 변경사항

- 3차년도와 비교하여 "귀하는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어머니대상 질문지 1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1번)"에 대한 보기의 순서가 변경됨. 종단 자료분석 시 대응되는 변수값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3차년도 보기값	4차년도 보기값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① 월 1회 이하
②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월 2~4회	③ 주 2회~3회
④ 주 2회~3회	④ 일주일에 4회 이상
⑤ 일주일에 4회 이상	⑤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9

1. 도구명: 니코틴 중독 자가 검사
(Fagerstrom's Nicotine Dependence Test: FND)
2. 해당 변인: 건강특성(흡연)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17~1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문항 14~15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4. 4차년도 변경사항
 - 3차년도 총6문항에서 4차년도에는 부모의 흡연여부와 정도만을 묻는 2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축소함.

3차년도	4차년 도
1. 귀하는 평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유지
2. 귀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담배를 피우십니까?	삭제
3. 귀하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삭제
4. 하루에 담배를 몇 개비 정도 피우십니까?	유지
5.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피우는 담배가 그 외 시간에 피는 담배보다 더 많습니까?	삭제
6. 몸이 아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삭제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1

1. 도구명: 임신/출산 관련 태도 및 부모교육

2. 해당 변인: 기대성별, 기대 자녀수·이상 자녀수, 향후 출산 계획, 부모교육 여부, 내용 및 교육기관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기대 자녀수·이상 자녀수: 어머니대상 질문지 8~8-1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1~1-1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향후 출산 계획: 어머니대상 질문지 5~5-5번, 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2

1. 도구명: 자녀 가치

2. 해당 변인: 부모됨의 태도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9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2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정서적 가치 4문항, 도구적 가치 4문항의 총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각 4점~20점, 4점~20점임.

문항내용	구분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정서적가치
3) 자녀가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지 않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도구적가치
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7)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8)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	정서적가치

4. 4차년도 변경사항

- 정서적 가치를 묻는 ‘자녀를 키우는 일은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문항이 추가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3

1. 도구명: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2. 해당 변인: 양육실제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7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7점~85점임.
 - 기존 문항 (1)~(9)번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스타일을 의미함.
 - 신규문항 (10)~(17)번은 통제적 양육스타일을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인 양육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4. 4차년도 변경사항

- 4차년도에 추가된 문항은 총 8문항임.

신규추가 문항

-
- 10) 나는 아이가 어려도 엄격하게 예절을 가르친다.
- 11) 나는 아이가 잘못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 12)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
- 13)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
- 14)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 15)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 16) 나는 아이가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한다.
- 17) 나는 아이의 공격행동(예: 물건 던지기, 때리기 등)을 제지한다.
-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6

1. 도구명: 자녀의 미래기대(Expectations for a Child's Future)
2. 해당 변인: 자녀의 미래기대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10번(어머니, 대리 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3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주어진 보기의 '매우 원한다(1점)'부터 '전혀 개의치 않는다(4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7

1. 도구명: 양육스트레스 척도
2. 해당 변인: 양육스트레스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19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1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점~55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8

1. 도구명: 아버지 특성
2. 해당 변인: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자녀양육 참여시간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자녀양육참여: 어머니대상 질문지 4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자녀양육 참여시간: 면접용 질문지 47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자녀양육참여: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자녀양육 참여시간: 아버지가 자녀를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돌보는지 주중/주말로 나누어 조사함.
4. 4차년도 변경사항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3차년도에는 일주일 총 시간을 질문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하루 평균시간을 시간단위로 조사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19

1. 도구명: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
2. 해당 변인: 자기 효능감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4번 (1)~(4), (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0

1. 도구명: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 Self-Esteem Scale)

2. 해당 변인: 자아존중감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4번 (5)~(14), (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40점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므로, 점수화 시 재코딩이 요구됨.
 -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점한 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함.

문 항 내 용	역코딩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4)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5)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1

1. 도구명: Kessler 우울 척도(K6)

2. 해당 변인: 우울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문항 25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6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3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18점은 경도/중등도(mild/moderate) 우울, 19점~30점은 중도(severe) 우울로 분류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2

1. 도구명: 어머니의 취업/학업 특성
2. 해당 변인
 - 공통: 취업/학업 상태, 취업/학업 계획
 - 취업모: 근로복귀시기, 직업/직무만족도, 근로시간, 출퇴근시간, 휴직 여부, 휴직시기, 휴직사유, 휴직기간, 출산 후 근로복귀시기
 - 학업모: 휴학시기, 학업복귀시기, 휴학사유, 학업시간, 등하교시간
 - 미취업/미취업모: 취업/학업 경험여부, 휴직/휴학시기, 근로/학업중단이유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2, 3, 17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취업/학업 계획: 면접조사용 질문지 6, 10, 11, 22, 23, 24, 29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취업/학업 경험여부: 면접조사용 질문지 25, 27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 복귀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7-2, 18-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휴직/휴학 시기: 면접조사용 질문지 21, 26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 중단이유: 면접조사용 질문지 28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근로/학업시간: 면접조사용 질문지 8, 19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출퇴근/등하교시간: 면접조사용 질문지 9, 20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 불가)
 - 직업/직무 만족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14, 15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3

1. 도구명: 결혼만족도(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
2. 해당 변인: 결혼만족도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7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4

1. 도구명: 부부갈등 척도
2. 해당 변인: 부부갈등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아버지대상 질문지 8번(아버지, 대리응답 불가)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8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8점~4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5

1. 도구명: 사회적 지원
2. 해당 변인: 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주어진 보기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임.
 - 총 12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60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6

1. 도구명: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2. 해당 변인: 가구구성원 수, 성별, 연령, 국적, 귀화여부, 결혼상태 및 동거여부, 직업, 직위, 학력, 종교, 건강특성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 가구구성원, 연령, 성별, 최종학력, 건강상태, 수입활동여부, 결혼상태, 취업/학업 상태, 아버지 근로/학업시간, 재택시간, 출퇴근/등하교시간: CAPI
 - 부모 동거여부, 국적/귀화여부, 종교: PAPI
 - 직업/종사상 지위: CAPI 또는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가구구성원: 면접조사용 질문지 84~86, 87-1~87-3, 88-1, 88-2, 88-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연령: 면접조사용 질문지 87-4, 87-5, 88-4, 88-5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성별: 면접조사용 질문지 87-6, 88-6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최종학력: 면접조사용 질문지 87-7, 87-11, 88-7, 88-11번(어머니, 대

- 리응답 가능)
- 건강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87-8, 87-9, 88-8, 88-9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수입활동여부: 면접조사용 질문지 87-10, 88-10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결혼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1~1-1번, 34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동거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63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9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직업/종사상 지위: 면접조사용 질문지 12~13번, 36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1-22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취업/학업 상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2번, 3~11번(취업모), 17~24번(학업모), 25~29번(미취업/학업모), 35번(배우자), (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국적/귀화여부: 어머니대상 질문지 61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18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종교: 어머니대상 질문지 64번, 아버지대상 질문지 20번(어머니, 아버지, 대리응답 가능)
 - 아버지 근로/학업시간, 재택시간, 출퇴근/등하교시간: 면접조사용 질문지 37~38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7

1. 도구명: 가계경제요소
2. 해당 변인: 소득, 소비, 자산, 부채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85~97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 4차년도 변경사항 |
 - 월평균 가구소득을 근로(사업)소득, 이전소득, 자산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여 전체 소득의 합산을 가구총소득으로 계산하도록 함.
 - 월평균 가구지출은 응답자 가구에서 전체 자녀를 위한 소비성·비소비성지출을 질문한 이후, 패널 아동만을 위한 소비성·비소비성지출을

조사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8

1. 도구명: 가족생활사건(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2. 해당 변인: 가족생활사건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21~22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점수화 방식
 - '지난 1년간' 대상 가족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별로 경험여부를 질문함. 경험한 경우 1점으로 채점함.
 - 가족생활사건은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을 구분하여 조사함. 규범적 사건 16문항, 비규범적 사건 11문항, 총 27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규범적 사건 0~16점, 비규범적 사건 0~11점임.
 -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해 동안 가정의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의미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29

1. 도구명: 주거 환경 특성
2. 해당 변인: 주택 소유형태, 주택 유형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 주택 소유형태: 면접조사용 질문지 100~10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주택 유형: 면접조사용 질문지 102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0

1. 도구명: 기초생활수급 여부
2. 해당 변인: 사회보장지원 수혜 여부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98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1

1. 도구명: 육아지원 정책 수혜
2. 해당 변인: 재정지원 수혜, 서비스지원 수혜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 재정지원 수혜: 면접조사용 질문지 81번, 99번 중 ① 현금지원 (1)~(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 서비스 지원 수혜: 면접조사용 질문지 26번 (1)~(11), 99번 중 ② 현물지원 (4)~(1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2

1. 도구명: 육아지원 서비스
2. 해당 변인: 주양육자,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미이용 이유, 최초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이유,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계획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58~61번, 61-1~6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3

1. 도구명: 개인 대리양육자 및 서비스 특성
2. 해당 변인: 개인 대리양육자의 인구학적 특성, 관계 및 알게 된 경로, 이용기간, 이용시간, 이용비용, 동거여부, 개인 대리양육 이용만족도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62~7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4

1. 도구명: 육아지원기관 및 서비스 특성
2. 해당 변인: 육아지원기관 유형, 육아지원기관 입지조건, 육아지원기관 이용기간, 이용시간 및 이용비용, 등하원 시간, 육아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여부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72~80-1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5

1. 도구명: 육아지원기관 외 서비스 유형 및 특성
2. 해당 변인: 육아지원기관 외 프로그램 이용 여부, 프로그램 유형(내용), 진행방식, 장소, 학습지 이용 여부, 교사 유무,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기간, 이용비용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조사용 질문지 83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7

1. 도구명: 지역사회특성(일반적 특성, 물리적 특성, 육아관련 특성)
2. 해당 변인: 가구 소재지, 거주기간, 지역사회의 입지적 특성, 지역사회 내 가용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의 양육적절성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 또는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 어머니대상 질문지 31~39번, 면접조사용 질문지 108~117번(어머니, 대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8

1. 도구명: 육아지원정책 특성
2. 해당 변인: 정책의 방향,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어머니대상 질문지 11~13번(어머니, 대리응답 불가)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39

1. 도구명: 아동의 일과특성
2. 해당 변인: 낮잠여부, 낮잠시간, 수면시간, 아동의 하루생활시간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PAPI
 - 해당 질문지 및 문항번호(응답자): 면접용 질문지 48~52번(어머니, 대

리응답 가능)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41

1. 도구명: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2. 해당 변인: 수용·표현 어휘력 발달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수행검사
 - 점수화 방식
 - 각 문항에 1점씩 배점하여, 각 문항의 수행에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점수화함. 정답수행에 대해서 수용 어휘력, 표현 어휘력 각각의 원점수를 합산함.(원점수=최고한계선 문항번호 - 틀린문항수)
 - 각 원점수를 기준으로 등가연령 및 백분위점수 산출함.

4차년도 주요 도구프로파일 42

1. 도구명: 유아용 가정환경자극 검사(EC-HOME,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2. 해당 변인: 가정환경 특성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CAPI를 이용한 조사원의 관찰, 면접 혹은 관찰과 면접.
 - 점수화 방식
 - 본 연구에서는 Caldwell과 Bradley가 2003년에 개정한 EC-HOME을 사용함. EC-HOME은 만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자극 검사로서, 55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하위척도로 구분됨.
 - 8개의 하위 척도는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극', '다양성', '수용성', '모방학습'으로 구성됨.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기록함.

4. 비교

-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EC-HOME의 하위척도별 재검사 신뢰도는 .76~.97임(김정미·곽금주, 2007).
- HOME을 개발할 당시 사용한 표집에서도 하위척도의 점수와 총점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고 왼쪽으로 편포되었는데(Caldwell과 Bradley, 2003, p. 18), 본 연구의 조사결과도 그러함.

기관용 주요 도구 프로파일 1

1. 도구명: 교사 자기 효능감(TSES, Teacher Self-efficacy Scale)

2. 해당 변인: 교수능력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교사용 Web설문지
- 점수화 방식
 - Bandura(2006)는 TSES를 10점 평정척도(0-100까지 10단위)로 소개하였으나 김연하·김양은(2008)이 도구를 타당화하면서 변용한 5점 척도 형식을 사용함.]
- 본 연구에서는 Bandura(2006)의 TSES(Teacher Self-efficacy Scale)를 김연하·김양은(2008)이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함. TSES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교사로서의 능력을 얼마나 유능하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30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됨. 본 연구에서는 교수능력 하위요인을 사용함.

내용	문항 수
유아교육기관 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	2
교재교구 확보 및 활용에 대한 능력	1
교수 능력	9
유아를 훈육하는 능력	3
유아들의 학습에 얼마나 부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능력	3
유아들의 효율적 학습을 위하여 지역기관들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	4

기관용 주요 도구 프로파일 2

1. 도구명: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2. 해당 변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교사용 Web설문지
- 점수화 방식: PIPPS는 4점 척도인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PIPPS는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의 3가지 하위범주로 나뉘는데, 문항 구성으로는 놀이방해 하위 범주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에 관한 내용이고, 놀이 상호작용 하위 범위는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 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범주	내용	문항 수
놀이 방해	공격적 행동과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차원	13
놀이 상호작용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 통제, 언어적 주장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	9
놀이 단절	놀이 중 위축되고,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 행동	8
기타		2

기관용 주요 도구 프로파일 3

1. 도구명: 교사-유아 상호작용(ECOI, 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

2. 해당 변인: 교사와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3. 도구 특성

- 자료수집 방법: 교사용 Web설문지
- 점수화 방식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라는 3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이며,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교사가 각 문항을 읽고,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평가 척도임.

연구보고 2012-33

한국아동패널 2012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한학문화 02) 393-633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31-2 93330